

신규 자원 봉사자

교육 자료집

Ⅰ 2011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Ⅰ



2011년도 자원봉사 교육생 일정

I. 이론교육

순번	강의주제	일시	시간	강사	비고
1	인천지역의 선사문화	1.29(토) 14:00~16:00	2	김석훈	
2	인천의 고인돌 문화 - 강화도를 중심으로	1.29(토) 16:00~18:00	2	강동석	
3	미추홀의 위치에 대하여	2.12(토) 14:00~16:00	2	김상열	
4	삼국시대의 인천 -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2.12(토) 16:00~18:00	2	백종오	
5	강도시기 고려의 문화	2.26(토) 14:00~16:00	2	김형우	
6	유적을 통해 본 강도시대	2.26(토) 16:00~18:00	2	이희인	
7	7대 여항과 고려시대의 인천	3.5(토) 14:00~16:00	2	강옥엽	
8	조선시대 인천의 행정체계	3.5(토) 16:00~18:00	2	남달우	
9	조선시대 인천의 교육기관	3.12(토) 14:00~16:00	2	연창호	
10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인천의 인구	3.12(토) 16:00~18:00	2	임학성	
11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3.19(토) 14:00~16:00	2	송미경	
12	국가의 보장지 강화	3.19(토) 16:00~18:00	2	배성수	
13	근대 열강의 침략과 인천의 개항	3.26(토) 14:00~16:00	2	"	
14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인천	3.26(토) 16:00~18:00	2	서민교	
15	개항 후 근대문물의 유입과 조계 설정	4.2(토) 14:00~16:00	2	황은수	
16	개화기~일제강점기 인천의 산업과 경제 -철도를 중심으로	4.2(토) 16:00~18:00	2	견수찬	
17	일제강점기 인천의 도시 발전과정	4.9(토) 14:00~16:00	2	추교찬	
18	목공예(목가구)	4.9(토) 16:00~18:00	2	황지현	
19	고려초기 청자 및 녹청자	4.16(토) 14:00~16:00	2	이종민	
20	토기의 이해	4.16(토) 16:00~18:00	2	박진영	
21	고려시대 청자(상감청자포함)	4.23(토) 14:00~16:00	2	장남원	
22	분청사기	4.23(토) 16:00~18:00	2	안성희	
23	조선시대 백자(청화백자포함)	4.30(토) 14:00~16:00	2	방병선	
24	불상의 이해	4.30(토) 16:00~18:00	2	신은영	
25	조선시대 회화사(초기~후기)	5.7(토) 14:00~17:00	3	김현권	
26	조선말기 회화사	5.14(토) 14:00~16:00	2	윤현진	
27	한국 근대회화사	5.14(토) 16:00~18:00	2	이현아	
28	금속공예(범종, 은장도 포함)	5.21(토) 14:00~16:00	2	김윤정	
29	설문조사 및 실무교육 공지	5.21(토) 16:00~17:00	1	(박물관)	
	합계		58		

II. 실무교육 및 시연평가

○ 실무교육

- 교육기간 : 5. 23(월) ~ 7. 2(토)
- 교육내용 : 전시실 유물해설과 체험교실운영 교육

○ 1차 시연 및 평가

- 시연 및 평가기간 : 7. 11(월) ~ 7. 23(토), 평일 및 토요일
- 시연내용 : 전시실 유물코너 및 체험프로그램 중 선호주제 신청 후
시연 실시
- 평가방식 : 박물관-자원봉사자 공동 평가단 구성 후 시연 성적 평가

III. 워크샵

○ 수습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답사

- 워크샵일시 : 2011. 7. 30(토) 09:30~16:00 예정
- 인천지역 관내 박물관 또는 문화유적

IV. 수습봉사

○ 수습 자원봉사자 활동

- 수습봉사기간 : 2011. 8월 ~12월
- 수습분야 : 유물해설, 체험교사, 간행물 편집, 영상기록 등
- 의무 수습봉사 시간 : 40시간 이상

V. 2차 시연 및 평가

○ 2012년도 위촉분야 시연 및 평가

- 시연 및 평가기간 : 12월 중
- 시연내용 : 11월 중 내년도 위촉분야 신청 후 심화된 시연 및 평가
- 평가방식 : 박물관-자원봉사자 공동 평가단 구성 후 시연 성적 평가

▼ 2차 평가 후 위촉자 선정 평가단회의에서 종합평가 후 위촉 및 유급 결정

※ 실무교육 및 시연평가의 세부일정은 추후공지

차례 / Contents



▶ 인천지역의 선사문화	7
▷ 인천의 고인돌 문화 - 강화도를 중심으로	23
▶ 미추홀의 위치에 대하여	37
▷ 삼국시대의 인천 -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61
▶ 강도(江都)시기 고려의 문화	87
▷ 유적을 통해 본 강도시대	99
▶ 7대 어항과 고려시대의 인천	111
▷ 조선시대 인천의 행정체제	129
▶ 조선시대 인천의 교육기관	143
▷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인천의 인구	163
▶ 인천 석남동 출토 복식	171
▷ 국가의 보장지 강화	181
▶ 근대 열강의 침략과 인천의 개항	193
▷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인천	207
▶ 개항후 근대문물의 유입과 조계 설정	221
▷ 개화기~일제 강점기 인천의 산업과 경제 - 철도를 중심으로	233
▶ 일제 강점기 인천의 도시발전 과정	251
▷ 한국의 목공예	257
▶ 고려 초기 청자 및 녹청자	275
▷ 토기의 이해	287
▶ 고려시대 청자(상감청자포함)	301
▷ 분청사기	315
▶ 조선시대 백자(청화백자포함)	323
▷ 불상의 이해	333
▶ 조선시대 회화사(초기~후기)	347
▷ 조선말기 회화사	367
▶ 한국 근대 회화사	379
▷ 금속공예(범종, 은장도 포함)	391

인천지역의 선사문화

김 석 훈
(영선고등학교)

인천지역의 선사문화

김석훈 (영선고등학교)

◆ 목 차 ◆

- I . 머리말
- II . 구석기 시대
- III . 신석기 시대
- IV . 청동기 시대
- V . 맺음말

I . 머리말

2000년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의 향토(지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고학적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해방이후 최대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천”은 종전까지 수도권의 그늘에 가려져 “주인없는 도시”로 인식되어 왔던 점을 탈피하고, 이제는 자라나는 2세대를 위한 애향적 분위기가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14년은 우리고장에서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따라서 인천을 방문할 국내·외 손님에 대해 인천의 내재된 향토색을 표출하며, 내고장의 자랑 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천지역의 정체성은 개항이후 개항장 같은 임해도시로서의 발전과정에서 특색이 나타나듯 바다와 연관성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일부로서 우리 고장의 밑뿌리가 되는 인천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구석기 시대

인간의 자연 극복력이 부족했던 선사시대, 그 중 구석기시대는 자연환경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였다. 특히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어우러진 장소에 동굴이나 물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던 구석기인은 사냥·어로·채집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이어갔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먹거리의 변화는 생과 死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이동의 계기를 제공하였던 셈이다.

태초의 인천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를 살핌에 있어, 먼저 인천지역에도 구석기 유물 및 유적은 존재할까? 더 밝혀질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중요한 환경 요소로 작용했던 현재의 황해 모습은 언제 형성되었을까?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인천지역의 구석기 시대에 대한 특징은?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유형은 동굴유적(cave site)과 해안가·강가의 한데유적(open site)으로 구별되는데, 동굴유적의 경우 동굴 자체가 집 역할을 하였고, 내부에서는 각 동물 뼈화석들이 출토되어 구석기인들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물가의 한데유적은 주변의 자갈돌을 이용하여 펜석기를 가공함으로써 그들의 석기 제작 기술은 물론 삶의 전반에 관한 단서를 파악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구석기 시대의 단일 유적은 찾지 못했지만, 지형상 해안가에서의 존재 가능성이 크며, 해안가에 접한 야산의 동굴이나 바닷가의 해식동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강화도 북부 일대는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기수역(汽水域)이며, 한강과 임진·예성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 인천지역 구석기 시대의 흔적은 무엇이 있을까?

구석기는 크게 격지(flake)와 몸돌(core)로 나뉜다. 격지는 연모로 쓰기 위해 큰 돌에서 떼어낸 조각이며, 몸돌은 격지를 만들고 난 나머지 돌을 말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전기 구석기는 돌의 가장자리 양쪽을 엇갈려 떼어 ‘S’자 모양의 휘임날을 만들거나 모루에 대고 때려 직접떼기의 거친 수법으로 다목적 연모를 만드나, 후기 구석기로 갈수록 간접떼기로 정교한 날을 가진 전문적 용도의 석기를 만들게 된다.

석기는 용도에 따라 주먹도끼·찍개와 같은 사냥도살용, 긁개·밀개의 부엌조리용으로 나뉜다. 인천지역에서 찾은 유물을 살펴 보자.

- ① 주먹도끼(Hand-axe) : 사냥용으로 분류되는데, 석재의 가장자리에 엇갈림 떼기를 베풀어 날카로운 날을 만들었으며,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암을 사용하였다. 영종도 송산 유적(중산동 해안가)에서 지표 채집하였다.
- ② 사냥돌(Bola-stone) : 사냥용 연모로서 돌을 공처럼 둥글게 가공하여 췌녕쿨과 같은 끈을 묶어 던져 먼 거리에 있는 짐승을 잡는 연모이다. 재질은 석영이며, 송산 유적에서 지표채집하였다.
- ③ 몸돌(Core) : 격지석기를 만들고 난 나머지 부분을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사냥돌과 같은 둥근 모습이다. 재질을 석영제이며, 삼목도에서 발견되었다.
- ④ 긁개(Side-scraper) : 격지석기로서 날 부분의 가장자리에 정교한 떼기를 베풀어 도구를 만들었다. 동물가죽 혹은 나무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부엌조리용 도구이다. 삼목도에서 발견되었다. 이밖에 강화군 오상리에서는 석영제 몸돌과 격지석기가, 장정리에서도 편석기가 출토된 바 있다.

이 도구들은 구석기 시대의 전형적인 편석기이며, 주변에 널리 산재된 암석을 이용해 도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주로 해안가 및 야산에서 찾아지고 있어 어로·사냥생활과 밀접한 당시 도구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이

구석기 유적을 찾는데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문학산이나 삼목도 발굴조사에서 구석기의 특징을 지닌 지층(고토양층)이 찾아져 유적이 있을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3. 인천지역에서 더 존재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인천과 주변도서의 조사 상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천과 가까운 해안지역인 경기도 화성군과 평택지역에서 구석기가 찾아지며, 충남 해역의 초락도·웅도·안면도·호도·빙도에서 몸돌 및 격지 석기와 함께 구석기 시대의 퇴적층이 확인되어 황해안 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의 존재에 확신성을 더해 준다. 현재 상황속에서 행정당국과 유관 학술 기관의 끊임없는 지원과 활동을 위한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4. 구석기 시대의 황해안은?

구석기 시대는 지질연대에서 신생대 제4기 갯신세(Pleistocene)에 해당한다. 이 시대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 발생하며, 우리 나라는 빙하가 덮은 흔적은 없고 빙하주변지역(periglacial area)으로 남아 있었음이 밝혀졌다.

빙하기에는 한국·중국·일본이 연륙(land-bridge)된 상태로서 걸어서 왕래가 가능하였다. 마지막 뷔름빙하기는 지금부터 약 1만년 전에 끝나며, 점차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바다의 기원을 이룬다.

황해의 경우 빙하기에는 육지로, 간빙기에는 현재와 비슷한 바다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최후 간빙기로 추정되는 12~13만년 전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적어도 3m 이상 높았으며, 그 이후 점차 빙하가 도래하면서 해수면의 하강과 한랭하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사막과 황토화 작용이 중요한 환경 변화로 밝혀지고 있다.

빙하기에는 현재의 해수면 보다 낮은 지역에서 이동과 생활이 있었을 것이며, 당시의 흔적은 수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Ⅲ. 신석기 시대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약 1만년전에 끝남과 동시에 빙하가 물러가고, 따뜻한 자연환경 속에서 중석기·신석기 시대가 시작된다. 이 때 부터를 후빙기라 부른다. 현재 중석기 시대의 흔적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으나, 황해 섬 지역에서는 신석기인이 남긴 삶의 흔적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구석기 시대가 켜(타제)석기와 이동 생활을 특징으로 했다면, 인천 섬 지역의 신석기인들은 간(마제)석기와 토기의 사용이 공통적 요소이다.

인천지역에서 신석기 유적이 확인된 섬은 경기만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백령도·연평도·모이도·당도·강화도·석모도·주문도·불음도·우도·덕적도·소야도·굴업도·백아도·울도·문갑도·장봉도·시도·신도·모도·용유도·삼목도·영종도·작약도·영흥도·선재도·대부도·오이도 등 대부분의 섬에서 찾아지며, 모두 130여 곳에서 확인되었다.

섬지역의 고고유적은 지리적 여건상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곳이 많지만, 최근 지자체의 실시와 함께 개발(매립)로 인한 형질변경과 주민들의 무관심이 어울려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인천 내륙지역의 경우도 송도·동막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구두로 전언되고 있어 아쉬움만 남는다. 섬지역도 더 훼손되기 전에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나타난 섬지역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1. 섬지역에 신석기 유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먹거리(어·패류)가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천 중심의 경기만 일대는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로서, 어·패류가 자랄 수 있는 바다환경을 갖춘 식량자원의 寶庫이기 때문이다. 갯벌 형성의 유리한 점은 이 지역일대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약 8~9m에 이르는 간만의 차는 한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물질을 바닷가에 차분히 가라앉혀 갯벌을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져 많은 어류가 자랄 수 있는 해수공간을 이루고 있고, 수심도 깊지 않아 연해에서는 수중 어로생활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내륙과 섬사이에 거리가 매우 가까워 신석기인이 섬지역으로 유혹되었던 것이다.

특히, 갯벌은 선사시대 인간의 활동 범위속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어떤 방법으로 바다를 건넌을까?

인천지역의 경우 가까이는 영종도부터 멀리는 덕적군도에 이르기까지 섬마다 유적이 분포하는데, 동력이 없던 신석기 시대에 어떻게 이동하였을까가 궁금증을 더해간다. 유사한 관련 자료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아직 황해안에서는 선사시대에 배와 관련된 유물은 찾지 못했으나 함북 서포항 유적에서 뼈로 만든 노(櫓)가 찾아졌다. 그리고, 이웃 중국의 경우 기원전 6000년 전에 해당하는 하모도 유적에서 나무노가 여러 개 찾아져 당시에 배를 이용했다는 확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몇 년전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중국(원나라)배가 갯벌 속에 묻혀 남아 있었듯이, 당시의 배도 어떤 형태로든지 흔적의 일부는 남아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유물의 보존 환경이 양호한 해양 토탄층의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아마도 통나무배나 뗏목(혹은 떼배)을 만들어 연안항해 기법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며, 오랜 경험에 의해 해류보다 조류의 흐름을 적절히 이용했을 것이다. 가까운 섬 간의 경우는 썰물 때 드러난 갯벌(특히 모래펄갯벌)을 통해 건넌 것이다.

3. 삶의 흔적(유적)은 어떻게 남아 있을까?

황해 섬지역의 경우 유적의 형태는 크게 2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한 장소에서 여러 시기에 걸친 삶의 흔적(文化層)이 겹겹이 층위(層位)를 이루며 나타나는 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유적이며, 다른 하나는 패각이 쌓여 있거나 경작지에 널려 있어 형성된 조개더미(貝塚) 유적이다. 지금까지 인천 섬 지역의 경우 조개더미 유적이 약 60여 곳, 유물포함층 유적이 20여 곳으로 조개더미 유적이 훨씬 많다.

유물포함층 유적의 대표적인 예는 영종도 송산유적이며, 조개더미 유적

은 시도 속이·백령도 말등·영흥도 소장골·덕적도 진리 등 각 섬마다 산재되어 있다.

다음, 섬지역의 신석기인들은 어느 곳을 택하여 살았을까? 유적들이 분포하는 위치와 주변 지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물포함층의 경우 만(灣)에 형성된 사주(砂洲) 혹은 사구(砂丘) 지형에 많이 형성되며, 또한 해안가에 평평하게 펼쳐진 대지(주로 경작지로 이용)에서도 그 흔적을 살펴 볼 수 있다.

조개더미도 해안가 혹은 해안가로 뻗은 산자락(串)에 형성된 경우가 많다. 물론 바다에서 떨어져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으로 뒤로는 산이 둘러싸여 추운 바람을 막아주며, 앞으로는 갯벌 그리고 바다와 접하고 있으나 만(灣) 지형의 특성상 외해로부터의 물난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적의 높이는 해발고도 약 10m 이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현대 사람들이 보아도 아늑한 지형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대부분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이 문제는 발굴된 유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옷에 대한 자료는 보존의 어려움으로 자료를 찾기란 힘들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예가 드물며, 짐승의 가죽이나 나뭇잎 등을 이용하였을 것이며, 송산유적에서 출토된 가락바퀴(방추차)는 직조와 관련시킬 수 있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식량은 유적의 성격에서 나타나듯 조개더미(貝塚)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서 일부는 알 수 있다. 조개더미의 구성을 보면 인천 섬지역의 경우 90% 이상이 굴(石花)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굴이 풍부하여 주된 식량자원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류 및 기타 식량의 구체적 이름은 발굴 유적이 증가함으로서 밝혀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눈들유적에서 씨앗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나 현재 분석중에 있다.

해안가 유적인 영종도 송산유적이나 삼목도 운서동유적에서 다수의 화덕자리가 찾아졌는데, 그 용도는 아마도 이들을 조리하기 위한 시설이었을 것이다.

집터는 경기만 지역중 영종도 운서동 눈들유적에서 모두 4기가 발굴되었다. 형태는 원형 내지 말각방형이며, 모두 땅을 파고 만든 움집이다. 바닥은 단단히 다지기 위해 점토를 굳혀 처리하였고, 기둥을 세우기 위한 기둥자리도 확인되었다.

집터 내부는 도구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구덩(竪穴)과 취사나 난방을 위해 만든 화덕자리가 확인되었다.

의식주 문제는 발굴유적의 절대적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삶의 모습이 선명해 질 것이다. 또한 조개더미 유적을 통해 해당 유적에서 살았던 기간, 계절, 이동경로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5. 신석기시대의 흔적(유구), 유물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유구의 종류는 화덕자리, 집터, 돌무지, 움(저장구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확인된 화덕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화덕자리는 불을 피웠던 곳이다. 역할은 취사나 난방, 밤에는 조명의 역할을 하지만, 인천지역의 경우(영종도, 삼목도유적) 대부분은 집터가 없이 집중되어 있어 주된 용도는 취사였을 것이다. 단지, 바닷가이면서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조개더미나 여타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며, 앞으로 해결할 숙제이다.

화덕의 모양은 원형 내지 타원형으로 주변의 모난돌을 깔아 만들었고, 크기는 지름이 약 1m 안팎의 것이 가장 많다.

화덕주변에서는 숯과 불에 그을린 돌과 모래가 섞여 있으며, 내부에서는 토기조각들이 출토되기도 한다.

유물은 발굴조사나 지표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토기조각들이 출토된다. 아마도 신석기시대 이 지역 주민에게는 토기가 생활의 필수품이었던 것 같다.

토기의 생김새는 한반도의 경우 각 지역마다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는데, 인천 섬지역의 경우 반계란형(혹은 포탄형)으로 곧은 입술에 뽕족한 바닥을 하고 있다.

토기의 크기는 입술 조각으로 보아 암사동 유물 같은 대형토기는 없으며, 입술지름이 20cm 정도의 소형토기가 많이 차지한다. 제작은 주변의

점성이 강한 진흙과 모래알을 혼합해 사용하였으며, 그릇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보강제로서 활석·운모·장석과 같은 광물을 고루 섞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작수법은 질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소형이라는 점과 그릇의 단면을 관찰해 보면 손빚기(手捏法) 내지 테쌓기(輪積法)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릇 표면에 새겼던 문양은 주목적이 장식이지만, 작업을 하기전 그릇 부위별이나 공간 배치에 따라 머리속 구상을 먼저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문양은 당시 사람들의 사유관념을 나타내주는 좋은 자료이나, 대개의 경우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경향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문양 역시 각 지역별 전통과 보수성이 강한 흔적으로 보인다.

인천 섬 지역의 경우 부위별로 문양을 보면 입술부분은 짧은 빗금무늬(短斜線文), 몸통부분은 고기뼈무늬(魚骨文), 바닥은 무늬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문양은 새겨진 속성을 분류하여 유적의 연대를 가늠하는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석기는 토기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고, 수적인 면에서 간석기 보다 펜석기 출토유적이 많은 편이다. 유적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돌화살촉이며, 갈돌·그물추·돌도끼·숫돌·펜석기 등이 출토된 바 있다.

6. 유적의 연대는 어느 정도일까?

연대측정방법은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숫자료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절대연대측정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표준 유적의 유물을 기준으로 비교 유적과 유물양식을 서로 비교하여 선후관계를 측정하는 법(상대연대측정법)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절대 연대측정 자료는 송산유적의 경우 C¹⁴ 측정 결과 지금부터 5,080~5,365년 전(신석기 중기)으로 측정되어 인천 섬 지역에서는 가장 오랜 연대가 검출되었다. 시도 조개더미에서도 약 3,100년 전(신석기 후기) 안팎으로 검출된 바 있다.

상대연대측정 방법에 의해 눈들유적은 신석기 중기~후기, 삼목도 유적은 신석기 후기로 비정되며, 기타 지표채집에 의해 밝혀진 유적도 거의 대부분 신석기 후기(약 3,000년전)로 가늠되고 있다.

앞으로 신석기 유적은 내륙에서 찾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섬지역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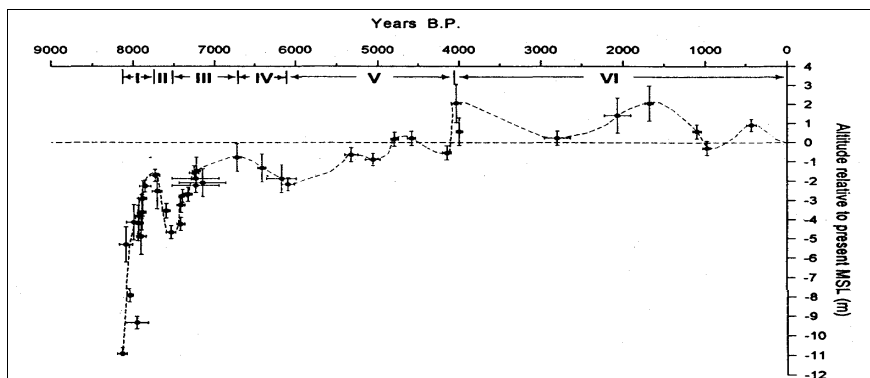
큰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기록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7. 신석기 시대의 황해안은?

마지막 빙하가 약 1만년 전에 후퇴하고 후빙기가 되면서 현재와 비슷한 자연 환경을 이루게 된다. 빙하기 동안 바닥을 드러내던 황해는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고, 낮은 지역부터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황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해안가 생활을 주로 하던 신석기인은 해수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했고, 그 변화에 맞춰 선사인의 살림터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듯 해수면 변동은 선사시대 연구에 한 몫을 한다. 신석기 시대 황해안이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충남 태안반도 일대 가로림만의 해수면 변동을 단계별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 참고해 보자.

가로림만 조간대의 해수면 변동 곡선은 <표 1> 과 같다.



<표 1> 가로림만의 해수면 변동 곡선

<표 1> 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5,000년 전을 조금 지나 현재의 해수면에 이르렀고, 그후 현재의 해수면 보다 2m 가량 상승했다가 약 1000년이 지난 4,050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고학적 유적에서 나타난 각종 자료를 통해 해수면 변동을 밝힌 예도 있다. 경기도 일산의 선사유적 조사에서 실시한 규조류 분석에서도 지금부터 6,000~5,000년 사이에 해진극상기(海進極上期)가 있었고, 지금부터 $3,050 \pm 80$ ~ $2,460 \pm 70$ 년 사이에 현재의 해수면 보다 적어도 5m 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충청도·전라도 해안 즉 서남부 해안 지역의 지형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지금부터 6,000~3,000B.P 사이에 현재 해수면 보다 2~3m 정도 높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해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IV. 청동기 시대

1.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 특징은 무엇일까?

이 시대는 한반도의 경우 보통 기원전 10~4세기에 해당하며, 처음 금속제 연모 즉 청동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동제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청동검이며, 동검과 함께 간석기·민무늬토기·그리고 무덤으로서 고인돌(支石墓)·돌널무덤(石棺墓)·독무덤(甕棺墓) 등이 대표적 유적·유물이다.

경기만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기 시대의 특징적 요소는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군이며, 최근에 인천 서구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집터가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에 새로 발굴된 집터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인천의 청동기 유적은 어디에 위치할까?

이 시대의 집터는 일반적으로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그러나 경기만지역의 경우 내륙보다는 다양한 입지조건을 보이는데, 낮은 구릉지대는 물론 해안가에도 입지함이 밝혀졌다.

입지요인은 생계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며, 구릉과 해안 즉 육지와 바다를 이용한 광역화된 생업 경제 체제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즉, 구릉에 위치한 유적이 한강수계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김포평야가 펼쳐져 있어 한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경기만의 영종도 송산 유적이거나 도서지역의 고인돌을 고려하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대표적인 유적은 낮은 구릉에 위치한 원당동·동양동·검단동 유적이

있고, 해안가 유적은 영종도 송산 유적과 고지형상 해안가 구릉지에 해당하는 문학산 유적이 있다.

특이한 점은 청동기유적이 발견되는 구릉지형에서 대체로 구석기 유적이 같이 찾아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생활·생계 양식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물을 통한 상세 분석이 필요하며, 해안지역의 경우 청동기 유적과 신석기 유적이 같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결국 내륙처럼 동굴이나 강가에 입지할 수 없는 인천지역의 경우 생계에 필요한 경제활동이 유리한 지점을 중심으로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시대별 입지유형이 구별되는 내륙에 비해 경기만의 지역성을 띠고 볼 수 있다.

3. 인천지역의 청동기 유적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인천지역의 집터는 대부분 움집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장방형이 70%로서 가장 많다. 이것은 가옥구조를 결정짓는 속성으로서 한강유역의 특징을 보여준다.

장방형의 긴 변은 약 5~6m 정도, 짧은 변은 2~3m 정도가 평균적이며, 동양동 집터의 경우 약 12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움의 깊이는 20~40여cm로서 신석기 시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일반적인 움의 깊이는 60~30cm에 해당하고 있어 다른 청동기 유적과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

바닥은 생토를 그대로 쓰거나 점토다짐을 하였으며, 화덕의 설치여부는 자료의 한계상 알 수 없다.

특히, 동양동유적의 경우 3기가 확인되었는데, 화덕시설이 없다는 점, 출토유물의 유사성(이중구연토기·석촉·석부·지석 등) 등이 상사점이고, 상이점은 1호가 2호에 비해 2배 정도의 크기라는 점이다. 발굴자도 지적했듯이 2호는 집터의 기능 보다 석기제작지(공방지, Factory site)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지만, 필자는 1호의 경우도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집터 모두 연중 거주에 필수적인 화덕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며, 추웠던 시기를 제외하고 계절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한 공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두 집터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세분화된 1·2차 가공

시설의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2호 집터의 경우 망치돌과 다수의 석편 조각이 출토되었고, 1호 집터는 찰절도구가 출토되는 차이점으로 볼 때, 2호 집터에서 1차 가공을 한 다음 더 넓은 공간에서 마무리 석기 제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보고서 미간, 찰절도구 등 석기 유물에 대한 상세설명 부족 등으로 제한점이 있어 향후 구체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4. 인천지역의 청동기 유적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인천지역에서 발굴된 집터 수에 비해 출토유물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토기는 이중구연토기·무문토기가 있으며, 간석기로는 석촉·석창·반달돌칼·돌방추차·돌끌·달도끼 등이 있다. 특히, 달도끼는 環狀石斧 또는 바퀴날도끼라 하며, 중심 구멍에 나무를 끼워 사용한 무기의 일종인 석기이다. 중심부의 구멍 부위가 두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져 날카로운 날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 유물은 북부지방의 고인돌에서 주로 발굴된 바 있으며, 팽이형 토기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집터(원당동 4구역 14·17호)에서 2점이 발굴되었다는 주목할 일이며, 집터 내 토기의 형태도 팽이형 토기인지의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팽이형 토기는 강화도 집터 유적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바 있다.

달도끼의 용도에 대해서는 출토지가 고인돌이 아니라는 점과 희귀성을 고려할 때 집단간의 방어 목적은 물론 집단 내 계층발생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천지역의 복합사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집터의 공간적 위치·유물의 구성을 비롯한 주변 유적과의 관련성을 통해 비교고찰이 필요하다.

5. 인천지역의 청동기 유적은 어느 시기에 해당할까?

청동기 시대의 유일한 편년자료는 불노동 3구역 청동기 시대 집터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BC. 730~470(보정연대)를 얻었다. 이 연대는 주변

지역을 이해하는 상대편년자료가 될 것이며, 필자는 강화도 고인들의 상한연대를 BC. 8~7로 고찰한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돌널무덤의 형식이 이른 시기이고, 문학산 유적이 전기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편년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현재 인천지역은 옹진군 지역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단일행정구역으로 가장 큰 면적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손길이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더 고고학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들을 통한 연구의 심화와 정리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토대로 인천의 역사는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천지역의 선사문화는 바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밀뿌리가 되는 섬지역 및 해안지역 중심의 선사분야야말로 정체성 구명작업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인천의 고인돌 문화

- 강화도를 중심으로

강 동 석

(문화재청)

인천의 고인돌 문화

- 강화도를 중심으로

강동석 (문화재청)

◆ 목 차 ◆

- I . 인천의 고인돌 분포현황
 - 1) 강화도 지역
 - 2) 인천내륙
 - 3) 기타 도서지역
- II . 강화도지역 고인돌의 입지와 분포 특징

I . 인천의 고인돌 분포현황

1) 강화도 지역

강화도 지석묘는 일제강점기 이래 몇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지석묘 축조집단의 성격과 지석묘의 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더욱이 1990년대 초에 비롯된 각종 분포조사는 지석묘의 입지와 분포, 형식과 구조, 규모 등에 대한 다양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강화 지석묘 축조집단의 사회성격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강화 지석묘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남부지역에서 확인된 2개의 소군집을 제외하고 대부분 북부지역에 밀집 분포된 양상을 보인다. 산지를 중심으로 분포지역을 나누면, 크게 고려산 일대의 삼거리·고천리·부근리·망월리

지석묘군과 별립산-별악봉 일대의 고산리지석묘군으로 구분된다.

① 고려산일대의 지석묘군

고려산은 강화도를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여러 산지 중 하나로, 봉천산·별립산과 함께 강화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산의 남쪽은 혈구산과 연결되어 있어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북쪽산록은 능선들 사이로 곡간대지와 선상지가 발달해 있다. 고려산일대의 지석묘들은 대부분 북쪽산록과 기슭에 분포하고 있으며, 삼거리·고천리·부근리·오상리·망월리 지석묘군 등 모두 5개의 지석묘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거리지석묘군은 강화도 내의 여러 군집 중 가장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모두 30기의 지석묘가 분포하며, 4개의 소군집과 개별분포양상을 보이는 지석묘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군집은 2~8기의 지석묘들이 개별분포를 보이며 산기슭과 산사면, 능선 등에 축조되었는데, 산기슭에 입지하는 지석묘의 수가 가장 많으며, 능선 상에도 7기가 입지하고 있다. 능선에 입지하는 지석묘는 대부분 북방식지석묘라는 특징을 보인다. 소군집 내의 지석묘 형식은 개석식과 북방식 지석묘가 혼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석식 또는 북방식이 각각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삼거리 지석묘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67년에 국립박물관에 의해 한차례 이루어졌다. 당시 조사는 소동부락의 지석묘군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강화도의 북방식 지석묘의 축조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발굴조사였다. 조사결과, 지석주변과 묘실바닥에서 작은 할석들을 깔아 지석을 보강하였으며, 묘실내부도 마찬가지로 할석들이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음이 밝혀졌다. 유물은 마제석촉 4점과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지석묘 주변에서도 방추차와 유경식석검이 출토되었는데, 이 석검은 서북한 지역에서 각형토기와 공반되는 유물로 소동 부락지석묘와 인접한 지역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각형토기와 함께 서북한지역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고천리 지석묘군은 고려산(436m) 정상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산마루를 따라 축조된 군집이다. 강화도의 대부분 지석묘는 능선이나 산기슭, 평지

또는 구릉에 분포하지만, 이 지석묘의 경우 해발 250~300m의 산마루에 입지하고 있어 다른 지석묘군과 차별성을 보인다. 이 지석묘군은 20기의 지석묘가 3개의 소군집을 이루고 있다. 산마루 남쪽의 약간 경사진 면에 위치한 소군집은 북방식 2기와 개석식 1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방식 지석묘 중 하나는 묘실의 단벽이 유실되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삼거리에서 고려산으로 오르는 등산로에 위치한 소군집은 가장 많은 지석묘가 분포하는데, 북방식 9기, 개석식 2기가 축조되어 있다.

고천리지석묘군은 북방식이 16기, 개석식이 4기로 북방식의 비율이 높으며, 입지와 분포 면에서 볼 때 삼거리 지석묘의 축조집단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 비록 고천리지석묘군이 삼거리와 오상리 지석묘군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지만, 삼거리 지석묘가 분포하는 능선과 연결되어 있고 모두 능선과 산마루라는 조망권의 확보가 유리한 곳에 지석묘가 축조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한 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망월리지석묘군은 2001년에 수목의 간벌(間伐)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여기에서 확인된 지석묘는 북방식이 대부분이며, 크게 두 개군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하나의 군집은 곡간에 형성된 소하천과 인접한 완산사면에 위치하는데, 개석을 추정되는 석재와 묘실의 장벽 등이 노출되어 있다. 이 곳에 분포하는 지석묘의 수는 약 10여 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의 소군집은 인접군집과 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민묘 조성과정에서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묘실의 장벽이 남아 있고, 주변에 개석으로 보이는 석재들도 산재해 있다.

오상리 지석묘군은 고려산의 남서쪽 산사면과 구릉에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군으로 3개의 소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수를 보이는 군집은 선문대 고고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이 군집은 얇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10기의 북방식 지석묘와 2기의 개석식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중 북방식 지석묘 10기가 발굴되었다. 조사결과, 지석묘의 하부구조는 ‘표’자 형태이고, 장축방향은 대부분 북동-남서

방향을 이루고 있었다. 묘실과 주변에서는 각형토기편을 비롯하여 마제석축, 환상석부, 관옥, 마제석검편, 반월형석도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려산 일대에서 삼거리지석묘군 다음으로 가장 분포수를 보이는 곳은 부근리지석묘군이다. 이 지석묘군은 하점면 부근리와 송해면 상도리·하도리에서 확인된 28기의 지석묘들인데, 주로 2~5기로 구성된 지석묘들이 소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부근리지석묘군은 사적 제137호와 같이 평지에 축조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구릉이나 산기슭과 같은 지석묘 축조집단의 생활공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체로 개석식 지석묘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근리지석묘군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고려산과 봉천산을 잇는 좁은 평지에 축조된 강화지석묘(사적 제137호)로서 남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북방식지석묘이다. 묘실은 판석 두 매를 놓고 단벽 또한 각각 한 매의 판석을 이용하여 막은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개석은 장축 6.5m× 단축 5.2m× 두께 1.2m의 크기로 강화도 내에서도 가장 큰 지석묘이다.

② 별립산-별악봉 일대의 지석묘군

별립산과 별악봉은 강화의 최북단에 위치한 산지로 고려산과 마찬가지로 강화도를 동서로 횡단하고 있다. 간척이전 지형을 보면, 고려산과 별립산-별악봉은 현재 사적 제137호인 강화 지석묘가 입지한 좁은 평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 일대에서는 모두 42기의 지석묘가 발견되었는데, 주로 별립산과 별악봉 사이의 구릉성 산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별립산 남록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분포한다.

먼저 교산리지석묘군을 살펴보면, 교산리 지석묘군은 별악봉(167.3m)과 별립산(399.8m) 사이에 형성된 구릉성 산지의 능선과 산기슭에 입지하고 있다. 이 군집에서는 모두 28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는데, 삼거리 지석묘군과 함께 강화도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이고 있다.

교산리 지석묘군은 7개의 소군집과 개별분포를 보이는 5기의 지석묘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소군집들은 구릉과 산기슭, 능선상에 분포하고 있는데, 개석식 지석묘로 이루어진 소군집들은 대개 구릉과 산기슭에 분포하는 반면, 북방식 지석묘는 해발 100m이상의 전망이 좋은 능선 상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교산리 지석묘군의 형식에 따른 입지분포, 밀집도는 삼거리 지석묘군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별립산-별악봉 일대에서 밀집된 양상을 보이는 교산리 지석묘군과 다르게 별립산 남쪽에는 1~2기의 지석묘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분포하고 있다. 지석묘들은 모두 간척평야와 접한 해발 20m 내외의 낮은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 간척이전에는 해안과 인접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길상산 일대의 지석묘

길상산(해발 320m)은 강화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산지로서 조선 중기까지 강화본도와 분리되어 별도의 섬을 이루고 있었다. 길상산 일대의 지석묘는 구제발굴조사에 앞서 진행된 지표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강화도에서 조사된 지석묘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석묘는 길상산의 동북쪽에 자리한 선두리의 작은산뒤 마을에서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3기~9기의 소군집을 이루고 분포하고 있다. 모두 20여 기가 발견되었다.

2) 인천내륙

최근까지 인천 내륙지역에 알려진 대표적인 지석묘는 시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대곡동지석묘군과 학익동·주안동·문학동지석묘 등이었으며, 강화도에 비해 분포수나 밀집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대곡동지석묘군에 대한 본격적인 지표조사가 실시되면서 강화도 지석묘군과 비교되는 지석묘 축조집단이 인천 내륙지역에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 내륙지역의 지석묘 밀집지역을 살펴보면, 크게 문학산과 가현산 일

대로 나눌 수 있다.

① 문학산 일대의 지석묘

문학산 일대에는 학익동에 7~8기, 주안동에 2기, 문학동에 1기가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1953년에 발행된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에 의하면 청학동에도 고인돌 1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학익동고인돌 2기, 주안동고인돌 1기, 문학동고인돌 1기뿐이다.

학익동지석묘는 모두 7~8기 정도가 있었으며, 몇 기씩 무리를 이루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는 1927년 이래 몇차례 진행되었다. 최초의 조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3기가 발굴조사되었다. 모두 북방식이었으며, 지석묘 내부에서 무문토기편과 석촉, 석도,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이후 1927년의 자료에 의하면 경성대학에서 지석묘 3기를 발굴한 후 2기를 복원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한 차례 더 발굴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석부와 같돌 등 다수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을 보면, 학익동지석묘는 일본인의 인천지역 거주 또는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일찍이 주목받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지석묘군은 소년형무소가 들어서면서 1기만 남았고 1998년에 동일부지에 남아 있던 북방식지석묘 1기 더 발굴되어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모두 이전 복원되었다.

한편 주안동지석묘는 1956년 『仁川郷土史料』에 의하면, 3기의 지석묘가 있었다고 전하지만, 사진자료를 통해 볼 때 자연암반으로 추정되며 완전한 형태의 지석묘는 사미부락에 있었던 2기의 지석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957년 국립박물관과 이화대학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단벽을 갖춘 북방식지석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문학산일대에는 문학산 서쪽 도천현 주변에 문학동지석묘가 있었다. 1962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현재 인천 수봉공원에 상석만 이전된 상태이다.

이처럼 문학산일대에 분포하고 있었던 지석묘 중 원래 위치에 있는 것은

한 기도 없으나, 문헌상에 나타난 지석묘 수는 모두 12기 정도로 보인다. 이들 지석묘는 대부분 북방식지석묘로 확인되어 문학산일대의 지석묘 형식은 북방식이 우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가현산 일대의 지석묘

가현산일대는 인천내륙에서 가장 많은 지석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석묘군은 대곡동지석묘군인데, 원래 김포시 대곡리지석묘군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5년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인천의 지석묘군이 되었다. 그동안 대곡동지석묘는 1977년에 간행된 문화유적총람에 소개된 이래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분포조사는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지표조사는 인하대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A-E군 등 5개의 소군집에서 99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곡동지석묘군은 현재 정확히 지석묘의 분포 수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인천북부지역의 대규모 지석묘군인 점은 확실하며, 주변의 마산리·석모리지석묘군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지역공동체에 의해 축조된 지석묘군으로 보여 진다.

3) 기타 도서지역

강화도와 인천내륙을 제외한 영종도, 옹진군 일대의 도서지역에도 군집을 이루지 않지만 지석묘가 발견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영종도 운남도 지석묘를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덕적도, 백아도, 청라도 등에서도 지석묘가 확인된다.

운남동지석묘는 영종도에 위치한 지석묘로서 1962년 인천고등학교 향토반 학생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1963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이 지석묘는 지석과 폐쇄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주변에서 발견되어 북방식지석묘로 추정되며, 유물은 지석묘 내부의 부식

토층에서 청자편과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덕적도의 지식묘는 서울대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모두 2기가 발견되었는데,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덕적도 진리 추정지식묘 1:2로 명명하였다. 한편 백아도에서는 개석에 채석흔이 있고, 개석 밑에 지석을 가지고 있는 지식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청라도에서도 지식묘 1기가 조사되었지만, 덕적도 지식묘와 마찬가지로 지식묘의 형식은 확인할 수 없었다.

II. 강화도지역 고인들의 입지와 분포 특징

강화도와 인천내륙, 도서지역에 모두 270여 기의 지식묘가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강화도는 북부지역에 한정되어 160여 기가 지역별로 소군집을 이루며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접한 인천내륙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지식묘 형식, 입지적인 면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강화도 지식묘는 각 형식별로 규모와 입지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강화도에 분포하고 있는 지식묘의 형식은 서북한지역과 마찬가지로 북방식과 개석식만이 발견되었을 뿐, 남방식 지식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화도에 분포하는 160여 기의 지식묘 중 형식구분이 가능한 132기에서 북방식은 76기, 개석식은 56기로 북방식이 개석식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각 지식묘 형식별 개석크기는 북방식 지식묘의 경우 대체로 대·중·소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소형에 속하며, 개석식과 혼재하거나 소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그러나 신삼리, 점골 등의 중형지식묘와 강화, 대산리, 양오리지식묘 등 대형지식묘는 군집과 분리되어 단독분포를 보이며, 차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개석식 지식묘의 크기는 전체의 약 85%가 0~4.0m²에 해당하는 소형의 것들로 북방식과 같이 대형의 지식묘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묘 형식별 입지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구릉과 산기슭에서는

북방식 33기, 개석식 46기로 개석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능선, 산사면, 산마루 등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개석식 지석묘의 분포비율은 낮아지고, 북방식 지석묘의 수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지에는 북방식 지석묘만이 입지할 뿐 개석식은 전혀 보이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지석묘의 축조는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주변의 지형과 공간을 이해하고 그 이해방식에 따라 지형적으로 입지하고 공간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산능선이나 산마루, 산사면, 평지와 같이 매우 현저한 지형적 요건을 갖춘 곳에 북방식 지석묘가 주로 입지하고 있다는 것은 북방식 지석묘가 당시 지석묘 축조집단의 사회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부근리 점골, 양오리, 대산리, 부근리 강화 지석묘와 같이 대형 지석묘들은 모두 북방식으로 구릉의 정상부나 능선, 해안가와 접한 평탄지에 단독으로 축조되어 의도적으로 특정장소에 대한 공간적인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 지석묘와 비교하여 인천내륙의 대곡동지석묘군에도 강화도와 같이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대규모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약 50%에 해당하는 지석묘의 형식을 알 수 없어 형식별 입지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북방식지석묘의 경우 대체로 능선의 정상부에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화도 지석묘의 형식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화도 지석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석묘의 규모, 형식별 입지분포, 소군집 분포양상 등을 고려하여 분포유형의 설정이 가능하다. 지석묘 분포유형의 설정은 지역적인 차원의 연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한 지석묘 축조집단의 지역적 범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강화도는 한정된 지역적인 범위 내에 지석묘가 밀집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석묘의 형식, 규모, 입지, 밀집도 등 제 양상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분포유형 설정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화도 지석묘는 지석묘의 형식과 규모, 소군집 지석묘의 분포양상, 입지 등을 고려해 볼 때 I, II, III의 세 가지 분포유형 설정이 가능하며, 이들 분포유형들 사이에는 일정한 위계관계도 발견된다. 먼저 I 유형은

2~8기의 개석식 혹은 북방식 지석묘들이 소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들로, 산기슭, 구릉과 같이 주거지, 경작지로 주로 사용되었을 생활공간 내에 분포하고 있다. 삼거리, 부근리, 교산리, 오상리 등 거의 모든 지석묘군에서 나타난다. 입지적으로 이 유형의 지석묘들은 산지의 계곡에서 형성된 소하천과 같이 음료수나 농업용수의 확보가 쉬운 곳에 인접하여 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독으로 축조된 북방식 지석묘와 같이 차별화된 장소에 입지하지 않고 생활공간 내에 위치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회내부적으로 수직적 분화가 덜 진전된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Ⅱ유형은 I 유형에 비해 무엇보다도 입지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I 유형의 지석묘들이 소군집을 이루며 산기슭이나 구릉과 같은 생활공간 내에 축조되었다면, Ⅱ유형은 능선이나 산마루, 구릉의 정상부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입지한다. 또한 이 유형의 지석묘들은 교산리와 고천리의 일부 지석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석묘들이 북방식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채석과 축조과정에서 개석식보다 정교한 축조기술과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북방식의 지석묘가 해발 100m 이상의 산마루·능선과 같은 주변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차별적으로 축조되었다는 것은 지석묘 축조집단 내부의 계층분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유형의 지석묘 피장자는 이러한 계층화된 사회에서 정치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었던 계급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유형의 지석묘들은 모두 삼거리와 교산리 지석묘군에 속하는 것들로 지역적인 편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Ⅲ유형의 지석묘들은 사적 제137호인 부근리 지석묘, 양오리, 대산리 지석묘와 같은 대형 북방식 지석묘들이다. 이 지석묘들은 고려산 일대의 지석묘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릉의 정상부와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사적 제137호 강화 지석묘는 고려산과 봉천산-별립산을 연결하는 강화북부 지역 유일의 평지에 축조되었는데, 이 지석묘는 이러한 입지와 규모를 볼 때 사회적·이념적 행위의 반복을 위해 배려된 특정한 공간에 배치되어 기념물과 같은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석묘 축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의 의례수행을 통해 집단간의 단일한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지역적인 통합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대형지석묘는 축조과정에서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력과 경제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입지적으로도 어느 지석묘보다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Ⅲ유형의 지석묘는 강화 북부지역의 지석묘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의 무덤이며 기념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추홀의 위치에 대하여

김 상 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미추홀의 위치에 대하여

김상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 I . 미추홀과 인천
 - 1. 백제의 건국신화
 - 2. 彌鄒忽 牙山 密頭里說
 - 3. 彌鄒忽 楊洲·坡州說
 - 4. 미추홀 인천설
- II . 백제의 관문, 능허대
 - 1. 대중국교통로서의 인천
 - 2. 능허대와 대진

I . 미추홀과 인천

한강유역이 역사상에 뚜렷이 등장하는 것은 백제가 건국되면서부터이다. 문헌상 백제의 역사는 夫餘族인 沸流와 溫祚로 대별되는 집단이 남하하여 토착세력인 마한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었던 한강유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가 빈약한 백제의 역사는 건국과 성장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三國史記』에 나타난 백제 초기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近肖古王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을 부정하고 4세기 중반 이후 만주지역에 존재하던 기마민족이 남하하여 세운 일종의 정복왕조로 보아 온조왕대의 백제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고, 둘째는

후대의 사실들을 온조왕대의 기록으로 소급 부회한 것으로 보는 절충론적인 경향이며, 끝으로 온조왕대의 국가형성으로 인정하려는 긍정적인 경향이다. 이렇듯 근초고왕 이전의 백제역사는 사료의 신빙성 여부로 견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3세기 이전 한강유역의 고고학적 자료 또한 결핍되어 있어 백제의 건국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절충론적인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온조집단이 도읍하였던 慰禮城과 비류집단이 도읍을 정했던 彌鄒忽의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례성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에 稷山으로, 『삼국사기』에는 알 수 없는 곳(未詳地分)이라 하였고, 미추홀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는 今仁州로, 『삼국유사』에는 ‘仁州’로 표기하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온조집단의 최초 정착지에 대해 정확한 위치를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백제 초기 지배세력의 성립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백제초기의 토성과 고분들이 서울시 일원 한강 남쪽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온조집단이 정착하였던 대략적인 위치는 현재 서울시 범주에 속해 있는 한강 남쪽의 평야지대로 보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백제의 국가형성은 온조집단과 비류집단의 결합을 통해 시작하고 있으므로, 비류가 도읍을 정하였던 미추홀의 위치 또한 서울과 가까운 인천지역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근래에 미추홀의 인천설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개진되고 있으므로, 이들 견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천지역의 초기 백제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백제의 건국신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의 초기역사는 사료의 박약함과 고고학적 근거의 결핍으로 인해 4세기 전반까지의 백제사를 분명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헌사의 입장에서 백제의 국가형성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온조집단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류집단의 결합을 통해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비류와 온조를 두 축으로 한 백

제의 건국신화이다. 백제의 건국신화에는 온조집단이 비류집단을 흡수하는 것으로 백제의 건국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백제의 건국신화는 그 내용은 빈약하지만 ① 溫祚傳承, ② 沸流傳承, ③ 仇台傳承, ④ 都慕傳承 등 다양한 전승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溫祚傳承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며, 그의 아버지는 鄒牟이다. 혹은 朱夢이라고도 한다.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난을 피해 卒本夫餘에 이르자, 부여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다만 세 딸만 있는데, 주몽을 보고서 보통사람이 아님을 알고 둘째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얼마 후에 부여왕이 세상을 떠나므로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그리하여 아들 둘을 낳으니, 장자는 비류라 하고, 차자를 온조라 했다—혹은 주몽이 졸본에 이르러 月郡의 아가씨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고도 한다. 그런데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오자 태자로 삼으니,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烏干, 馬黎 등 열 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니, 백성들이 그에게 따르는 이가 많았다. 그들은 마침내 漢山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라 살 만한 땅을 바라보았다. 비류는 바닷가로 가서 살려고 하니, 열 명의 신하가 간하기를 “생각하건대 이 河南의 땅은 북쪽으로 漢水를 끼고, 동쪽으로 높은 산악에 의거했으며, 남쪽은 비옥한 沃澤을 바라보고, 서쪽은 큰 바다로 가로 막혔으니, 그런 자연적인 요해와 지리는 얻기 어려운 지세입니다. 도읍을 여기에 세우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을 나누어 彌鄒忽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명의 신하를 보필로 삼아 나라를 十濟라 했다. 이 때는 前漢 成帝 鴻嘉 3년(기원전 18)이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편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위례성으로 돌아와 보니, 온조는 도읍을 새로 정했으며, 백성들이 편히 살므로 마침내 부끄러움을 뉘우치고 죽으니, 그의 백성들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그 후 줄곧 백성들이 즐겨 따르므로 나라 이름을 고쳐서 百濟라 했다. 그의 세계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夫餘를 성으로 삼았다(『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 1, 百濟始祖 溫祚王 卽位年條).

② 沸流傳承

일설은 이렇다. 시조는 비류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優台로서 북부여왕 解扶婁의 庶孫이고 그 어머니는 召西奴로 졸본사람 延陁勃의 딸이다. 그녀가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으니, 장자는 비류이고 차자는 온조이다.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혼자 살았다. 후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않으므로 전한 建昭 2년(기원전 37) 봄 2월에 남쪽 졸본으로 달아나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소서노를 아내로 맞아 왕비로 삼았다. 그녀는 창엽의 기반을 열 때 자못 내조가 있었으므로 주몽은 그녀를 총애하고 비류 등을 대하기를 자기의 아들과 같이 하였다. 그런데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에게서 난 아들 孺留가 오자 이를 세워 태자를 삼고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비류는 아우 온조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대왕이 부여에서 난을 피해 도망하여 이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안의 재산을 기울여 나라의 기업을 조성하는데 힘썼는데 이제 대왕이 죽자 나라가 유류에게 들어갔다. 우리는 여기에 헛되이 있으면서 울적하게 근심하는 것 보다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 좋은 땅을 찾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하는 것이 낫겠다”하고 드디어 아우와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溟水와 帶水 두 강을 건너 미추홀에 이르러 여기서 살게 되었다(『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 1, 百濟始祖 溫祚王 卽位年條).

③ 仇台傳承

백제란 그 선대가 대개 馬韓의 속국이었고 부여의 별종이었다. 仇台라는 자가 있어 帶方 옛터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 왕의 성은 夫餘氏이고 호를 於羅瑕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은 韃吉支라고 불렀다(『周書』 권 49, 列傳 41, 異域 上).

백제의 선조는 고려로부터 나왔다. 그 나라 왕의 한 侍婢가 있었는데 홀연히 잉태를 했다. ... 이를 기르도록 명하였는데 이름을 東明이라 하였다... 동명의 후에 구태라는 자가 있었는데 인신에 돈독하여 처음으로 대방 옛터에 나라를 세우니 요동태수 公孫度的 딸로서 아내를 삼게 했다. 점차 번창하고 강성해져서 동이의 강국이 되었다(『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百濟條).

④ 都慕傳承

백제 太祖 都慕大王은 日神이 강령해서 부여를 떠나 나라를 열고 천제가 籙을 주어 여러 韓을 총괄하여 왕이라 일컬었다(『續日本記』권 40, 延曆 9년 7월조).

위와 같이 백제의 시조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데 온조를 시조로 하는 ①은 고구려의 주몽과 직결되는데 반하여, 비류를 시조로 하는 ②와 구태를 시조로하는 ③은 고구려와는 관련없이 부여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④는 부여와 고구려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 기록인 ①과 ②에는 비류와 온조가 형제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초기백제의 연맹체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맹초기에는 비류집단이 연맹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가, 한강유역의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성장한 온조집단이 왕위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비류 사후에 비류집단이 온조에 귀부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비류집단을 흡수한 온조집단이 목지국을 비롯한 마한세력을 아우르면서 백제는 고대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①과 ②의 전승에서 비류의 근거지로 알려진 미추홀은 비류집단이 남하하여 정착한 도움으로 위례성의 위치와 함께 초기백제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미추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백제본기와 지리지에 미추홀이 인천으로 표기된 이래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彌鄒忽國, 彌鄒國, 또는 沸流國 등으로 일컬어지며 인천지역이었음이 긍정되어 왔다.

彌鄒國의 유적으로 문학산성이 지목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인천군의 남쪽 2리에 南山石城이 있다고 기록된 이후부터이고, 이후 『東史綱目』, 『輿地圖書』, 『京畿邑誌』 등에서 문학산성을 비류와 연결시켜 이 산성이 ‘비류의 성’이라는 인식이 정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미추국의 중심유적은 문학산성으로 믿어 왔다. 이는 세조 6년(1460) 관교동에 仁川都護府의 官衙가 세워진 후 미추국의 범위를 가까운 문학산성으로 비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학산성은 백제의 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백제의 성은 평지에 흙으로 조영하는 평지성이나, 문학산성은 산정상에 포

곡식으로 쌓은 石城이기 때문이다. 즉 인천지역에 비류가 정착하였다는 고고학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미추홀로 비정한 예가 많이 있다. 그 대표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彌鄒忽 牙山 密頭里說

① 밀두리설의 착안

미추홀의 인천설에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한 것은 牙山 密頭里說이다. 밀두리설은 金聖晫의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原』(지문사, 1982년 초간)에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의 밀두리를 미추홀로 비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김성호는 미추홀과 위례성의 위치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미추홀을 ‘今仁州’, 위례성을 ‘未詳地分’으로, 『삼국유사』에는 미추홀은 ‘仁州’, 위례성을 ‘今稷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今仁州’와 ‘仁州’는 서로 다른 지역이며, 『삼국유사』가 가리키는 인주는 충청남도 아산군의 인주면으로 비정함

② 밀두리설의 근거

- ▶ 인천이 ‘인주’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고려 인종 때이고, ‘아산 인주’는 고려초에 성립
- ∴ 『삼국사기』 ‘今仁州’에 대해 『삼국유사』의 ‘仁州’는 舊仁州 즉 ‘아산 인주’에 해당
- ▶ 인천에는 미추홀에 해당하는 지명이 없는 반면 ‘아산 인주’에는 밀두리가 있음
- 용을 ‘미리(彌里; 密)’ 또는 ‘미(彌)’라 하였으며, ‘두(頭; tu)’와 ‘鄒; tu)’는 동음
- ∴ ‘밀두’와 ‘미추’를 동일지명임
- ▶ 비류가 帶水를 건너 정착한 ‘海濱彌鄒忽’은 ‘土濕水鹹’한곳 임에도 정착한 이유는 선착 가능한 포구였을 것이므로, 밀두리는密頭川 하구에 위치한 海浦임
- ∴ ‘해빈미추홀’은 ‘아산 인주’의 밀두리임.

③ 밀두리설의 비판

▶ 인천과 아산의 지명에 대한 김윤우의 비판

- 인천 : 고려 인종 때부터 공양왕 2년(1390)까지 ‘인주’로 불림
- 아산 : 고려초기에 인주, 현종 9년(1018)이후 명종 7년(1177)이전에 ‘牙州’로 개명

∴ 『삼국유사』 편찬보다 약 100년~250여년 이전에 ‘아주’로 개명되었으므로, 一然이 미추홀의 위치를 밝히는 註에서 옛 행정구역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삼국유사』에 나타난 ‘인주’는 당시 통용되던 인천의 고려 때 행정구역으로 보아야 함

- 밀두리 : 아산의 밀두리는 19세기경부터 불려왔으며, 조선시대이전에는 육지에 인접한 바다로 보이기 때문에 2천여년전의 비류의정착지로 볼수 없다.

▶ 국어학계의 비판

- 밀두리의 ‘두(tu)’자와 미추홀의 ‘추(tu)’자를 동음자로 보고 있으나 ‘추’의 고음이 ‘tu’가 아니고 음운 상으로 ‘미추>밀두(mi ju>mil tu)’의 변화가 있을 수 없음.

▶ 미추홀이 선착 가능한 포구일 것이라는 견해는 타당함.

- 비류가 ‘土濕水鹹’한 미추홀에 정착한 것은 소금의 산지 또는 소금 교역망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이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경기만 남부보다는 백제의 한성과 가까운 인천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인천지역은 신석기시대 이후 한반도의 교역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임
- 영종도 송산선사유적의 흑요석과 금강식 토기
 - 능허대 아래의 代津을 통한 대중국 교섭

3. 彌鄒忽 楊洲·坡州說

① 양주파주설의 착안

- ▶ 『삼국사기』 지리지에 미추홀로 비정되어 있는 인천지역에는 삼국시대

성곽이나 대규모 주거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반면, 양주인근에는 六溪土城, 七重城, 哨城里城址와 大田里城址 등 모두 삼국시대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성곽이 발견됨.

- ▶ 인천의 고명인 買召忽은 양주의 고명인 買省忽과도 통합.
- ▶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전승에는 택지개념이 보이고 있어 후대의 윤색 가능성이 큼

② 양주파주설설의 근거

- ▶ 광개토왕비문의 기술순서
 - 광개토왕의 백제의 78성을 공취한 기술에 있어 순서상 미추성이 앞 부분에 위치
- ▶ 인주이씨의 정통성을 위한 『삼국사기』의 윤색
 - 『삼국사기』의 온조전승에 나타난 풍수사상은 여말선초에 나타난 것으로 백제초기에 풍수에 관한 개념이 없었을 것임
 - 이러한 택지개념이 들어 있는 『삼국사기』의 온조전승은 고려시대 혼인정책을 통해 급부상한 인주이씨가 지역기반의 정통성을 밝히기 위해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큼
- ▶ 인천의 고고학 자료의 부족
 - 미추홀의 중심으로 평가되는 문학산성의 규모와 축조시기에 의문이 있는 반면, 양주 일대에는 육계토성, 칠중성, 초성리성지와 대전리성지 등의 삼국시대 성이 보임
 - 미추홀에 대한 고구려의 지명인 매소홀은 양주고읍 고지명인 매성홀 과 음운상 통합
 - 溟河를 대동강수계로 帶水를 임진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구태설화의 대방고지에 일정한 역사성을 부여하고, 우태와 구태를 동일인으로 이해한다면 비류집단의 정착지는 대방군의 인근 지역 곧 한강 이북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러움

③ 양주파주설의 비판

- ▶ 광개토왕비문의 공취성의 기술순서에 대한 비판
 - 광개토대왕비문에 나오는 성의 기술 순서상 아단성(아차산성으로 비정)

이 먼저 나옴. 고모루성은 중원고구려비에도 나옴(충남 덕산, 충북 음성설이 있음). 이와 같이 불완전한 성의 기술 순서를 놓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는 의문

- 광개토왕의 미추성 공략을 고구려수군이 한강에 진입하거나 회군할 때 고구려선단의 후미를 차단할 수 있는 백제의 군항을 강타한다는 전략적인 측면과 백제 왕실 직영의 소금산지 장악을 통해 백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미추성의 위치 비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 『삼국사기』 윤색에 대한 비판

- 인천지역이 고려 초기에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李子淵의 딸이 문종과 결혼하여 숙종을 낳고, 그의 손자 李資謙의 차녀가 예종과 결혼하여 인종을 낳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됨
- 온조전승에 미추홀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표현한 ‘해빈’과 ‘토습수함’은 장자인 비류의 무지와 독선을 강조하고 그 세력의 몰락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주이씨가 지역의 정통성을 밝히기 위해 부회하였다면 왜 멸망한 미추홀을 예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이 듦
-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은 인종 23년(1145)으로 이자겸의 난(인종 5년 ; 1127)으로 이미 몰락한, 또 편찬 당시의 왕인 인종을 시해하려 하였던 인주 이씨의 본거지인 인천지역을 위해 문헌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양주파주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인주이씨의 정통성을 위해 역사의 한 부분을 조작하였다면, 그것은 패망한 비류의 미추홀이 아니라, 중시조인 이허겸의 연원에서 나타나듯이 왕비족인 가락허씨와의 연관성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임

4. 미추홀 인천설

① 역대 지리서와 사서에 미추홀을 인천으로 표기하고 있음

▶ 『삼국사기』 권35 잡지 4 지리 2의 기록

- 邵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買召忽縣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고, 지금의

仁州(慶原이라고도 한다. 買召는 彌鄒라고도 한다)이다

- ▶ 『삼국유사』에는 미추홀은 인주이고, 위례는 지금의 직산이라고 표기함
- ▶ 온조전승에 표기된 바와 같이 부아악에 올라가 살만한 땅을 살펴보았는데,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막혀있다고 한 것과 땅이 습하고 물이 짜다라는 기사를 종합하여 보면 인천지역일 가능성이 큼

▶ 인천의 건치연혁과 관련된 기록

문 헌	연혁 관련기사	비 고
①三國史記 地理志 (1145년)	買召忽縣 一云彌鄒忽	
②洪元用記 (1450년)	郡之初則彌鄒國也 至三國時降稱郡城縣 其由則無開焉 當高麗睿宗時 土姓侍中李資謙之女 入爲睿宗妃 誕仁宗 以故加號曰仁州 父老諺云 高麗順宗肅宗時 郡客舍後大廳作御室焉 高麗之季 定昌大君卽位 推以爲七代之鄉 陞爲慶源府 賜紅靻於首戶長逮壬申開國之後 還降爲知郡 仍收賜靻 至甲午年改州爲川 因爲知郡事	仁川府邑志 (⑩)名宦條
③高麗史 地理志 (1451년)	仁州,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新羅景德王 改名 邵城 爲栗津郡領縣 顯宗九年 屬樹州任內 至肅宗朝 以皇妣仁睿太后李氏內鄉 陞爲慶源郡 仁宗時 以皇妣順德王后李氏內鄉 改今名 爲知州事 恭讓王二年 陞爲慶源府王初卽位 賜州戶長紅靻	
④仁川府陞號壁上記 (1460년)	仁川卽古彌鄒忽國也 在高句麗爲買召忽縣 至高麗肅宗朝 以皇妃仁睿太后李氏內鄉 陞爲慶源郡 仁宗以皇妃順德王后李氏內鄉 改今名 爲知州事 恭讓二年 崇七代鄉陞爲慶源府	姜希孟 (1424~1483)
⑤世宗實錄 地理志 (1473년)	仁川郡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鄒忽 一云慶原·買召 新羅改名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戊午 屬樹州任內 至肅宗時 以皇妣仁睿王后李氏內鄉 陞爲慶源郡 仁宗時 以皇妣順德王后李氏內鄉 陞爲知仁州事 恭讓王二年辛未 陞爲慶源府 本朝太祖元年壬申 復舊號爲仁州 太宗癸巳 例改爲仁川郡	
⑥東國輿地勝覽 (1481~1530년)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鄒忽 新羅景德王 改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肅宗朝以仁睿王后李氏之鄉 陞慶源郡 仁宗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 改知仁州事 恭讓王二年 陞慶源府 王初卽位 以七代御鄉 陞之 且賜州戶長紅靻 本朝太祖元年 復位仁州 太宗十三年改今名例爲郡 世祖六年 以昭憲王后外鄉 陞爲都護府	
⑦東國輿地志	本百濟彌趨忽 高句麗以爲買召忽縣 新羅景德王時改	柳馨遠

(17C 후반)	名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時 省八樹州 肅宗時 陞爲慶源郡 仁宗時又改爲仁州 肅宗時 以王后李氏之鄉 陞 仁宗時 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 陞爲州 恭讓王二年 陞慶源府 王初卽位 以七代御鄉 陞之 且賜州戶長紅靽 本朝初 復爲仁州 恭定王十三年改爲仁川郡 惠莊王六年 陞爲都護府 以昭憲王后外鄉 陞	(1622~1673)
⑧輿地圖書 (18C중엽)	初則彌鄒國也 至三國時降稱邵城縣 當高麗睿宗時 土姓侍中李資謙之女 入爲睿宗妃 誕仁宗 以故加號仁州 其後麗季定昌大君卽位 以七代之鄉 陞爲慶源府 逮我朝還降爲知郡 又其後改州爲川 仍爲知郡事 又其後陞爲都護府 去戊辰八月 以逆僧胎鄉 降號爲縣 丁丑二月復舊爲府 此則邑誌與勝覽小異	
⑨海東地圖 (18C중엽)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新羅景德王 改邵城 高麗顯宗 屬樹州 肅宗 陞慶源郡 仁宗 改知仁州事 恭讓王 陞慶源府 本朝太宗初 復爲仁州 太宗改今名爲郡 世宗 陞爲都護府使	奎章閣 古大 4709-41
⑩增補文獻備考 (1770년)	百濟彌鄒忽 高句麗買召忽縣 新羅邵城縣 高麗仁州顯宗入 樹州 肅宗陞慶源郡 仁宗改仁州 恭讓王陞慶源府 朝鮮仁川郡初爲仁州 太宗十四年改今名爲郡 世祖五年陞府 肅宗十 四年降縣二十四年復舊	
⑪燃藜室記述 (18C 말) 別集16, 地理典故	仁川 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新羅改邵城 高麗屬樹州 後陞慶源郡 改仁川 恭讓王陞慶源府 以七代御鄉 賜戶長紅靽 太祖元年 復爲仁州 降郡爲縣 太宗改爲仁州郡 世祖庚辰 還陞府 昭憲王后外鄉	『歷代典故』 百濟屬國: 彌鄒忽國..
⑫仁川府邑誌 (1843년경)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新羅景德王 改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 今富平 肅宗朝 以仁睿王后李氏之鄉 陞慶源郡 仁宗 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 改知仁州事恭讓王初 以七代御鄉 陞慶源府 且賜州戶長紅靽 本朝太祖元年 復爲仁州 太宗十三年 改今名爲郡 世祖六年 以昭憲王后外鄉 陞爲都護府	奎章閣 奎 12178
⑬仁川府邑誌 (19C 전반)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新羅景德王 改邵城 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 今富平 肅宗朝 以仁睿王后李氏之鄉 陞慶源郡 仁宗 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 改知仁州事 恭讓王初 以七代御鄉 陞慶源府 且賜州戶長紅靽 本朝太祖元年 復爲仁州 太宗十三年 改今名爲郡 世祖六年以 昭憲王后外鄉 陞爲都護府	奎章閣 奎 17362
⑭大東地志 (1861년)	本百濟買召忽 一云彌鄒忽國 新羅景德王十六年 改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 肅宗 陞慶源郡 以文宗妃仁睿太后李氏之鄉 卽肅宗母 仁宗 改知仁州郡事 以睿宗妃文敬王后李氏之鄉卽仁宗母 屬郡唐城 屬縣載陽 恭讓王二年 陞慶源府 以七代御鄉本朝太祖元年 復爲仁州 太宗十三年 改仁川郡 世祖五年 以昭憲王后沈氏外鄉 后外祖 門必大 陞都護府 中宗二十一年 移水原鎮于府 三十年復還水原 肅宗十四年 降縣 以逆僧胎鄉 二十三年復陞	

⑮仁川府邑誌 (1871년)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新羅景德王 改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 今富平 肅宗朝 以仁睿王后李氏之鄉 陞慶源郡 仁宗 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 改知仁州事恭讓王初 以七代御鄉 陞慶源府 且賜州戶長紅靛 本朝太祖元年 復爲仁州 太宗十三年 改今名爲郡 世祖六年 以昭憲王后外鄉 陞爲都護府	奎章閣 奎 12177
⑯仁川府邑誌 (1891년)	古號彌離國 至三韓 降稱邵城縣 高麗睿宗朝 土姓侍中李資謙之女 睿宗妃 誕仁宗 故加號曰仁州 其後麗季 定昌大君卽位 以七代御鄉 爲慶源府 至本朝 還降爲知郡 又其後改州 爲仁仍 爲知郡事 後陞爲仁川都護府	藏書閣 B15BB 17
⑰仁川府邑誌 (1899년)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新羅景德王 改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 今富平 肅宗朝 以仁睿王后李氏之鄉 陞慶源郡 仁宗 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 改知仁州事 恭讓王初 以七代御鄉 陞慶源府 且賜州戶長紅靛 本朝太祖元年 復爲仁州 太宗十三年 改今名爲郡 世祖六年 以昭憲王后外鄉 陞爲都護府	奎章閣 古915.12-In2b
⑱仁川府邑誌 (1899년)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新羅景德王 改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 今富平 肅宗朝 以仁睿王后李氏之鄉 陞慶源郡 仁宗 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 改知仁州事 恭讓王初 以七代御鄉 陞慶源府 且賜州戶長紅靛 本朝太祖元年 復爲仁州 太宗十三年 改今名爲郡 世祖六年 以昭憲王后外鄉 陞爲都護府	藏書閣 貴 K2-4290

② 비류가 미추홀에 정착한 이유

- ▶ 海濱 미추홀이 土濕水鹹함에도 비류가 도읍한 이유는 미추홀이 해상활동할 수 있는 교역이 가능하다는 점과 소금의 산지와 소금교역망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므로, 비류는 전통적으로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던 인천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임
- ▶ 영종도 송산선사유적에서 黑曜石製와 소위 ‘錦江式土器’가 출토되는 것은 인천 지역이 신석기시대부터 한반도의 동북부와 서남해안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임
- ▶ 백제는 고구려로 인해 육로가 경색되었기 때문에 凌虛臺 아래의 大津을 이용하여 산동반도에 이르는 登州航路를 개발하여 중국과 통교하였다. 別離고개, 사모지고개 (三呼峴), 妓巖전설 등 중국으로 떠나는 백제사신들에 대한 전설은 백제 왕성 위례성과의 연결통로를 나타내는

- 것으로, 인천지역이 백제전기까지 해상교통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것임
- ▶ 고대사회에 있어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철산지와 소금산지의 확보는 국가적인 관심사였고 인천지역이 근래까지 많은 소금을 생산했던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로, 소금을 매개로 하는 해상교역망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던 비류는 소금 산지인 이곳 인천 지역에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큼

③ 미추홀은 인천의 어느 곳인가

- ▶ 미추홀의 중심유적으로 지목되어 온 것은 문학산성임
 - 문학산성은 둘레 577m의 석성으로 비류의 도읍지로 보기에는 매우 좁고 높은 곳이며, 토축성이며 평지성인 백제의 성곽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최근 고고학 자료가 축적되면서 백제의 석성의 일반적인 석축방식은 외면을 편평히 다듬은 돌로 쌓는 것인데, 문학산성 성벽도 백제의 석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 관교동-문학동분지
 - 삼국시대 초기의 도읍은 대체로 평지에서 벗어난 구릉의 대지에 자리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문학산과 맞은편에 위치한 승학산이 이루고 있는 관교동 문학동 분지를 들 수 있다. 문학산은 노적산, 연경산, 문학산, 수리봉, 길마산 등 5개의 봉우리가 동서로 일렬횡대를 이룬 약 2.5km 길이의 작은 산괴이다. 동쪽으로 남동염전의 갯벌, 도장리에서 승학천을 따라 승기로 이어지는 저지대가 고대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습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학산과 승학산이 이루는 관교동 문학동분지는 섬과 같은 지리적 환경을 이루고 있어 초기국가단계의 도읍으로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므로 비류가 도읍하기에 적합한 곳임
 -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백제토기의 발견이다. 문학산 동사면과 무주말 유물산포지에서 백제토기의 출토는 이곳에 백제시대 생활권이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임
- ▶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방백리의 땅

- 관교동 - 문학동 분지는 미추홀의 중심지이지 그 전체 범위는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비류집단의 세력은 온조집단에 비견할 정도의 세력이었을 것이므로, 미추국의 범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다.
- 온조가 남하 당시 마한왕이 동북지방 1백리의 땅을 주었다는 기사에 비추어 본다면, 미추국의 규모 또한 ‘方百里’의 규모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산 주변과 동으로 인천의 진산인 소래산까지, 서쪽으로는 영종도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 미추홀 인천설의 반성

- ▶ 미추홀 인천설을 부정하는 이유는 지금의 인천지역에 비류가 도읍하였다고 볼만한 적극적인 고고학적 근거, 즉 당시의 성 또는 고분과 같은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임
- ▶ 백제초기사는 『삼국사기』의 백제 초기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백제초기사는 문헌으로서 『삼국사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대체할 것이 없는 실정으로, 기록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역사적인 맥락을 잡아야 하는 것처럼, 미추홀의 위치 비정도 같은 맥락에서 『삼국사기』에 미추홀이 인천으로 비정된 이래 역대 지리지와 사서의 인천조에 한결같이 수용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그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서해안 어느 지역에서 비류의 정착지로 볼 수 있는 토성 또는 고분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인천을 미추홀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임
- ▶ 미추홀 인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상술한 바와 같다. 이와 반대로 인천설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인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새로운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운 견해에 대한 비판만을 함으로써 인천설을 지탱하고려만 한다고 비판한다. 남의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다. 그러므로 미추홀 인천설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원인천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학술조사와 문헌의 적

극적인 해석을 통해 미추홀 인천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밝혀내야 함

II 백제의 관문, 능허대

1. 대중국교통로서의 인천

능허대는 백제가 東晉과 교역을 시작한 近肖古王 27년(372)부터 熊津으로 남천하는 蓋鹵王 21년(475)까지 중국으로 내왕하는 사신들이 머물던 客館으로, 1990년 인천광역시지정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이곳에 候風하던 사신이 府西 10리 多所面에 위치한 大津에서 배를 띄어 중국 산둥반도의 登州·萊州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백제가 중국과 통교하기 시작한 것은 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 때의 일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근초고왕 27년(372)에 중국의 晉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대중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해에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고 한다.¹⁾ 이러한 사실은 중국측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咸安 2년 춘정월, 백제林邑王이 각각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함안 2년 6월, 사신을 보내 백제왕 餘句를 배하여 鎭東將軍領樂浪太守로 하였다.

(『晉書』卷9, 本紀, 簡文帝紀)

위의 내용은 백제의 조공과 함께 동년 6월 근초고왕을 진동장군영낙랑태수로 봉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측 사료에 모두 공식적인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국 성장의 결과이다. 같은 책에는 290년까지 마한이 여러 차례 진에 조공한 기사가 전하여진다.²⁾ 『진서』에 마한이 사라지고 백제가 공식적인 외교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장을 계속하던 백제가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마한의 잔여세력을 복속하고 한반도 서남부의 대표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이다.

1) ‘二十七年春正月遣使入晋朝貢…二十八年春二月遣使入晋朝貢…’(『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條).

2) 『晉書』 권97 列傳 67 馬韓條.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한 쌍방적인 외교행위로 해석된다. 4세기 이후 중국은 양자강을 경계로 南朝와 北朝로 갈려져 있었다. 晉(265~316)이 유목민족인 5胡(흉노·갈·선비·저·강)의 침입으로 강남으로 밀려가 東晉(317~420)이 되었고, 강북에는 5호의 여러 국가가 성립됨으로써 중국은 남북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진은 그들 나름대로 한쪽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지배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백제와의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남북의 대립으로 인해 진의 지배력이 동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자 고구려 美川王이 요동의 西安平을 공격하고, 남쪽으로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함으로써 현도군과 요동군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구려는 서쪽으로는 前燕과 남쪽으로는 백제와 경계를 이루게 되어 전연과는 요동군과 현도군을, 백제와는 낙랑군과 대방군의 땅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 고구려는 慕容皝의 침입을 받아 국도가 함락되자 전연과는 화의를 맺고, 고국원왕은 백제의 북경을 두 차례 침범함으로써 남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백제는 근초고왕 24년(369)³⁾과 26년(371)⁴⁾에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이로써 백제는 남으로는 마한의 잔여세력을 복속하고 북으로는 고구려의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면서 마한을 대신하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진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고국원왕의 전사로 백제와 고구려는 구수관계에 놓이게 된다. 고구려는 전연을 멸하고 등장한 前秦과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고, 백제는 전진과 대립하고 있는 동진과 통교함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립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형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북조와 백제

3) ‘二十四年秋九月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稚壤 分兵奪民戶 王遣太子 以兵徑至稚壤 急擊破之’(『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4年條).

4) ‘二十六年 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湍河上 俟其至 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 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 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6年條).

는 남조와만 통교한 것은 아니다. 장수왕은 남북조 모두 통교하였고, 백제는 개로왕 18년(472) 北魏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는 등 당시 양국의 사정에 따라 중국의 남북조와 관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구수관계에 놓인 백제는 육로를 통해 중국과 통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로를 이용하여 통교하여야만 하였다. 백제가 이 때 이용한 해상 교통로가 登州航路였다. 등주항로는 한강 하류역인 인천을 출발하여 德物島(덕적도)를 거쳐 중국 산둥반도의 등주에 이르는 항로이다. 이는 백제를 공격할 때 唐의 蘇定方이 이용한 항로가 산둥반도의 萊州에서 덕물도를 거치는 항로였음에서도 알 수 있다.⁵⁾ 인천이 백제사신의 출항지가 된 것은 백제의 한산에서 서해로 빠지는 한강 하류역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조건과 함께 상술한 바와 같이 인천은 전통적인 해상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등주항로는 비교적 안전한 항로였다고는 하지만,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⁶⁾에도 나타나듯이 당시의 조선기술이나 항해술로 비추어볼 때 사신을 중국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성백제시대의 대중관계⁷⁾

번호	연도	내용	삼국사기	중국사서	
				기년	서명
1	372	조공 (진)	근초고왕 27년	함안 2년	晉書
2	372	봉책 (진)		함안 2년	晉書
3	373	조공 (진)	근초고왕 28년		
4	379	조공 (진)	근구수왕 5년		
5	384	조공 (진)	침류왕 원년	태원 9년	晉書
6	386	봉책 (진)		태원 11년	晉書
7	406	조공 (진)	전지왕 2년		
8	416	봉책 (진)	전지왕 12년	의회 12년	宋書
9	420	봉책 (송)		영초 1년	宋書

5) 朴廣成, 「凌虛臺에 대하여」 『韓國中世史研究』, 인하대학교, 1991, 348~349쪽.

6) ‘…謹遣私署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餘禮 龍驤將軍帶方太守司馬張茂等 投舫波阻 搜徑玄津 託命自然之運…’(『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3, 蓋鹵王 18年條).

10	424	조공 (송)		정평 2년	宋書
11	425	견사 (송)		원가 2년	宋書
12	429	조공 (송)	비유왕 3년	원가 6년	宋書
13	430	조공 (송)	비유왕 4년	원가 7년	宋書
14	430	봉책 (송)	비유왕 4년	원가 7년	宋書
15	440	조공 (송)	비유왕 14년	원가 17년	宋書
16	443	조공 (송)		원가 20년	宋書
17	450	조공 (송)		원가 27년	宋書
18	450	기타청구 (송)		원가 27년	宋書
19	450	허가 (송)		원가 27년	宋書
20	457	관작청구 (송)		대명 1년	宋書
21	457	봉책 (송)		대명 1년	宋書
22	458	관작청구 (송)		대명 2년	宋書
23	458	봉책 (송)		대명 2년	宋書
24	463	조공 (송)		대명 7년	冊府元龜
25	467	조공 (송)		태시 3년	宋書
26	471	조공 (송)		태시 3년	宋書
27	472	기타청구 (위)	개로왕 18년	연흥 2년	魏書
28	?	견사 (위)	개로왕 ?년	연흥 ?년	魏書
29	475	견사 (위)		연흥 5년	魏書

표에서 보듯이 근구수왕 5년(379)에 동진으로 파견된 사신은 악풍을 만나 회항하는 등 총 65회 중 3차례나 중도에 회항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⁸⁾ 그러나 백제는 ‘舫’으로 표현된 대형선박을 이용하였고, 또 488~490년의 해전에서 북위 선단을 격파할 정도로 비상한 해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과 통교할 수 있었다.⁹⁾

2. 능허대와 대진

현재는 해변이 매립되어 해안도로가 옆을 지나고,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져 있어 능허대의 옛모습은 찾을 수 없다. 다만 1988년에 능허대공원 정

7) 유원재, 「백제의 대외관계」 『한국사』 8, 1995, 118쪽에서 전제.

8) 『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2, 近仇首王 5년 및 권26, 백제본기 3, 文周王 2년東城王 6년조 참조.

9) 李道學,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371~372쪽.

화작업을 통해 정자가 세워지고 연못이 조성되어 그나마 고풍스러운 느낌을 갖게 할 뿐이다. 능허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전해진다.

- ① 대진은 부서 십리 多所面에 있으며, 삼국이 鼎峙하였을 때 고구려에 의하여 백제의 조천로가 경색되었으므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신이 이곳에서 배를 띄워 산동반도의 등주·래주에 도달하였다.…능허대가 부서 10리 원우미면(또는 원우금면)에 있는데 청량산 여록이 해변으로 들어가 100척의 높이로 가파르게 솟아 있고 위에는 30여 명이 앉을 만하며 대양을 바라보매 막힘이 없었다.…대진은 백제가 조천할 때의 출선처이다. 그 밑에 기암이 있다. 전하기를 백제사신이 기녀를 데리고 와서 候風하다가 막상 배에오르던 날 遠別의 정을 이기지 못한 기녀가 바위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후인들이 그 바위를 기암이라 하였다고 한다.(『輿地圖書』 仁川都護府形勝條)
- ② 능허대는 부서 10리에 있으며 바다에 임하여 높이 100척으로 솟아 있어 대양을 바라보매 막힘이 없다. 밑에 대진이 있는데 삼국이 정치하였을 때 고구려에 의하여 백제의 조천로가 경색되었으므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신이 이곳에서 배를 띄워 산동반도의 등주·래주에 도달하였다.(『仁川府邑誌』 古蹟條)
- ③ 가는 벼랑으로 나 있는 오솔길, 넓은 모랫벌에 끊어진 언덕….(權認, 「凌虛臺」 『炭翁集』 권 1)
- ④ 능허대 아래는 곧 서해 바다가 드나드는 포구이다. 대는 겨우 10여장의 산인데 바닷가 포구에 높게 솟아 있어 자루와 같다.(李奎相, 『一夢稿』 권19)

①과 ②의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에서는 대진과 능허대가 각각 다소면과 원우미면에 소속되어 있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한 반면 ②에서는 능허대 아래에 대진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7년 작성된 『근세조선오만분지일지도』에도 능허대는 현재의 위치와 일치하지만, 대진은 송도역 맞은편의 송도시장 부근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능허대는 해안 섬처럼 솟아있는 전망대 구실을 한곳이고,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의 발선처는 대진이었다는 것이다. 즉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②의 기록

에 따라 능허대가 포구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다. ③과 ④의 기록처럼 능허대로 통하는 길이 오솔길인 점에서 그곳이 포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

능허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부천시 쪽에서 인천시 구산동을 거쳐 만수동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別離峴이라 하고, 인천구읍 관교동에서 능허대 쪽으로 이르는 문학산 서편고개를 三呼峴(사모지고개)이라 부른다. 중국으로 가는 백제 사신들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할 때 한산에서 부평의 별고개를 넘고 이 고개를 넘어 능허대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때 사신을 배웅하러 따라 나왔던 가족과 친지들은 별고개에서 전송하며 이별을 나누었다 하여 별리현이라 불리었고, 사신들도 사모지고개에 오르면 멀리 보이는 별고개에 아직도 서 있던 가족들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세 번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하여 삼호현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는 능허대를 客官, 鄉射堂과 함께 宮室條로 분류하고 있다. 별리현·삼호현전설과 ①의 기암전설, 그리고 『동국여지지』의 분류를 보면, 능허대는 후풍하는 백제사신들의 객관이 있었던 곳이며, 주변의 대진에서 출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능허대라는 명칭은 『인천부읍지』, 『여지도서』, 『대동지지』에 모두 능허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33년 일본인에 의해 편찬된 『인천부사』 구적명소조에는 凌壺臺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어 발음에 따른 오기인 것 같다. 능허대의 능허는 ‘하늘높이 나른다’는 뜻으로 중국의 옛 시구에 자주 나타나는 말이다. 능허대라는 명칭은 蘇東坡의 「赤壁賦」에서 글자를 따다가 합자한 것으로 보인다. ‘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이라 한 데서 ‘만경을 건넌다’는 능만경의 ‘凌’자와 ‘浩浩乎如憑虛御風’이라 한 데서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는 빙허어풍의 ‘虛’자를 따서 ‘만경창과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듯 건넌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소동파는 송대 사람이므로 능허대라는 명칭은 백제 당시가 아닌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능허대를 통해 중국과 통교한 것은 근초고왕대에서 개로왕 21년(475)까

10) 尹龍九, 「인천의 百濟文化」 『연보』10,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0, 34~36쪽.

11) 朴廣成, 앞의 글, 1991, 346~348쪽.

지의 100여년간에 불과하다.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도읍을 熊津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백제와 중국사이에는 조공·봉책·건사·청구 및 허락·전쟁·회맹 등의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최초로 대중관계를 맺은 진과는 372년 간문제가 근초고왕을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봉한 이래 8차례나 통교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두 조공과 봉책에 관련된 것이었다. 진을 대신하여 宋이 서자, 백제는 송과 통교를 계속하였다. 송은 腆支王을 ‘鎮東大將軍’으로 봉책하여 진의 외교관계를 계승하였다. 조공과 봉책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毗有王은 易林·式占·腰弩 등을 요청하는 등 백제가 문화적 욕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중관계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로왕대에는 왕에 국한된 봉책관계에서 신하들에게까지 관작을 요청하기도 하고, 남조에 국한하지 않고 북위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등 심화된 대중관계의 일면을 보여준다.¹²⁾ 대중국 통교의 관문이었던 능허대의 역할은 백제가 한강유역을 상실하면서 끝이 난다. 웅진으로 남천한 백제는 백마강을 통하여 통교하였고, 고구려는 한강을 점령한 후에도 육로를 이용하였으며, 한강유역을 점령한 신라는 남양의 黨項城을 통하여 중국과 통교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신라는 남양만의 唐城(당항성)과 영암방면에서 흑산도를 항로로 이용하였다. 후백제가 오월과 통교한 곳도 나주였으며, 고려 역시 북쪽에 거란이 막고 있어 예성강을 통하여 통교하였으므로, 능허대가 있는 인천 지역은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¹³⁾

12) 俞元載, 『百濟의 歷史와 文化』, 學研文化社, 1996, 244~248쪽.

13) 朴廣成, 앞의 글, 1991, 349~250쪽.

삼국시대의 인천

-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백 종 오

(충주대학교)

삼국시대의 인천

-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백종오 (충주대학교)

◆ 목 차 ◆

- I . 머리말
- II . 문학산성의 현황
- III . 문학산성의 변천과 인천
- IV . 맺음말

I . 머리말

문학산성(文鶴山城)은 인천광역시 문학산 정상부(해발 232.8m)에 위치하고 있는 석축성이다. 문학산은 서쪽의 학익동, 청학동에서 시작하여 문학동, 연수동을 거쳐 동쪽의 곡창지대인 선학동까지 이르는 동서로 긴 산지로서 남쪽에서 인천의 중심지를 감싸고 있는 인천을 대표하는 산이다. 지리적으로 문학산성은 북쪽으로 인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서해바다가, 남쪽으로는 연수구의 신시가지가 조망이 되고 있다. 해안과 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안 인접지역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백제 초기 도읍지인 비류성으로 언급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성은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에 이미 ‘고성(古城)’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후기까지 성내

에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다. 『선조실록』에는 임진왜란 중 인천의 사민(士民)이 왜병을 격퇴하였으며 『숙종실록』에는 양란이후 문학산성의 수축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문학산성에 대한 근·현대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기본 자료로 작성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가 있다. 이 책에는 유적의 위치와 명칭, 규모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해방이후인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의 조사와 1958년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동문지 복원과 표석 설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미군기지 건설이 발의되고 1960년부터 문학산 정상부와 서문지를 헐어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62년 이후 미군부대와 한국군이 주둔하면서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는 군사시설에 의해 현상변경과 파괴가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1997년 인천광역시에서 유적의 보호 및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차원에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¹⁴⁾ 1999년과 2002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문학산 일대의 문화유적을 정밀지표조사를 진행하면서 산성과 그 주변 문화유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¹⁵⁾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문학산성의 현황을 문헌 검토와 축조방법,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후 문학산성의 시기별 변천과정을 인천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맺는말에서는 인천지역 성곽 조사연구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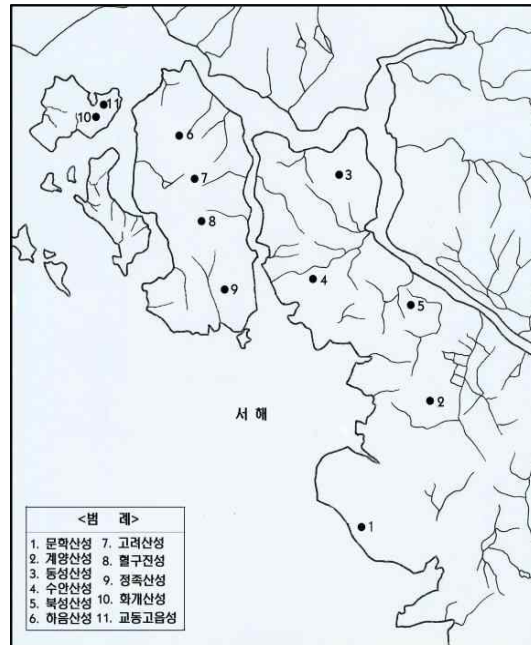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산성은 간단한 지표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채집된 유물 역시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문학산성의 현황과 그 변천 과정을 살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지 않을 수 없다. 추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문학산성의 실체가 보다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14) 仁川廣域市, 1997, 『文鶴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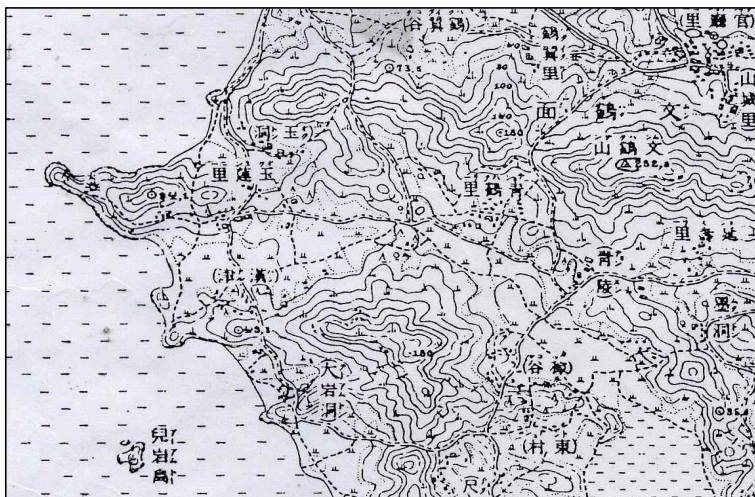
15) 인하대학교 박물관, 1999,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2,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II. 문학산성의 현황



〈삽도 1〉 문학산성 위치 및 성곽 분포도



〈삽도 2〉 문학산성 위치도(1917)

1. 문헌검토

문학산성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봉수에 대한 기록을 제외한 문학산성과 관련된 문헌기록 및 이전 조사보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학산성 관련 자료¹⁶⁾

出典	資料	內容
①	世宗實錄地理志	“南山古城은 군 남쪽 2리에 있다. 둘레는 1백60보이며, 사면이 높고 험하다. 안에 작은 샘이 있다.”
②	新增東國輿地勝覽	“남산고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430척이다.”
③	東史綱目	“문학산 정상에 비류 성터가 있고 성문의 扉板이 아직도 남아있고 성내에는 沸流井이란 우물이 있는데 물맛이 맑다. 『勝覽』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개탄스럽다.”
④	輿地圖書	“彌鄒王之 옛 도읍지이며, 石城의 터가 있고, 임진왜란시 부사 金善敏이 古城을 增修하여 성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무찔렸다.”
⑤	大東地志	“古城은 文鶴山에 있으며 둘레 430척이다.”
⑥	京畿誌	“彌鄒忽古城 혹은 南山古城이라고도 한다. 부의 남쪽 1리 문학산에 있으며 둘레는 사백삼십척이다.”
⑦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성벽은 동문 부근 석축으로서 높이 7~8척, 길이 7~8칸, 둘레 약600칸의 토루의 자취를 보인다.”
⑧	仁川鄉土史料	“문학산성 동문으로부터 서북으로 약 150m 되는 한층 얇은 곳에 석축의 우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석축이 倒壞되어 태반이 매몰되었고 몇 십년 전까지도 맑은 물이 항상 넘쳐흐르고 있었다 한다. 표고 280m 가까운 높은 산상에 이 같은 우물이 있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보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 우물을 판 것은 산성의 축조와 때를 같이하였으리라고 본다.”
⑨	文化遺蹟總覽	“성은 內外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성은 석축의 성벽으로 둘레 약 200m로 되어있고, 내성은 토축의 성벽으로 둘레 약 100m로 되어 있다. 자연의 험지를 이용하여 문학산정에 이룩한 성벽은 5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성중에는 우물이 있고 성벽은 현재 대부분 붕괴되어 그 석조물이 산기슭에 흩어져 있으며 동북면이 다소 완전하게 남아있다.”

위 <표 1>을 보면 18세기에 편찬된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백제 비류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서 토축 내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이 토축성이 백제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내성은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가 어렵다.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에서는 성벽이 석성(石城)으로 축조되었으며 성내에 봉수(烽燧)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 이미 봉수가 건립되었으며 당시까지 성곽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1531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고성(古城)’으로 칭하고 있어 16세기에는 이미 성곽이 퇴락하여 폐성(廢城)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에 임진왜란시 성벽을 증수(增修)하여 이곳에서 왜적과의 전투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산성의 명칭에 대해서는 남산석성(南山石城), 남산고성(南山古城), 비류성(沸流城), 문학산성(文鶴山城), 미추홀고성(彌鄒忽古城) 등으로 불리고 있다. 성의 둘레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만 160보(步)이며 나머지 기사에서는 모두 430척(尺)으로 기록하고 있다.

2. 구조 및 축조방법

문학산성은 문학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조된 테뫼식의 석축성이다. 토축의 내성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⁴⁾ 성곽의 규모는 둘레

-
- 3) ① 『世宗實錄』卷148, 地理志 仁川郡條.
 ②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仁川都護府 山川條.
 ③ 『東史綱目』.
 ④ 『輿地圖書』, 仁川都護府 古跡條.
 ⑤ 『大東地志』卷4, 仁川 城池條.
 ⑥ 『京畿誌』, 仁川府邑誌 城池條.
 ⑦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⑧ 史料收集委員會, 1956, 『仁川鄉土史料』.
 ⑨ 文化公報國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

- 4) 문학산성의 내성은 1949년 기록을 통하여 처음 확인되는데 둘레 약 100m의 토축 성벽으로 1950년대 초까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李慶成, 1949, 「文鶴山城」, 『仁川의 名所古蹟』, 32쪽.) 그러나 1959년 이후 군부대를 지으면서 山頂을 削平하고 후미진 곳은 覆土하였으므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인하대학교 박물관, 1999, 앞의 책, 88~89쪽.) 이 내성은 봉수대가 운

577m이며, 면적은 20,800㎡(6,300평)이다. 평면형태는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마름모꼴로 북벽이 길고 남벽이 짧다. 각 성벽의 현황⁵⁾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5> 성벽 현황

	북벽	동벽	남벽	서벽	계
길 이	227m	110m	112m	128m	577m (잔존 339m)
구 간	NO.19~246	NO.246~355	NO.356~467	NO.468~0~NO.18	
시 설		동문지, 수구		서문지	

성내고도는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산의 8~9부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동·서벽 쪽으로 능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북벽 아래로는 가파른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성벽은 동벽과 남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북벽과 서벽은 군사시설로 인해 현상파괴가 이루어졌다. 잔존성벽의 길이는 339m이다. 성돌은 다듬은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단과 열을 맞추어 맞물리게 축조하여 평면모습이 ‘품(品)’자형을 이루고 있다. 성돌의 크기는 높이 12~30cm, 너비 25~80cm, 뒷심 길이 30~60cm 내외이다. 간간히 뒷심이 긴 심석(深石)을 이용하여 뒷채움 석재들과 맞물리게 하였다. 성벽 하단에 지대석은 보이지 않으며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석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돌출된 자연 암반을 그대로 체성벽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 성벽 기저부는 암반층을 정지하여 그대로 성벽을 쌓거나 기초부에 석재 다짐층을 조성한 후 성벽을 축조하였다. 석재 다짐층이 확인된 구간의 높이는 1.3m이다. 암반층을 기저부로 이용한 경우에는 성벽 하부에서 보강석축시설이 일부 확인된다. 성벽의 단면형태는 하단은 거의 수직을 이

영되면서 조성한 방호벽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5) 구간은 『文鶴山城 地表調査報告書』를 참조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四方 성벽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루고 있으며 상단으로 가면서 약간 안으로 들어쌓기하여 규형(圭形)을 이루고 있다.



〈삽도 3〉 장미산성 북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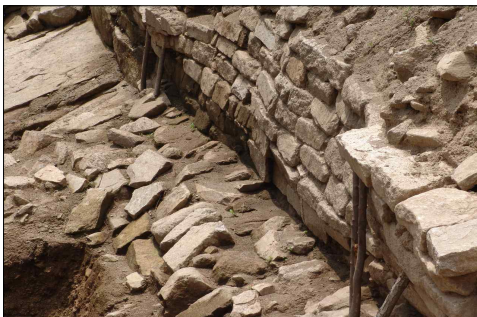


〈삽도 4〉 장미산성 북벽

문학산성의 성벽을 구성하는 성돌의 경우, 가로와 세로 비율이 2:1, 3:1의 장방형 석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판석형 석재를 일정비율 혼용하여 축조하였다.¹⁹⁾ 그리고 문학산성 성벽은 웅진·사비기 충남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백제석성의 성돌의 장방형 석재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웅진·사비기 정착된 석성의 성돌 규격이 한성기 어느 한 시기에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근한 예로 장미산성과 설봉산성의 발굴결과에서도 판석형 석재를 일정비율 혼용하여 축조한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축조양식은 백제 한성기 석축산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된다. 또 성벽 하부에 석재 다짐층을 조성한 후 성벽을 축조 하였고 보강석축을 하부에 조성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예를 든 두 산성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축조양상이다.²⁰⁾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들은 고대 성곽의 축조주체 문제를

19) 고대 석축산성으로 보고된 유적은 설봉산성, 설성산성, 망이산성, 자미산성, 반월산성, 장미산성 등이 있다. 이러한 유적에서 확인된 축조방법 중 먼저 성벽의 면석을 살펴보면 세장방형 석재와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웅진·사비기 석축산성에서 보이는 가로:세로 비가 2:1 또는 3:2의 장방형 석재의 사용 예와 대조를 보인다.(서정석, 2002, 『百濟의 城郭』, 학연문화사, 233~240쪽.) 설봉산성의 경우 2차 서문지구간 외벽은 켜기돌 없이 장방형 석재를 2~3단 쌓고 그 위에 세장방형 석재를 1단 올리거나 세장방형 석재 위에 장방형 석재를 1단 쌓는 방법이 확인된다. 특히 장방형 석재는 사각추 형태로 다듬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고대 산성의 축조기법으로 알려져 있다.(金虎俊, 2004, 「利川 雪峰山城 築城技法 考察」 『文化史學』 21, 韓國文化史學會.)

20) 한성기 석축성의 축조기법은 지형에 따라 계곡부와 능선 상면의 2가지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삽도 5〉 설봉산성 북벽

살필 수 있는 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의 성곽 관련 시설물로는 봉수대와 문지, 우물 등이 있다.

① 봉수대는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각종 지지(地誌)와 읍지(邑誌)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성산봉수(城山烽燧)’로 표기되어 있다. 대응노선은 남으로 안산 정왕산봉수(正往山烽燧)와 북으로는 부평 축곶봉수(杻串烽燧)를 연결하는 연변봉수이다. 1942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는 지름 2칸의 만두형(饅頭形)의 봉수대가 남아있고 이를 미추왕릉(彌鄒王陵)으로 보는 전승이 있다고 한다.²¹⁾ 1949년의 조사에서는 봉돈이 토축(土築)의 원루(圓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²²⁾ 군부대 건설시 완전히 멸실되었다.

② 문지는 성벽 파괴가 심하여 지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성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서벽에 개설되어 있는데 원래 주출입문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문지는 1958년 인천시에 의해 개수(改修)되었

계곡부의 성벽은 성 안쪽을 성벽 상면까지 점토다짐으로 채우는 특징이 있다. 이 토축부는 외벽까지 이어지며 초축시기를 가늠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이러한 토축부는 성벽 상면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내부에 평탄지 확보와 빗물 등의 성내 用水가 성벽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배출을 위한 용도로 쓰였으며 뒷채움석을 고정시켜 성벽이 밀려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능선 상면은 편축법에 의해 성벽이 축조되었는데 능선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암반을 ‘ㄴ’자로 깎아낸 후 기저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계단식 기저부는 성벽이 성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굴착한 것으로 성벽 하중의 분산과 마찰면의 확보를 위해 계단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약지반과 지하수의 침투가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암반층까지 퇴적토를 걷어내고 점토와 잔돌, 대형석재를 이용하여 1m 정도를 다진 후 성벽을 축조하기도 하였고, 계곡부에는 외벽의 기저부를 점토로 덧 대고 기단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白種伍, 2007, 「仁川沿岸의 古代城郭에 대하여」 『文化史學』 27, 韓國文化史學會, 177~178쪽.)

21)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5쪽.

22) 봉수대가 산 정상에 불록하게 솟아있는 관계로 문학산을 일명 배꼽산으로 불리웠다.(李慶成, 1949, 「烽燧」, 『文鶴山方面古蹟傳說調查報告書』, 仁川市立博物館, 42쪽.)

으나 이후 다시 파괴되었다. 이전 자료²³⁾에 소개된 당시 사진을 보면 개구부 형태의 암문으로 규모는 높이 2.2m, 너비 1.8m로 추정된다.

③ 우물지는 ‘비류정(沸流井)’이라 하여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언급되어 있다. 이곳은 전 동문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1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광복 직후까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20m 깊이의 맑은 물이 흘렀다고 전한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도 현상이 남아있었으나 이후 군사시설이 건립되면서 매몰된 상태이다.

Ⅲ. 문학산성의 변천과 인천

인천지역의 중심인 문학산 일대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생활했던 곳으로 여겨진다. 2000년 실시된 문학동 발굴조사에서 구석기시대 석영석기 2점과 빗살무늬토기 4점이 출토되어 이른 시기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²⁴⁾ 다만 조사지역이 넓지 않고 출토 유물도 한정되어 있어 정확한 문화상은 알기 어렵다.

반면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비교적 풍부하게 나타난다. 고인돌의 경우 학익동에 7~8기,²⁵⁾ 주안동에 2기, 문학동에 1기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확인되는 것은 학익동 2기, 주안동 1기, 문학동 1기가 있다. 남아있는 고인돌은 모두 북방식으로 추정된다. 우선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이전된 학익동 고인돌은 판석을 이용하지 않고 각 열마다 크기가 일정한 2개의 괴석으로 장방형 무덤칸을 만드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주안동과 문학동 고인돌은 1979년 8월에 수봉공원으로 옮겨졌다가 2005년 8월 남구 문학동 미추홀 공원으로 이전되었다.²⁶⁾ 주안동 고인돌은

23) 이종화, 1965, 『인천향토사료-문학산-』, 홍신문화사.

24) 서영대·윤용구·김현준·강동석, 2000, 『仁川 文鶴洞 先史遺蹟』, 인하대학교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7~31쪽.

25) 岡田貢, 「仁川近郊の史蹟と史話」(『朝鮮研究』(6月號), 1929, pp.2~6)에는 8기라고 했으나, 1933년에 간행된 『仁川府史』에는 7기라고 했다.

26) 인하대학교박물관, 2010, 『연학초등학교 북측 재개발지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5~16쪽.

발굴을 통해 북방식 구조임이 밝혀졌고²⁷⁾ 문학동 고인돌은 뚜껑돌만 잔존하지만 그 형태로 보아 북방식으로 추측된다. 특히 주안동 고인돌의 뚜껑돌에는 지름이 약 3~6cm 정도의 성혈(性穴)들이 파여 있다. 이들 고인돌의 입지는 학익동 고인돌을 중심으로 일직선을 이루며, 문학산 북쪽 기슭에서 수봉산 남쪽 기슭으로 연결되는 얇은 구릉에 분포한다. 그리고 이 지점은 바다로 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²⁸⁾

인천지역에서 수습된 청동기시대 유물도 대부분 문학산 일대에 분포한다. 수습유물의 대부분은 간돌도끼와 같은 석기류이다. 고인돌이 군집한 문학산과 수봉산 일대는 산록에서 경지와 연료 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크고 작은 간석지에서 바다의 식량자원을 획득하기 쉬운 입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일대에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독립된 영역을 가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⁹⁾ 그리고 이 점은 성읍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1. 고대

주지하듯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의 건국신화에는 2가지 전승이 있다. 하나는 온조왕 즉위조에 본문으로 기재된 온조 시조설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세주로 나온 비류 시조설화이다. 양자의 세부 내용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 온조와 비류가 북쪽에서 남하했다는 점과 형이 비류라는 점, 그리고 비류가 미추홀(彌鄒忽)에 정착했다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삼국사기』의 건국신화는 한반도 북방에서 출자한 2개의 정치 집단이 연합하여 백제가 탄생한 사실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온조설화에서는 아버지를 고구려의 주몽이라 하였고, 비류설화에서는 부여 해부루의 서손인 우태(優台)라고 하여 출자를 다르게 기술했

27) 李慶成, 1959, 「仁川の 先史遺蹟物 調査概要」, 『梨大史苑』 1, 70쪽.

28) 윤용구·강동석, 2000, 「인천의 청동기문화-문학산일대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앞의 책, 인하대학교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87~90쪽.

29) 김상열, 2002, 「靑銅器時代의 文鶴山」,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인하대학교박물관, 82~85쪽.

다. 또한 남하 과정도 온조설화에서는 곧장 위례성이 조망되는 부아악(負兒嶽)에 다다른 반면 비류설화에서는 패수(溟水)와 대수(帶水)를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이동경로가 달랐음을 시사한다.³⁰⁾ 특히 비류설화에서는 어머니인 소서노(召西奴)가 우태와 혼인했다가 다시 주몽과 혼인하였다. 이를 초기 농경사회의 유습³¹⁾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비류설화는 온조설화보다 더 오래된 토착신앙의 형태를 간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아마도 처음에 온조집단과 비류집단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소국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비류집단이 정착한 미추홀의 위치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 놓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신라 한산주(漢山州) 관할의 울진군(栗津郡) 소성현(邵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현(買召忽縣)이었으며, 매소홀(買召忽)은 미추홀(彌鄒忽)이라고도 불렸다. 신라의 소성현이 고려시대의 인주(仁州)였으므로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에 비정된다.³³⁾ 이와 같은 『삼국사기』의 내용은 이후 『고려사』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그대로 전제되었다.³⁴⁾

인천지역이 비류집단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백제의 건국신화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온조설화에서 비류는 온조와 달리 ‘바닷가(海濱)’인 미추홀에 정착했고, 그곳의 지리적 특징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짜다(土濕水鹹)’는 것이었다. 또한 비류설화에서 패수와 대수를 건너 남하한 점도 비류집단이 서해안을 따라 이동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미추홀의 ‘홀(忽)’이 성(城)을 뜻하는 고구려의 지명어미이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미추홀이 모두 고구려 영현으로만 나타난 것은 의문이

30)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50~51쪽.

31)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31쪽.

32) 金杜珍, 1999, 「百濟始祖 溫祚神話의 형성과 전승」, 『韓國古代的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208~214쪽.

33) 『三國史記』 권35, 잡지 4, 지리 2, 한주조, “栗津郡 … 邵城縣 本高句麗買召忽縣 景德王改名 今仁州[一云慶原 買召一作彌鄒].”

34) 『高麗史』 권56, 지 10, 인주조, “本高句麗買召忽縣[一云彌趨忽] 新羅景德王改名邵城 爲栗津郡領縣.”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인천도호부, 건치연혁조, “本高句麗買召忽縣[一云彌鄒忽] 新羅景德王改邵城 爲栗津郡領縣.”

될 수 있다. ‘홀’이 성과 같은 뜻이라면 미추홀은 ‘미추성(彌鄒城)’으로도 표기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에는 광개토왕 6년(369)에 백제를 공격하여 빼앗은 58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미추성(彌鄒城)’도 포함되었다. 즉 4세기 중반까지 백제의 영역에는 미추성이 있었으며, 그곳은 곧 비류집단이 정착한 미추홀과 동일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비류집단이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립 소국이였다는 입장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매소(買召)’, ‘미추(彌鄒)’의 음이 『삼국지(三國志)』 한전에 등장하는 모수국(牟水國)과 통하므로 마한의 모수국을 인천에 비정한 견해가 있었고,³⁵⁾ 마한의 진왕을 백제의 고이왕으로 파악한 연구에서는 목지국(目支國)을 인천에 비정하기도 했다.³⁶⁾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는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문학동과 관교동 일대를 목지국의 중심지로 보았다. 비류집단을 목지국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청동기 유적과 백제토기 산포지가 문학산 일대에서 확인된다는 점³⁷⁾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문학산 정상부에 축조된 문학산성은 본래 토성을 삼국시대 말기에 석성으로 개축한 것³⁸⁾으로 당시의 기와편과 축성기법이 나타난다. 곧 문학산성은 성곽의 평면이 파사형(爬巳形)이며, 이를 위해 작은 석재를 쌓고 긴 석재인 심석(深石)을 간간히 찢러 넣어 뒷채움한 잡석과 물리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³⁹⁾ 문학산성이 비류와 관련 있다는 전승은 조선후기까지도 이어졌다.⁴⁰⁾

미추홀의 비류집단은 어느 시기에 위례성의 온조집단과 연맹을 형성하였다. 백제 건국신화에서 비류와 온조가 형제관계로 설정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대개 백제 왕계에서 고이왕계의 등장은 비류집단과 연관되어 설

35) 兪昌均, 1983, 『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Ⅱ, 啓明大出版部, 58~59쪽; 盧重國, 1988, 앞의 책, 60~61쪽.

36) 千寬宇, 1979, 「目支國攷」, 『韓國史研究』 24, 한국사연구회, 26~27쪽.

37) 인천대학교박물관, 1999,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38~41쪽.

38) 仁川廣域市, 1997, 앞의 책, 99쪽.

39) 인하대학교박물관, 1999, 앞의 책, 86~87쪽.

40) 安鼎福, 『東史綱目』 제1상, “渡溟帶二水 至彌鄒忽[今仁川 俗傳文鶴山上有沸流城基 城門扇板至今猶存 城內有沸流井 味清冽云 勝覽不載可歎].”

명된다.⁴¹⁾ 관심을 둔 지역도 초고왕계가 한산(漢山)과 한성(漢城)을 강조한 반면 고이왕계는 비류집단의 기반인 미추홀이 속한 서부(西部)를 중시하였다.⁴²⁾ 아마도 고이왕계의 집권기 동안에 비류가 온조의 형으로 나타나는 건국신화가 재정립되었을 것이다.⁴³⁾

백제의 한성도읍기 동안 미추홀은 서부의 핵심이었지만 369년 광개토왕의 공격으로 한차례 탈취 당하였고, 475년 장수왕의 한성 공략으로 고구려의 지배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백제의 미추성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된 매소홀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가 지속되는 와중에 백제는 동성왕과 무령왕을 거치면서 혼란된 정국을 수습하고 제도정비를 이루면서 중흥을 맞이하였다. 또한 신라도 고구려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체제정비에 들어갔다. 지증왕대에 순장의 금지(502), 국호의 확정(503), 주군현제의 실시와 지방장관인 군주(軍主)의 파견(505)이 이뤄졌고, 법흥왕대에는 율령의 반포(520)와 불교 공인(528)이 이뤄져 고구려와 백제에 뒤처지지 않는 국가체제를 만들었다.

한편 고구려는 545년 안원왕이 사망한 후 왕위계승을 놓고 ‘대란(大亂)’이라 표현될 만큼 극심한 내부 혼란에 휩싸였다.⁴⁴⁾ 신라의 거칠부가 포섭한 고구려 승려 혜량(惠亮)이 신라에 망명해 오면서 ‘고구려가 정란 때문에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⁴⁵⁾으로 보면 당시 정란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목민족인 돌궐이 연연(蠕蠕)을 제압하고 북방의 신흥강자로 부상하여 고구려의 서쪽 국경을 압박하였다.⁴⁶⁾

41) 李基白, 1959, 「百濟 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역사학회, 10쪽; 千寬宇, 1976, 「三國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一志社, 134~137쪽; 盧重國, 1988, 앞의 책, 71~74쪽.

42) 千寬宇, 1976, 앞의 논문, 137쪽; 金杜珍, 1999, 앞의 논문, 217~218쪽.

43) 金杜珍, 1999, 앞의 논문, 214~222쪽. 「釋利貞傳」의 가야 건국신화에서도 대가야왕인 伊珍阿岐는 금관가야왕 金首露의 형으로 설정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경상도, 고령현, 건치연혁조). 이는 대가야가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金泰植, 1988,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1, 한국고대사학회, 191쪽).

44) 『日本書紀』 권19, 孝德 7년 7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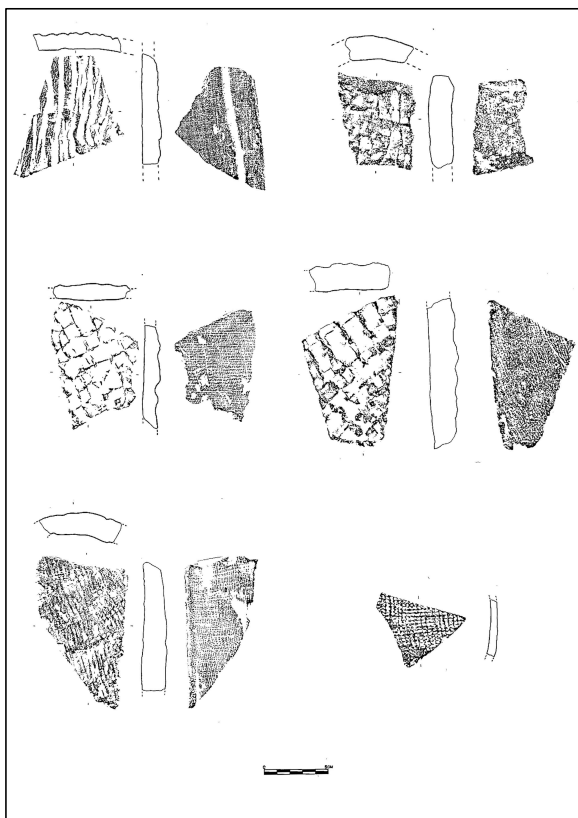
45) 『三國史記』 권44, 열전 4, 거칠부전.

46)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한국사연구회, 36~39쪽.

이 같은 상황에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나제동맹을 바탕으로 551년 한강유역 공략에 나섰다. 우선 공격을 주도한 성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한강하류 일대로 진군하였다. 당시 성왕은 고구려의 6군을 탈취하는 성과를 올렸는데, 인천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왕의 선공과 승전에 힘입은 진흥왕은 고구려의 10개 군을 빼앗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

다. 이때 확보한 고구려 10군의 위치는 ‘竹嶺以外 高峴以內’로 표현되는데, 대략 한강상류 일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강유역을 함께 공략해 분점했던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바로 다음해부터 급격하게 변하였다. 552년 백제가 한성에서 물러나고 그것을 신라가 차지해 버린 것이다. 빠르게 백제의 점령지역을 잠식해 간 신라는 553년 한강유역 일대에 새로 얻은 땅이라는 의미로 신주(新州)를 설치했다. 백제가 76년 만에 회복한 한성과 인천지역은 불과 1~2년 사이에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발원지를 수복하



〈삽도 10〉 문학산성 출토 삼국시대 유물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2. 재편집)

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성왕은 가야와 왜를 끌어들여 554년 신라의 관산성(管山城; 옥천)에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신주 군주인 김무력에게 성왕이 전사하면서 구심점을 잃은 백제는 대패를 당했다. 이로써 한강유역은 신라의 안정적인 지배가 이뤄졌고, 555년 10월 진흥왕은 이곳을 직접 순행하여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강역을 확정지었다.

한강유역에 설치된 신주는 북한산주(北漢山州)→남천주(南川州)→북한산주(北漢山州)→한산주(漢山州)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으나, 신문왕 5년(685)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하면서 한산주로 고정하였다. 이 시기 인천지역도 한산주에 포함되었고, 매소홀현이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⁴⁷⁾ 이후 경덕왕은 한화정책을 통한 왕권강화를 추진하면서 재위 16년(757)에 전국의 지명을 모두 한자화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때 한산주가 한주(漢州)로 개명되었고, 매소홀현이 소성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덕왕 이후 신라하대(新羅下代)로 접어들면서 중앙에는 극심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지방에서는 새로운 호족세력이 나타났다. 나말려초의 인천지역에도 인주 이씨, 부평 이씨, 강화 위씨 등의 호족세력이 등장했는데, 이 중 인주 이씨는 문학산 일대를 근거지로 하였다. 지금도 문학산 동남쪽에는 인주 이씨의 중시조인 이허겸(李許謙)의 묘가 있다.⁴⁸⁾ 인주 이씨의 시조는 당으로부터 이씨를 사성 받았다고 했는데,⁴⁹⁾ 이는 인주 이씨가 당과의 해상무역 속에서 성장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고려

나말려초의 호족들은 지역 기반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려의 문벌귀족으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고려왕실은 이들과 중첩된 혼인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하였다. 1011년 거란의 침입을 피해 공주로 피신했던 현종을 보좌한 김은부(金殷傅)는 3명의 딸을 모두 현종에게 출가시켰다. 그리고 그의 딸인 원성태후가 낳은 아들들이 덕종·정종·문종으로 즉위하면서 안산 김씨

47) 호암산성에서 출토된 청동제 손가락의 뒷면에는 ‘仍伐內力只乃末△△△’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한우물－호암산성 및 연지 발굴조사보고서』). 지명인 ‘仍伐內’는 고구려의 仍伐奴縣과 같은 곳으로 지금의 금천구 시흥 일대이며, ‘乃末’는 신라 관동 중에 하나인 奈末과 같다. 영벌노현이 경덕왕 16년(757)에 穀壤縣으로 개명되었으므로 앞의 명문은 지명변경 이전까지 신라에서 고구려 군현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던 근거가 될 수 있다.

48) 김성태·김기태, 2002, 「문학산의 유적」, 앞의 책, 인하대학교박물관, 267쪽.

49) 『高麗史』 권95, 열전 8, 이자연전, “其先新羅大官 奉使入唐 天子嘉之 賜姓李 子孫徙居邵城縣 卽仁州也.”

는 당시 최대 문벌가문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김은부의 부인인 안효국대부인(安孝國大夫人)이 이허겸의 딸이었다. 말하자면 이허겸은 안산 김씨를 통해 왕실의 외척이 되었던 셈이다. 현종은 왕비의 외조부인 이허겸에게 상서좌복야상주국소성현개국후(尙書左僕射上柱國邵城縣開國侯)와 식읍 1,500호를 내려줬다.⁵⁰⁾ 이는 인주 이씨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었다.

인주 이씨를 문벌귀족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이허겸의 손자인 이자연(李子淵)이었다. 이자연은 1052년 자신의 장녀를 문종의 왕비(仁睿順德太后)로 들이면서 시중(侍中)에 올랐고, 나머지 두 딸도 모두 문종의 왕비가 되었다. 그는 1061년 59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왕실 외손은 13왕자 6공주에 이르렀다. 특히 인예태후의 소생으로 순종·선종·숙종 3명의 왕이 즉위하였고,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과 보응승통(普應僧統) 규(規)도 그녀의 아들이었다. 말하자면 당시 인주 이씨의 영향력은 왕실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 뻗어 있었다. 이후로도 이자연의 아들인 이호(李顥)는 순종에게 딸을 보냈고, 다른 아들인 이석(李碩)과 이정(李頤)도 딸을 선종비로 들였다. 이 중 이석의 딸인 사숙태후(思肅太后)는 선종을 이어 왕이 된 현종의 모후가 된다.

이처럼 인주 이씨가 최고의 문벌귀족 가문으로 대두되면서 그들의 근거지인 인천지역도 위상이 달라졌다. 고려 건국 후 소성현은 1018년에 수주(樹州) 소속으로 관할이 변경 되었을 뿐 여전히 현에 머물렀다. 하지만 숙종 때 모후인 인예태후의 내향(內鄉)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되었으며, 다시 인종 때에는 문경태후(文敬太后; 이자겸의 딸)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지주사(知州事)를 두고 인주(仁州)로 높였다.⁵¹⁾ 특히 숙종은 이자의(李資義)의 난(1095)을 진압하고 왕이 된 기념으로 어머니의 고향을 ‘경원(慶源)’이라 이름 짓고 군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보인다.⁵²⁾

50) 『高麗史』 권88, 열전 1, 후비 1, 원성태후 김씨전.

51) 『高麗史』 권56, 지 10, 지리 1, 인주조.

52) 윤용구·김상열·최진식, 2002, 「문학산의 유래」, 앞의 책, 인하대학교 박물관, 64쪽.

인주 이씨가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로 엮이면서 권력이 집중되자 왕위 계승과 관련된 대립이 발생했다. 이자연의 손자이자 이정(李正)의 아들인 이자의(李資義)는 선종비인 사숙태후(昭肅太后)의 사촌오빠라는 후광을 받으며 강력한 외척으로 등장했다. 그는 사숙태후의 아들인 현종(顯宗)이 병약하고 후사가 없자 자신의 동생인 원신궁주(元信宮主) 소생(昭生)의 한산후(漢山侯) 군을 다음 대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다. 이에 인예태후(仁예太后)의 아들이자 현종의 숙부가 되는 숙종(肅宗) 이자의(李資義)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때 인주 이씨가 약간의 타격을 받았으나 이자겸(李資謙)이 다시 외척으로 등장하면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였다.

이호의 아들인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예종과 인종에게 모두 시집보내고, 한안인(韓安仁) 세력을 축출하여 권력을 독점했다. 이자겸은 척준경(拓俊京)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전횡을 일삼았다. 그러나 인종에게 회유당한 척준경에게 제거당하면서 7대 80여 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던 인주 이씨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⁵³⁾

문종대부터 인종대까지 외척으로 군림한 인주 이씨의 근거지였던 인천은 5대 왕의 외향(外鄕)이자 5대 왕비의 내향(內鄕)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것을 ‘칠대어향(七代御鄕)’이라 표현했다.⁵⁴⁾ 이는 고려의 7대 임금인 인주 이씨와 외척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인주는 1390년에 경원부(慶源府)로 다시 승격되었으나,⁵⁵⁾ 이것은 인주 이씨와는 관련이 없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후 ‘폐가입진(廢假入眞)’을 명분으로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이때 공양왕의 선대에 대한 추존작업이 이뤄졌는데, 조상을 현양하는 의미에서 인주를 부로 올리고 읍호를 환원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인주 이씨로 인해 인천은 왕실의 외척과 관련된 전통을 갖게 되었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53) 『高麗史』 권127, 열전 40, 이자겸전.

5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9, 경기, 인천도호부, 건치연혁조, “恭讓王二年 陞慶源府[王初卽位 以七代御鄕 陞之…]”

55) 『高麗史』 권56, 지 10, 지리 1, 인주조.

3. 조선

조선 건국 후 태종이 즉위하면서 관제와 지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태종은 1413년 각도의 군현 이름을 ‘천(川)’ 또는 ‘산(山)’자를 넣어 고치는 지명 개편을 단행했다.⁵⁶⁾ 이에 따라 인주가 인천군(仁川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인천이라는 지명은 이때 처음 등장했다. 인천군은 1459년 세조비인 자성왕비(慈聖王妃)의 외향이라는 이유에서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로 승격되었다.⁵⁷⁾ 자성왕비 윤씨의 본관은 파평이었고, 어머니 흥령부대부인(興寧府大夫人)은 정헌대부(正憲大夫)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이문화(李文和)의 딸로 인천의 저성(著姓)이었다. 그러므로 자성왕비의 내향은 파주이고, 외향은 인천이 되는 셈이다.⁵⁸⁾

조선시대에는 인천의 읍치가 읍주산(승학산) 남쪽에 있었으므로 문학산 일대가 중심이 된다. 때문에 문학산성은 인천의 핵심 관방시설이었다. 문학산성은 산이름이나 고을이름을 따서 남산석성(南山石城)·남산고성(南山古城)·문학산고성(文鶴山古城)·인천산성(仁川山城) 등으로 불렸다. 문학산성 내의 산 정상부에는 봉수가 설치되었는데, 조선시대 5대 직봉(直烽) 중에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변경지방에서 중앙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봉과 그 사이의 보조선망을 이루는 간봉(間烽)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서울의 남산을 마지막 기착지로 삼는다.⁵⁹⁾

직봉은 동북쪽 두만강변의 함경도 경흥 우암 봉수대에서 출발하는 1거(炬), 동남쪽 경상도 동래의 응봉 봉수대에서 출발하는 2거, 서북쪽 압록강변의 평안도 강계 여둔 봉수대에서 출발하는 3거, 마찬가지로 압록강 입구 의주의 고정주 봉수대에서 출발하는 4거, 그리고 서남쪽 순천 돌산

56) 『太宗實錄』 13년, 10월 신유조.

57) 『世祖實錄』 5년, 11월 계미조, “以慈聖王妃外鄉 陞仁川郡爲都護府.”

58) 자성왕비의 외향이라는 이유로 인천군이 도호부로 승격된 것처럼 내향인 原平府도 波州牧으로 승격되었다(『세조실록』 5년, 10월 경술조, “慈聖王妃內鄉 陞原平府爲波州牧”).

59) 조선시대의 擧火法은 5거법을 사용했는데, 평상시에는 1개, 적이 육지에 출현하면 2개, 국경에 접근하면 3개, 국경을 침입하면 4개, 교전이 발생하면 5개를 올렸다. 그리고 교전이 계속 이어지면 狼糞을 사용했다. 한편 바다의 경우 적선과 해상에서 교전이 일어나면 4개, 적이 육지에 상륙하면 5개를 올렸다(『經國大典』 兵典 烽燧條).

봉수대에서 출발하는 5거로 이뤄졌다.⁶⁰⁾ 그 중 5거는 순천의 방답진에서 진도 여귀산을 거쳐 수원, 남양, 안산을 지나 인천의 문학산 봉수에 이른다. 문학산을 지난 봉수는 다시 김포·통진·강화·양천 일대로 두루 퍼져나가고 최종적으로 남산의 제5봉수대에 도착했다. 문학산 봉수는 성산봉수(城山烽燧)로 불렸으며, 세종 즉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⁶¹⁾ 1942년까지 지름 3.6m의 토만두형(土饅頭形) 봉수대가 남아있었고,⁶²⁾ 1949년의 조사에서는 그것이 토축으로 된 원루였다고 했다.⁶³⁾ 현재는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멸실되었다.

직봉이 설치될 만큼 군사적 거점이었던 문학산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퇴시킨 곳이기도 했다. 『선조실록』에는 인천고성에서 험한 지형을 이용해 승리했음을 전하고 있는데,⁶⁴⁾ 인천고성은 문학산성을 의미한다. 『여지도서』에서는 이때 왜군을 물리친 사람이 인천부사 김민선(金敏善)이라고 전한다. 『여지도서』와 읍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부평에서 조선군을 물리치고 계양산성을 근거지로 주둔하다가 일부 병력을 나누어 인천을 공격하였다. 이때 인천부사 김민선은 문학산성을 보수하는 등 만반을 방어 태세를 갖추어 왜군을 맞이하였고 안대평(安垔坪)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 문학산성 내에 있었던 안관당(安官堂)은 그와 관련된 건물이라고 전해지지만 정확하지는 않다.⁶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유사시 서울을 사수한다는 도성수비론(都城守備論)이 등장하면서 숙종과 영조대에 대규모 도성 수축이 이뤄졌다. 이때 문학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수축 논의가 일어났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⁶⁶⁾ 이후 문학산성은 별다른 조치 없이 유지되다가 개항기에 접어들면서 인천연안의 방비가 중요해 지자 일부 수축되었던

60) 『增補文獻備考』 권123, 兵考 15, 烽燧條.

61) 『世宗實錄』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인천군조, “烽火一處 城山在郡南.”: 『新增東國輿地勝覽』 권9, 경기, 인천도호부, 봉수조, “城山烽燧[在府南二里 南應安山郡吾叱耳 北應富平府柵串山].”

62)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實物古蹟調査資料』, 5쪽.

63) 李慶成, 1949, 「烽燧」, 『文鶴山方面古蹟傳說調査報告書』, 42쪽.

64) 『宣祖實錄』 권46, 26년 12월 임자조, “故仁川山城 九月山城 彌陀山城 及幸州之戰 皆以地險取勝.”

65) 김상열, 2002, 「문학산의 역사」, 앞의 책, 인하대학교박물관, 125~126쪽.

66) 『肅宗實錄』 권46, 34년 5월 정해조.



〈삽도 11〉 화도진도

것으로 보인다. 신미양요(1871)의 상황을 소상히 기록한 『소성진중일지(邵城陣中日誌)』⁶⁷⁾에 따르면, 문학산성은 임진왜란 이후 방치되어 왔다고 한다. 이에 문학산성의 수축을 위해 둔전(屯田)을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으며,⁶⁸⁾ 계(契) 조직을 통한 자체적인 보수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⁹⁾

그러나 1883년 제물포에 개항장이 열리고 읍치가 현재 중구 일대로 옮겨지면서 문학산 일대는 점차 쇠락해 갔다. 게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해 부제(府制)가 실시되

면서 인천부 일부와 부평을 합해 부천군(富川郡)이 신설되고 인천부는 인천항으로 축소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문학산 일대는 전통적 원형이 파괴되었고, 광복 이후가 돼서야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IV. 맺는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산성의 현황과 시기별 변천과정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와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한계는 문학산성에 대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문학산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고대성곽에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문학산성의 구체적인 축조기법과 축성시기 등을 밝히고 나아가 상호 비교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는 실

67) 『邵城陣中日誌』는 1871년 4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48일간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난 미국 함선과 인천도호부가 교전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당시 인천부사인 具完植의 조카가 숙부의 방어 준비과정과 내외 사정을 소상히 묘사하여 신미양요 때 조선군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68) 『邵城陣中日誌』 4月 20日條.

69) 『邵城陣中日誌』 仁川府射砲契節日條.

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발굴조사를 진행하기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따른다. 여기에서는 다소 논의에서 벗어나지만 향후 인천지역 성곽의 조사연구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며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연구 방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미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성곽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성곽 조사 과정에서 혹은 출토 유구의 해석 등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나 방법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즉 성곽 조사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곽 조사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지역간 성곽의 상호 비교, 시기별 변천과정 분석을 통한 국가별 공유관계의 검토 등 연구의 다양화와 수준 제고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성곽 조사 과정에서 향후 정비 복원과 관련된 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천지역의 많은 성곽들이 정비 복원 되었으나 그 결과에 대해 누구나 만족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보수 복원 과정에 비전문가 집단이 깊숙이 개입하거나 복원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오랫동안 시정되지 못하고 단순히 답습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선부른 유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유적의 원형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화적 손실을 가져왔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참여와 연구를 보장하여 정비 복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모든 조사 자료와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종합화하는 최종 목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는데 있어야 한다. 종래의 성곽 조사연구는 성곽의 외형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단조로운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곽 유적에 대한 흥미 상실을 가져왔다. 성곽의 외형에 대한 치중은 성 내부에 체육시설, 군사시설 등의 난립을 수반하게 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유적 훼손을 초래하

였다. 앞으로 성곽 조사연구에 있어서 성곽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나 사건, 지역민의 삶과 전승, 성곽 주변의 경관 보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의 원형을 찾으려는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⁷⁰⁾

우리나라에는 남한지역에만 2,100여 개소의 성곽이 남아있다. 이러한 성곽은 우리 곁을 지키면서 우리를 이어주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 점만으로도 성곽은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인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서도 매우 높은 매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성곽의 올바른 가치를 찾는데 함께 노력할 때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01, 『한강』 경기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Ⅱ.
 경기도박물관, 2003,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Ⅲ.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0, 『전국유적목록』.
 文化公報國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攬』.
 史料收集委員會, 1956, 『仁川郷土史料』.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한우물－호암산성 및 연지 발굴조사보고서』.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1, 『계양산일대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8, 『京畿道 金浦市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0, 『강화도의 국방유적』.
 仁川廣域市, 1997, 『文鶴山城 地表調査報告書』.
 仁川廣域市, 1997, 『桂陽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인천시립박물관, 1949, 『文鶴山方面古蹟傳說調査報告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70) 白種伍, 2007, 앞의 논문, 179~180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 仁川直轄市, 1993, 『仁川市史』.
- 인하대학교 박물관, 1999,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2,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인하대학교 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仁川 文鶴洞 先史遺蹟』.
-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忠州 薔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 한국보이스카웃연맹, 1990, 『韓國의 城郭과 烽燧』.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 한양대학교 박물관, 1986, 『京畿道 百濟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5, 『수안산성 지표조사보고서』.
- 한양대학교 박물관, 2003, 『金浦 文殊山城·守安山城 試掘調査報告書』.
- 岡田貢, 1929, 「仁川近郊の史蹟と史話」, 『朝鮮研究』(6月號).
- 姜眞周, 2006,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杜珍, 1999, 「百濟始祖 溫祚神話의 形成과 전승」,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 金泰植, 1988,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1, 한국고대 사학회.
- 金虎俊, 2004, 「利川 雪峰山城 築城技法 考察」 『文化史學』 21, 韓國文化史學會.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한국사연구회.
- 白種伍, 1998, 「京畿南部地域의 百濟山城(Ⅰ)」, 『京畿道博物館年報』 2, 京畿道博物館.
- 白種伍, 2004a, 「百濟 漢城期 山城의 現況과 特徵」, 『白山學報』 69, 白山學會.
- 白種伍, 2004b, 「安城川流域 方形土城의 性格」, 『京畿史學』 8, 京畿史學會.
- 白種伍, 2007, 「仁川沿岸의 古代城郭에 대하여」, 『文化史學』 27, 文化史學會.

- 백종오·김병희·김주홍, 2001, 「京畿·서울·仁川地域 國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 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서정석, 2002, 『百濟의 城郭』, 학연문화사.
- 심광주, 2004, 「漢城時期的 百濟山城」 『고고학』 3-1, 서울·경기고고학회.
- 沈正輔, 1996, 「百濟山城研究」 『百濟歷史再現團地造成 調查研究報告書-고고미술분야 I』, 忠淸南道.
- 沈正輔, 2001, 「百濟 石築山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 35, 韓國上古史學會.
- 심정보, 2004, 『백제산성의 이해』, 주류성.
- 오강석, 2007, 「百濟 漢城期 城郭 研究」, 世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俞昌均, 1983, 『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Ⅱ, 啓明大出版部.
- 윤명철, 2000, 「제5장 경기만지역의 해양방어체제」 『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제 연구』, 백산자료원.
- 李慶成, 1959, 「仁川의 先史遺蹟物 調査概要」, 『梨大史苑』 1.
- 李基白, 1959, 「百濟 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역사학회.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이종화, 1965, 『인천향토사료-문학산-』, 흥신문화사.
- 이형상, 1991, 『강도지』, 강화문화원.
- 차용걸, 2005, 『백제 지역의 고대산성』, 주류성.
- 千寬宇, 1976, 「三國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一志社.
- 千寬宇, 1979, 「目支國攷」, 『韓國史研究』 24, 한국사연구회.
- 허미형, 2005, 「경기지역의 新羅系 평기와 小考」 『畿甸考古』 5, 기전문화재연구원.

강도시기 고려의 문화

김 형 우

(문화재청)

강도(江都)시기 고려의 문화

김형우 (문화재청)

◆ 목 차 ◆

- I . 고려대장경의 간행
- II .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달
- III . 이규보의 문학세계
- IV . 고려청자의 이해
- V . 선원사의 성격

I . 고려대장경과 강화도

(1) 개관



강화도읍기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경판 해인사고려대장경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에 완성한 재조대장경은 본래 강화도의 ‘대장경판당’에 있었으나 현재는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8만 장이 넘는 목판이므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는 제작의 정밀성과 글씨의 아름다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꼽힌다.

(2) 대장경이란?

대장경은 경, 율, 논(三藏)의 삼장으로 구성되며,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것이다. 교리 체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의의가 높은 유산이다. 삼장(三藏)의 경(經)은 부처가 설한 근본 교리이고, 율(律)은 교단에서 지켜야할 윤리 조항과 생활규범이며, 논(論)은 경과 율에 대한 승려나 학자들의 의론과 해석을 일컫는다.

고려시대에는 대장경을 두 차례 판각하였다. 첫번째의 것을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 하고 두번째의 것을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라고 한다.

(3) 대장도감이 주관

고려시대 재조대장경의 판각업무를 관장하던 관서는 ‘대장도감’이다. 초조대장경의 판각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서의 명칭은 전하지 않으며, 고려의 초조대장경판이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자 1236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판각업무를 시작하였다. 도감의 본사(本司)는 대몽항쟁기의 도읍인 강화에 두어 판각사업을 주관하게 하고, 분사(分司)를 지방에 두어 그 일을 분담하게 하였다.

분사대장도감

대장도감의 분사는 경남 남해에 있었다. 《종경록》 권27에 ‘고려국 분사 남해대장도감(高麗國 分司南海大藏都監)’이라는 표시가 있다. 분사대장도감의 소재지는 남해도였으나, 남해도의 행정관할이 진주목에 속해 있었으므로 진주분사대장도감으로 일컫기도 한다. 분사대장도감의 명칭은 《선문염송집》, 《조당집》 등 몇몇 곳에 표시되어 있다. 분사를 남해도에 둔 것은 남해안 지방 일대가 당시의 최고집권자 최씨 일족의 경제권역인데다 교통수단이 육지보다 편리하여 경판용 목재의 조달 등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4) 판각사업기간

1236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판각하기 시작하였고, 16년 걸려 1251년

(고종 38) 9월에 완료되자 고종은 강화성의 서문(西門) 밖에 있는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그 완성을 경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5) 경판 제작과정

- ① 여러 대장경을 수집 · 대조하여 목록을 만들고 오류를 정정한다.
우리나라의 초조대장경, 북송본(北宋本)대장경, 거란본(契丹本)대장경 등을 수집, 일일이 대조하여 목록을 결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오류를 정정한다. 이 일은 개태사(開泰寺)의 수기(守其) 승통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많은 학식 있는 스님들이 참여하였다.
- ② 종이에 필사한다.
대장경의 교정본에 의거하여 경전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하여 종이에 먹으로 쓴다. 고려시대에는 전문적으로 불경을 베껴 쓰는 사경승(寫經僧)이 많이 있었으며, 목판에 새기기 위해 종이에 필사된 것을 판하본(板下本)이라 한다.
- ③ 판재를 마련한다.
산벚나무 등의 나무를 베어 바닷물에 담가 부식과 해충을 방지하고, 판재로 만들어 소금물에 삶아서 그늘에 말린 다음,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판각할 수 있도록 다듬는다.
- ④ 판재에 글자를 새긴다.
종이에 쓴 판하본을 판재에 뒤집어 붙인 후 초벌새김, 재벌새김, 마무리새김의 과정을 거쳐 글자를 새긴다. 각수(刻手)가 판각을 완료하면 판을 보호하기 위해 각목으로 마무리하고, 옷칠을 한 뒤 네 귀퉁이를 동판으로 고정하고 장식한다.

(6) 의의

국보 32호인 해인사의 고려 재조대장경판은 그 규모가 방대할 뿐아니라 세계의 어느 대장경보다도 정확하게 만들어져 세계 불교 문화 유산 중에 단연 으뜸가는 보배이다. 또한 이를 낳은 당시 고려의 불교문화도 세계적 수준이었던 것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대장경판은 고려의 대몽고 항쟁기

간 동안 강화(江華)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30년간의 전쟁 와중에 16년이라는 긴 세월과 무수한 인력 재력을 들여 이 거대한 대장경 조성 불사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 대장경의 간행 사업은 대몽항쟁 전쟁 중에 왕성한 민족의식과 문화의식, 그리고 일반 민중의 불교 신앙심에 힘입어 완수될 수 있었다. 몽고의 침입에 대처함에 있어서 대내적인 결속을 민족의식 속에서 찾고, 특히 우리는 대장경을 조성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문화적 긍지를 의식하게 하고 몽고를 야만시함으로써 대몽고 항쟁의 지표를 명백히 할 수 있었다.

또한 대장경의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려 불교의 높은 수준과 그 전통적 저력 때문이었다. 대장경을 조성하는 일은 위낙 거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교계가 쏟은 정력도 대단한 일이었다. 고려 재래의 대장경본을 위시해서 북송본(北宋本), 거란본(契丹本) 등의 여러 경전을 수집하고, 편집, 교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교정의 총책임을 맡았던 분은 수기(守其)스님인데, 그는 개태사의 승통으로 학식이 뛰어난 화엄종 승려였다.

고려대장경은 동아시아의 불교문화유산을 응축시킨 세계적 보물이고, 이를 어려운 여건에서 조성하고 보존시켜 왔다는 점에서 고려 문화의 축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7) 총량과 연인원, 기간, 소요자재의 추정

- # 총 경판수 : 81,258장(문화재청 국보설명,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경판 1장 크기 : 가로 70cm내외, 세로 24cm내외, 두께 2.6cm~4cm
- # 책 페이지 수 : 약 32만 페이지 (목판1장 4페이지× 약8만장)
- # 총 글자수 : 약 5,000만자 (목판1면 약300자)
- # 통독 가능 기일 : 약 30년 (하루 4~5천자 독서 기준)
- # 쌓았을 때의 높이 : 약 3200m (목판1장 두께 약4cm× 약8만장)
- 백두산보다 높음
- # 총 무게 : 약 250t (목판1장 약3kg× 약8만장) 1t 트럭 250대 분량
- # 소요 목재 : 지름 40cm 나무 약 15,000그루
- # 소요 한지 : 약 50만장 (필사본 16만면의 3배 추정)
- # 한지 제작인원 : 연인원 약 1만명 (1인 1일 50장 제작 기준)
- # 필사 인원 : 연인원 약 5만명 (1인 1일 1000자 필사 기준)
- # 판각 인원 : 연인원 약 125만명 (1인 1일 30~40자 판각 기준)

[<KBS역사스페셜2(효형출판, 2001)>282~298쪽 참고]

2. 금속활자 인쇄술

(1) 개요

인쇄술은 고려시대의 기술학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야 중의 하나였다. 방대한 고려대장경의 간행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목판인쇄술은 한 가지의 책을 다량 인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여러 가지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 데에는 활판인쇄술만 못 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일찍부터 활판인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으며,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금속활자발상중흥기념비(강화군)

(2) 발명 배경과 시기

고려시대에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것은 목판 인쇄술의 발달, 청동 주조 기술의 발달, 인쇄에 적합한 먹과 종이의 제조 등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 발명되었으리라고 추측되며, 강화도읍 시기에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 이는 서양에서 금속활자가 시작된 것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3) 《상정고금예문 詳定古今禮文》

12세기 인종 때 최윤의 등이 지은 50권 1질인 국가의례서인데, 강화도로

천도할 때 예관이 가지고 오지 못하여, 최우가 가지고 있던 1질에 의거하여 강화도에서 금속 활자로 28부를 인쇄하였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려있는 <신인상정예문발미 新印詳定禮文跋尾>에 기록되어 있다. 몽고군의 침략에 항전하고 있던 중에 거질의 책을 금속활자로 찍어냈다는 것은 천도 이전에 이미 주자인쇄의 경험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남명천화상송증도가 南明泉和尚頌證道歌》

이 책 권말의 최이(崔怡)의 지(誌)에, “이 책은 선문(禪門)에서 가장 긴요한 책인데, 전하는 것이 드물어 주자본(鑄字本)에 의거하여 1239년(고종 26) 다시 새겨 널리 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금속활자가 1232년 강화로 천도하기 이전인 13c 초 개경에서 이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탕책을 뒤집어 새긴 것이지만, 중앙관서가 정교하게 새겼기 때문에 활자본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5) 《직지심체요절 直指心體要節》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 책은 1377년 7월 청주목(淸州牧)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興德寺)가 찍어낸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그 인쇄본을 살펴보면 글자의 먹색에 진하고 옅음의 차이가 심하며, 특정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기울어지고 글줄이 곧바르지 않다. 본문 중에 거꾸로 식자되거나 인쇄 중에 탈락된 것이 있으며, 글자획에 칼로 새긴 자국이나 나뭇결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초기의 금속활자본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6) 조선시대의 활용

고려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된 금속활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더욱 개량되었다.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이어서 세종 때에는 '갑인자'를 주조하였는데, 이는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세종 때에는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다.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밀랍

대신 식자관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

3. 이규보의 문학세계

(1) 개요

이규보(1168~1241)는 고려시대 최대의 문인이자 무인집권기를 대표하는 관료이다.

본관은 황려(黃驪:驪州). 초명은 인저(仁氏),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만년에는 시·거문고·술을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렸다 한다.

벼슬은 정당문학을 거쳐 문하시랑평장사 등을 지냈다. 경전(經典)과 사기(史記)와 선교(禪敎)를 두루 섭렵하였고, 호탕 활달한 시풍은 당대를 풍미하였으며 명문장가였다. 그는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문한(文翰)의 관직자이며, 양심적이며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최씨정권 하의 문한직 관리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것이다. 문집으로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이 있다.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이규보묘(인천시기념물 제15호)

(2) 동명왕편

그가 지은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도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3) 대장경을 판각할 때 군신이 기원하여 고한 글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 [정유년(1237)에 행하였다.]

국왕은 태자·공·후·백·재주, 문무 백관 등과 함께 목욕 재계하고 끝없는 허공계, 시방의 한량없는 제불보살과 천제석(을 수반으로 하는 삼십삼천의 일체 호법영관에게 기원하며 고합니다.

심하도다, 몽골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고 혼암함도 또한 금수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에는 불상과 경전을 마구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던 대장경(大藏經)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 여러 해를 걸려서 이룬 공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여러 부처의 대자비심(大慈悲心)에 대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제자 등이 지혜가 어둡고 식견이 얕아서 일찍이 오랑캐를 방어할 계책을 못하고 힘이 능히 불승(佛乘)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보배가 상실되는 재화를 보게 되었으니, 실은 제자 등이 무상한 소치입니다.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금구옥설(金口玉說)은 본래 이루게 되거나 헐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붙여 있는 바가 그릇이라 그릇의 이루어지고 헐어지는 것은 자연의 운수입니다. 헐어지면 고쳐 만드는 일은 또한 꼭 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불법을 존중해 만드는 처지이므로 진실로 우물우물 넘길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으면 어찌 감히 역사가 거대한 것을 염려하여 그 고쳐 만드는 일을 꺼려하겠습니까?

이제 재집(宰執)과 문무 백관 등과 함께 큰 서원을 발하여 이미 담당 관사(官司)를 두어 그 일을 경영하게 하였고, 따라서 맨 처음 초창한 동기를 고찰하였더니, 옛적 현종 2년에 거란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 군사는 오히려 송악성(松岳城)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해 이룬 뒤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가지고, 전후 판각한 것도 한가지고,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또한 한가지인데, 어찌 그때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불다천이 어느 정도를 보살피 주시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진실로 지성으로 하는 바가 전조(前朝)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니, 원하옵건대 제불성현 삼십삼천(諸佛聖賢 三十三天)은 간곡하게 비는 것을 양찰하셔서 신통

한 힘을 빌려 주어 완악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여, 전쟁이 그치고 중외가 편안하며, 모후(母后)와 저군(儲君)이 무강한 수를 누리고 나라의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주신다면, 제자 등은 마땅히 노력하여 더욱 법문(法門)을 보호하고 부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제자 등은 간절히 비는 마음 지극합니다. 밝게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4. 선원사의 성격

(1) 개관

고려왕조가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에 수도를 두고 있던 고종 32년(1245)에 진양후 최우(崔瑀)에 의하여 선원사가 창건되었다. 당시 최고권력자이던 최우는 몽고군에 의해 불탄 대장경을 다시 조성하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병란을 물리치고자 대장도감(大藏都監)이라는 기구를 세웠고,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대장경을 체계적으로 봉안하고 관리하며, 이 대장불사를 성공적으로 회향하기 위하여 대장도감 옆에 선원사를 세웠던 것이다.



선원사지 (사적 제259호) 발굴

선원사의 초대주지로 진명국사(眞明國師)가 취임한 이래, 원오국사(圓悟國師), 원감국사(圓鑑國師), 혜감국사(慧鑑國師) 등이 법등을 이었으며, 수백 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던 고려시대 동방제이총림(東方第二叢林)이었다. 조선 태조 7년(1398)에 대장경이 선원사를 떠나 해인사로 옮겨간 후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 이후 폐허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청은 1977년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1번지 일대를 사적 259호 선원사지(禪源寺址)로 지정하였으며, 1996년부터 5년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선원면이라는 지명은 선원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1977년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1번지 일대를 사적 259호 선원사지(禪源寺址)로 지정하였으며, 1996년부터 5년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선원면이라는 지명은 선원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2) 선원사의 역사

선원사(禪源寺)는 대몽항쟁의 정신적 지주로 삼기 위해서 창건되었다. 대장도감이라는 임시 국가기관에서 제작된 대장경판을 체계적으로 봉안, 관리함과 아울러 선림의 칼(禪林之劍)로 몽고군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선원사가 창건되었던 것이다.

낙성회에는 진명(眞明)국사를 맞이하여 법주(法主)로 삼았으며, 원오국사 등 국내의 고명한 승려 3,000명이 초청되었다. 초대 주지에 임명된 진명국사는 신화(神化), 신정(神定)스님 등 훌륭한 남자 200명을 거느리고 선원사에 와서 1252년까지 6년 동안 주석하며 선원사의 기틀을 다졌다. 진명국사는 선원사 초대 주지를 마치고 바로 조계산 수선사(修禪社)로 내려가 제4대 조사가 된 당대의 제일가는 선승이다.

1252년에 원오(圓悟)국사가 선원사 제2대 주지가 되어 4년 동안 재임하였으며, 그 뒤 조계산 수선사의 제5세 조사가 되었다. 원감(圓鑑)국사는 선원사에서 원오국사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으며, 나중에 수선사의 제6세 조사가 되었다. 혜감(慧鑑)국사는 1300년 경 선원사의 주지로 재직 한 후에 수선사 제 10세 조사가 된 분으로, 선원사에 주석할 때, 원나라 몽산덕이(夢山德異)스님이 보내준 육조단경을 선원사에서 간행하였다.

그후 식영연감(息影淵鑑)스님은 선원사를 복원을 위한 상소문을 지어 중흥에 힘썼으며, 환암혼수(幻庵混修)스님은 선원사에서 식영스님으로부터 능엄경을 배운 후 나중에 수선사의 주지가 되었다.

이처럼 선원사는 조계산 수선사(현 松廣寺)와 더불어 고려시대 제2대 선찰로 명성이 높았으며, 진명혼원(眞明混元), 원오천영(圓悟天英), 원감충지(圓鑑冲止), 혜감만항(慧鑑萬恒), 식영연감(息影淵鑑), 환암혼수(幻庵混修) 등 고려시대를 풍미하던 덕높은 선승들이 법등을 이어 도량을 수호한 대가람이었다.

유적을 통해 본 강도시대

이 회 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적을 통해 본 강도시대

이희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 I . 머리말
- II . 강화천도의 과정
- III . 강도시대의 유적
 - 1) 궁궐과 성곽
 - 2) 무덤
 - 3) 절터

1. 머리말

강화도는 13세기 대몽항쟁기에 고려왕조의 수도가 옮겨 자리했던 곳이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일시적인 피난을 하는 것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일국의 수도를 아예 옮기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로 고려시대를 이해하는데 강화가 차지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남북분단이 되어 북한에 있는 고려관련 자료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려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 강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강화가 남한에서 고려의 중앙문화를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강화에서 고려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시대 강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강도의 궁궐과 성곽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궁

지는 수차례의 발굴조사에서도 고려시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강도의 궁궐 위치가 아직 미궁에 빠져 있으며, 대장경과 관련된 사찰인 선원사에 위치비정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논란이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당시 유적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가 많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강도가 자리했던 현재의 강화 읍 지역의 경우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져 유적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이다.

다행히도 최근 여러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면서 고려시대 강화도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고 있어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강화도 곳곳에는 강도시대 강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고려 왕릉과 왕비릉이 자리 잡고 있고 강화도 곳곳에 고려인들의 무덤떼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금은 폐허가 된 채 건물흔적과 기와장만 남기고 있지만 전란을 견디어 내야만 했던 고려인들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사를 일으켜 만들었던 사찰들도 곳곳에 남아있다.

2. 강화천도의 과정

고려는 몽골과의 관계는 희종 7년(1211) 금에 파견된 고려의 사신단 10명이 몽고군에 의해 몰살되면서 악화되었다. 고종 6년 이후 정기적인 징구(徵求) 형식의 몽골과의 관계는 저고여(著古與)의 피살사건으로 단절되었고, 고종 18년(1231)에는 몽골의 1차 침략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고려는 이듬해에 몽골과 일단 화의를 맺고,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강화도가 천도지로 주목된 이유는 수전에 취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고, 육지와 뿔근하면서도 조석간만의 차와 조류 등의 효과가 크며, 개경과 가깝고, 지방과의 연결(조운 등)이 편리하다는 지리적인 장점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강화도로의 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몽골이 철수한 직후인 1232년 2월의 일이고, 천도를 결정한 것은 동년 6월 16일이었으며, 고종이 강화도에 입어한 것은 7월 7일이었다.

고종 19년(1232) 7월 6일 고종이 개경을 출발하여 7일에 강화 승천보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강화천도는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고종은 강화현의 객관(客館)에 임시 거처하게 되었다. 강화천도가 단행된 후 빠르게 수도로서의 제반시설작업이 진행되었다. 강화현은 고려 왕실이 천도하면서 군으로 승격되어 읍호를 강도(江道, 일명 沁都)라 하였다.

고종 19년(1232) 6월에 궁궐공사가 시작되었고, 1234년에는 여러 도의 장정들을 동원해 궁궐 및 백사를 조영하는 등의 주거시설과 함께 방어시설도 축조되었다. 천도하던 해에 3,874척 하에 이르는 내성(內城)공사가 시작되었고, 1233년에는 외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1237년에 길이 37,076尺 하에 이르는 외성이 완공되었으며, 1235년에는 강화제안(江華堤岸)을 추가로 쌓았고 1250년에는 둘레 2,960여 間, 17개 성문의 중성을 쌓았다. 이처럼 강화는 도성의 면모를 갖추면서 강도라 지칭되었다.

천도 당시 개경에서 10만호가 강화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見子山·화산(남산) 등에 거주하였는데, 이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지의 개간이 진행되어 고종 43년(1256)에 승천포(昇天浦) 연안 간사지에 대규모 둔전(屯田)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태조를 비롯한 재궁(梓宮)이 강도로 이장되고, 개경일대의 사찰들을 모방하여 많은 사찰이 조영되었다. 그리하여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종교 행사가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등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춘 강화는 문화적으로도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고종 23(1236)에는 대몽항쟁의 의지로 팔만대장경 판각작업에 들어가 고종 38년(1251)에 완성을 보았다. 이처럼 강화는 임시수도적인 성격을 벗어나 정치적 수도로 자리 잡았으며, 팔만대장경 판각과 같은 대규모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로서의 진면목을 갖추었던 것이다.

강도로 천도한 고려는 몽골의 제 2차 침입(1232년 8월~12월)을 시작으로 1235년부터 1239년까지의 제3차 침입, 1247년부터 1248년까지의 제4차 침입, 1253년부터 1254년까지의 제5차 침입, 1254년부터 1259년까지의 제6차 침입 등 5차에 걸친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하였다. 무인집권세력은 강도를 거점으로 하여 내륙의 전투를 지휘하며 항전을 계속했다. 그리고 소강상태에 들어가면 몽골과 외교관계를 지속하면서 강도로의 진입을 막아내었다. 몽골도 강도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국왕의 친조(親朝) 혹은 태자의 입조(入朝) 및 출륙천도(出陸還都)를 요구하였으며, 침입시마다 강도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직접적인 공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후 고종 45년(1258) 3월 최씨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이듬해 4월 태자

가 입조하고, 뒤이어 강도의 내성과 외성을 파괴하였으며, 고종이 승화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은 고려가 몽골과의 화의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종을 이어 원종이 즉위하고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강화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되었다.

3. 강도시대의 유적

1) 궁궐과 성곽

고종 19년(1232) 강화도로 천도가 결정된 후 궁궐과 관아, 성곽이 조영되기 시작했다. 강도가 세워진 곳은 오늘날 강화읍이 자리한 일대로 강화도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강화 북산(송악산)이, 남쪽과 동쪽은 각각 남산과 견자산, 서쪽에는 고려산 자리 잡고 있어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강화읍 서북쪽에 있었던 승천포를 통해 개경과, 동쪽의 갑곶을 통해 내륙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요지이기도 하다. 이렇듯 강화읍 지역의 지리적 이점은 고려가 도읍을 건설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도가 오늘날 강화읍 지역이 가지는 방어와 교통에 유리한 지리적인 이점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개경과 입지조건이 매우 유사한 풍수적인 조건도 주요한 검토대상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강도의 궁궐은 고종 19년(1232) 강화천도가 결정되자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조영하기 시작했다. 궁궐의 완성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234년 고종이 내전에서 소재도량(消災道場)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233년 말에는 궁궐의 틀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보수나 개창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도의 궁궐과 관청 등은 개경을 모델로 하여 건립되었고, 그에 따라 명칭과 구조, 배치 역시 개경의 그것과 같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나 개경 만월대의 위치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고려궁지가 자리한 주변지역을 궁궐위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지금의 고려궁터에 대한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에서도 관련된 유

구나 유물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강도의 궁궐 이외에 이궁과 별궁도 건립되었다. 이궁 내지 가궐을 창건 하면 나라나 왕의 운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연기설의 영향으로 고종 46년(1259) 2월 마니산에 이궁을 창건하였고, 같은 해 4월 삼랑성과 신니동 가궐이 지어져 1264년 완공되었다. 마니산 이궁은 지금 흥왕리에 있으며, 삼랑성 가궐은 전등산 경내, 신니동 가궐은 선원면 지산리로 비정된다. 이 가운데 마니산 이궁은 현재 그 터가 남아 있으나 삼랑성과 신니동 가궐은 구체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궁궐과 함께 강도가 도읍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곽이 설치되어야 했다. 강도의 성곽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어서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내성, 중성, 외성의 3개의 성곽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려사』에서 내성의 축조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내성을 허물었다는 기사와 함께 『新增東國輿地勝覽』, 『江都誌』, 『輿地圖書』 등 자료를 종합할 때 강도가 3성 체제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경의 성곽체제가 궁성(宮城), 황성(皇城), 나성(羅城)의 3성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도가 개경을 모델로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성곽도 개경의 그것과 같은 체제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성곽의 구체적인 형태와 위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실정으로 지금으로서는 3개의 성곽이 모두 토축(土築)으로 조성되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내성은 주위가 3,874척(약 1,240m)이며, 외성은 37,076척(약 11,860m)으로 전한다.

현재 강도의 성곽 가운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강화읍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토축성이 유일하다. 이 성은 중성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기록상의 내, 중, 외성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강화읍을 중심으로 환축한 성곽의 구조로 미루어 보아 지금의 중성이 강도를 최 외곽에서 둘러싼 도성(都城)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궁궐과 성곽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강도는 송악산, 견자산, 남산, 그리고 그 사이를 동서로 흐르는 동락천 일대가 중심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도는 고종 21년 궐남리에 대풍으로 화재가 발생해 수천채의 집이 불탔다고 하며 고종 32년에도 견자산 북리에서 민가 800여 채가 불에 탔다는 기록으로 보아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도의 중심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그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밖에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려산과 하음산, 교동의 화개산 등지에서도 고려시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성곽들이 남아있다.

2) 무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 강화에는 왕릉을 비롯해 대략 23개소 이상의 고려시대 고분(군)이 분포한다. 무덤은 후대의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후대의 생활터전에 자리해 훼손되거나 멸실되기 쉬운 건물과 집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관련 유적이 많지 않은 강도시대 강화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강화도는 강도시대 사망한 고려회종의 석릉(碩陵)과 고종의 홍릉(洪陵) 등 왕릉 2기와 가릉(嘉陵)과 곤릉(坤陵) 등 왕비릉 2기가 자리하고 있어 남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려 최상위 묘제를 살펴 볼 수 있는 곳이다. 최근 몇 년간 석릉과 가릉, 곤릉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왕(비)릉의 구조가 밝혀진 바 있다.

왕릉이외에도 정확한 피장자는 알 수 없지만 능내리와 인산리, 연리에서 왕릉과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가진 석실묘가 분포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판석으로 된 석곽묘 등 상위계층의 무덤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등 고려 상위계층 묘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강화 곳곳에서 석곽묘와 토광묘 등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묘제가 확인되고 있는데 고분군의 분포 밀도 또한 다른 내륙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강화 고려고분에 대한 조사는 시작 단계로서 대부분의 고분군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사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화지역 고려시대 고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분의 유형과 구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묘제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봄으로써 강화도 고려고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고려시대 고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고분은 석실묘(石室墓)와 석곽묘(石槨墓), 토광묘(土壙墓) 등이다. 석실묘는 고려시대 최 상위계층의 묘제로 왕실의 무덤으로 이용되었다. 석실묘의 구조는 크게 묘역과 석실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산지의 사면에 장방형 묘역을 조성한 뒤 석축 또는 석단을 이용해 3~4단으로 묘역을 구분한다. 묘역의 최 상단에는 曲牆을 두르고 그 안에 봉분이 위치해 묘역의 중심을 이룬다. 봉분의 하단에는 장식과 봉분보호의 기능을 하는 병풍돌을 설치하며, 그 바깥으로 난간석을 두른다. 묘역의 2~3단에는 석인상과 석물을 배치하고 하단에 정자각을 설치한다. 석실은 판석 또는 할석을 이용 벽체를 축조하고 판석 수 매로 천장을 구성한 방이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으로 가로 세로가 각각 2~3m 내외이며 높이 또한 2m 정도다. 입구의 바닥에는 문지방석을 깔고, 양쪽 장벽에 기둥돌을 세운 뒤 판석 1매로 마감한다. 입구에서는 나무문으로 이중문을 설치한다. 석실 바닥의 가운데에는 보통 판대가 설치되고, 석실바닥은 석비레층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판돌 또는 벽돌을 시설하는 예가 많다. 벽과 천장에는 벽화가 그려진다.

석곽묘는 4벽을 판석이나 할석을 이용해 축조하고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는 형태이다. 석곽묘는 축조방식에 따라 다듬어진 판석(板石)으로 사방 벽면과 덮개를 구성하는 판석조석곽묘(板石造石槨墓)와 치석된 할석(割石) 또는 자연석을 이용해 벽체를 축조하는 할석조석곽묘(割石造石槨墓)로 구분된다. 판석조석곽묘의 구조는 대략 길이 2~3m, 너비 1m내외 높이, 0.9~1.2m의 장방형 형태로 석실묘보다 규모가 축소되고 너비에 비해 길이가 길어진 형태이다. 벽면과 천정에는 벽화가 그려진 경우가 있으며, 석실묘에서 나타나는 석단 등 외부 묘역시설이 설치되는 예도 많아 상류계층의 무덤으로 파악된다. 할석조석곽묘는 길이 2~3m, 너비 40~80cm정도로 판석조석곽묘에 비해 규모가 작고, 축조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조악하다. 매장주체부 이외에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토광묘는 구덩이를 파고 목관 또는 시신을 직접 안치하는 단순한 형태로 할석조석곽묘와 더불어 가장 널리 확인되는 고려고분의 유형이다. 토광묘는 길이 2m, 너비 0.5~0.7m 내외의 크기로, 별도의 시설 없이 매장주체부만 조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석곽묘와 토광묘는 보통 2~3기에서 많게는 수백기가 모여 고분군을 형성한다. 이 밖에 석관이나 토기에 유골을

안치하는 화장묘도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발굴을 통해 확인된 예는 매우 적다.

이상과 같은 고려고분의 각 유형은 被葬者의 계층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석실묘는 왕실의 묘제, 석곽묘 중 판석조석곽묘는 고위 관료층, 할석조석곽묘와 토광묘는 그 이하의 무덤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강화도 고려고분은 섬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홍릉을 제외한 나머지 능은 모두 진강산에 소재하고 있다. 진강산은 강화도의 중앙부에 자리한 산으로 이 곳은 본래 강화현의 속현인 진강현의 진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진강산에는 석릉과 가릉, 곤릉이 자리하고 있으며 가릉에 인접해 능내리 석실묘가 위치하고 있어 강도시대 왕실의 묘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릉의 경우 강화읍 서쪽의 고려산 기슭에 홀로 위치하고 있다. 진강산은 왕실의 묘지뿐만 아니라 당시 지배층의 묘지로도 활용되었다. 고려시대 묘지명 가운데 강화에 매장된 인물은 7명으로 모두 강도시대 관료들이다. 이들 가운데 김취려와 유경현, 최항, 이규보 등 4명이 진강산 일대에 묻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왕릉과 관료의 묘지로 진강산 일원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한편 왕릉을 제외한 지금까지 파악된 강화도의 고려시대 고분들은 아직 정확한 피장자를 알 수 없어 모두 강도시대의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강도시대 이전에 강화에는 강화현 과 하음현, 진강현 등의 토착세력이 존재했으며 이들도 분명히 무덤을 조성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확인된 고려시대 고분(군)들 가운데 강도시대에 조성된 무덤의 비율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개경으로부터 10만호의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한 강도시대에 조성된 고분의 수가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절터

지금까지 강화에는 문헌상으로 63개의 사찰이 전해지고 있어 여타 지역이 비해 유적이 유난히 많다. 삼국시대부터 강화에 불교사찰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강도시대부터로 추정된다.

고종 19년(1232) 강화도로 천도가 단행된 후 우선적으로 성곽과 궁궐, 관아 등이 조영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왕실과 지배계층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는 장치로서 사찰의 건립도 요구되었다.

강도시대의 사원은 개경의 것을 대부분 옮겨온 것으로 고종 21년(1234) 2월 『고려사』의 기록에 “때에 비록 천도한 초창기이나 구정(毬庭)·궁전·사사(寺社)의 이름이 모두 송도(松都)를 따랐다”거나 “팔관(八關)·연등(燃燈)·행향(行香)·도장(道場)이 모두 옛 식 대로였다”하여 불사가 중요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도에는 봉은사(奉恩寺), 법왕사(法王寺), 현성사(賢聖寺), 묘통사(妙通寺), 왕륜사(王輪寺), 건성사(乾聖寺), 복령사(福靈寺), 천수사(天壽寺), 미륵사(彌勒寺), 혈구사(穴口寺), 묘지사(妙智寺)등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사찰의 대부분은 개경에 있던 주요 사찰들과 동일한 이름이다.

사찰의 이전은 천도와 함께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고종 20년(1233) 봉은사를 시작으로 현성사, 법왕사 등이 세워졌고 왕륜사, 묘통사, 건성사, 복령사 등은 몽고군의 3차 침략(1235~1239)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원종 년간에도 천수사, 안화사, 보제사, 미륵사 등이 건립되었다. 그 중 보제사(普濟寺)의 경우는 원종대 대표적인 국왕의 친행사원(親幸寺院)의 하나로 복구된 것이다.

이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화도호부의 佛宇 및 古蹟 條에는 전등사(傳燈寺), 정수암(淨水庵)·국정사(國淨寺)·적석사(積石寺)·월명사(月明寺)·수월사(水月寺)·미륵사(彌勒寺)·서왕사(西王寺)·덕장사(德藏寺)·홍릉사(弘陵寺)·백령사(白蓮寺)·용장사(龍藏寺)·선원사(禪源寺) 등 다수의 사찰이 등장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강도시대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강도의 사찰건립과 불교행사는 전란기의 재정상태로 개경에서처럼 될 수는 없었다. 천도 초기에 개경 사찰의 이전은 왕실과 관계 깊은 일부 사원에 국한 되었으며, 이전된 사찰들이라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운영되기는 어려웠다. 강도의 기반시설이 정비되어가고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작은 규모나마 사찰들이 들어섬으로써 과거 개경시대에서의 불사운영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강도시대 사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봉은사와 법왕사다. 봉은사는 천도직후에 건립되었다. 건립시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종

21년 고종이 봉은사에 행향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천도직후에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봉은사는 태조 왕건의 초상을 모신 진전사원으로 연등회 때 임금이 태조의 초상에 알현하던 곳이다. 법왕사는 태조 2년(919)년 창건된 절로 팔관회 때 임금이 행차하는 곳으로 고종 32년 견자산 부근의 화재로 연경궁과 함께 법왕사가 소실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금의 견자산 북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강도시대 불교사찰은 개경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도시대의 사찰 가운데 현재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 또한 유적의 대부분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시대나 성격을 알 수 없다.

7대 어항과 고려시대 인천

강 옥 엮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7대 어향과 고려시대의 인천

강옥엽 (역사자료관)

◆ 목 차 ◆

1. 고려사 연구의 동향
2. 고려사의 성격
3. 고려시대 인천, 7代御鄉
4. 고려시대 인천의 지역적 위상 : 王都,
교통의 요지, 보장처, 정신적 기반

1. 고려사 연구의 동향

- 고려시대의 본격적인 연구는 광복 후 시작되어 震檀學會를 중심으로 한 李丙燾의 『고려시대의 연구』(을유문화사, 1948), 金庠基 『동방문화 교류사논고』(을유문화사, 1948)와 그 외에 白南雲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1937)등의 연구
- 새로운 연구는 6.25가 끝난 뒤부터 시작, <역사학보>의 간행에 크게 힘입게 되었다. 이병도의 『한국사』(중세편)과 김상기의 『고려시대사』는 고려시대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 1950·60년대 토지제도(姜晋哲), 병제사(李基白), 정치제도(邊太燮), 사회경제사(金龍德, 李佑成, 閔丙河), 사상사(金哲竣)
- 1970년대 지방제도사(河炫綱), 유교정치사상(李熙德), 고려사회문제(朴菴熙, 金毅圭, 李光洙), 지방제도(朴龍雲), 노비문제(洪承基), 권문세족(閔賢九), 토성문제(李樹健), 불교사상(金杜珍, 崔柄憲, 許興植)
- 1980년대 박종기, 채상식, 노명호, 장동익, 윤용혁, 이혜옥 등 각 부문에 많은 논문들이 발표됨.

- 지배적인 사회계층의 성격과 그 변질과정 연구→ 고려건국기의 호족의 성격과 고려의 문벌귀족, 고려후기의 권문세족 및 신흥사대부 문제, 무신란과 무신정권 등에 주목→ 발전적 측면에서 파악

2. 고려사의 성격

고려는 918년 왕건에 의해 성립되어, 1392년 조선왕조가 세워지기까지 474년을 유지했던 왕조이다. 따라서 500년의 고려사회를 간단히 특징짓기는 어렵다. 대체적으로 1170년 의종 24년 발생했던 무신란을 정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거나, 이를 더 세분화하여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 1270년 원종 11년을 후기로 설정하여 **전기**, **중기**, **후기** 3기로 구분해서 특징짓기도 한다.

※ **중세사회의 성격** : 한국사에 있어서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연구가 진척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고려를 중세사회로 규정하는데 큰 이의가 없다. **고려사회가 중세라는 점은 고대사회의 편성원리인 골품제의 극복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에서는 출생한 혈족에 따라 지위와 신분 이 규정된 골품제가 기본적인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라에서 고려로 전환하는 사이에 지방호족세력과 지식층인 6두품출신이 등장 하여 골품제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고려는 고대적이며 폐쇄적인 골품체제에서 보다 개방되고 전진된 사회라는 점에서 중세라 할 수 있다.**

고려가 중세사회라는 것은 지방호족의 대두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는 왕경의 중앙귀족 중심의 정치체제를 이루고 지방세력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신라말기에는 토착적인 촌주출신과 왕경에서 내려간 중앙귀족들이 그 지방의 호족으로 대두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이 되었다. 그들 지방호족은 마침내 고려를 건국하고 그 지배층으로 변조하였으므로 그것을 중세사회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용한 것도 중세사상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진골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교정치이념을 채용하고 당송의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를 실시한 점에서도 고대적인 사

회에서 중세사회로 전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불교에 있어서도 귀족적인 교종에서 벗어나 **민중적이며 혁신적인 선종의 유행을 보게 된 것도 새로운 중세사상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세적 요소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라의 고대적인 토지소유관계와 농민에 대한 수취관계의 모순을 시정하려 하였는데 태조의 조세개혁과 그 뒤의 전시과 제정이 그것이다. 기본적인 토지제도인 전시과의 시행은 **일보 전진한 형태로 중세적인 토지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특히, 일반농민이 조상대대로 이어받아 경작하는 민전이 광범하게 존재한 것은 농민의 토지소유의 일반화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들 농민지위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토지소유적인 것과 농민의 성장은 신라의 고대적인 것과 다른 중세적인 성격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중세사회의 성격은 다음 조선의 근세사회로 발전하는 토대를 이루었던 것이다.

- 고려의 성립(918년)

- ㄱ. 중서부 해상세력을 한 왕건세력의 등장과 후삼국의 통일: 국호를 高麗, 연호를 天授, 開京에 도읍을 정함. 태조 13년(930) 안동(古昌)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태조 17년(934) 홍성(運州)에서 후백제군을 대파 30여성을 탈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함. 태조 18년(935) 견훤의 귀부와 신라의 투항. 19년(936) 후백제의 멸망
- ㄴ. 태조의 정책과 성격 : 호족연합정책 ↔ 강력한 집권정책 표방
 - 신라의 정통성 계승 표방→ 신라왕녀와 결혼, 두 딸을 경순왕에게 출가시킴
 - “重幣卑辭”로 호족들 우대→ 후백제 계열에 대한 차별성
 - 결혼정책으로 29명의 后妃를 둬
 - ※6왕후와 출신지역 : 신혜왕후 柳씨(정주) 정화왕후 吳씨(나주) 신명왕후 劉씨(충주) 신정왕후 皇甫씨(황주) 신성왕후 金씨(경주) 정덕왕후 柳씨(정주)
 - ※23명 부인의 출신지역: 경주(2) 명주(2) 평주(4) 신주(1) 진주(1) 홍주(1) 협주(1) 廣州(2) 昇州(1) 춘주(1) 동주(2) 의성(1) 해주 (1) 불명(3)

- 귀부호족에게 왕씨성 하사
- 기인제도 및 사심관제도 마련
- 《政誠》 1권, 《誠百寮書》 8편 → 관료층 규찰
- 役分田 실시

- 고려사회의 성격문제

① 문제제기

- 爵位: 전형적인 귀족사회는 귀족들이 하나의 특권적인 신분으로서 사회를 지배. 지배적인 특권이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가문 과 혈통에 의해 세습됨. 서양의 경우는 이러한 특권이 작위 를 수여받음으로써 인정되고, 후손에게 세습됨. 그러나 고려의 경우는 封爵制를 통해 작위귀족을 배출하였으나, 세습 되지는 않음.
- 관리 충원방식: 고려의 신분제는 작위보다는 관리로 出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그런데 고려의 관리충원방식은 科擧制度和 蔭敍制度를 동시에 운용 → 귀족제설과 관료제론

② 귀족제사회설의 내용과 그 개념

ㄱ. 귀족제 사회설의 제기: 일제시대부터~1960·70년대에 걸쳐 진행

ㄴ. 귀족제 사회설의 논거:

▶ 蔭敍制 및 功蔭田柴:

◦ 음서의 종류: 門蔭(5품이상관), 功蔭(공신자손), 祖宗苗裔蔭敍(역대 왕의 내외손)

◦ 음서 시행 시기: 정규음서, 특사음서

◦ 음서 연령: 18세로 규정, 그러나 10세, 15세, 심지어 5세에 초직을 받는 경우도 있다.

◦ 음서의 수혜인원: 1인 1자, 1인 多子, 탁음자를 달리하면 여러명 가능 등.

◦ 공음전시법: 처음에는 勳田 형태, 문종대 이후 관인 우대보호책으로 5품이상의 문무양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1품: 田 25결, 柴 15결 / 5품: 田 15결, 柴 5결)

⇒ 대체로 음서로 관인이 되어 5품이상관으로 진급한 蔭職출신

63명중 재상급 2품 이상 승진자가 39명(60%) ↔ 과거 수석합격자중 아무런 관력을 남기고 있지 못한 인원이 60%

- ▶ 통혼권의 형성: 귀족의 누대적 세습 여부, 폐쇄적 혼인관계를 통해 정치적 특권을 소수 귀족층만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문제
- 慶源(仁州) 李氏: 10대에 걸쳐 5명의 수상과 20명에 가까운 재상 배출. “閥閥” “海東甲族” 등으로 불림.(이자연의 3딸은 문중비, 이자겸의 3딸은 각각 예중비와 인종비가 됨)
- 海州 崔氏: 崔冲을 비롯 10여대에 걸쳐 6명의 수상과 10여명의 재상 배출. (경원 이씨, 강릉 김씨, 광양 김씨, 남평 문씨, 정주 유씨, 정안 임씨, 연양 김씨, 횡천 조씨 가문 등과 혼인)
- 인종때 宋사신 徐兢 “고려는 族望을 숭상해서 국상은 다수가 勳臣·戚臣이 임명.

③ 官僚制家産官僚制說과 그 비판

- ▶ 관료제: 근대적 소산물로 합리화·능률화를 목적으로 규칙의 지배, 沒主觀性, 전문화, 계층적 권한질서 등을 속성으로 하는 집행이나 관리조직. 이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요소인 행정간부 곧 관료들도 인격적으로는 자유여서 오직 객관적인 관직의무에만 복종하고, 명확한 관직권한을 가지며, 그들의 선발은 전문자격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에 의함.(↔ 가산제)
- ▶ 가산제: 전근대사회에서 전통적 지배의 한 형태. 지배자의 권리는 그의 고유권으로 간주되어 그것이 임의의 소유대상과 같은 방식으로 專有되며, 경제적 권익도 그와 동일한 양식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특징. 이 가산제 지배자가 그의 권력을 국가권력으로 발전시켰을 때 그 국가를 家産國家라 함.

여기에 상당한 정도로 관료제적 요소가 나타 남으로써 가산관료제의 개념도 도출됨. 즉, 가산관료제란 결국 가산제사회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합목적적인 직무분배에 의하여 신분적인 階序制組織을 이루어 형식적으로는 관료제적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통치구조로 파악됨.

⇒가산관료제는 본질적으로 가산제 지배구조에 원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행정간부도 근대관료제의 그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물주관적인 자격에 의하여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와의 개인적인 성실관계에 따라 그가 자의적으로 선택하였고, 또 그 지배도 가산제적이었다.

※과거 급제자라고 무조건 과거집단 혹은 과거관료로 묶어 동일시할 수는 없다. 관리 등용을 위한 국가고시제는 귀족제나 관료제 사회에서나 모두 시행될 수 있다. 요컨대 과거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방법(과거제도 귀족제적 운영방식으로 치러졌음을 의미).

④ 貴族制社會說의 보강과 고려사회성격의 이해 방향

▶ 귀족제설의 비판과 재검토: 귀족의 범위문제/ 귀족가문/ 귀족의 경제기반 등(“일반인과 구별되는 신분적, 정치적 특권이 주어진 가족에서 태어난 인간”, 또는 “신분제 사회에서의 지배 신분층 등”)으로 폭넓게 규정)

⇒이런 성격과 특징을 지닌 귀족층이 대부분 국가 요직을 점유하고, 정책의 결정이나 가치의 배분을 귀족제적으로 운영하여 갈 때 그 사회는 귀족제사회. 다각적 검토 요망

▶ 貴族官人社會: 절충적 입장. 고려 전기는 귀족제성 성격이 강한 사회, 고려 후기는 관료제적 성격의 사회로 규정.

3. 고려시대 인천, 7代御鄉

1) 고려의 건국과 인천의 호족 : 통일 후 중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신라는 경덕왕(742~764)때를 고비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중앙에서는 귀족들간의 권력쟁탈이 일어나고, 지방에서는 무력과 재력을 축적한 호족(豪族)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주민을 지배하다가 마침내 후삼국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혼란의 시대인 신라 하대(下代)는 150년간에 20명의 왕이 교체되고, 그 중 많은 왕이 내란으로 희생되었다.

9세기 말 신라의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해적과는 다른 성격의 해상세력이 몇 몇 해안지방에서 토

착세력과 규합하여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해상호족(海上豪族)이다. 이들 해상호족은 신라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사무역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군사력까지 겸비하게 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해상호족으로는 송악에 기반을 두고 예성강유역과 강화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왕건(王建) 일가를 들 수 있다.

왕건의 선대(先代)는 고구려 유민으로서 송악을 근거지로 세력을 규합하여 발전하였고, 왕건의 부친인 왕용(王隆)의 시대에는 이미 예성강유역의 호족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왕건의 집안이 예성강을 통해 해상으로 드나들며 무역에 종사했다면 출입구에 해당하는 강화도에도 어느정도 세력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왕건은 송악에 기반을 둔 호족으로 위로는 패강진과 아래로는 예성강하구의 토착세력을 규합하면서, 신왕조를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나말여초(羅末麗初)는 새로운 사회세력인 호족에 의해 지배되던 호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호족출신인 왕건에 의해 많은 호족이 결속되면서 고려가 건국되었다. 나말여초의 호족세력은 인천지역에서도 대두하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인주 이씨(仁州李氏), 부평 이씨(富平李氏) 그리고 강화 위씨(江華韋氏)의 경우이다.

인주 이씨는 그 시조가 통일신라 경덕왕 때 아찬의 벼슬에 있던 이허기(李許奇)로 전해내려오는데, 『고려사』에는 인주 이씨의 선조에 대하여 명확한 시대적 족적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 선조가 신라의 대관(大官)이라는 점, 사신으로 입당(入唐)하였다는 점, 당의 천자가 이를 가상히 여겨 이씨성을 내려주었다는 것은 『이씨가록』과 일치할 보이고 있다.

왕건이 해상무역을 통해 성장한 기반을 바탕으로 고려를 성립할 수 있었던 듯이, 인주 이씨 역시 해상무역을 통해 축적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인천이씨세보(仁川李氏世譜)』에는 이허겸의 아들 눌(訥)과 손자 성간(成幹)이 있다. 그런데 성간의 부인이 개성왕씨로서 그 아버지가 고려 태조 왕건이라 하였다. 당시 태조가 혼인관계를 통하여 강력한 호족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니 고려 초 인주 이씨는 왕실과의 혼인이 이루어질 정도의 강력한 호족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평 이씨의 시조는 이희목(李希穆)으로 『부평이씨대동보(富平李氏大同

譜)』에 의하면 고려 태조의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워 삼한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관계(官階)가 삼중대광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940년 삼한공신(三韓功臣)의 책정, 토성(土姓) 분정, 군현(郡縣)의 개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삼한공신 책정과 함께 이루어진 토성분정은 토착성씨집단을 국가차원에서 확정하는 조치로서 고려정부의 집권력 확립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말여초 호족세력의 지역적 기반을 인정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회목이 삼한공신이었다는 것은 그가 호족출신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군진세력과 서해의 해상세력을 겸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한 강화·고동·통진지역의 호족들도 지리적인 여건과 해상세력이라는 특성상 강력한 호족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강화 위씨**이다. 목종·현종대에 크게 등용되어 문하시중에까지 이르게 되는 위수여(韋壽餘)는 『고려사』에 강화현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강화현인이었다는 것은 그 지방 호족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화위씨는 『세종실록 지리지』 강화현의 성씨조에 토성 최(崔)·위(韋)·황(黃)·고(高) 중 두 번째 성씨로 나타나고 있다. 위수여는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하시중에까지 올라 번성하게 됨에 따라 그에 관한 기록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외 대부분의 호족들은 강화의 최·황·고씨의 경우처럼 『세종실록 지리지』의 인천지역 성씨조를 통하여 그 성씨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2) ‘7代御鄉’ 인천 : 고려의 지방제도는 호족세력에 대한 통제책과 중앙정부의 행정력 침투과정과 함께 정비되어 갔다. 태조대는 후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한 이후에도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호족들이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 농민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지방관이 처음으로 파견되는 것은 6대 성종대 일이다. 성종대에는 3성(省)·6부(部) 등 정치제도의 기반이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관이 파견되어 호족세력의 지배 하에 놓여 있던 지방의 행정력과 군사력이 중앙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현종대에 이르러 지방관제는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현종 9년(1018)에 각 도의 안무사를 파하고 전국에 4도호(都護)·8목(牧)과 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고려

의 지방제도는 4도호부·8목을 중심으로 그 밑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56개 주와 군, 28개의 진, 그리고 20개의 현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에 인천지역도 몇 차례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그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인천(인주)은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현(買召忽縣)으로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16년(757)에 소성현이 되어 율진군의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현종 9년(1018)에는 다시 수주에 속하였다. 그러다가 숙종조(1096~1105)에 이르러서 경원군으로 승격되어 지군사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숙종의 모후인 인예태후 이씨의 내향이기 때문이었다.

이어 인천은 다시 인종조(1123~1146)에 인주로 가호(加號)되었는데 이는 인천이 인종의 모후인 순덕왕후 이씨의 내향이었기 때문이었다. 인주 이씨는 문종대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7대 80여 년 동안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 동안 왕실과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시 고려 왕실의 왕자·궁주 가운데 인주 이씨 외손 또는 생질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인주 이씨는 외척으로서의 권세와 별족으로서의 지위를 굳혔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해주 최씨·경주 김씨·평산 박씨·파평 윤씨·강릉 김씨 등 거족들과도 혼인관계를 맺어 일대 별족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현종대에 누이동생 원신궁주가 낳은 한산후(漢山侯)를 옹립하려고 음모를 꾸민 이자겸의 난으로 인주 이씨가 큰 타격을 받았으나 숙종이 왕위에 오르자 태자비를 인주 이씨 문중에서 간택하여 순덕왕후(이자겸의 2녀)가 예종비가 됨으로써 예종대에 다시 인주 이씨가 외척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 순덕왕후는 예종비가 된 후 인종과 두 궁주를 낳았는데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경태후로 추존되고 경원군을 인주로 가호하여 지주사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종 4년(1126)에 인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던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의 딸들인 두 인종비가 모두 폐비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중서령 임원후(中書令 任元厚)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으니 이가 곧 공예태후(恭睿太后) 임씨이다. 공예태후는 부평 이씨인 문하시중 이위(李瑋)의 외손녀이다. 공예태후는 의종·명종·신종 등 3왕과 2왕자·4궁주를 낳았다. 인주 이씨가 몰락한 후에는 김부식(金富軾)·김부의(金富儀)

등의 경주 김씨가 귀족사회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나 그 권세는 인주 이씨에 미치지 못하였다.

공양왕 2년에 ‘인주를 올려 경원부로 삼았다’고 하여 인주가 경원부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승격된 사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그 사유를 『동국여지승람』에는 ‘칠대 어향(七代御鄉)’,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강희맹(姜希孟)의 「승호기(陞號記)」에서는 ‘칠대향(七代鄉)’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천부읍지』에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같이 ‘칠대향(七代鄉)’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여지도서』에는 ‘칠대향(七代鄉)’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로 보면 ‘칠대향’ ‘칠대 어향’ ‘칠대지향’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했던 것 같다.

문종대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7대 동안 인주 이씨는 외척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인천은 순종·선종·현종·숙종·인종 5대 왕의 외향(외가)이 되고 문종·순종·선종·예종·인종 5대 왕비의 내향(친정)이 된다. 따라서 이 7대 동안 인천은 왕의 외향이거나 왕비의 내향이 되고 특히 순종·선종·인종 3대는 왕의 외향인 동시에 왕비의 내향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종·선종·인종은 인주 이씨 왕비의 소생이면서 인주 이씨를 왕비로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御)자는 엄밀하게 왕에게만 사용되는 글자로서 어향이라고 할 때 ‘왕의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뜻을 확대하여 7대 동안 인천이 왕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칠대 어향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양왕은 왕위에 오르자 왕 2년(1390)에 그의 조상을 높혀서 4친(親)에게 작시(爵諡)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의 7대조인 신종의 선대 7대왕(문종~인종, 인종 다음의 의종은 인종의 장자이고, 의종 다음의 명종은 인종의 3자이며, 명종 다음의 신종은 인종의 5자이니 신종의 선대는 인종이 됨) 중 5대왕이 인천을 외향으로 하고 5대 왕비가 인천을 내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을 높이고 알리려는 뜻에서 인주를 부(府)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읍호를 환원시켰던 것이다.

3) 해상교통과 자연도 및 강화·교동도 : 고려의 전반기에 걸쳐 예성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송나라와의 교류가 두드러지는데, 두 나라 사이의 문물 교류는 양국 사이의 외교적 형식을 통한 공적(公的) 교역보다도 사적(私的)인 민간 교역으로 말미암아 크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양국 사절의 왕래한 횟수와 송상의

내항(來航)한 횡수를 비교하여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고려 광종 13년으로부터 인종·의종 시대에 걸쳐 고려의 사신이 송나라에 건너간 것이 약 57회이며,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건너온 것이 약 30회임에 대하여 송상이 건너온 횡수는 현종 3년으로부터 충렬왕 4년까지 약 260여 년 동안 약 120여 회에 달하였으며 내항한 송상의 총인원도 최소한도로 약 5,000명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으로도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듯 예성강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활동에 전개되는 시기에 자연도(영종도)와 강화 및 교동은 예성강의 관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삼남(三南)의 물자들이 거의 대부분 서해를 통하여 예성강을 거슬러 개경으로 수송되었고, 또한 아라비아나 송나라 상선들 또는 고려의 상선들이 모두 서해에서 강을 거슬러 수도 개경까지 직접 무역활동을 하였다. 그러므로 자연도는 대중국무역의 무역항으로 또 강화와 교동은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당시 송은 고려의 사신과 상인들이 통과하는 연로에 고려관(高麗館, 亭)이라는 객관(客館)을 세우고 숙식을 제공하는 등 극진한 대우를 하였는데(북송의 서울은 開京이었고 남송의 서울은 杭州였다). 고려에서도 송나라 사신과 상인이 통과하는 항로상에 객관을 설치하여 내왕하는 그들을 극진히 대우하였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흑산도(黑山島)에는 관사(館舍, 흑산도에는 宋使가 기착하지 않아 객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음)가 있었으며 군산도에는 군산정(群山亭), 마도(馬島)에는 안흥정(安興亭), **자연도(紫燕島)에는 경원정(慶源亭)**, 예성강에는 벽란정(碧瀾亭)이라는 객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때 자연도는 인천의 속도이며, 지금의 영종도이다.

자연도에 설치되어 있던 객관명이 경원정이다. 경원정은 자연도의 태평암(太平巖, 구읍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고려도경』에 의하면 경원정은 산을 의지하여 건립되어 있고 객관 옆에는 막옥(幕屋) 수십 칸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주민들의 토옥(土屋)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도란 명칭은 경원정 동편에 많은 제비가 날아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송사(宋使) 일행이 자연도에 도착하여 접반(接伴) 윤언식과 지광주(知廣州)의 서찰을 가지고 마중나온 역관(譯官) 탁안의 영접을 받았는데 병장의례(兵仗儀禮)가 더욱 후했으며 정사·부사·삼절 등이 경원정에 도착하여 접반 지광주와 상견례를 가졌는데 그 음식과 상견이 전주례(全州禮)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고려에서는 송나라 사신과 상인들에 대한 대우가 극진하였다. 예를 들어 문종 32년(1078)에 송나라 신종이 「능허치원안제신주(凌虛致遠安濟神州)」·「영비순제(靈飛順濟)」라고 하는 큰 배 두 척을 만들게 하여 모두 ‘신주(神舟)’라고 명명하고 사신 안수와 진목 등으로 하여금 신주 두 척에 막대한 예물을 싣게 하여 고려로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예성강에 도착하자 고려에서는 병부상서 노단을 연반(筵伴)으로 삼아 서교정(西郊亭)에 이르게 하고 또 형부상서 김제를 연반으로 파견하였으며 사신이 순천관(順天館)에 들 때 호부상서 김양감과 예부시랑 이양신을 관반(館伴)으로 삼았다. 그런데 송선(宋船)이 흑산도에 들어선 후부터 예성강에 이르기까지 서해연안의 여러 항구에서는 관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영송하게 하고 밤에는 배가 통과하는 항로 주변의 산마루에 봉화를 올려 그들을 인도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그 후에도 항례(恒例)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고려 상인들의 송나라와의 무역은 송상의 대(對) 고려무역만큼 활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들도 매년 여름에 무역품을 싣고 주로 명주(明州)에 가서 송나라 시박사(市舶司)의 감독과 보호하에 교역을 행하였다.

고려시대의 해로(海路)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을 남긴 사적으로 인종 원년(1123) 2월에 고려 건사(遣使)를 수행한 서공의 견문록 『고려도경(高麗圖經)』이 있다. 서공은 변경(薦京; 현 開封)에서 출발해 고려 수도 개경(開京; 현 개성)에 이르기까지의 항로를 해로(海路) 1부터 6까지로 나누어 일지식(日誌式)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지명을 오늘의 지명에 비정하여 서공 일행의 항로를 정리해 보면 영파(寧波)에서 출발해 정해(定海)를 지나 남방연해로를 따라 북상하여 양자강 하구의 사미(沙尾)에서 동북방향으로 항진하다가 황해 남부에서 바다를 횡단한다. 한반도 서남단인 전라남도의 흑산도에 도착한 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군산·인천·강화도를 지나 예성강 하구에 이르러 정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공 일행은 3월 14일 변경을 출발해 6월 13일 고려 수도 개경에 이르렀으므로 총 여정이 약 90일간이었다. 또 5월 16일 명주(明州; 현 寧波)에서 출발해 6월 12일 예성강에 도착했으니 순 항해 일정이 26일간 이었고, 그 중 정해(定海)에서 흑산도까지 9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대(宋代) 이전의 한·중간의 교통로는 주로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육로로 한반도의 서북경(西北境)에서 요동지방을 거쳐서 북중국에 이르는

것이다. 해로(海路)는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반도의 서해안에서 산동반도 북안(北岸)의 등주(登州)나 내주(萊州)에 이르는 것과 양자강 하류의 명주(明州)나 양주(揚州)에 이르는 것이 있다. 두 해로는 각기 우회항로와 직항로가 있다. 산동 북안에 이르는 우회항로(북방우회로)는 한반도의 서해안을 북상하여 요동반도 동남연해의 장산군도(長山群島), 등주 북방의 묘도군도(廟島群島) 등 도서를 경유하는 것이고, 직항로(북방직항로)는 웅진반도 서해를 건너는 것이다. 양자강구(揚子江口)에 이르는 우회항로(남방우회로)는 웅진반도 서남해에서 산동반도 남안(南岸)으로 바다를 건너 그로부터 중국의 연해를 남하하여 양자강구에 이르는 것이고, 직항로(남방직항로)는 한반도의 서해안을 남하하여 흑산도 근해에서 서남방으로 양자강 하류지방에 곧장 도착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와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는 항로는 대체로 같으나 꼭 일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절과 풍향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서해안에 위치했던 인천의 자연도와 강화·교동도는 대중국무역이나 교통로상에 있었기에 비록 출발지나 귀착지 같은 변화로움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중간 경류지로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4) 대몽(對蒙)항쟁과 강화도 : 고려왕조가 최충헌(崔忠獻) 일가의 무신집정기(武臣執政期)에 접어든 직후인 13세기 초,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몽골[蒙古]의 출현으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었다. 즉, 만주의 서북부 하이랄[海拉爾] 부근의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은 고려 희종(熙宗) 2년(1206) 테무진[鐵木眞](후에 징기스칸[成吉思汗]으로 추대)이 나타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황제[元나라 태조(太祖)]의 지위에 올랐던 것이다. 이후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사방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13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세계역사상 유래없는 대정복제국을 건설하였다.

몽골이 고려를 정복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고종 18년(1231)의 일이며 이후 고종 46년(1259)까지 총 6차에 걸쳐 약 30년 동안 계속되었다. 몽골이 고려를 침입해 들어온 것은 고려 고종(高宗) 18년(1231)의 일이나, 그보다 앞선 고종 5년(1218) 거란 유족(遺族)에 대한 토벌작전 과정에서 고려에 입경한 것이 침입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즉 거란 유족이 대요수국(大遼收國)을 건국하여 몽골과의 결별을 선언하자 1216년 몽골은 동진국

(東眞國)과 연합하여 협공을 시작하였는데, 거란 유족이 협공을 피하여 압록강을 건너 고려 경내에 진입하여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다가 고려군의 반격을 받고 강동성(江東城)을 점거하여 장기전 상태에 있었다(1218). 이에 몽골군도 거란 유족을 쫓아 고려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고려를 구원한다는 구실로 고려·몽골·동진 3국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마침내 1219년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거란 유족을 섬멸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은 ‘형제맹약(兄弟盟約)’의 체결로 이어졌는데, 이후 몽골은 이 조약을 내세워 과도한 조공(朝貢)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횡포를 자행하여 결국 양국간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결국 고종 12년(1225) 1월에 몽골의 사신 자꾸예[著古與]가 귀국 도중 함신진(咸新鎭; 의주)에서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삼아, 1231년 8월 살리타[撒禮塔]가 이끄는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살리타군은 8월 압록강을 건너 자꾸예가 피살된 함신진을 포위하니 바로 제1차 여·몽전쟁의 시작이었다. 제1차 침략 이후 몽골의 무리한 공물(貢物) 요구와 다루가치의 지나친 내정 간섭과 극심한 횡포 등으로 말미암아 고려의 몽골에 대한 증오심이 극도에 달하게 되자, 결국 제1차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화의조약이 파기되고 몽골군의 재침을 가져오게 되었다. 제1차 전쟁이 종결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제2차 여·몽전쟁이 발발하였다.

몽골이 전쟁 종결 이후 빈번히 사신을 파견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제시하자 고려 정부는 몽골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의식·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강화도로의 천도(遷都)와 서북면 지역에서의 다루가치의 제거·축출 시도, 개경의 수비 병력 증강, 백성들의 산성(山城) 및 해도(海島)로의 강제 이주 등과 같은 조치였다.

그러므로 제1차 침공이후 물러났던 몽골군이 재차 침공하려 할 즈음 고려 조정은 수도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 전시(戰時)의 새로운 도읍지로 산간 내륙 지방이 아닌 강화도가 선정된 것은 전적으로 최우의 의도였다. 즉, 제1차 여·몽전쟁이 지속되고 있던 고종 18년(1231) 12월에 최우는 승천부(昇天府)의 부사(副使) 윤린(尹璘)과 녹사(錄事) 박문의(朴文旻)로 하여금 피난지로서 강화도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해도입보(海島入保)’를 최적의 방책으로 고종 19년(1232) 7월에 강화도로 입도한 이래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기까지 고려는 39년간(1232~1270)의 ‘강도시대(江都時代)’를 열게 된다.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로 천도한 이후 궁궐과 관해 시설과 함께 방어(防禦) 시설의 축조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바로 강도(江都)를 둘러싼 성곽(城郭)의 축조가 주된 역사(役事)였다. 강도의 성곽은 내성(內城)·중성(中城)·외성(外城)의 3중으로 중첩(重疊)하여 쌓였으나, 내성의 축조시기를 알려주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내성의 주된 목적이 궁성(宮城)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천도 초기 궁궐의 축조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내성의 규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되는 바, 흙으로 쌓았으며 둘레가 3,874척(尺)이라 하였다. 한편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으나, 대체로 현재 남아있는 강화산성(江華山城)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 조정의 강화 천도는 궁궐·관아 및 성곽의 축조라는 대역사(大役事)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강화도라는 일개 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였다. 대규모 건설에 따른 역부(役夫)의 징발·이주가 있었고, 특히 왕족·문무 관리·이속(吏屬)·군졸 및 그 가족·식솔도 적지 않게 이주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갑자기 늘어난 인구의 식량 조달은 강도시대 조정의 심각한 과제였다. 초기에는 개경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였기에 주로 개경으로부터 경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골의 침입으로 개경이 폐쇄화되었을 뿐 아니라, 병란으로 인하여 지방으로부터의 조세 징수가 어렵게 됨으로써 도내(島內)에서 자체 해결하는 쪽으로 변화하여 갔다. 이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간척(干拓)사업과 이주민들의 신전(新田) 개간으로 이루어졌다.

강화도에 천도한 고려조정은 국민적인 결집을 유도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정신적인 기반으로 거국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니 바로 팔만대장경의 조성이었다.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고려대장경)의 조판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이(崔怡)의 주도로 강화 천도 2년 후인 고종 23년(1236)에 시작되어 그 아들인 최항(崔沆)이 집권하던 고종 38년(1251)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제2차 여·몽전쟁 이후, 고종 46년(1259) 4월 고려가 항복하여 태자[후에 원종(元宗)]가 원나라에 입조(入朝)할 때까지 몽골군의 침략은 되풀이되었다. 그로 인하여 고종 41년(1254) 제6차 침략 때에는 한해 동안 무려 20만명 이상의 남녀가 포로로 잡히고, 무참히 살육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겪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고려는 끈질지게 대항하면서 버티어 나갔다. 특히,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奴婢)와 천민(賤民)들까지도 싸움터에 나서기도 했다.

고려 조정의 천도와 더불어 신도(新都)로 건설된 강화도는 대몽항쟁을 고수하며 정권을 지속시켰던 최씨 일가의 몰락으로 인하여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즉, 최씨 일가의 마지막 집정자 최의가 고종 45년(1258) 문신 유경(柳璥)과 무신 김준(金俊) 등에 의하여 제거되자 몽골과의 강화(講和)를 주장하는 문신들의 주장에 따라 이듬해 화의(和議)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화의는 개경으로의 출륙 환도(還都)를 전제로 이루어졌기에 강도의 파과·쇠락을 수반하였다. 몽골은 화의의 조건으로 출륙 환도와 함께 항쟁의 상징인 강화산성(내성)과 외성을 헐어버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고종 46년(1259) 6월 내성과 외성이 헐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대몽항쟁은 삼별초(三別抄)의 항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들도 원종 14년(1273)에 제주도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됨으로써 대몽항쟁은 종식되었다.

무신정권의 종식은 곧 국왕권의 회복과 왕정의 복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원의 간섭이 시작됨으로써 고려의 정치체제는 무신 정권 이전으로의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성되었다. 그것은 원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고려의 국왕이 측근세력을 육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측근정치의 형태였다.

고려와 원과의 관계는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몽고족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한족들이 각지에서 봉기하였고, 이와 때를 맞추어 고려에서는 공민왕 5년(1356)에 반원개혁이 성공함으로써 원의 간섭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측근정치의 구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반원개혁이 성공한 뒤에는 공민왕의 측근세력이 정치세력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면서 점차 와해되어 갔고, 이후 고려의 정치는 기존의 권문세족과 이 시기에 새로이 성장한 신진사대부가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4. 고려시대 인천의 지역적 위상 : 王都, 교통의 요지, 보장처, 정신적 기반

조선시대 인천의 행정체제

남 달 우

(인하역사문화연구소)

조선시대 인천의 행정체제

남달우 (인하역사문화연구소)

◆ 목 차 ◆

1. 조선 건국 직후 인천의 읍호 ‘인주’
2. 태종 13년(1413) 지방제도 개혁 이후 ‘인천군’
3. 인천도호부로의 승격
5. 1899년 『인천부읍지』에 보이는 인천의 행정 체제
6. 인천현으로 강등
7. 감리서와 각국 영사관의 설치

* 행정의 정의 :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행위

1. 조선 건국 직후 인천의 읍호 ‘인주’

고려 숙종 때 개정된 인천의 읍호인 경원은 왕 또는 왕비와 관련되어 출현한 명칭으로 보았다. 慶源은 고려시대 인천만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함경북도 북단에 위치하여 중국 동북지방의 松江省에 접하고, 서쪽은 중성군, 남쪽은 경흥군, 북쪽은 온성군에 접하고 있는 지역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후자의 경원에는 한때 이성계의 高祖인 安社(후에 穆祖로 추존)가 ‘慶源 龍堂’ 東林 古城에 머물렀고, 안사의 아들 行里(후에 翼祖로 추존) 또한 이 곳의 千戶를 지냈다. 후에 중국 元나라가 멸망하자 고려는 이곳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지금의 ‘경흥군’을 합쳐 ‘孔州’로 불렀다. 그러므로 이성계는 조선 건국 후 목조와 익조의 활동지역이었던 이곳을 ‘경원’이라 하고 고려말 ‘경원부’였던 인천을 인주

로 복구하였다

2. 태종 13년(1413) 지방제도 개혁 이후 ‘인천군’

경기는 공양왕 2년(1390)에 좌·우도로 분리되는데, 경기좌도에는 양광도의 한양(漢陽) 남양(南陽) 인주(仁州) 안산(安山) 교하(交河) 양천(陽川) 금주(衿州) 과주(果州) 포주(抱州) 서원(瑞原) 고봉(高峯)과 교주도의 철원(鐵原) 영평(永平) 이천(伊川) 안협(安峽) 연주(漣州) 삭령(朔寧) 등을 속하게 하였다. 경기우도에는 양광도의 부평(富平) 강화(江華) 교동(喬桐) 김포(金浦) 통진(通津)과 서해도의 연안(延安) 평주(平州) 백주(白州) 곡주(谷州) 수안(遂安) 재령(載寧) 서흥(瑞興) 신은(新恩) 협계(俠溪) 등이 속하게 되었다.

태종 13년(1413)은 조선 지방제도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 때로, 군·현의 등급 및 읍호의 개정 작업이 시행되었다. 전국을 8도로 정하고 道 아래 목사,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을 두었다. 이때의 개편으로 지방제도에 있어 근간인 주→부→군→현의 등급이 규정되었으며 이러한 규정은 조선 후기까지 통용되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1413년의 지방제도 개혁은, 첫째 예전의 유수부나 대도호부가 아닌 單府官의 칭호를 모두 도호부로 통일시키고, 둘째 감무는 현감으로 개칭하며, 셋째 知州事는 郡으로 하되 그 중 ‘州’자를 붙인 곳의 이름은 ‘山’이나 ‘川’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주는 인천군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이름인 인천이 탄생하는 것이다.

* 유수부 : 정2품

* 부윤 : 종2품

3. 인천도호부로의 승격

세조 6년(1460) 다시 인천은 도호부로 승격된다. 그런데 인천의 도호부 승격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인천부읍지』에는 세조 6년 세종의 妃인 소현왕후의 외향이기 때문에 도호부로 승격하였다고 하였으며, 『대동지지』에는 세조 5년 소현왕후의

외향이기 때문에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하였으며, 『증보문헌비고』에는 단지 세조 5년 도호부로 승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서 문제점이 두 가지 나타난다. 하나는 과연 소헌왕후의 외향이기 때문에 인천이 도호부로 승격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인천이 도호부로 승격된 년도가 세조 5년(1459)인가, 또는 6년인가 하는 점이다.

소헌왕후의 아버지는 청송 심씨 濫이고 심온의 어머니가 인천 문씨 門必大의 딸이다. 그리고 소헌왕후의 어머니는 순흥 안씨 天保의 딸이다. 그러므로 소헌왕후의 내향은 청송이고 외향은 순흥이 되며, 인천은 소헌왕후의 陳外家(아버지의 외가)가 된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소헌왕후와 관련된 읍호의 승격 기록은 “경상도 靑松郡을 승격시켜 都護府로 삼았으니, 소헌왕후의 內鄉인 까닭이다”라는 것만이 보일 뿐이며, 인천이 소헌왕후의 외향이기 때문에 승격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인천의 도호부 승격은 世祖의 비인 貞熹王后 윤씨와 관련된 때문이다. 정희왕후의 아버지는 파평(파주) 윤씨 璠이며 어머니는 인천 이씨 文和의 딸이다. 즉 정희왕후의 내향이 파평이고 외향이 인천인 것이다. 이 때문에 파평과 인천은 읍호가 승격된다. 『세조실록』 권 18, 세조 5년 10월 2일(경술)의 기록에 “慈聖王妃(정희왕후)의 內鄉이라 하여 原平府를 승격시켜 坡州牧으로 삼았다”는 기록과, 세조 5년 11월 5일(계미)에 “자성왕비의 외향인 인천군을 도호부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은 소헌왕후의 외향이기에 도호부로 승격된 것이 아니라 정희왕후의 외향이기 때문이며, 그 승격 년도 또한 세조 5년이 된다. 한편 조선초기에 있어 지방행정구획의 명칭은 人口의 多寡로 정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다음에 보인다.

(가) 郡縣名號 本以人口多少爲定⁷¹⁾

(나) 陞大邱縣爲郡 以居民一千三百戶也⁷²⁾

(다) 原平·密陽·善山·平山·春川·成川·肅川七郡 以一千戶以上 陞爲都護府
瑞興·載寧二縣 以一千戶以上 陞爲郡⁷³⁾

위는 1천호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군 또는 도호부로 승격

71) 『世宗實錄』 권 2, 세종 즉위년 12월 甲辰.

72) 『세종실록』 권 4, 세종 원년 5월 庚午.

73) 『태종실록』 권 29, 태종 15년 4월 癸亥.

시켰다는 내용이다. 즉 조선 초기 군이나 도호부로의 승격 기준은 戶口 1,000이상이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호부로 승격될 당시 인천의 호구는 1,000에 미치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 인천조에 의하면 세종 때의 戶가 357, 口는 1,412이다. 그런데 이러한 戶가 도호부로 승격될 당시인 세조 때에 와서 갑자기 1,000호 이상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세조 때 인천의 도호부 승격은 왕실과 관련된 승격이라는 포상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4. 『경국대전』에 규정된 외관직 규정

吏典

外官職

階及遷官加階行守 並同京官. 觀察使 都事 仕滿三百六十 守令 仕滿一千八百 堂上及未挈家守令 訓導 仕滿九百乃遞. 移任守令 通計前任 遷官. 當農月 則勿遞 春分前 不足五十日以下者遞 ○ 崇義殿職 授奉祀一人 ○ 畿外諸陵殿參奉 觀察使 擇本道人 擬啓 ○ 永安道 洪原 以北 平安道 博川 以西 敎官除授時 加一階 ○ 守令 敎官 托故窺免者 准其遞期 不敘. 敘時 還除外官 ○ 年過六十五歲者 勿外敘 【堂上官及未挈家者 不在此限】 親年七十歲以上者 勿差 三百里外遠邑守令

	京畿
從二品	觀察使一員
正三品	牧使四員【廣州 驪州 坡州 楊州】
從三品	使【崇義殿】 都護府使七員【水原 江華 富平 南陽 利川 仁川 長湍】
從四品	守【崇義殿】 郡守七員【楊根 豐德 安山 朔寧 安城 麻田 高陽】
從五品	令【崇義殿】 都事一員 判官五員【左道水運 右道水運(並無祿官 察訪 敎授 訓導 審藥 檢律 驛丞 渡丞 同) 廣州 驪州 水原】 縣令五員【龍仁 振威 永平 陽川 金浦】

<p>從六品</p>	<p>監【崇義殿】 察訪三員【迎曙道屬驛 則 碧蹄 馬山 東坡 青郊 狻猊 中連 良才道屬驛 則 樂生 駒興 金嶺 佐贊 分行 無極 康福 加川 菁好 長足 同化 海門 平丘道屬驛 則 綠楊 安奇 梁文 奉安 娛賓 雙樹 田谷 白冬 仇谷 甘泉 連洞】 縣監十員【砥平 抱川 積城 果川 衿川 喬桐 通津 交河 連川 陰竹 陽城 陽智 加平 竹山】 教授十一員【卽上州府諸道同】</p>
<p>從九品</p>	<p>訓導二十六員【卽上君縣諸道同】 審藥一員 檢律一員 驛丞三員【重杯道屬驛 則 慶信 盤乳 石谷 金輪 終生 南山 慶安道屬驛 則 德豐 楊花 新津 安平 阿川 吾川 留春 桃源道屬驛 則 仇和 白嶺 玉溪 丹棗 湘水】 渡丞七員【碧瀾(右道水運判官兼) 漢江 臨津 路梁 洛河 三田 楊花】</p>

薦舉

京外東西班 三品以上 每三年春孟月 各薦三人【三品至無職】每年春孟月 東班三品以上 西班二品以上各薦 堪爲 守令 萬戶者 並毋過三人 若犯贓污 敗常之罪 則并坐舉主. 每年春孟月 議政府 六曹 當上官及 司憲府 司諫院 官員 各薦堪爲觀察使 節度使者, 忠勳府 薦功臣子孫才堪吏任者 ○ 凡薦舉者 曾經試才及 已行六品以上顯官外 四書中一書 五經中一經 從自願試取 ○ 凡收告身及 罷職者 每冬夏季月 具罪名啓聞【兵曹同】

褒貶

京官則其司 堂上官 提調及 屬曹堂上官 外官則觀察使 每六月十五日 十二月十五日等第啓聞【司憲府 司諫院 世子侍講院 則無等第 ○ 守令則 觀察使與兵馬節度使同議 濟州三邑則 牧使等第報觀察使 ○ 京官滿三十日 外官滿五十日 方許等第 ○ 因推罪犯限內未等第者 畢推後其等觀察使雖遞 等第以啓】 十考者十上則賞加一階【階窮者陞職, 牧以上則否】 二中於無祿官敘用, 三中罷職. 五考三考二考者 並一中勿授右職, 二中罷職【藝文館 成均館 承文院 校書館 七品以下官中者, 其都目物遷轉, 有遞兒衙門前衙官中者 後等褒貶前勿敘 ○ 一年四都目者中則 越一都目 下則越二都目取才】 堂上官 守令 一中罷職.

考課

諸司官員 卯仕酉罷【日短時辰仕申罷】事繁司則 仕罷後一員留待直宿員．宗廟署 文昭殿 活人署 官員及 社稷署有錢穀諸司一員 勿與會【凡諸司 直宿官員 本曹直宿堂下官 初昏署名封進 又受通行標信于承政院巡檢(闕直宿者罷黜)翌日朝還納】○ 每節季 刑曹 漢城府 開城府 掌隸院 堂下官 決訟道數 啓聞．三朔內 漢城府 掌隸院 小事則三十道 大事則二十道 刑曹 小事則五十道 大中事則三十道 不准者降一階．開城府則不拘道數 ○ 每歲季本曹 具諸司官員 實仕及雜故．觀察使 具守令七事 實蹟啓聞【七事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姦猾息】○ 周年病滿三十日者 議親功臣十惡外五犯罪者 並勿赦前啓聞罷職【閑散人則經一年乃敍(閑散人 謂議親功臣而置散者) ○ 兵曹同】○ 宗親及大小員 凡一會稱病不進者 司憲府 宗簿寺 檢舉啓聞論罪 ○ 褒貶居下等及犯私罪 罷職者 經二年乃敍【議親功臣居下等者經一年 堂上官不在此限 ○ 收告身還受者 亦以罷職日始計 ○ 兵曹同】○ 凡犯罪者 居下等者 置簿憑考【兵曹同】○ 錄事書吏 有故不仕滿百日 無故滿三十日者 削事罷黜 二十九日以下者 收贖還仕．罷黜後願還仕者聽 在喪者 喪畢還屬通計前仕 ○ 書吏名簿 本曹踏印以考 勤慢 奸僞．

戶典

外官供給

諸鎮將供給 用衙祿田【不足則用官屯田，無衙祿田 官屯田處 鎮將 諸鎮軍官 諸邑教官及主鎮將 虞侯 軍官 竝用軍資】○ 府 奴三 婢五 大小馬 各二．大都護府以下 奴二 婢四 大小馬 各二．郡以下 奴二 婢三 大小馬 各一．未挈家鎮將 堂上官 奴二，其餘 奴一 馬則 竝大二 小一．軍官 奴及大小馬 各一，教官 奴及大馬 各一．水軍將及軍官 無馬】

兵典

外官職

節度使 虞侯 評事 仕滿七百二十，未挈家僉節制使 萬戶 則九百乃遞 ○ 節度使稱主鎮 節制使 僉節制使稱巨鎮 同僉節制使 萬戶 都尉 稱諸鎮 ○ 僉節制使 萬戶 以試武藝者 差之【武科 兼司僕 內禁衛 不在此限】○ 已行僉節制使 萬戶者 雖未經守令加階

京畿

從二品 兵馬節度使 一員【觀察使 兼】

正三品【折衝】水軍節度使 二員【一觀察使兼】

從三品 兵馬僉節制使 四員【廣州鎮 水原鎮 楊州鎮 長湍鎮 竝守令帶 諸道同】

水軍僉節制使 一員【月串鎮】

從四品 兵馬同僉節制使 十四員【廣州鎮管 驪州 利川 楊根. 水原鎮管 富平 南陽 仁川 安山 安城. 楊州鎮管 坡州 高陽. 長湍鎮管 江華 豐德 朔寧 麻田. 竝守令帶】. 水軍萬戶 五員【月串鎮管 永宗浦 草芝梁 濟物梁 井浦 喬桐梁. 縣監帶】

從六品 兵馬節制都尉 二十二員【廣州鎮 鑛主鎮管 驪州 砥平 陰竹 陽智 竹山果川. 楊州鎮管 永平 抱川 積城 交河 加平. 水原鎮 水原鎮管 振威 陽川 龍仁 衿川 陽城 通津 金浦 長湍鎮管 漣川 喬桐. 竝守令帶】. 監牧【有牧場 守令兼】

刑典

推斷

凡拷訊【訊杖 長三尺三寸，上一尺三寸則 圓徑 七分，下二尺則廣八分 厚二分(用營造尺) 以下端，打膝下不至臙肋(검인-정강이)，一次無過三十度】取旨乃行【庶人及犯盜者否 ○ 功臣 議親拷訊 啓請時 竝錄功臣議親以啓】外則報觀察使【濟州三邑則報節制使 ○ 文武官 內侍府 士族婦女 僧人 觀察使 啓聞，濟州三邑則節制使報觀察使 啓聞】本曹 開城府 觀察使 流以下直斷. 各衙門 笞以下 直斷【不用刑衙門 用皮鞭 ○ 節度使所管人 軍務外所犯 杖以上 移文觀察使 推斷(이하 생략)】

5. 1899년 『인천부읍지』에 보이는 인천의 행정 체제

官員

府尹【一員】：1895년 지방제도 개혁 이후 설치

驛院

慶信驛【在府東十里】，重林驛【在府東三十五里】.

역원(역과 원)

경신역(慶信驛)【부에서 동쪽으로 10리에 있다】과 중림역(重林驛)【부에서 동쪽으로 35리에 있다】이 있다.

公廨

客舍【二十間】，三門【三間】，東軒【十五間】，內東軒【三十三間】，公須【六間】，三門【三間】，使令廳【九間】，鄉廳【十三間】，軍官廳【七間】，訓武堂【六間】，作廳【二十七間】，獄舍【四間】

공해(관아 건물)

객사(客舍)【20칸이다】，삼문(三門; 내삼문)【3칸이다】，동헌(東軒)【15칸이다】，내동헌(內東軒)【33칸이다】，공수(公須)【6칸이다】，삼문(三門; 외삼문)【3칸이다】，사령청(使令廳)【9칸이다】，향청(鄉廳)【13칸이다】，군관청(軍官廳)【7칸이다】，훈무당(訓武堂)【6칸이다】，질청(作廳)【27칸이다】，옥사(獄舍 : 감옥)【4칸이다】 등이 있다.

戶口

四千八百八戶，二萬一百八十九口【男一萬一千一百八十一口，女九千八口】

호구(가호와 인구)

가호(家戶)는 4,808호이며, 인구는 2만 189명이다【남자가 1만 1,181명이며, 여자가 9,008명이다】

結摠

一千八百七十九結三負一束.

결총(농사를 짓고 있는 논과 밭의 총수)

1,879결(結) 3부(負) 1속(束)이다.

6. 인천현으로 강등

한편 숙종 14년(1688)년 인천도호부는 ‘逆僧의 胎鄉’이라는 이유로 ‘縣’으로 강등되었다. 이 반역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楊州 牧使 崔奎瑞가, 靑松面에 妖邪한 자가 있어 스스로 神靈이라 하고, 徒黨을 모아 백성

을 유혹하고 있으므로 체포해 조사하고, 그 凶謨의 실상을 캐내 政府에 급히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체포된 자가 20여 인이었는데 그들의 수괴는 呂還이라는 중이었다. 이들은 1688년 7월 15일에 여환·황화·정원태가 楊州 사람 金時同·崔永吉·李元明과, 永平 사람 鄭好明·李末立·鄭萬一 등과 더불어 각기 軍裝과 長劍 등을 준비하고, 城中에 몰래 들어가서 비오기를 기다렸다가 대궐을 침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날 비가 오지 않아 계획은 실패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斬刑에 처해지고 妻子와 재산은 몰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逆謀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모자를 비롯한 관련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처·자녀는 노비에 정속하고, 당사자의 주거지는 파가저택하며, 해당 고을 수령은 파직하고, 읍호를 강등시켜 토지와 호구를 다음에 분속하거나 고을을 혁파하여 다음에 소속시키며, 심할 경우에는 교화의 책임을 물어 유향 품관과 이속들을 다음에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역모”가 발생한 지역의 읍호를 강등 조치함으로써 해당 지역민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교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인천부읍지』의 인천이 ‘역승의 태향’이라는 이유로 강등되었다는 기록은 의문점이 있다. 『숙종실록』에는 여환이 통진사람으로 되어 있고, 대신 여환과 관련된 황화가 인천출신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읍호가 강등된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시 예전의 읍호를 복구시켜 주었다.⁷⁴⁾ 이에 의거 인천은 다시 숙종 23년 도호부로 복구되었다.⁷⁵⁾

7. 감리서와 각국 영사관의 설치

(이하는 2003년 인천시에서 발간한 『인천시사』 권2에서 발췌)

74) 『續大典』 권 5, 刑典 推斷, “縣令以上降縣監 縣監勿革而序諸縣之末 限十年復舊”.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조선 전시기에 걸쳐 시행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조 48년에 영의정 金致仁이 “瑞興은 본래 都護府였는데, 趙大立의 사건이 있은 후 특별히 1백 년 동안 縣으로 강등했었습니다. 이제 1백 년의 한정이 이미 지났으니, 도로 도호부로 승격시킴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여 100여 년 만에 복구된 사례도 보이기 때문이다(『영조실록』 권118, 영조 48년 1월 14일).

75) 인천이 도호부로 복구된 년도는 『여지도서』에는 丁丑년 2월이라 하였고, 『대동지지』에는 숙종 23년이라 하였으며, 『증보문헌비고』에는 숙종 24년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여지도서』에 년도의 간지와 월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를 따랐다. 『숙종실록』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인천항의 개항이 확정되고 1883년 4월 13일 최초로 상업종사 목적의 일본인이 내항하였으나 그 수가 아주 적었고 본격적인 개항은 같은 해 6월 경에야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인천항에서 통상사무를 취급할 필요성이 생긴 것 역시 6월 이후의 일이었다.

고종 20년(1883) 8월 19일에 조선은 통상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 감리서를 설치하였다. 감리서는 인천, 부산, 원산 등 3개항장에 두었으며 개항장의 해관(통상) 사무를 관장하였다.

인천감리서의 위치는 내동의 구법원 자리로 지금은 한진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대개 감리는 지방행정장관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지방행정장관이 감리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 아니라 개항 초기에는 통상사무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았으므로 부아에서 그 지방의 행정사무와 함께 통상사무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감리서는 갑오개혁의 지방제 개편에 따라 고종 32년(1895) 5월 26일에 폐지되었다. 이 지방제 개혁의 내용은 8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눈 것이었다. 각부에는 관찰사 1명, 참서관 1명, 주사 약간인, 경무관 1인씩을 두어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개항장인 제물포에는 인천부가 설치되었는데 이때 감리서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일반지방행정 관서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항장과 개시장의 사무적인 분량이 증가하고 타기관과의 연관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일반행정과 함께 처리하기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감리서가 폐지된 지 1년 4개월 만인 건양 원년(1896) 8월 7일에 다시 감리서를 복설하고 대외통상사무를 일원화해야만 했다.

1895년 지방제도개정으로 새롭게 설치된 인천부는 12개 군을 관할하였는데, 인천군·김포군·부평군·양천군·시흥군·안산군·과천군·수원군·남양군·강화군·통진군·교동군(뒤에 교동은 강화에 병합)으로 관찰부는 제물포에 두었다.

1895년 지방제도 개정에 의해 이전까지 지방행정기관으로 유지되던 부·목·군·현의 명칭이 군으로 통일되면서, 군정(軍政) 성격을 지녔던 강화유수부(江華留守府)도 폐지되고 새롭게 일반행정기관인 강화군이 설치되었다.

1895년 5월 26(음력)일자로 실시된 23부제 지방행정구역은 불과 1년 2개월 여의 짧은 기간만에 급격한 개혁에 대한 반발로 폐지되고, 1896년 8월

4일자로 13도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8도인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평안도에서, 충청·경상·전라·함경·평안도를 남북으로 나뉘어 13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수도인 한성부를 제외하고 광주·개성·강화·인천·동래 5곳을 부로 지정하고, 지방장관으로 부윤(府尹)을 두었다.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군은 모두 38개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군의 등급은 면의 수와 결호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졌고, 관등(官等)·관질(官秩)에 적합한 인물들을 군수로 배치하였는데, 인천과 강화에는 부윤이 파견되었고 부평과 교동은 1895년과 마찬가지로 4등군이 되었지만, 구획상의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그리고 1895년 지방제도개정 때 강화군에 통합되었던 교동을 다시 군으로 독립시켰다.

조선시대 인천의 교육기관

연 창 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선시대 인천의 교육기관

-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연창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서론

1. 조선의 교육기관 - 성균관, 사학, 서원, 향교
2. 조선시대 인천의 교육기관 - 서원, 향교
3. 조선시대의 교육과 인천지역의 관계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유교 때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고을의 모든 군현에는 오늘날의 초중등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을의 가장 중심지에 향교를 두었고 경치 좋은 명당 자리에는 서원을 두었다. 지금 전국 어느 곳의 도시를 가도 ‘교동’이란 동네이름과 ‘교동초등학교’는 거의 다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의 대학과 같은 것이 있어왔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며 오늘날의 국립대학과 비슷한 국학, 국자감, 성균관 등이 시대를 달리해 면면히 계승되어왔고, 사립대학과 비슷한 서원창설은 서양이나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시대는 앞설 수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전통교육기관은 과거의 유물로 박제되어 교육 기능은 사라져 버렸다. 서구의 물결이 조선에 들어와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근대적인 학교가 설립되어 서구적인 교육 내용이 소개되어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당, 향교, 서원의 모습은 흔적과 건물은 남아 있으나 학생들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조선시대의 유교 교육기관에서는 제향(祭享)과 교육(敎育)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교육의 공간은 단순한 교육만이 아니라 선현에 대한 제사를 중시해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유교 이데올로기를 지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확대 재생산하는 효율적인 통치 수단이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모두 유학과 관련 있고, 특히 성리학 중심의 교육기관이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에서 제향하는 것은 유교의 제사 중시에서 기원한다.

인천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개항 이후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민족의 고난과 희망, 오욕과 영광의 모든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보기도문 장소이다. 개항이전에도 인천은 중요한 지역이었다.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내에 있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서원2곳, 향교 4곳이 있다. 인천의 교육기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을 이해한 바탕위에서 가능하므로 먼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을 살펴 본 후 인천의 교육기관을 다루고자 한다.

1. 조선의 교육기관 - 성균관, 사학, 서원, 향교

1) 성균관

성균관은 조선의 고등교육을 맡았던 최고 교육기관으로 중앙에 있었다. 소과 합격자로 1년에 200명씩 선발해 3년간 교육을 하였고 대과를 준비하고자 전국에서 모여 들었다. 성균관은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을 봉사하는 문묘(文廟)와 유생들에게 강학하는 명륜당(明倫堂)과 유생을 기숙시키는 재(齋) 등의 건물이 있다. 문묘는 대성전(大成殿)과 동·서 양무(兩廡)로 이루어져 있어 대성전에는 공자(孔子), 사성(四聖), 십철(十哲)의 위패를 봉사하고, 동·서 양무(兩廡)에는 공문(孔門)의 72제자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중국명현의 위패를 모셨다. 그리고 제사는 봄, 가을 2회 실시하였는데 이를 석전제(釋奠祭)라고 한다.

그리고 명륜당은 강학을 하는 곳으로 그 앞마당의 양편에 유생을 기숙시

키는 동서 양재(兩齋)가 자리잡고 있었다. 동재에는 생원, 서재에는 진사를 수용했다. 교과목은 사서와 오경중심이었다.

2) 사학(四學)

사학은 중등교육기관으로 **중앙**에 둔 것이다. 사학은 고려 때 개성에 두었던 동부·서부·중부·남부·북부의 5부학당에서 유래한 것인데 문종때 북학학당을 폐지해 4부학당으로 하여 각각 정원을 100명으로 하였다. 지금도 종로구에 중학동이 있는데 이 때의 학당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학당 건물은 향교나 성균관과 비슷하게 지어 기숙사인 동재, 서재를 두었으나 대성전 등 향사를 지내는 공간은 없었다. 교육을 맡은 관원은 성균관 관원이 겸직하는 교수와 훈도가 있었다. 성균관의 부속학교와 같은 성격을 띠면서 모든 제도를 성균관의 예에 따랐다. 작은 성균관이라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입학 자격은 일차적으로 관리의 자제에게 주어졌으며 때로 선비의 자제도 입학이 허용되었다. 8세부터 입학이 허용되고 15세가 되어 시험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을 주었는데 합격하지 못한 생도는 더 머물러 공부했다. 교과목은 향교와 다를 바 없으나 사서를 위주로 하고 오경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시험을 보았다.

3) 서원

서원은 일종의 사립학교로 조선이야 말로 서원의 천국이었던 나라였다. 서원은 **강학(講學)**과 더불어 선현을 **제향(祭享)**하기 위해 16세기 이후 사림(士林)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제향하는 명현은 우리나라의 명현인 것이 특징이다. 유교를 치국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왕조는 성균관과 함께 서울에 사부학당을 세우고 지방마다 **향교**(지방 소재 국립 고등학교에 해당)를 세워 관학(官學)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관학인 향교는 관료주의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15세기 말 이후 교육기능은 쇠퇴하였다. 향교에서 수학한 후 1차 과거에 합격한 자는 생원·진사의 칭호를 받고 성균관으로 가게 되며, 다시 대과에 응시하여 고급관직에 오르는 자격을 얻었다.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16세기 이후 향교는 과거 준비장으로 변

질되었다. 그러자 양식 있는 선비들이 관학을 기피하였으므로 생도가 미달되기에 이르렀고, 우수한 교관들은 모두 떠나버려 향교에 남은 자들은 군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학문에는 뜻이 없고 벼슬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관학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사림이라는 재야 지식인들에 의해 설립된 것이 서원이다. 사림은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이어 받은 아은(治隱) 길재(吉再)가 김숙자(金叔滋)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고, 다시 김숙자는 아들 **金宗直**에게 그의 학통을 잇게 하였는데, 김종직이 金宏弼·鄭汝昌·金駟孫 등의 제자를 배출하면서 그 세력이 커졌다.

서원의 시작은 중국의 당, 송 시기로 송나라의 수양서원, 석고서원, 악록서원, **백록동 서원**이 4대 서원으로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주자(朱子)가 강론한 백록동 서원이 특히 유명하였다. 이후 서원은 선현 제향과 학생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였으므로 **사(祠)와 재(齋)를 갖춘 곳**을 서원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는 1543년(중종38)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때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한 안향(安珦)의 옛 집터에 세운 **백운동(白雲洞) 서원**이다. 주세붕은 안향의 옛 집터에 사당을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 교육하였는데, 이것이 사와 재를 아울러 갖춘 최초의 서원이다. 이후 퇴계 이황이 서원설립을 적극 주도해 명종, 선조, 숙종 시기를 거치면서 남설(濫設)되어 사액(賜額)서원만도 130여개에 이르렀다.

초기에 서원은 선비들이 사당에 선현을 받들어 모시고 그 학덕을 본받고자 공부하던 곳으로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였으며, 향촌 사회의 도서관 역할도 담당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서원은 정치 세력의 후원과 경제적 기반을 발판으로 지방 관료들도 간섭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고을 수령을 좌지우지하는 작폐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특권이 있어 사액서원의 경우 부속된 토지는 면세되고, 노비는 군역이 면제 되었으므로 면세의 특권을 남용하여 국고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양민이 서원의 노비가 되어 군역을 기피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유생은 향교보다도 서원에 들어가 학문 대신 봉당에 가담하여 당쟁에 골몰하고, 때로는 양민을 토색하는 불량 유생의 험장 소굴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1871)으로 사액서원 가운데 一人一

院 원칙에 따라 사표가 될만한 47개 서원만을 남겨두었다.

서원은 유생들이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는 곳이지만 선현에 대한 제향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서원이 설립되는 장소는 배향하고자 하는 선현의 연고지여야만 했다. 그래서 배향하고자 하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또는 성장한 곳이거나 유배지, 관리로 근무하였던 곳이거나 후학을 가르쳤던 곳, 묘가 있거나 충절과 연관된 곳을 서원의 입지로 정하였다.

서원의 공간 구성은 강학(講學)공간을 앞쪽에 두고 제향공간을 뒤쪽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서원의 강학공간, 제향공간, 부속공간은 각각 담장을 둘러싸아 각 공간마다 고유한 영역을 형성한다. 이들 건물은 기본적으로 정문과 사당을 잇는 중심축에 정문, 누각, 강당, 내삼문, 사당을 배치하고 강당 옆 좌우에는 **동재와 서재**를 대칭으로 배치하였으며, 장서각, 장판각, 제기고, 전사청, 고직사 등은 적절히 배치하였다.

서원 들머리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그 주변에 하마비나 하마석이 있다. 홍살문은 궁궐이나 능묘, 관아 입구에 신성한 곳임을 알리기 위해 세우는 것으로서 두개의 둥근 기둥을 세우고, 지붕 없이 붉은 살을 세워 박고서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새긴 문이다. 홍살문에 붉은 칠을 한 것은 잡귀를 쫓기 위한 것이고, 서원 입구에 세운 것은 이 문 안에 선현의 신위가 봉안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라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서원의 정문인 **외삼문**이 나온다. 외삼문은 솟을대문으로 이루어진 솟을삼문과 평삼문으로 나무어지는데 누문으로 된 곳도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외삼문과 강학공간 사이에 누각을 세운 서원도 있다. 누문이나 누각의 2층 누마루는 원생들이 공부하는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시회(詩會)를 열며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다. 누각을 지나면 원생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이 있다. 강학공간은 일당양재(一堂兩齋)의 원칙에 따라 **동재와 서재**를 강당 전면이나 후면의 좌우 양쪽에 배치하였다. 동재와 서재는 원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기숙사와 같은 곳으로서 강당을 향하여 섰을 때 오른 쪽의 건물을 동재, 왼쪽의 건물을 서재라 부른다. 동재에는 서재보다 선배가 되는 원생들이 기거하였다.

4) 향교

향교의 기원은 **고려 仁宗代**이다. 유학을 중시한 조선은 고려의 향교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에서의 지역민을 교화시키는데 향교를 적절히 사용하고자 하였다.

향교의 구조는 성균관 구조의 축소판이다. 선성(先聖)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있고 그 아래 좌우에 선현의 위패를 모신 **동서 양무**가 있다. 이 대성전과 동서 양무를 **문묘**라 하는데 문묘가 없으면 향교라 할 수 없다. 문묘의 앞 뜰에 강학을 하는 **명륜당**이 있고 그 좌우에 유생을 기숙시키는 동서 양재가 있는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양반이하의 교생**을 수용하였다. 향교의 구조는 문묘와 명륜당이 중심으로 성현에 대한 제향(祭享)과 교육을 위한 공간건축을 하였다.

향교의 교수관은 교수(敎授)와 훈도(訓導)이다. 경국대전에는 교수는 종 6품, 훈도는 종 9품으로 한다고 했으나 전국 330개 고을에 설립된 향교에 모두 파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생원, 진사로서 보충하는 경우도 있었다. 향교는 수령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교도직 임명권이 수령에게 있어 자연히 수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향교의 학생을 교생(校生)이라 하는데 서원보다는 신분적인 면에서 융통성이 있어 양반이외의 평민도 입학할 수 있었다. 향교의 생도는 나이가 16~40세 까지로 일단 교생이 되면 군역을 면제 받으므로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다. 향교의 재정은 학전(學田)에서 충당했고 이에는 지역 양반의 기부, 국가의 지원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향교의 입학정원은 부, 대도호부, 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15명이었다.

향교의 교과 내용은 시문을 짓는 사장학(詞章學)과 경서를 공부하는 경학(經學)으로 구분되며 역사도 공부했다. 생도들의 성적은 출석부에 따라 매기는 원점법(圓點法)을 적용하였다. 해마다 6월에 전체 생도가 시험을 치루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생도에게는 진사시와 생원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때로는 알성시에 응시할 특전도 주었다.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이 향교를 압도하자 향교는 교육기능보다 제향의례에 더 초점을 두었으며, 향약 보급에도 힘을 기울여 교화 기능 쪽으로 기울어졌다.

2. 조선시대 인천의 교육기관 - 서원 , 향교

1)학산서원

학산서원은 문학산 북쪽 기슭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천부사로 재임했던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숙종34년(1708)에 창건한 서원이다. 서원의 완공과 함께 국왕이 학산(鶴山)이란 액호를 내렸고 같은 해 사액제를 시행해 인천 지역의 인재 양성과 풍속 교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조10년(1798)에는 이단상의 아들 이희조(李喜朝)가 역시 인천 현감을 지낸 공덕을 추모해 인천유림의 건의에 따라 학산서원에 함께 배향되었다.

학산서원은 조선 후기 서원 건립의 일반적 목적인 선현배향과 더불어 지방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학문적 기반을 넓혀 나간 중요한 문화기관이었다. 인천의 학문적 경향은 근기학파로 노론계열의 인물인 이단상, 이희조 부자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인천 지역의 학문과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학산서원은 흥선대원기 때의 서원철폐정책으로 훼손된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일제강점으로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그 터만 남게 되었다.

이후 현재의 문학산 터널 입구 근처에서 학산서원이라 새긴 기와조각이 발견되고 그 주변에서 재실과 강당 그리고 사당의 건물초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확장과 함께 다시 유실되고 최근 문학산 터널 공사로 인해 현재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2002년 인천시 남구청의 문학산 일대 역사유적에 대한 용역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인하대박물관의 학술조사보고를 통해 그 위치가 확인되었다. 현재 학산서원터에는 표지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이곳이 서원터였음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학산서원 제향 인물>

1. 이단상 (李端相 1628 ~ 1669)

자는 유능이고 호는 정관재·서호이며, 시호는 문정이다 본관은 연안으로 이정구의 송자이며 이명한의 아들이다. 송시열, 송준길 등과 교유하였다. 1649년(인조 2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설서, 봉교, 부수찬, 교리, 대간, 청풍부사 응교 등 여러 관직을 거친 후 인천부사가 되었다 그 후 사퇴한 후 양주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1664년(현종 5) 집의가 되고 1669년 부제학으로 서연관을 겸하였다. 그의 문하에서는 아들인 이희조와 김창협, 김창흡, 임영, 윤지선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다. 그는 응교로 있으면서 언론의 개방을 주장하고 정개청의 서원향사에 반대하였다. 또 송시열, 송준길 등의 인재 등용을 건의하고 호남 지방의 대동법 시행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양주의 석실서원에도 배향되었다. 저서에는 『대학집람』, 『사례비요』, 『정관재집』, 『성현통기』 등이 있다.

2. 이희조(李喜朝 1655~1724)

자는 동보이고 호는 지촌·간암이며 시호는 문간이다. 본관은 연안으로 이정구의 증손이며 이명한의 손자이다. 이단상의 아들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이이, 김장생, 김집,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김창협, 김창흡, 임영 등과 교유하였다. 1680년(숙종 6)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의금부도사, 공조좌랑, 진천현감, 인천현감, 서연관, 지평, 천안군수, 장악원장을 역임하였고, 1707년 장령을 거쳐 해주목사로 있을 때 석담에 있는 이이의 유적을 찾아 요금정을 세웠다. 대사헌, 이조참판, 찬선, 제주를 지내고 1721년(경종1) 신임사화로 영암에 유배되고, 다시 철산에 이배되던 중 정주에서 죽었다. 영조 즉위 후 유생들의 상소로 신원되었다.

그는 인심도심설에 관하여 이이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기발(氣發)에서는 성명과 형기의 어떤 면에서 원인하는가에 따라서 도심과 인심으로 나뉘지만, 마음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면에서 서로 작용하여 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용의 중이라는 의미는 정이가 불편불의라 하고 주희가 무과불급이라 하여 미발과 기발을 달리 해석한 것

같지만, 정이는 미발, 기발을 함께 말하여 미발의 측면에서 말하고, 주희는 정자의 말을 보충하여 기발지중의 입장에서 해석하였다고 하였다. 中이란 둘을 겸한 것이라 하여 理로 표현하였다. 또한 비은(費隱)을 소당연과 소이연으로 분리시키는 것에 반대하여 비(費)로 표현하였다. 그는 순자의 성악설을 이단으로 배척하는 등 이단에 대해 극력 배척하였다. 또한 그는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기 이전에는 박세채를 따랐으나, 윤희를 이단으로 배척하고 윤증에 대하여 배사론(背師論)으로 일관하면서 송시열의 노론을 지지하였다.

저서로는 『지촌집』이 있고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평강의 산양재 영당에도 제향되었다.

2) 인천향교

<인천시 남구 문학동 349-2 시도유형문화재 제11호>

인천향교의 기원은 고려 인종 10년설과 조선 태조7년설이 있으나 모두 확인 불가능하다. 최항의 중수기로 보아 고려인종시기의 향교 건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조선태조7년의 창건설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태종6년, 세조12년, 숙종27년에 중수된 증거가 1980년 중수 공사시에 명륜당 천정에서 나온 오천(烏川) 정종빈(鄭宗賓)의 上樑重修文에 나온다.

조선초기 유학을 지방민들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건립된 향교는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시기에 재난을 당해 위패만 근근히 봉행해 오다 숙종시기에 크게 중수하였다 인천향교는 조선중기 이후 서원 세력에 밀려 문묘제향의 기능만을 유지하다가 국권피탈 이후 1914년에는 부천군에 속하게 되고 이름도 부천향교로 바뀌고 1941년에는 부평향교에 흡龕되었다. 광복이후 부평향교로부터 분리되어 이름도 인천향교로 복원되었다.

오늘날 인천 향교의 시설은 문묘로서 대성전과 동서 양무의 강학을 위한 명륜당, 동서 양재 등이 갖추어져 있고 校直廳, 守僕舍, 三門 紅箭門 등이 있다. 대성전은 맞배지붕에 정면3칸, 측면3칸이며 명륜당은 팔작지붕에 정면5칸, 측면2칸이다.

인천향교는 기능면에서 제향과 교육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고 석전제는 五聖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儒賢18위까지 제사지내며 二월 上丁日에 1

회만 봉행한다. 이울러 교육 기능면에서 명륜학당을 운영하고 향교회관을 교육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인천향교를 카메라들고 답사하는 날은 겨울이라 그런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한적했다. 정말 향교는 이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관리인 아저씨만 홀로 지키고 있었다. 매월 두번 제향하는데 10여명 정도 참석하고 석전제는 1년에 한번 인천유지들 200여명 정도가 참석해 성대히 치른다고 한다.



3)부평향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82-1 시도유형문화재 제12호>

아쉽게도 부평향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문헌이 없다. 고려 인종2년 설(부평향교안), 인종5년 설(부평향교지), 인종 6,7년 설이 있으나 모두 추정일 뿐이다. 조선이 개국되면서 부평향교는 매우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천의 북부지역인 부평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부천시 지역, 서울 구로구 일대의 고척, 개봉, 오류, 온수, 천왕, 향동 일대가 모두 부평향교의 관할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시기에 위패만 겨우 건지고 향교에 보관중인 문헌이 소실되었으며 병자호란시기에도 대성전이 불타고 문헌도 불타 列聖位版만 겨우 구출하였다 한다. 이후 52년이 지나서 숙종14년에 문묘를 재건하고 열성위판을 공촌동에서 가져와 현재 위치인 계산동에 향교를 재건축하게 되었다. 조선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인재들이 서원을 주로 활용하고 향교를 홀대하였지만 인천지역의 경우는 서원이 그리 많지 않아 향교에서 일정정도 유생들의 교육을 전담하였다고 생각된다.

부평향교의 대성전은 맞배지붕에 정면 3칸, 측면3칸이며 명륜당은 정면5칸, 측면2칸의 팔작지붕형태이다. 부평향교에 봉안된 列聖位牌는 五聖位(孔子, 顔子, 曾子, 子思, 孟子)를 위시해 程·朱 兩公과 우리나라 儒賢18현이다. 인천향교와 같이 2월 上丁日에 釋奠祭를 지낸다.



神託院治

4)강화향교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38-2 소재 시도유형문화재 제34호(강화군)>

강화 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 내가면 고천리에 창건되었다. 고종 19년(1232) 강화읍 갑곶리로 옮겼다가 고종 46년 서도면 불음도로 옮겼고 조선 인조 2년(1642)에는 유수 심열이 송악산 기슭으로 옮겼으며, 인조 7년(1629)에 유수 이안눌이 위패를 모시고 명륜당을 세우는 등 비로소 완전한 체제를 갖추어 학궁이라 하였다. 현종 14년(1673) 유수 민시중이 남산골로 옮겼으나 영조 7년(1731)유수 유척기가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경내에는 중국 5聖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강학하던 명륜당 및 내·외삼문 등이 있고, 동·서무는 터만 남았는데 현재의 건물들은 근래에 중수 또는 신축된 것이다.

강화향교를 답사하며 살펴보니 특이한 것이 첫째 향교의 명륜당 자리가 여고 운동장의 교단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그 옛날 남자들이 공부했던 곳이 이제는 강화여고가 자리잡아 여학생들의 배움의 전당이 된 것이다. 둘째는 향교의 배치가 대개 전학후묘의 건물배치인데 이곳은 드물게도 명륜당이 동쪽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있다. 향교의 규모가 컸기에 이런 배치를 했으리라 짐작된다. 셋째는 강화에는 서원이 드물어 대부분의 유생들이 이곳 강화 향교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립인 서원보다도 관학인 향교의 교육이 강했던 곳이 강화가 아닌가 한다.



5) 교동향교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148 소재 시도유형문화재 제28호(강화군)>

교동 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화개산 북쪽에 지었으나, 조선 영조 17년 조호신이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며, 1966년에 수리하였다. 고려 충렬왕 12년(1286)에 안향이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자상을 들여와 모셨다고 전하며, 이후 도읍과 읍에 조상이나 성현의 위패를 모신 문묘를 설치했다고 한다. 안향은 이곳 교동도에서 2개월정도 체류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공자상을 놓고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교육공간인 명륜당과 동재·서재가 있고, 제사공간을 형성하는 대성전과 동무·서무가 있다. 이외에도 내삼문, 외삼문, 제기고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5聖과 우리나라의 18유현을 배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1894) 이후 교육의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의 기능만 남아있다.





6)충렬사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371소재 시도유형문화재 제21호(강화군)>

충렬사는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과 공조판서 이상길 외 26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사당이다. 사당이지만 교육공간을 갖추고 있는 서원으로서 홍선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살아남은 유서 깊은 서원이다. 김상용은 조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에게 성이 함락되자 순절한 충신이다. 인조 19년(1641)에 현충사로 불렸으나, 효종 9년(1658)에 나라에서 충렬사라는 이름으로 사액서원을 받았다. 1977년 보수하여 현재에 이른다.

교육공간인 명륜당과 동·서재는 없어졌다고 하나 답사해 보니 명륜당 대신 성취당이 서재 겸 강학 공간이고 동재는 편액 없이 있었다. 사당과 책을 보관하는 전사청, 출입문인 외삼문 등이 남아 있다. 충렬사는 풍수상 명당자리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어 멀리서 보면 종가 댁 같은 고풍이 풍기는데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 일반 관광객들은 거의 찾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명륜당 대신에 성취당이란 강학공간을 두었고 사당 주위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충렬사 사당 양쪽으로 심어 놓아 운취를 더해 주고 있었다. 이곳은 중국의 성인이 아닌 우리나라 강화에서 순국한 분들의 위패를 모신 것이 특징하다. 그러면서도 서원기능을 해 서원처럼 제향과 교육을 담당했던 곳이다.



<충렬사 제향인물>

김상용(金尙容 1561~ 1637)

본관은 안동, 자는 경택, 호는 선원·풍계·계옹이다. 김상헌의 형이며, 돈녕부 도정을 역임한 김극효의 아들이자 좌의정 정유길의 외손자이다.

1582년(선조 15)에 진사가 되고 1590년(선조 23)에 증광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화 선원촌으로 피난했다가 정철의 종사관으로서 왜군 토벌과 명 군사 접대에 공을 세워 1598년(선조 31) 승지로 발탁되었다. 그 뒤 왕의 측근으로서 전란 중의 여러 사무를 보필하고, 성절사로서 명에 다녀왔다. 1601년에 대사간이 되었으나 곧 복인의 배척을 받아 정주 목사로 밀려나고, 이후 지방관을 전전하다가 광해군이 즉위한 1608년에 잠시 한성우윤과 도승지를 지냈다.

1617년(광해군 9)에 인목대비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른바 폐모론이 일자 이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원주로 거처를 옮겨 화를 피했다. 인조반정 뒤에는 관돈녕부사에 기용되었고, 이어 병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유도대장으로서 한성을 지켰다. 1630년(인조 8)에 기로소에 들어갔고, 2년 뒤에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나 늙었다는 이유로 곧 사퇴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묘사주를 받들고 빈궁, 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질러 순절하였다. 한때 그의 죽음에 대해 자기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는 이설도 있었다. 그러나 박동선, 강석기, 신익성 등의 변호로 정려문이 세워지고 1758년(영조 34)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인조실록』의 「줄기」에 의하면 김상용은 강

화의 남문루에 올라가 화약을 장치한 뒤 좌우를 물러가게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 타 죽었는데, 그의 손자 한 명과 노복 한 명이 따라 죽었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 외할아버지인 정유길에게서 고문과 시를 배웠고, 성혼과 이이의 문인으로서 황신, 이춘영, 이정구, 신흙 등과 친했으며 당색이 다른 정경세와는 도학으로서 사귀었다. 정치적으로는 서인에 속하였는데, 인조초에 서인이 인물 공천 때문에 노서와 소서로 갈리자 노서의 영수가 되었다.

김상용은 시와 글씨에 뛰어났다. 특히 서체는 이왕(二王: 왕희지와 왕헌지)의 필법을 본뜨고, 전(篆)은 중체를 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양의 「승인전비」와 풍덕군수 장인정의 비에 전액을 남겼다. 시조는 유고에 오륜가 5편, 훈계자손가 9편 등이 전하고 이 밖에도 『가곡원류』 등에 여러 편이 실려 있다.

문집으로는 1640년에 아들 형제가 목판본으로 편집, 간행한 『선원유고』가 있는데 여기에 시639수, 차자7편, 소2편, 잡저13편 등이 수록되었다. 잡저 가운데 「기몽설」은 대학과 중용을 토론한 내용으로서 경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강화 충렬사 외에 양주 석실서원, 정주 봉명 서원, 안변 옥동서원, 상주 서산서원, 정평 모현사 등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충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3. 조선시대의 교육과 인천지역의 관계

인천은 근대 개항이후 한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양문물과 과학기술이 조선 말기와 대한 제국 시기에 선박을 타고 서울의 관문인 인천에 첫발을 내딛었던 것이다. 근대 개항기에 있어 인천이 매우 중요한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이전의 인천지역의 교육기관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묘에 공자상을 배향한 향교는 강화군의 교동향교이다. 고려 말기 성리학을 소개한 안향이 최초로 배를 타고 중국에서 강화 교동도로 들어왔는데 원나라에서 유교관련 물품을 다수 들여왔

다. 그 중 공자상을 비롯한 희귀한 것들을 강화도로 들여왔던 것이다. 이를 기념해 향교에서 문묘에 공자상을 처음으로 설치한 곳이 교동향교이다. 성리학을 가장 중시한 조선의 지식인 사대부는 안향을 우리나라 성리학의 소개자로 추대해 그 후 많은 서원에서 배향하고 있다. 현재 교동향교의 석전제는 전국의 유림들이 모이는 유서 깊은 제전이다.

둘째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고 강화의 충렬사는 사(祠)로서 드물게도 47개의 사액서원에 들어 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서원 중의 하나이다. 서원은 서원이란 명칭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서원은 祠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였다. 祠는 효제충신을 강조하는 유학에서 일반 서원보다도 한 층 더 품격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명현이나 충신을 배향하고 교육하는 곳이 서원이지만 홍선대원군 시기 900개 이상이 철폐되었고, 살아남은 47개의 서원은 一祠一人配享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충렬사에 배향한 김상응은 충군애국을 몸소 실천한 조선의 충신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평가받았던 것이다.

인천 인근에는 김포의 우저서원(중봉 조헌 선생 배향)과 강화의 충렬사가 훼손되지 않은 47개의 서원에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인천인근 지역민들의 서원운영의 투명성과 지명도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천지역은 인천 향교, 부평향교, 강화향교, 교동향교 등의 관학 위주의 교육이 발달하였지만 이외에도 실학과 관련된 소남 윤동규의 실학 정신이 있는 곳이 도림동 일대이고, 정통 성리학이라고 자부했던 서인계열의 기호학파가 있던 곳이 문학서원이다. 인구 비례로 보면 강화의 과거 합격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양명학의 본거지인 강화학파가 자리한 곳으로 볼 때 새로운 학문의 경향에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이 발달했던 곳이 인천 지역으로서 이것은 개항 이후 서양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 적극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인천이 다문화시대의 국제적인 도시로 발달하는데 이런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계승한다면 지리적인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거 소과 지역별 안배

생원과 진사과(소과) 합격정원- 특징: 지역별 안배

지역	한성부	경기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길도	합계
생원과	200	60	45	35	90	100	90	45	35	700
진사과	200	60	45	35	90	100	90	45	35	700

식년시 초시(대과 1차)의 합격자 정원- 지역별 안배/ 2차 회시는 성적순으로 33명

지역	관시	한성시	경기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길도	합계
정원	50	40	20	15	10	25	30	25	15	10	240

※ 조선 시대 인천지역 과거급제자(인천학연구 5호 참조)- 생원, 진사

○총 288명중 인천 87명, 부평 68명, 강화130명, 교동2명, 영종1명

○성별- 전주이씨 38명, 파평윤씨 17명, 청주한씨 14명, 진주유씨 13명, 여흥민씨 10명

※ 향교에 봉안된 인물

○4성-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10철-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 재아, 자공, 염유, 자로, 자유, 자하의 10명으로 孔門10哲이라고 함.

○6현-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장재, 소옹으로 송나라 유학자들임

○18현-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성혼, 이이, 조헌,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박세채로 우리나라 역대 유학자 18명이다

※ 향교 교관의 지위 및 교생·교노비의 규모

邑格	教官	校生數	校奴婢數	學田
부	교수(종6품)	90명	30구	10結
대도후부, 목	교수	각 60명	각25구	10結
도호부	교수	70명	20구	10結
군	훈도(종9품)	50명	10구	7결
현	훈도	30명	10구	5결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인천의 인구

임 학 성
(인하대학교)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인천의 인구

임 학 성(인하대학교)

◆ 목 차 ◆



1. 고문서(古文書)란?
2. 호적문서(戶籍文書)의 명칭 및 종류
3. 생활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자료. 호적(戶籍)
4. 주민은 거의 상업에 종사
5. 평균 4.5칸짜리 초가집에서 거주
6. 인천 주민의 약 1/3은 타처에서 이주해 온 사람

1. 고문서(古文書)란?

- ▶ 자의(字意) : ‘옛 文書’.
 - * ‘文書’ 書類 뿐 아니라 書籍·記錄·謄錄·帳簿類 등을 모두 포함.
- ▶ But, 학계에서 정의하는 ‘文書’는 書籍·記錄·謄錄·帳簿類 등과는 구별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文獻(글)을 말함.
- ▶ ∴ ‘文書’는 ① 반드시 특정의 대상(發給者 vs 受取者)이 있어야 하며, ② 兩者 사이에 文書를 授受(發·受)하는 목적이 있어야 함. 즉, ‘甲’과 ‘乙’ 사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授受되는 글을 文書라 할 수 있다.
- ▶ ‘古’의 시기 설정 :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나, 대체로 1910년까지의 문서를 ‘옛 문서’로 취급함.
- ▶ 고문서의 분류 : 발급자 또는 발급기관을 기준으로 ① 國王文書, ②

王室文書(王室 또는 宮房에서 발급한 문서), ③ 官府(官吏)文書(官府 또는 官吏가 公的인 입장에서 발급한 문서), ④ 私人文書(公的인 입장이 아니라 私的인 입장에서 私人으로서 발급하는 문서), ⑤ 寺社文書(佛寺에서 발급한 문서), ⑥ 書院文書, ⑦ 結社文書(裸負商·社會團體·會社·組合 등 모든 結社에서 발급한 문서) 등의 國內文書(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와, 外交文書(한국과 외국[주로 중국·일본] 사이의 외교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2. 호적문서(戶籍文書)의 명칭 및 종류

- 1) 준호구(準戶口·准戶口): 오늘날의 ‘호적등본’(戶籍謄本)과 유사한 문서로, 私人의 신청에 의하여 관부(漢城府 및 지방 관아)에서 호적대장(戶籍大帳 ; 3년 간격으로 작성 * 子·卯·午·酉의 ‘式年’)에 기록된 내용(人的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은 후<호적대장 작성 후 변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 ‘準’> 신청자인 私人에게 발급한 문서.* 문서 양식상의 특징  ‘連書’
- 2) 호구단자(戶口單子 * 戶籍單子): ‘호구신고서’(戶口申告書)의 성격을 지닌 문서로, 호적대장을 改修하기 위하여 私人(戶主)이 家內的 인적 사항을 조목조목(* ‘單子’) 적어 관부에 제출한 문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부에서는 이전 호적대장 등을 대조하여 착오여부를 확인한 후 1부는 호주에게 돌려 보냄. * 문서 양식상의 특징  ‘列書’
 - ▶ ‘人的 사항’: ① 호주를 비롯하여 家內 거주자의 職役·이름·年齡·本貫 및 가족관계, ② 호주와 妻의 四祖(父·祖父·曾祖父·外祖父)의 직역 및 이름, ③ 소유하고 있는 奴婢(대체로 率居 뿐 아니라, 外居·逃亡奴婢까지도 포함) 및 奴妻·婢夫·雇工 등의 이름과 연령 등.

3. 생활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자료. 호적(戶籍)

조선왕조의 호적제도는 1896년 9월 1일에 반포된 「戶口調查規則」(칙령

제61호)과 이틀 후인 9월 3일에 반포된 「戶口調査細則」(내부령 제8호)으로 그 이전과 형식·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공란의 「戶籍表」(戶籍樣式)를 官에서 인쇄하여 傳給한 점과, 가옥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新式戶籍’(‘光武戶籍’)을 통하여, 인구에 관한 것으로는 戶主의 연령·성관·직업·四祖, 처·자녀 등의 동거친속, 동거하는 寄口 및 雇傭人, 가족원의 거주이동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옥에 관한 것으로는 가옥의 소유상태(己有냐, 借有냐?), 가옥의 구조(瓦家냐, 草家냐?), 가옥의 규모(間數)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896년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수많은 호적이 작성되었는데, 인천의 것은 1898년(광무 2년)에 작성된 ‘畚洞戶籍’과 ‘柵峴外洞’(현재의 경동 일대) 2책만이 남아있다(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소장). 답동호적에는 총 184戶, 축현외동호적에는 총 224戶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재되어 있다.

4. 주민은 거의 상업에 종사

답동호적 184호(家)에 거주한 주민수는 총 597명으로 1호당 인구수는 3.2명이었다. 嬰·幼兒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1호당 인구수는 대략 5명은 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남자가 334명, 여자가 263명으로 남자가 71명이 더 많아 성비(여자 100%대 남자수)는 127%로 나타났다.

답동에 거주한 184명의 호주(戶主) 직업을 살펴봤더니 商業이 163명으로 압도적이었다(이 가운데 米商 4명, 木商 2명, 酒商 1명 有 *酒商은 38세의 과부). 기타 직업으로는 객주(客主: 개항장에서 외국상인과 한국인 객상 간의 거래중개자. 민족상인)와 부군(負君: 짐꾼), 순검(巡檢: 오늘날의 순경)이 각 2명씩, 십장(什長: 일꾼들을 감독·지시하는 우두머리)과 전신부(電信夫) 등이 각 1명씩이었다. 답동이 개항장 인근에 위치하였기에 역시 대부분의 주민이 상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5. 평균 4.5칸짜리 초가집에서 거주

답동에 있었던 184채의 집은 모두 초가집으로 나타났다. 호주 본인이 소유[기유(己有)]하고 있는 집이 175채(95%), 타인 소유의 집을 빌린[차유(借有)] 것이 9채(5%)였다.

가옥의 크기는 1.5칸(한 칸 반)부터 무려 22칸짜리까지 분포했으나, 4칸짜리가 58채(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칸짜리가 42채(23%), 5칸짜리가 31채(17%) 등이었다. 결국 답동 주민들은 한 집당 평균 4.5칸짜리 초가집에서 거주한 셈이 된다.

[참고] 비슷한 시기 경상남도 11개 군을 조사한 결과, 45,000여 호 중 3칸 가옥이 53%, 3칸 이하 가옥이 90%를 차지함(1904년). 충청도 지역의 평균 칸수는 공주와 진천이 3.5칸, 청주가 3.3칸, 보은이 4.0칸 등으로 나타났다(1906년).  개항장 인천의 가옥은 전통 향촌지역과 비교하여 다소 규모가 컸음을 알려 준다.

6. 인천 주민의 약 1/3은 타처에서 이주해 온 사람

답동호적의 전체 주민 184호 가운데 36.4%인 67호가 전입(轉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관내에서의 전입 가호 9호를 제외하면 전체 주민의 31.5%(58호)가 타처에서 전입한 셈이 된다. 타처에서 이주해 온 58호의 前거주지는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25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서울이 23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8호, 충청·황해도가 각 4호, 전라·경상도가 각 3호, 제주도가 2호, 강원도가 1호 등이었다.

한편 축현외동호적의 경우, 전체 주민 224호 가운데 27.2%인 61호가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관내에서의 전입 가호 2호를 제외하면 전체 주민의 26.3%(59호)가 타처에서 전입한 셈이 된다. 타처에서 이주해 온 59호의 前거주지는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19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서울이 22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5호, 경상도가 8호,

평안도가 7호, 강원도가 3호, 황해도가 2호, 충청·전라도가 각 1호 등이었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항장 인천으로 몰려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된 이유는 商業에 종사하기 위해서였다.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송 미 경

(서울여자대학교)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고찰
- III. 맺음말

I. 머리말

2004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도로공사 현장에서 회곽묘가 발견되어,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팀이 유물을 수습하였다. 현장에 나간 박물관 학예연구팀은 유물을 수습하여 박물관으로 옮겼고, 유물을 정리한 결과 총 50여점으로 분류되었다. 복식류 16건 33점과 치관제구 13건 16점이다.

복식류는 여성용 단령 1점, 대금형 상의 3점, 저고리 5점, 적삼 1점, 장옷 2점, 장유(長襦) 1점, 전단후장형 상의 1점, 철릭 1점, 답호 1점, 치마 6점, 말균 1점, 바지 5점, 소모자 2점, 너울 1점, 주머니 1점, 버선 3점이다.

치관제구(治棺諸具)는 구의(柩衣) 1점, 옷감 1점, 자리 1점, 자리밑천 1점, 편의 3점, 홀이불 1점, 소렴금 1점, 소렴종교 1점, 대렴금 1점, 떡목 1점, 악수 1점, 표주박 1점, 구슬 1점, 삽 2점이다.

II.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고찰

1. 여자 단령(團領)

보공(보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수습 당시 직사각형으로 접혀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원삼(圓衫)이나 단삼(團衫)으로 기록되어 있는 옷으로 추정된다. 여자단령은 크기가 매우 커서 학자들 사이에 단령의 용도에 이견이 있을 정도이다. 즉 현실적으로 입기에는 거대하기 때문에 수의용(壽衣用)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석남동 출토 여자단령은 앞 길이 133cm, 뒷 길이 131cm, 화장 66cm, 품 81cm이다. 군청색 무문단 홀옷으로 가슴과 등에 금사로 공작 1쌍과 파도, 괴석, 모란과 구름송이가 직성되어 있다. 깃 모양은 남자의 단령(團領)과 같으나, 소매와 무 그리고 옷고름의 형태가 남자 단령과는 구별된다. 여자의 단령의 가장 큰 특징은 옷의 크기가 크며 소매를 수구에서 1/2로 접어 반소매처럼 만든 것이다. 석남동 단령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무의 형태도 동시대 남성 단령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형태로 앞 뒤에서 맞주름을 잡아 무 상단의 곁에서 상침으로 고정하였다. 옷고름도 남성용 단령과 구별되는 자색 주(紬)로 만든 나비 4.5cm, 길이 56cm의 체비부리 탕기가 달려 있다.

석남동 여자단령의 가치는 무문단 바탕 옷감에 금사홍배가 직성된 유물이 수습된 것이다. 이는 원말 명초 유물에서는 종종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는 없었던 최초의 유물이다.

2. 장옷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에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長衣)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니 장의(長衣)를 의(衣)상(裳) 사이에 이루게하고...”라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에는 남자의 옷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장옷은 목판깃에 좌우대칭형에 겨드랑이에 삼각형 무가 달린 겹옷이다. 인천 석남동 출토 장옷은 솜장옷 2점이 수습되었다. 1점은 주(紬), 1점은 소화문룡(小花紋綾)이 겹감에 사용되었다. 주(紬)로 만든 장옷은 습용(襲用)으로 사용되었다.

3. 철릭

철릭은 고려시대 후기 원나라에서 도입된 옷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초중기까지 남자들의 평상복으로 입었던 옷이다. 상의(저고리)와 하상(치마)이 연결된 원피스 형태의 옷이다.

1점이 수습되었으나, 훼손이 매우 심하여 상의와 하상의 일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매우 고운 모시로 만든 홀 철릭으로 깃은 이중깃이며 깃머리가 훼손되어 깃의 형태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주름은 0.15cm의 고운 주름이 잡혀 있다.

4. 답호

답호는 철릭과 함께 고려시대 후기 원나라에서 도입된 옷으로, 곧은 깃 형태의 남자 포의 일종이나, 소매가 짧은 옷으로 포류 위에 덧 입는 옷이다.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에서 1점이 수습되었다. 겹안감 모두 주(紬)로 만든 겹답호이다. 답호는 깃모양과 무모양, 거드랑이 아래 옆선의 길이와 소매의 형태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석남동 출토 답호는 이중깃이며, 옆선의 길이가 길어 조선시대 초기 답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5. 대금형(對襟形) 상의(上衣)

인천 석남동에서 수습된 대금형 상의는 3점이다. 깃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상의류로서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3점 모두 좌우대칭형이며, 옆에 주름이 있다. 이 같은 형태의 복식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의 강릉김씨 묘에서 수습된 조선시대 초기(1530년대 추정) 복식이 있다.

인천 석남동 대금형 복식 2점은 겹감은 단(段), 안감은 주(紬)로 만든 저고리의 일종으로, 깃은 목판깃이며 옆이 트여 있다. 이 중 한 점은 가슴과 등에 금선공작흉배(金線孔雀胸背)가 직금(織金)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금형 2점과 형태와 옷감이 완전히 구별되는 대금형 상의 1점이 있다. 2점의 대금형 상의가 저고리의 일종이라고 하면, 1점의 대금형 상의는 적삼류이다. 옷감은 고운 숙초(熟綃)로 만들어 가볍고 얇다.

깃 나비는 3.8cm로 가늘고 고대가 9cm로 일반적인 고대 나비의 1/2 정도로 좁은 것이 특징이다.

6. 전장후단형(前長後短形) 상의(上衣)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가운데 전장후단형 상의가 1점 수습되었다. 면포(棉布)로 만든 겹 상의로 앞이 뒤보다 길어 붙여진 이름이다. 훼손이 심한 상태로 수습되었다. 앞길이는 85cm, 뒷길이는 68cm이다. 뒤가 짧은 이러한 형태의 옷은 조선시대 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깃의 형태는 방령형(方領形)이나, 석남동 출토 전장후단형 상의는 목판깃에 대금형으로 다른 무덤에서 수습된 것과는 구분된다.

7. 저고리

인천 석남동 출토 복식의 저고리는 5점이 수습되었으며 겹 2점과 솜저고리 3점이다. 깃의 형태는 모두 목판깃이며, 저고리 길이는 75~77cm 내외의 긴 저고리로 양옆에 트임이 있다.

8. 적삼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중 적삼 1점이 수습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금형 상의 적삼과는 깃모양과 설킵모양이 다른 형태이다. 면포(棉布)로 만든 것으로 사각으로 접어 시신의 머리를 괴는 용도로 사용되어 접힌 흔적대로 훼손이 심하다. 대금형 상의 적삼과 가장 큰 차이는 깃이 교임형(交衽形)이고, 겨드랑이에 큰 삼각형 무가 달려 있는 것이다.

9. 장유(長襦)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중 장유 1점이 수습되었다. 장유(長襦)는 포(袍)보다 짧고, 저고리보다 긴 저고리의 일종이다. 또 다른 명칭으로 조선시대 초기 문헌에 등장하는 ‘과두(裹肚)’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장유는 마포(麻布)로 겹안감을 만든 겹옷으로, 위에서 언급한 적삼과 함께 시신의 머리를 피는데 사용되었으며, 훼손이 매우 심하다.

10. 치마

인천 석남동에서는 6점의 치마가 수습되었다. 홑치마 2점, 겹치마 2점, 솜치마 2점이다. 이 가운데 3점은 치마허리와 주름이 완전하며, 1점은 치마 주름이 완전히 풀린 상태이다. 인천 석남동 출토 치마 중 4점은 조선 시대 초기 치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다아트형’ 치마이다. 이 타아트형 치마는 홑치마, 겹치마, 솜치마에 모두 타아트를 잡아 치마 앞 중심을 살짝 들어 올린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러한 치마는 16세기 중기의 출토 복식에서 들어올린 깊이가 15cm 정도되는 예복용으로 추정되는 홑치마에서 종종 볼 수 있었으나, 석남동 출토복식의 치마는 홑, 겹, 솜치마에서 모두 해당되어 흥미롭다.

11. 바지

5점이 수습되었지만, 습에 사용되어 일부 편(片)으로만 남아 형태를 알 수 없다.

12. 말균(襪裙)

말균은 남녀 구분없이 말을 탈 때 겹옷 위에 입는 뒤가 트인 바지의 일종이다. 많은 인천석남동 출토복식 중 특별한 유물 가운데 1점이다. 말균은 현재까지 문헌과 회화에서만 볼 수 있었으나 유물에서 수습된 것은 처음이다.

수습 당시에 말균은 사각형으로 접혀 있어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초(熟綃)로 만들었으며 홑옷이다.

13. 소모자(小帽子)

소모자는 형태에 따라 육합일통모(六合一統帽)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선시대 초중기 출토복식에서 다수 수습되는 유물이다. 석남동 유물에서는 2점이 수습되었다. 1점은 4쪽을 이어 붙인 형이고, 1점은 6쪽을 이어 붙인 형태이다. 4쪽을 이어 붙인 소모자는 현재까지 유일한 것이다. 겉감은 면마 교직(交織)이고, 안쪽에는 목화 솜 위에 검정 펠트가 놓여 있다. 6쪽을 이어 붙인 소모자는 겉감은 면주(綿紬), 속에는 목화솜과 갈색 모직 펠트가 덮여져 있다.

14. 너울

조선시대 여자들의 외출용 쓰개류의 한 가지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궁중과 양반계급의 여인들이 사용하다가, 조선시대 말기에는 궁중가례와 능행 및 궁궐에서 착용하였다. 형태는 너울 립(笠)과 그 립자(笠子) 위에 드리우는 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남동 출토복식 가운데 수습된 너울은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5. 주머니

석남동 출토복식 가운데 매화 꽃이 수놓여진 두루주머니 1점이 수습되었다. 정교하게 수놓여져 있으며, 매듭장식도 완전하게 남아 있다.

16. 버선

습용(襲用)으로 신겨진 버선으로 홀으로 만든 3벌을 겹쳐 신겨져 있었다. 거친 마포(麻布)로 만든 버선 2켢레와 면포(棉布)로 만든 버선 1켢레를 겹쳐 있었다.

17. 기타 치관제구

치관제구(治棺諸具)란, 염습(殮襲)을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인천 석남동에서는 구의, 명정, 돛자리, 자리밀천, 떡목, 면포, 소렴금, 소렴종교, 대렴금, 악수, 표주박, 구슬, 삽이 수습되었다.

(1) 구의(柩衣)와 명정

하관(하관) 할 때 관을 덮는 것으로, 연화만초문사(蓮花蔓草紋紗)와 주(紬)를 사용하여 겹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나, 훼손이 매우 심하여 일부만 남아 있다.

명정은 피장자의 신분과 성씨를 알 수 있으나, 석남동 출토 명정에서는 아쉽게도 지구(之柩)라는 글씨만 남아 있다.

(2) 돛자리

칠성판 위에 깔았던 돛자리로 경사는 삼실[麻絲], 위사는 왕골을 사용하여 엮고 가장자리는 주(紬)를 이용하여 테두리 장식을 둘렀다.

(3) 자리밀천

돛자리 밑에 깔았던 면포로 만들었으며, 겹이다.

(4) 떡목(幛目)

시신의 얼굴을 덮는 것으로 면포로 만들었으며, 홑이다.

(5) 소렴금(小殮衾), 대렴금(大殮衾)

소렴과 대렴에 사용된 이불이다. 소렴금은 굵은 면포를 사용하여 홑으로 만들었다. 대렴금은 겹감과 안감 모두 주(紬)로 만들었다.

(6) 소렴종교(小殮縱絞)

소렴을 할 때 묶는 옷감으로 일부가 남아 있으며, 거친 마포로 만들었다.

(7) 악수(幄手)

시신의 손을 싸는 것으로, 겹 안감 모두 주(紬)로 만들었으며 속에는 솜을 두었다. 사각형의 형태에 끈이 2개 달려 있다.

(8) 표주박

작은 박을 반으로 나눈 뒤 끈으로 연결하였다.

(9) 구슬

구슬 3개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10) 샵(簪)

샵이란 발인을 할 때 상여 앞과 뒤에서 들고 가는 것으로 2쌍이 수습되었다. 나무와 대나무로 만들었다.

Ⅲ. 맺음말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은 수습당시까지 보고된 복식과는 다른 형태의 것이 다수 발견되어 시대 추정에 곤란함이 있었다. 이는 곧 석남동 출토복식의 연대가 조선시대 여자복식 가운데 가장 올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수습한 강릉김씨 복식이 인천 석남동 복식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참고로 단국대소장 강릉김씨 복식은 1530년대 전후로 추정한다고 한다.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가운데 대금형상의, 말균, 자수주머니 등이 독특하다. 특히 말균은 유일한 유물이다. 그 외에도 여자단령과 대금형 상의에 사용된 금선단 홍배의 경우에는 직성(織成)이 되어 있는 것도 현재까지 가장 연대가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다아트 치마 또한 석남동 회곽묘 주인공이 살았던 당시에는 평상복에서 주름을 잡아 치마 자락을 걷어 올려 사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석남동 출토복식의 시대 추정은 현재까지 비교할 수 있는 절대연대의 복식이 수습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금형상의와 치마의 형태, 남자 답호와 철릭, 사용된 직물 등을 참고하여 시기를 추정하면 단국대소장 강릉김씨 복식과 동일하든지 조금 더 앞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불어 사용된 직물을 보면 인천 석남동 회곽묘의 주인공은 최상위 계층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물론 시기와 신분의 추정은 이후 더 많은 자료가 보고 되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의 보장지 강화

배 성 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국가의 보장지 강화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 목 차 ◆

1. 강화도의 지리적 환경
2. 保障地란?
3. 임진·병자란과 강화도
4. 보장지 경영

1. 강화도의 지리적 환경

- 수많은 간척지로 형성된 국내에서 5번째로 큰 섬
 - 3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간척으로 하나의 큰 섬이 됨.
 -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 진도에 이은 국내에서 5번째로 큰 섬
- 선박의 정박처가 많지 않은 천혜의 요새
 - 동쪽과 북쪽은 물살이 매우 거센 염하와 조강이 흐르고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서해바다에 면해 있으면서 넓은 갯벌이 형성
 - 특히 동, 북의 염하와 조강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만조 시에만 정박이 가능
- 도성에서 매우 가까운 수도방어의 요충지
 - 한강 하구에 위치하여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던 지역
 - 고려시대 이후로 조운수로가 거치는 길목에 해당하여 많은 선박들이 통행했던 지역
 - 개성과 한성에서 뱃길로 만나질 거리에 위치하여 도성을 향하는 해로의 관문에 해당

2. 保障地란?

- 고려 고종 19년(1232) 몽골의 침입을 피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왕조는 이 곳을 거점으로 약 38년동안 외침에 대항할 수 있었다. 이후 강화도는 도성에서 멀지 않은 데다, 험한 물살과 넓은 갯벌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의 보장지 또는 인후지라 불리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 보장지(保障地)
 - 국가와 왕실이 외침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피난하여 그 지역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점.
 - 보장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비가 필요한데 평소 일반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어 살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고 경작지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가의 보장지로 인식되었던 곳은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강화도는 水戰에 약한 중국을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남한산성은 일본의 침입을 대비키 위함이었다.
- 인후지지(咽喉之地)
 - 사람 몸의 목 또는 기관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빗대어 말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의 방어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할 입출구에 해당하는 곳.
 - 조선시대 강화도에 대한 ‘인후지지’ 라는 표현은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14년(1581)부터 시작되며, 이후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강화도가 바다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임진·병자란과 강화도

- 임진왜란기 : 보장지로서의 부각
 - 정유재란 직전인 1596년 유사시 왕실의 피난처로 강화도가 거론(지세가 험하고 下三道와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
 - 같은 해 영의정 유성룡이 남양에 있던 경기수영을 강화로 옮길 것을 건의(도성의 최종방어선 구축)
- 정묘호란기 : 인조의 피난
 - 인조 5년(1627) 1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70여 일 동안 국왕

과 조정이 강화에 피난하였고, 이곳을 거점으로 후금에 저항하면서 화친조약을 체결.

- 후금과의 화친조약 체결일은 3월 3일이었지만, 전주에서 분조를 이끌었던 소현세자가 강화로 합류하고, 각 도에서 차출된 근왕병을 돌려 보낸 후인 4월 10일이 되어서야 조정과 왕실이 환궁하였다.

● 병자호란기 : 강화의 함락

- 인조 14년(1636) 12월 병자호란 발발
- 12월 14일 개성이 함락되자 종묘사직의 신주와 세자빈, 세자원손, 봉림대군 등 왕실가족과 이를 호위하는 조정대신들은 강화로 피난하였고, 이튿날 인조와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으로 피난
- 강화유수 장신에게 舟師大將을 겸임케 하여 수군을 정비시키고, 강화 일대의 해로를 봉쇄토록 함.
- 12월 30일 청의 군사가 통진에 집결하여 20여일 동안 선박을 수집하고, 주변의 민가를 헐어 뗏목을 건조.
- 강화검찰사 김경징과 유수 장신은 청군이 수전에 약하다 하여 별 다른 방어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이에 비해 청의 장수 도르곤은 문수산성에 올라 강화부를 정찰
- 1월 21일 통진의 청군은 홍이포로 강화부를 공략한 뒤,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1월 22일 강화부를 함락시켰다.

4. 보장지 경영

1) 행정제도의 정비

● 강화유수부의 설치

- 留守府 : 중국의 행정제도로 구왕실의 왕족, 귀족에 대한 통치를 목적으로 전 왕조의 도읍에 설치한 행정기구
- 조선 건국 이후 개성유수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귀족세력을 통치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 군사적 목적이 더하여져 유사시 왕도를 호위하는 배도(陪都)로서의 기능도 수행
- 정묘호란 당시 강화에서 외침을 피할 수 있었던 인조는 1627년 환궁 후에 강화부를 강화유수부로 승격

- 삼도수군통어영(三道水軍統禦營)의 교동설치
 - 남양에 있던 경기수영을 강화도로 이전
 - 인조 7년(1629) 경기수영을 삼도수군통어영(경기, 황해, 충청)으로 승격시킨 후 교동으로 이전 설치
- 진무영의 설치
 - 숙종 4년(1678) 10월 독자적인 발병(發兵)의 권한이 없던 강화유수에게 밀부(密符)를 주고 진무사(鎭撫使)를 겸임케 하여 강화유수의 군사적 권한을 강화시켜 주었다.
 - 진무사가 관할하는 진무영(鎭撫營)을 중영(中營)으로, 주변에 4개의 외영(外營)을 배치하여 유사시 외영의 병력을 강화에 투입.
 - 전영(前營) : 부평부 (속읍 인천부)
 - 좌영(左營) : 통진부 (속읍 김포군)
 - 우영(右營) : 풍덕부
 - 후영(後營) : 연안부 (속읍 백천군)

2) 진보(鎭堡)의 이전과 설치

- 진보의 개념
 - 진 :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했던 지방행정구역. 통일신라시대 변경 지역의 방어를 위해 청해진(淸海鎭), 혈구진(穴口鎭) 등이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의 진에는 절도사(節度使)가 관할하는 주진(主鎭), 첨절제사(僉節制使) 등이 관할하는 거진(巨鎭), 만호(萬戶) 등이 관할하는 제진(諸鎭) 등 3등급의 진이 있었다.
 - 보 : 변경지역에서 외적의 방어를 위해 설치했던 군사시설로 보루(堡壘)라고도 한다. 고려 정종때의 무신 최충이 서북로병마사 등 의 지역에 14개의 보를 처음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제진과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주로 중 9품의 별장이 관할하였다.
 - ※ 진과 보는 설치목적과 형태에 차이가 있어 조선초기까지만 하여도 구분되어 설치되었지만, 조선후기가 되면 그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 강화도 12진보의 이전과 설치 (<표 1> 참조)
 - 조선전기 이미 강화에 설치되어 있었던 진보는 월곶진, 용진진, 정포보, 철곶보, 덕포진(덕진진) 등 5개였다.
 - 효종 7년 외부에서 이전해온 진보 : 제물진(인천), 초지진(남양)

- 17세기에 새로이 신설된 진보는 화도보(숙종 때 선두보로 이전), 광성보, 장곶보, 인화진, 승천보 등 5개였다.
- 이외에 숙종 20년 축조된 문수산성 내에 문수산성진을 두고 별장을 배치하여 진무사의 관할하에 두었는데 이를 강화의 진보에 포함시킨다면 진무영 관할의 진보는 모두 13진보가 된다.

3) 방어시설의 축조

● 돈대 (<표 2> 참조)

- 돈대는 중국 요동지방의 성제인 봉후(烽候), 연둔(煙墩), 적대(敵臺) 등에서 파생된 것으로 경계, 경보와 방어기능이 조화되어 있는 성곽시설이다. 숙종 5년(1679) 강화도의 해안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정조대 축조된 화성의 공심돈 등에 응용되었다.
- 강화도 돈대의 축조과정
 - 숙종 5년(1679) 병조판서 김석주의 지휘아래 어영군과 승군 등 15,0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80일 동안 48개의 돈대를 축조
 - 1690~1696년 : 검암돈대(선수돈대) 축조
 - 1718년 : 선두포 제방 축조에 따라 양암, 갈곶돈대 혁파
 - 1718~1726 : 북쪽 해안의 빙현, 철북, 초루, 작성돈대 축조
 - 조선후기 강화도에는 모두 53개의 돈대가 설치되었고, 병인양요 이후에 축조된 용두돈대까지 포함한다면 54개의 돈대가 강화도 해안에 설치되었다.
- 강화도 돈대의 특징
 - 보장지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성곽시설.
 - 돈대마다 3명의 병사를 배치하여 15일씩 돌아가며 근무했다.
 - 강화도 돈대는 진무영-진보-돈대의 지휘체계를 갖는다.
 - 돈대는 경계를 위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릉지나 절벽 위에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
- 돈대의 구조
 - 2층 구조를 하고 있는데 하층의 석벽에는 포혈을 내고 화포사격이 가능하게 하였고, 상층에는 성첩을 둘러 조총 등의 개인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부에 5칸의 돈사(墩舍)를 두어 3칸은 창고, 2칸은 숙소로 사용.

● 외성

- 48개의 돈대를 축조하고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였던 염하 연안에 외성을 축조
- 숙종 17년(1691) 옥포에서 초지까지 43리의 외성을 토축으로 축조
- 숙종 44년(1718) 옥포에서 휴암돈대까지 연장 축조
- 영조 18년(1742) 조수로 무너진 토축구간을 전성으로 개축
- 영조 29년(1753) 무너진 전성을 다시 석축으로 개축
- 외성구간에 6개의 문루를 설치 : 조해루(朝海樓; 월곶진 문루), 복파루(伏波樓), 진해루(鎭海樓; 강화도의 관문), 참경루(斬鯨樓; 용진진 문루), 안해루(按海樓; 광성보 문루), 공조루(控潮樓, 덕진진 문루)

● 문수산성

- 병자호란 때의 경험으로 문수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숙종 20년(1694) 통진부의 문수산 정상과 염하 해안을 연결하는 성곽을 축조
- 석축으로 축조하였으며, 3개의 성문(북문, 서문, 남문)과 3개의 암문을 두었다.
- 산성내에는 문수산성진을 설치하고 별장을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

● 강화산성

- 숙종 36년(1710) 병자호란 당시 거의 파괴되었던 강화 내성을 남산까지 확장 개축
- 강화유수부와 행궁 등의 국가시설의 최종방어선
- 둘레 7.1km의 석축성으로 성내시설로는 성문 4개, 암문 4개, 수문 2개가 있었으며, 현재는 성문 4개와 암문 1개, 수문 1개만이 남아있다.

4) 국가시설의 이전과 설치

● 정족산 사고(史庫)

- 사고(史庫)는 조선시대 역대 왕실의 기록인 실록을 보관하는 장소
- 조선 초 한성의 내사고와 충주, 성주, 전주에 외사고 등 4사고가 설치
-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소실되었고, 보존된 전주사고본 실록은 선조 36년(1603) 등서(謄書)를 위해 강화도로 옮겼다.
- 1606년 5벌로 다시 간행된 실록은 내사고인 춘추관과 외사고인

강화 마니산·묘향산·태백산·오대산의 5사고에 보관되었다.

- 마니산사고는 효종 4년(1653) 실화로 인하여 많은 서적들이 소실되자 숙종 4년(1678) 정족산성 내에 새로운 사고로 이전하게 되었다.

● 외규장각(外奎章閣)

- 규장각은 정조 원년(1776)에 세워진 왕실도서관으로 역대 임금의 친필·서화 등을 비롯하여 각종 도서를 보관하던 곳
- 정조 5년(1781) 비상시를 대비하여 강화에 외규장각을 세우고 왕실의 족보·인장·서화 등을 보관케 하였다.
-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를 점령한 프랑스 군에 의해 건물은 불에 타 폐허가 되었으며 이 곳에 보관 중이던 왕실의 귀중한 서책들은 약탈되었다.
- 외규장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에 1칸을 더두어 채광을 조절하였다. 외규장각 둘레로 벽이 둘러져 있으며 서쪽벽은 행궁의 동행각을 이용하고 있다.
- 밖으로 통하는 문은 북쪽담장 가운데에 일관문(昵觀門), 동쪽으로 정문과 협문이 있으며, 서쪽벽으로 건물을 지키는 병사들의 숙소인 위장직소(衛將直所)가 있다.
- 특이한 것으로 건물 마당에 전돌이 깔려있는데 이는 도서들의 포쇄(曝曬;보관중인 도서들의 먼지를 털고 햇빛과 바람을 쏘여 습기를 제거하는 작업)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행궁(行宮)

- 행궁은 유사시 또는 국왕의 행차 시 임금이 유숙하던 장소.
- 정묘호란이 끝나고 강화도에서 난을 피했던 인조가 환궁하자, 인조 9년(1631) 강화유수 이시백(李時白)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축조
- 유수부 관아의 뒤편에 정면5칸 측면 5칸의 규모로 축조하였으며, 후원에 척천정(尺天亭)이라는 정자와 연못까지 갖추고 있다.
- ※ 이 외에도 외규장각의 동측으로 숙종의 어진(御眞)을 모신 장령전(長寧殿)과 영조의 어진을 모신 만령전(萬寧殿), 태조의 어진을 모신 봉선전(奉先殿) 등의 국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5) 간척사업

- 간척 : 간석지(갯벌)을 개간하여 농토로 전환시키는 것

- 강화도에서의 간척은 강도시기이던 고려 고종 43년(1256) 조강 연안의 제포와 와포에 제방을 쌓아 좌둔전을, 염하 연안의 이포와 초포(옥포)를 막아 우둔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서쪽의 창후리에서 황청리를 잇는 외성을 쌓고, 그 안쪽의 간척지를 개간한 것이 지금의 망월평이다.
- 조선후기 강화도가 보장지로 경영되면서 유사시 강화도로 유입되는 피난민과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간척사업이 실시되었다.
-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해인 1636년 강화유수 장신이 송해면 당산리에 삼간포언(三間浦堰)을 축조한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종 5년(1664)에 가릉포 제방이, 숙종 33년(1707)에는 선두포 제방이 축조되면서 이전까지 하나의 섬과 마찬가지로였던 마니산 일대가 강화도 본도에 포함되었다.

<표 1> 숙종 5년(1679) 당시 강화도 12진보 현황

鎭堡	說鎭관계	設鎭년도	위치	鎭將	병력	비 고
월곶진	1629년* 移設 (교동→)	효종 7년 (1656)	강화읍 월곶리	병마첨사	군관 16명 토졸 66명	1665년 수군첨사→ 병마첨사
제물진	1656년 移設 (인천→)	효종 7년 (1656)	강화읍 갑곶리	병마만호	군관 16명 토졸 66명	1665년 수군만호→ 병마만호
용진진	存置	효종 7년 (1656)	선원면 연리	병마만호	군관 18명 토졸 37명	1665년 수군만호→ 병마만호
화도보	新設	효종 7년 (1656)	선원면 연리	별장	군관 16명 토졸 35명	
광성보	新設	효종 9년 (1658)	불은면 덕성리	별장	군관 15명 토졸 45명	
덕진진	1666년 移設 (→덕포진)	숙종 3년 (1677)	불은면 덕성리	병마만호	군관 24명 토졸 63명	
초지진	1656년 移設 (안산→)	효종 7년 (1656)	길상면 초지리	병마만호	군관 23명 토졸 68명	1665년 수군만호→ 병마만호
장곶보	新設	숙종 2년* (1676)	화도면 장화리	별장	군관 15명 토졸 86명	
인화진	新設	효종 8년 (1657)	하점면 인화리	병마만호	군관 16명 토졸 36명	1678년 별장→만호
승천보	新設	효종 8년 (1657)	송해면 당산리	별장	군관 25명 토졸 16명	
철곶	(강화→풍덕→)	현종 10년 (1669)	양사면 철곶리	수군첨사		1627년*신설
정포	移設강등 (→장봉)	숙종 4년 (1678)	내가면 외포리	별장		

<표 2> 관할 鎭·堡의 변화 및 53돈대의 현황

번호	소속 鎭堡			돈대명	둘레	첩수	거리	비고
	1679년	1696년	1759년					
1	월곶진	월곶진	월곶진	월곶돈	124보	48	775보	
2				옥창돈	104보	41	1,120보	
3		제물진	제물진	망해돈	90보	20	680보	
4				제승돈	106보	29	760보	
5	제물진			염주돈	84보	23	625보	
6				갑곶돈	113보	40	1,400보	
7	용진진	용진진	용진진	가리산돈	94보	34	1,300보	
8				좌강돈	96보	37	1,200보	
9				용당돈	94보	36	1,390보	
10	화도진	화도진	광성보	화도돈	92보	42	700보	
11				오두돈	80보	33	2,154보	
12	광성보	광성보		광성돈	88보	38	223보	
13			덕진진	손석항돈	66보	31	2,010보	
14	營門관할	덕진진		덕진돈	90보	40	1,650보	
15	초지진	초지진	초지진	초지돈	83보	34	900보	
16				장자평돈	94보	39	2,300보	
17				섬암돈	93보	40	2,100보	
18	營門관할	택지돈대 별장	선두보	택지돈	84보	37	1,250보	
19				동검북돈	205보	85	1,750보	
20				후애돈	91보	40	1,450보	
21		갈곶돈대 별장	-	양암돈	-	-	1,645보	숙종 44년 (1718) 혁파
22				갈곶돈	-	-	1,645보	
23			營門	분오리돈	84보	37	320보	
24				송곶돈	94보	36	870보	
25			장곶보	미곶돈	92보	38	1,440보	
26	장곶보	장곶보		북일곶돈	93보	40	1,260보	

번호	소속 鎭堡			돈대명	둘레	첩수	거리	비고	
	1679년	1696년	1759년						
27	장곶보	장곶보	장곶보	장곶돈	96보	40	1,260보		
28	-			검암돈	73보	23	350보	1690년~1696년 축조	
29	營門관할	송강돈대 별장	營門	송강돈	93보	40	3里18보	1,098보	
30				굴암돈	88보	36	4里	1,440보	
31			정포보	망양돈대 별장	정포보	건평돈	88보	38	9里
32	망양돈	98보				40	4里	1,440보	
33	삼암돈	91보				55	3里	1,080보	
34	석각돈	58보				27	1,916보		
35	營門관할	계룡돈대 별장	營門	계룡돈	79보	33	1,525보		
36				망월돈	100보	42	3,100보		
37	인화보	인화보	인화보	무태돈	109보	47	1,470보		
38				인화돈	98보	44	1,350보		
39				광암돈	42보	38	2,724보		
40				귀등곶돈	90보	46	500보		
41	-	-	철곶보	작성돈	86보	38	1,500보	1726년 축조	
42	-	-		초루돈	85보	38	646보	1720년 축조	
43	철곶보	불장돈대 별장		불장돈	81보	34	666보		
44				의두돈	76보	27	297보		
45	-	-		철북돈	82보	32	545보	1719년 축조	
46	철곶보	불장별장		천진돈	94보	38	984보		
47	승천보	승천보	승천보	석우돈	73보	31	993보		
48	-	-		빙현돈	67보	25	585보	1718년 축조	
49	승천보	승천보		소우돈	71보	25	1,096보		
50				숙룡돈	82보	33	914보		
51	營門관할			낙성돈	96보	34	940보		
52	월곶진	월곶진	월곶진	적북돈	96보	39	550보		
53				휴암돈	83보	30	1,110보		

근대 열강의 침략과 인천의 개항

배 성 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근대 열강의 침략과 인천의 개항

배성수(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 I. 근대 열강의 침략
 - 1. 서세동점과 중국·일본의 개항
 - 2. 조선의 개항
- II. 인천의 개항
 - 1. 제물포 개항
 - 2. 인천지역의 방위 시설 강화
 - 3. 감리서 및 각국 영사관의 설치

I. 근대 열강의 침략

1. 서세동점과 중국·일본의 개항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력을 축적한 서구 유럽열강은 중공업 위주의 독점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제국주의화하였다. 이들은 계속적인 원료 공급과 상품시장으로서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면서 세계를 분할해 나갔다. 이러한 여파는 동아시아에도 밀어닥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왕조들은 서구 열강세력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열강의 상품시장 및 원료 공급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7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청나라 남부의 항구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국적의 선박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에서는 해금령을 해제하여

광동을 비롯한 5개 항구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무역선들이 점증하게 되자, 1757년에 무역제한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항장은 광동 하나로 제한되고, 무역의 방법도 관허무역(公行)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편전쟁(1840~42)과 애로우호전쟁(1856~60)의 패전과 그 처리 결과로 맺은 조약에 따라 양자강 유역 및 북부지역에도 추가로 항구를 개항하고 공행을 폐지하며, 열강에 대해 치외법권 및 최혜국대우, 토지임차 등을 인정하고 관세도 마음대로 매길 수 없게 되었다.

일본 역시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에 의해 강제 개항하여 시모다, 하코다테의 두 항구를 개항하고 이후 1858년 요코하마 등 5개항의 통상을 허용하고 치외법권 및 관세자주권을 잃게 되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이러한 서구열강에 대한 굴욕적인 조약체결은 당시 막부 반대운동과 함께 천왕중심의 정치체제로의 복귀 및 근대화를 골자로 하는 메이지유신으로 귀결되었다.

2. 조선의 개항

19세기 들어 서양 배들이 한반도 연안에 자주 나타났다. 당시 사람들은 배 모양이 이상하다 하여 ‘이양선(異樣船)’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러한 이양선의 출몰은 이미 인조 때 시작되었는데 네덜란드의 상인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제주에 도착한 일이 있었지만 당시의 사건은 풍랑에 휘말려 표류한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19세기 한반도 연근해에 출몰한 이양선들은 제주도, 울릉도 등의 여러 섬을 측량하거나 우리 근해에 접근하여 정탐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조선과의 통상 및 침략을 위한 물밑 작업이 목적이었다. 이양선의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조선과 서구열강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다.

1) 병인양요

1866년 1월 일어난 병인사옥에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조선인 신도 8,000여명이 학살당하자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같은 해 9월 18일,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이끄는 3척의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함대는 1866년 10월 13일 인천 앞바다의 작약도에

정박한 뒤, 다음날인 10월 14일 강화도 갑곶진을 통해 강화도에 상륙하였다. 강화도는 삼남지방과 양서지방의 조운선이 서울로 향하는 조운수로의 길목에 위치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프랑스 군은 강화도를 근거로 하여 조선정부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병인박해에 대한 보복과 보상을 관철 시키고 나아가 양국간에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별다른 저항 없이 강화도 갑곶나루에 상륙한 프랑스군은 10월 16일 강화부를 함락시켰다. 강화부 관아와 외규장각 등 국가시설을 장악한 프랑스군은 강화부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각종 의궤 등 왕실도서 340권과 은괴 19상자를 전리품으로 약탈하였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접한 조선 정부는 순무영을 설치하고 순무사에 이경하, 순무중군에 이용희 등을 임명하여 전투 지휘부를 구성한 뒤 통진의 문수산성에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전투를 대비하였다. 프랑스군은 조선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10월 24일 새벽 정찰대 70여명을 문수산성으로 파견하여 조선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화력에 밀린 조선군이 퇴각하면서 문수산성마저 프랑스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한편 통진의 덕포나루에 주둔하고 있던 순무 천총 양현수는 11월 8일 약 50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프랑스 군 몰래 강을 건너 강화도에 잠입하여 정족산성에 주둔하였다. 조선군이 정족산성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프랑스군은 대령 올리비에에게 병사 150명을 주어 조선군을 섬멸하도록 지시하였고, 11월 9일 오전 정족산성 인근에 도착하여 조선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양현수가 이끄는 조선군은 주력부대를 동문과 남문에 배치한 뒤에 프랑스 군이 가까이 근접하기를 기다리다 프랑스 군이 산성밖 100여m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공격을 개시하였다. 비록 재래식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긴 했지만, 조선군의 화력이 집중되자 노출된 지역에 위치하였던 프랑스군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전투가 시작된지 30여분 만에 150여명의 병사 중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프랑스군은 퇴각할 수 밖에 없었다. 정족산성 전투는 병인양요 당시 조선군이 거두었던 유일한 승리였으며, 이 전투의 승리로 당시 전황은 역전되어 결국 프랑스군의 철병을 가져오게 되었다.

2) 신미양요

미국도 오래 전부터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자 그동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강경한 외교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셔어먼 호의 격침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이 사건이 조선을 새로운 교역상대국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된다.

1871년 5월 미국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제독이 이끄는 미군 1,200여 명이 군함 5척에 나누어 타고 조선 원정에 나섰다. 5월 30일 인천 앞바다 작약도 북쪽에 정박한 미 해군은 한강 수로의 탐사를 이유로 정찰대를 실은 소형선박을 손돌목 쪽으로 출발시켰고, 광성보를 수비하고 있던 조선과 전투가 발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의 피해도 막대하였지만 미국의 포함 모노카시호가 크게 파손되었고, 미국측은 이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고 판단하여 대응하지 않는 한편, 하루 빨리 철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6월 10일 미국함대는 조선 정부의 적절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을 구실로 강화도에 대한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같은 날 초지진을 함락시킨 미군은 6월 11일 새벽 덕진진을 점령하고 곧이어 광성보로 향하여 진무중군 어재연이 이끄는 500여명의 조선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350명의 조선군은 미군에 끝까지 저항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당시 미 해군의 슬레이 소령은 신식병기 한 자루 없이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저항하다 최후를 맞이한 조선군의 용맹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조선군은 근대적인 무기를 한 자루도 보유하지 못한 채 노후한 병기를 가지고 근대적인 화기로 무장한 미군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다. 조선군은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 아마도 우리는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그토록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병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W.S.Schley, 『기함에서의 45년』 (1904) 중에서

광성보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은 게양되어 있던 ‘수(帥)’자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게양하였다. 그러나 미군으로서는 조선군의 완강한 저항 앞에 그들의 목표, 목적을 수정해야만 했다. 미군의 예상과 달리 조선 정부의 강경한 자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7월 2일 다시 한번 자신들의 군사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내고 다음날 본국으로 철병하게 되었다.

3) 운요호 사건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운요호 사건은 단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조선의 개항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의 당사자인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공적인 무력행사였다. 1875년 4월 부산과 동해안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운요호는 그 해 9월 서해안에 다시 출현하여 무력침공을 자행하였다. 9월 21일 운요호는 초지진 앞바다에 정박한 뒤 신선한 물을 얻는다는 구실로 보트를 내려 초지진에 무단으로 상륙하였다. 초지진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이 포격을 가하자 운요호에서도 응사하여 초지진을 파괴하였다. 간조 때문에 상륙이 어렵다고 판단한 운요호의 함장은 배를 돌려 남하하여 영종진을 포격하고 일시 점령하였다. 당시 영종진은 일본군의 포격에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35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과의 국교를 일거에 타결하고자 했던 일본은 안팎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1875년 12월 쿠로다 키요타카[黒田清隆]를 전권변리대신으로 삼아 부산으로 보내어 조선과의 통상교섭을 책임지게 하였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보다 깊이 있는 협의를 위해 강화도로 갈 것이며, 이에 조선이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서울로 직향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일본 대표단을 태운 전함이 인천 앞바다에 정박하자 조정에는 위기감이 확산되었다.⁷⁶⁾ 결국 조선의 개국을 권장하기 위한 청의 사절이 도착하고 좌의정 이최응이 건의한 완화책에 국왕이 찬성하여 접견대신에 신현(申櫟), 부관에 윤자승(尹滋丞)을 임명, 강화로 파송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통상교섭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회담장소와 절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교섭에서 조선 측은 일본대표단의 강화부 진입을 반대하여 초지진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화부 관아

76)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월 4일.

에서 회담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일본 대표단은 호위병 400명을 이끌고 강화부에 들어와 부내 연무당에서 정식 회담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먼저 일본정부가 왕정복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사신과 서계를 보내어 양국간의 국교를 조정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이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며, 운요호에 대한 불법포격까지 가한 사실을 집중 추구하고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신헌은 일본의 사신이나 서계에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많아 수납을 거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대응하였다. 또 운요호가 예고 없이 근기해역을 침범하였으니 변방의 장수가 이에 발포한 것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변하여 일본 측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공식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 의견의 격차를 좁힌 양국은 결국 2월 3일 통상조약을 조인하게 되었다.

강화도조약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독립국가는 평등한 주권을 향유한다는 서구적 이념과 원칙에 입각하여 한·일관계를 재규정함으로써 동아시아적 국교체제를 거부한 것이다(제1조). 그러나 간접적으로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침략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8월에 조인된 조일수호조규부록 및 통상장정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불평등조약으로서 부산과 동해, 서해에서 각각 한 곳씩 항구를 개방하여 일본의 경제 군사적 침투를 보장하였으며, 영사재판권에 의한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조계에 해당하는 거류지가 설정된 것 등이다. 무관세 무역 역시 국내시장 보호와 국가재정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관세권을 상실한 것으로, 이 때문에 밀려드는 자본제 공산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길을 잃게 되었다.

II. 인천의 개항

1. 제물포 개항

인천의 개항문제가 제기된 것은 고종 19년(1879) 4월이었는데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지 3년 2개월, 원산개항이 허용되기 2개월전의 일였다. 조·일수호조규의 제 5관에 부산 초량항을 개항하는 외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2개처를 더 개항하되 개항시기는 고종 13년

(1876) 2월부터 기산하여 20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추가 개항에 소극적이었고 일본측의 적지 선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두 곳의 추가 개항이 늦어지고 있었다.

특히 인천의 개항문제는 인천과 부평에서 서울에 이르는 육로가 강화를 통하여 오는 수로보다 훨씬 이용하기 편리하였으므로 조선은 이를 일본측에게 알리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1877년 10에 진행된 개항문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1879년 윤3월부터 재개되었는데 이때 인천의 개항문제가 제기되었다.

대리공사로 임명된 하나부사는 군함을 이끌고 제물포 일대를 탐사한 후 제물포 개항방침을 정하고 조선과 추가개항장 설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열었다(1879. 4월~ 7월17일). 조·일간 회담의 중요 주제는 원산과 인천 2곳의 추가개항 문제였다. 일본측의 요구에 대해 조선은 원산항 개항을 인정하는 대신 인천의 개항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경한 거부 자세로 일관하였다.

조선은 인천이 서울과 가까워서 이곳을 개항하면 서울의 시장이 피해를 보고 민생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여 보장중지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물화가 유통되어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와 질 것이며, 일본이 자주 내왕하면 다른 외국에서 엿보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라면서 설득하고자 하였다.

제물포 개항을 둘러싸고 다시 회담이 진행된 것은 고종 17년(1880) 11월 16일부터이다. 이 때에는 개항문제 뿐 아니라 서울에 일본공사를 주재시키는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었다. 서울에 상주하는 변리공사로 임명되어 온 하나부사는 예조판서에게 보내는 서계가 아니라 국서를 휴대하고 국왕에게 직접 봉정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이 주장은 전례가 없었고 조약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으며 위정척사론이 팽배하던 사회분위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11월 26일에 고종이 직접 하나부사를 인견하고 국서를 받음으로써 공사 상주문제까지 해결되었다. 이 국서에는 하나부사가 서울에 상주하며 교섭의 일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본 공사의 상주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로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외국 사신의 상주를 허용하는 일이 되었다.

서울에 상주하게 된 하나부사는 김홍집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개항의

설항 시기와 인천항에서 방곡령 시행 문제 등이 타결되자 고종 18년(1881) 2월 1일에 제물포의 개항문제는 타결되었다. 그러나 임오군란의 발생으로 그 시기가 늦춰지고 고종 20년(1883) 1월 1일을 기해 인천은 개항하게 되었다. 회담을 시작하고 3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2. 인천지역의 방위 시설 강화

1) 개항 전후 인천 연안의 방비 목적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라 조선의 개항이 결정된 이후, 제물포가 개항 후보지로 부각되면서 조정에서는 인천 연안의 방비가 논의되었다. 이는 개항 후보지의 지형측량을 위한 일본선박의 무단 상륙에 대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인천의 개항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인천 연안에 방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첫째 이 지역이 강화에 못지 않은 보장중지라는 점, 둘째 손돌목 등의 험로가 위치하는 강화수로를 경유하는 것 보다 이 지역을 통해 도성으로 향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거리상으로도 가깝다는 점, 셋째 일본측이 이미 인천, 부평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도로를 알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서해에서 도성으로 이르는 길은 강화수로를 이용하는 것과 해안에 상륙하여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조선의 지형을 모르는 외국선박의 경우 수로를 이용하여 통상을 요구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함대가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군과 강화도에서 격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강화도의 덕진진과 초지진, 통진의 덕포진에 포대를 설치하고 강화수로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들은 도성으로의 접근이 강화수로부터 훨씬 수월하고 거리도 짧았던 인천과 부평을 통하는 육로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조정에서 근심이 아닐 수 없었다.

만일 일본측이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시위를 할 경우 방비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던 강화도와 통진에 비해 인천 연안지역은 상대의 무력에 대해 무방비상태였다. 더구나, 1875년 일본군함 운요호에 의해 영종 방어영이 함락당한 상황에서 인천연안을 방어할 군사력은 전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일본이외에 다른 나라와는 어떠한 조약도 체결

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측의 육로 이용 정보가 서구열강에 흘러든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부평연안의 방비 강화는 서해로부터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여 일본을 비롯한 서구세력에 의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2) 화도진과 연희진의 설치

1878년 8월 27일 고종은 여영대장 신정회를 공역감동당상(工役監董堂上)에 임명하여 인천과 부평의 해안에 포대를 설치하여 방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연안의 방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인천 제물포에 포대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포대 축조에는 석질이 좋고 단단하다고 알려진 강화도의 석재(石材)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1879년 7월 1일 인천과 부평 해안의 포대 설치가 마무리 되었다는 무위소의 보고가 있자 포대를 관할할 진을 설치하였는데, 인천 제물포에는 화도진(花島鎭)을 설치하였고, 부평에는 연희진(延喜鎭)을 설치하여 훈련도감과 각 군영의 훈련관(訓練官) 중에서 쓸만한 자를 두 진의 별장으로 부임케 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 무위도통사 민겸호(閔謙鎬)의 건의에 따라 인근에 있는 1개 면을 각각 두 진에 소속케 하였다.

화도진에 소속되어 있던 포대들은 모두 8개로 제물포 주변에 있던 묘도 북변포대, 묘도 남변포대, 북성 북변포대, 북성 남변포대, 제물 북변포대, 제물 남변포대와 인천의 남쪽에 있던 호구포대, 장도포대 등이다. 이들 포대들은 각기 2개~8개의 포좌를 설치하여 수로를 통해 상륙하는 외적의 선박에 대비하고 있었다. 화도진과 소속 포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화도진도(花島鎭圖)』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에 설치하였던 연희진과 소속 포대들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연희진의 위치가 서구 연희동 247번지 근린공원 일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구전에 따라 가정포대와 용두포대의 명칭 및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화도진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연희진에 소속되어 있던 포대도 6~7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천 연안에 대한 방비에도 불구하고 1880년 인천의 개항이 결정되자 화도진과 연희진의 기능과 역할이 쓸모없게 되었고, 급기야 1882년 6월 28일 연희진은 혁파하고 화도진은 훈련도감으로 이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 및 외국선박의 상륙을 저지하고 연안방비를 강화

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화도진과 연희진은 창설된지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연의 기능을 상실케 되었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개항 이후 화도진은 연안방비를 담당하던 업무에서 개항장의 치안질서 유지 및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중심성의 축조

1882년 연희진이 혁파된 이후 부평 연안의 방비는 허술해 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해안에서 부평부로 진입하는 계양산 자락의 경명현(일명 징맹이 고개)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기에 이른다. 중심성은 당시 부평부사였던 박희방(朴熙房)이 부평 부민들의 기부금으로 축조한 성으로 계양산 정상에서 경명현을 거쳐 맞은편 중구봉에 이르는 구간에 축조한 성이다. 중심성의 축조와 관련된 유일한 기록은 중심성 사적비이다. 이 석비는 중심성의 문루에서 서쪽으로 약 20m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훼손이 심하여 1949년 7월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하였고, 이듬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석비의 재질은 오석(烏石)으로 높이가 5척(151cm), 폭이 1.5척(46cm), 두께가 0.8척(25cm)였다고 전한다. 따라서 비문을 확인할 수 있는 석비의 실체나 탁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석비를 받치고 있던 귀부의 일부가 서구청 내에 보관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간행한 『인천고적조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중심성사적비문 필사본에 의하면 부평도호부사 박희방(재임기간 : 1883. 5. 5~1884. 1. 9)이 1883년 9월 29일 조칙에 따라 중심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적비가 세워진 것이 10월이므로 공사기간은 1개월이 넘지 않는데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대다수의 부민이 동원되었고 성 자체가 정밀하게 축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자성(一字城)의 중앙부인 경명현 고개마루에 문루를 쌓았는데 문을 경명문(景明門), 누각을 공해루(控海樓)라 하였다. 성의 축조와 아울러 서쪽에 장대(將臺)를 두어 병사들을 조련하는 곳으로 삼았다. 또한 군기(軍器)를 보수하고 해안의 포대에 병사를 재배치하여 성을 방비하고자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연희진이 혁파된 이후에도 부평 연안의 포대들은 해안 방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부평부에서 이들을 관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평부사 박희방은 ‘부민의 뜻을 모아 축조했다’하여 성의

이름을 ‘중심성(衆心城)’이라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 사적비를 세웠다.

4)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의 설치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고, 조청상민수륙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의해 사실상 조선의 해방(海防)이 무력화되자 고종은 이를 극복하고 연해의 방비를 자주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부평 연해의 관문으로 쌓은 중심성(衆心城)도 그 중 하나로 축성을 통해 부평지역의 해안방어 체제를 재정비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경기 서해안 지역의 해안 방어는 각 영문에서 나누어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비하고자 1884년 1월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부평에 설치하여 경기도 연해지방의 방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기연해방사무(畿沿海防事務)에는 민영목(閔泳穆)이 임명되었고 그는 해안을 방어할 병사와 포군(砲軍)의 조련을 관장하였다. 기연해방영의 영문(營門)을 부평도호부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헌 기록이 없어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저간의 상황으로 유추해 볼 때, 다른 연해 고을에 비해 도성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중앙의 통제가 용이하였다는 점과 경기와 양서지역에 이르는 관할지역의 중앙에 부평이 위치한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85년 3월 서울 용산의 만리창(萬里倉)터로 기연해방영이 이설되기까지 부평지역은 경기, 황해, 충청의 수군과 육군을 통제하면서 경기 연안의 해방(海防)을 담당하는 전략적 기지로서 기능하였다.

3. 감리서 및 각국 영사관 설치

인천항의 개항이 확정되고 1883년 4월 13일 최초로 상업중사 목적의 일본인이 내항하였으나 그 수가 아주 적었고 본격적인 개항은 같은 해 6월 경에야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인천항에서 통상사무를 취급할 필요성이 생긴 것 역시 6월 이후의 일이었다.

고종 20년(1883) 8월 19일 조선은 통상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감리서를 설치하였다. 감리서는 인천, 부산, 원산 등 3곳의 개항장에 두었으며 개항장의 해관(통상) 사무를 관장하였다. 감리서가 설치된 개항

초기에는 통상사무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았으므로 지방관아에서 행정사무와 함께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감리서 역시 고종 27년(1890)에 서기관을 증원시키기 이전까지는 부사의 겸직으로 부사로서의 임무가 주이고 감리직은 부차적인 임무로 다뤄진 듯하다.

감리서는 갑오개혁의 지방제 개편에 따라 고종 32년(1895) 5월 26일에 폐지되었다. 이 지방제 개혁의 내용은 8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개항장인 제물포에는 인천부가 설치되고 감리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개항장과 개시장의 사무량이 증가하고 타기관과의 연관성이 증대하면서 폐지 1년 4개월만인 건양 원년(1896) 8월 7일에 다시 감리서를 복설하고 대외통상사무를 일원화하였다. 복설된 감리서는 각국 영사교섭과 조계·항내 사무 일체를 관장하였다. 또한 경무관을 두어 개항장의 경찰 기능을 담당하였고 개항장에 설치한 재판소 판사를 감리가 겸함으로써 재판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인천 개항 후 가장 먼저 영사관을 설치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고종 20년(1883) 10월 31일에 양식 2층 목조건물인 영사관을 준공하였다. 소요된 건축자재는 전부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였다고 한다. 영사관은 지금의 중구청 자리에 위치하였으며 부속경찰서와 감옥도 설치되어 있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에는 인천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청나라 영사관은 고종 21년(1884) 1월에 설치되었다. 청은 이사관(理事官)을 파견하여 영사업무를 보게 하였다. 청 이사부는 청일전쟁기간에 임시 폐쇄되었다가 1898년 다시 개관하였다. 청 영사관이 있던 곳은 지금의 선린동 화교학교 자리고 구내에는 순포청과 전보국이 있었다.

영국 영사관은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의 항동 1가 올림포스호텔 부근 언덕 위 인천 해관 부근에 있었으며, 러시아 영사관은 1902년 10월 31일에 각국 조계부근 영국교회 부속병원을 빌려서 개관하였다가 나중에 선린동에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인천

서 민 교

(고려대학교)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인천

서민교 (고려대학교)

◆ 목 차 ◆

1.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2. 열강의 중국분할과 일영동맹
3. 러일전쟁
4. 러일전쟁후의 국제관계와 한국병합
-한국의 식민지화과정

1.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1894년 5월 조선에서 세금 감면과 일본 배척을 요구하는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다(=갑오농민전쟁) 청국은 원세개가 주선하여 조선정부로 하여금 청국에 원병요청을 하게 하였고 청국군대가 출병하자 일본은 천진조약에 근거하여 청국에 대항 출병을 단행하였다. 조선의 농민군은 청국과 일본군의 개입을 우려하여 조선정부와 화해하였지만(=전주화약) 양국 군대는 조선의 내정 개혁을 둘러싸고 대립을 격화시켰고, 일본은 청국과의 교섭이 실패하자 단독으로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내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최후통첩하였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7월말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여 강제적으로 내정개혁 단행에 착수하는 한편 청국 군대의 수송선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정식 선전포고는 8월에 들어가 행해졌다. 기습공격을 감행한 다음 선전포고를 행한다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전쟁 돌입

방식이 그 후에도 관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전쟁 발발직전에 영국과 체결한 치외법권을 철폐하는 일영통상항해 조약의 체결도 전쟁발발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되고 있고 당시 의회로부터 탄핵안이 결의되는 등 제2차 이토 내각의 국내정치에서의 위기상황도 대외전쟁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위기해결을 하려는 수단으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를 격렬하게 비판하던 일본 의회도 개전과 동시에 정부비판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당시 연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거액의 전쟁관계 예산과 법률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쟁수행을 위해 국가가 하나가 되는 거국일치적인 기민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전쟁의 양상은 거국적으로 군비확장정책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온 일본이 근대화되고 잘 조직된 군대를 이용해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 갔다. 이에 비해 청국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근대화의 개혁에서도 뒤 처지고 내부의 정치적 대립으로 국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있었다. 영국이 일본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뀌면서 국제정세도 유리해졌고, 일본 해군은 황해해전에서 청국의 북양함대를 궤멸시켰으며 육군은 조선에서 청국 군대를 일소하고 나아가 요동반도와 산둥반도의 일부를 제압하였다.

결국 약 2억 엔의 전쟁비용과 약 10만의 병력을 동원한 전쟁은 약 8개월 만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1895년 4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수상과 무츠 무네미츠 외상을 전권대표로 청국의 이홍장 사이에 강화가 성립되어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1)청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청국이 조선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함), (2)요동반도, 타이완, 펑호제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3)배상금으로 2억 량(=일본돈으로 약 3억 1000만 엔)을 지불한다. (4) 새로운 일청통상항해조약의 체결과 사시, 중경, 소주, 항주의 개시와 개항, 및 치외법권의 승인 등을 약속 받았다.

결국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식민지영유 국가로 등장하였으며 조선에서 청국 세력을 일소하여 일단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장악할 호기를 맞이하였다. 더불어 전쟁비용을 훨씬 능가하는 전쟁보상금의 획득은 일본의 군수산업 근대화와 산업혁명의 자금으로 활용되었고 전쟁도 성공만 하면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나쁜 교훈을 남겨주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청일전쟁의 결과는 청국이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구미 열강의 중국분할이 가속화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일본의 요동반도 할양은 만주에서의 자국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한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다(=삼국간섭). 러시아의 요구에 당황한 일본은 이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물론 청국에게는 따로 3000만 량(=약5000만 엔)의 보상금을 따로 받는 조건이었다. 거국적인 승전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은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일본은 ‘와신상담’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더욱 더 군비확장과 국력을 충실히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일본의 타이완지배]: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할양되었던 타이완에서는 일본의 지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타이완민주국’을 선언하고 일본에 무력저항을 피했다. 일본은 새로이 식민지획득 전쟁을 일으켜 타이베이를 점령하고 최종적으로는 1915년에 이르기까지 타이완의 게릴라식 저항을 종식시켰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 측은 약 1만 7천여 명이 희생되었고 일본 측도 약 4천여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은 타이완에서 군정을 실시하였고 1897년에 타이완총독부관제를 제정해 일단 민정으로 이행하면서 타이완총독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타이완 지배는 현지의 지주, 상인 등 부유층을 회유하면서 진행되었고 한편으로 빈농 등 민중은 종종 반일무장봉기를 획책하는 등 저항을 피했지만 저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으로 일관한 일본의 지배정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었고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민비시해사건에 대하여]: 청일전쟁기간 중에 조선에서의 내정개혁(=갑오경장)을 주도했던 일본의 이노우에 공사는 삼국간섭에 의해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저하된 것을 계기로 조선에서의 주도권 행사가 여의치 않게 되었다. ‘300만엔 차관’제공 등의 회유책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조선에서는 1895년 7월 이른바 친로파정권이 성

립되었다. 러시아가 일본과 본격적인 무력충돌을 일으킬 의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은 조선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조선주재공사를 미우라 고로 육군 중장으로 교체하고 대원군을 이용해 친일파정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궁중쿠데타를 획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민비시해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은 이노우에 공사가 주범이며 단순하고 무지한 육군 군인인 미우라 신임공사가 하수인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먼저 일본 정부의 지시 및 교사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건의 주범은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의 군인 및 외무성경찰과 외교관, 우익인 현양사 계열의 조선 낭인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인물인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점이다. 또 시해 현장에서 직접 하수인으로 활약한 인물들은 지금까지의 통설대로 조선낭인만이 아니라 일본군인 장교가 직접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일본의 우익 민간인들이 자행했다고 하고 강변하고 있고 또 이들이 한국병합 후에 자신들의 공로를 과시하기 위해 저마다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너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문제점도 있다. 또 하나 친일정권부활을 위한 궁중쿠데타가 중요과제였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조선왕실 특히 고종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민비시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채택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민비시해사건에 관여한 인물 중에 후쿠자와의 영향을 입었던 국권파의 한 그룹인 ‘게이오(慶應)출신’ 우익의 움직임이 시해사건 1년 전에 발생한 김옥균의 암살사건과 묘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열강의 중국분할과 일영동맹

청일전쟁이 끝난 후 청국의 실력이 약하다는 것이 폭로되자 열강은 중국시장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1898년 독일이 산둥반도의 요주만을 조차하였고 영국이 구룡반도와威海衛(威海衛)를 이듬해에는 프랑스가 광주만을 각각 조차하였다.

한편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청국에게 반환하게 했던 러시아는 요동반도의 여순과 대련항을 조차함으로서 일본의 분격을 초래하였지만 일본은 한국(=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으로 개명함)에서의 러시아와의 세력관계를 고려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러시아와의 협조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열강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청국에서는 강유위, 양계초 등에 의해 입헌주의적 개혁을 통한 국력의 충실을 꾀하는 ‘변법자강운동’이 일어났지만 1898년 서태후가 주도한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해 변법파는 일소되고 개혁은 좌절되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청국에서는 배외주의적 움직임이 고양되었고 산동성에서는 청조를 도와 서양세력을 축출하자는 ‘부청멸양(扶淸滅洋)’을 외치는 의화단(義和團)이 세력을 얻었고 1900년에는 북경에까지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국 정부는 구미 열강에게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른바 의화단사건의 발생이다.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더불어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청국을 항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1901년에는 청국과 북경의정서(北京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는 사실상 만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였고, 청국과 사이에 러청밀약을 체결해 만주에서의 독점적 권익을 승인시켰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위기감을 느낀 것이 일본과 영국이었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대해 위협을 느낀 일본의 입장은 둘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등이 주장한 ‘일러협상론’으로서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둘 자신이 없다면 모험적인 정책을 피하고 ‘만한교환’을 행하여 만주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한국에서라도 일본의 권익을 지키자는 입장이었다. 둘째는 이에 대하여 원로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카즈라 타로(桂太郎) 수상 및 고무라 주타로 외상 등 군인 및 관료그룹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영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의 대결자세를 보이게 된다.

영국의 입장에서조차 당시 발칸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대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일러양국이 서로 협조하게 되는 것을 꺼려하여 일영동맹론을 환영하였고 결국 일러협상론이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이에 1902년에 일영동맹이 성립되었다. 일영동맹협약의 체결은 일본이 근

대에 들어와 구미열강과 맺은 최초의 대등조약이었고 일본은 이로서 자신들이 구미열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며 구미열강의 대립을 이용하면서 대외적으로 세력을 팽창시키는 정책을 채용하게 되었다.

*근대 일본의 원로(元老)에 대하여

근대 일본의 원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 마츠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이고 츠구미치(西郷從道), 오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등 7명에 명치말기 이후 가즈라 타로(桂太郎)와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가 추가되었다. 공가(公家) 출신인 사이온지를 제외하면 모두 다 사츠마번 혹은 조슈번 출신의 번벌 정치가로서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를 제외한 메이지시대 수상경험자는 모두 원로의 반열에 올랐다. 원로에 대해서는 헌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메이지국가 건설에 크게 공헌한 장로급의 정치가로서 천황의 자문에 응해 중요한 국무사항, 특히 내각을 개편할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중요한 외교안건에 기획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메이지 천황 시기의 국가운영의 최고지도자역할을 담당하였다.

3. 러일전쟁

의화단 사건 이후 러시아가 만주를 실질적으로 무력장악하자 일본은 더욱 더 군비확장 정책에 박차를 가하였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일영동맹에 고무된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다.

일본국내의 일부에서는 크리스찬인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61~1930)와 사회주의자 코도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0~1933) 등이 비전론, 반전론을 주장하였지만, 초기에는 전쟁을 꺼려하던 국민 여론도 국민동맹회와 대러동지회가 결성되어 전쟁 열기를 고무시키는 분위기 하에서 점차 개전론으로 옮겨갔고 또 당시 일본의 국

내 유력 신문들도 러일전쟁의 개전 열기를 부추기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03년 8월 이래로 만주문제와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한국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우월권을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일본정부는 1904년 2월 원로와 정부 및 군부의 수뇌부를 소집하여 어전회의를 개최하고 대러개전을 결정하였다.

일본 해군의 여순 공격과 육군의 인천상륙을 통해 한국의 서울 등 주요 지역을 무력 점령하면서 러일전쟁이 개시되었다. 이 전쟁 역시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고 이어서 선전포고를 하는 야비한 방식으로 도발되었다. 청일전쟁과 유사하게 먼저 한국의 정치 중추부를 무력으로 제압한 다음 강제적인 동맹관계를 통해 한국정부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러일전쟁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운명적인 싸움이었고, 세계최강의 육군 대국으로 불리는 러시아에게 일본이 승리를 거두리라고 예상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고 하겠다. 일본은 당초부터 무척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엄청난 전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에서 외국채를 모집하여 전쟁에 대비하였고 또 개전 초기에 이미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를 미국에 파견해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강화의 중재를 타진해 놓고 있었다.

전쟁의 경과를 전제국가 러시아 국내의 반전운동 등의 영향도 있어 러시아가 충분히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에게 유리한 전개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 육군은 개전 약 11개월 만에 3개 사단 병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겨우 여순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였고 더불어 여순의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어서 1905년 3월의 봉천 회전의 승리로 남만주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는데 성공하였다. 또 5월에 일본 해군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가 지휘하는 연합함대가 유럽에서부터 지구의 반을 돌아온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맞이하여 전멸시킴으로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다(=일본에서는 일본해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현해탄을 지나 부산과 울산 사이의 동해안에서 전투가 행해졌다)

그러나 러일전쟁은 이전과는 달리 엄청난 물량 소모전의 경향을 띄고 있었고 장기간의 전쟁에 일본의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

었다. 더불어 러시아도 1905년 1월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피의 일요일 사건’ 등 국내에서의 반제 혁명의 분위기로 험악한 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전황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알선에 의해 1905년 9월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일본의 고무라 주타로 전권대사와 러시아의 전권대사 비테(Vitte, 1849~1915) 사이에 강화회의가 개최되어 난항 끝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포츠머스조약에서 러시아는 (1)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권을 인정하였고, (2)여순, 대련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와 부속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3)북위 50도 이하의 사할린과 부속도서를 할양하였다. 또 연해주와 캄차카에서의 어업권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이 승전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바라고 있던 전쟁배상금은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지자 강화조약 체결의 날 승전축하회를 위해 모여든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대소동이 연출되기도 했다.(히비야(日比谷)폭동 사건)

[러일전쟁의 전쟁비용과 교훈]: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사용한 비용은 17억 엔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수년간의 국가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 중 8억 엔은 미국과 영국에서 모집한 외채에서 나머지는 증세와 각종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다. 한편 러일전쟁은 세계전쟁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량소비전의 양상을 보여줬다. 95년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무기, 포탄, 군인이 부족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북만주를 거쳐 러시아 영토를 쳐들어갈 여력도 남아있지 않게 된 상태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다. 구미 열강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국가가 총동원되는 총력전(Total War) 양상을 띄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일본은 동양의 정신이 서양의 물질을 제압하였다는 신화에 빠져 정신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1941년 미국과 영국 등에 대한 선전포고도 이러한 정신주의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러일전쟁기 일본의 양심-비전론(非戰論-)]: 일본국민의 대부분이 러일전쟁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가운데 극소수의 반전론도 있었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인도주의 입장에서의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이

나 사회주의자인 코도쿠 슈스이(幸徳秋水)와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를 비롯해 『요로즈초호(萬朝報)』와 『헤이민(平民)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반전운동을 전개했고 또 여류문인인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는 여순공략전에 참전중인 동생에게 보내는 반전을 노래하는 시(詩) 「너는 죽어서는 안 돼!」를 발표하였다.

4. 러일전쟁후의 국제관계와 한국병합-한국의 식민지화과정

러일전쟁의 유리하게 끝나면서 일본은 러시아를 한국에서 구축하는데 성공하면서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1905년 미국과 비공식적인 카츠라-태프트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과는 제2차 일영동맹의 개정을 통해 열강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먼저 러일전쟁기간을 통하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였다. 이미 일본군(=한국주차군)이 무력으로 서울 경기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일의정서를 통해 일본은 한국에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징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맺어진 의정서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전쟁 중인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재정과 외교고문이 고용하게 하여 양 부문을 일본이 장악하였다. 1905년 11월의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은 전대미문의 불법 강제에 의한 조약으로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한국통감으로 임명되었다.

고종황제는 보호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저항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불거졌다. 일본은 이 사건을 이유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심신이 불안정한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또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한국 정부의 내정권마저도 탈취하였다. 이어서 한국군이 해산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민비시해사건 직후의 의병투쟁에 이어 후기 의병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본국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철저하게 무력탄압을 가하였다.

1909년 통감을 물러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 사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본정부는 본격적인 한국합병을 결정하여 1910년 8월에 한국은 일본에 의해 본격적인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 조선총독에는 3대 통감인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1919) 육군대장이 육군대신을 겸직한 채로 임명되어 철저한 무단통치를 행하였다.

한편 만주에서는 1906년 관동도독부가 여순에 설치되었고 이어서 장춘(長春)과 여순(旅順)간의 철도연선을 경영 관리하기 위해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이 설립되어 만주에서 배타적 이권을 확보하였다. 미국과 당사국인 청국이 반대하였지만 일본은 일영동맹과 1907년의 일러협약을 배경으로 열강의 승인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토 히로부미 한국통감에 대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근대 일본의 메이지헌법체제를 만든 공로자로 유명한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미 1881년 정변에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 일본의 일인자로 군림하던 노회한 정치가였다. 그러한 그가 1909년 하얼빈에서 안중근에 의해 사살 당하고, 안중근은 그의 살해 이유 중에 동양평화의 파괴자이자 약속을 저버리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통박하였다. 여기서 이토는 한국의 식민지화, 즉 한국병합의 주역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미지를 얻게 된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해 보면 이토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중앙정계의 주류파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러일전쟁기에는 온건파로서 또 러일협상파의 거두로 만한국환론을 주장하면서 일영동맹을 배경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는 강경파 군부 및 야마가타 계열 관료와 대립하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일영동맹파의 승리와 러일전쟁의 발발은 그의 정치적 위상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그가 한국통감으로 오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보여지며, 그가 통감으로 한국에 와서 먼저 착수한 것이 강력한 군부의 입김(=예를 들어 한국주차군의 지휘권을 부여받고 온 것 등)을 견제하고 한국통감의 지위를 발판으로 다시 정권의 핵심으로 부각하려는 야심이 있어서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는 한국에서도 일본 중앙과 한국 현지의 군부를 견제하면서 경찰력에 의한 치안확보에 주력하였고, 군부의 병합 주장에 대해 과다한 비

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견제하면서 한국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려한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고종황제의 퇴위를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의병투쟁을 자극해버린 결과 일본군부가 다시 한국에서 입지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국 측의 저항을 간과했던 이토의 정책적 과신이었다고 하겠다. 결국 이토는 의도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통감의 지위를 팽개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토의 죽음이 한국병합의 최대의 비판자를 사라지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병합이 예상보다 매우 앞당겨졌다고도 볼 수 있다.

개항 후 근대문물의 유입과 조계 설정

황 은 수
(인하대학교)

개항 후 근대문물의 유입과 조계 설정

황은수 (인하대학교)

◆ 목 차 ◆

1. 동아시아 각지의 개항장 설정과 그 유형
 - 1) 조계의 연원과 유형
 - 2) 인천의 조계 설정과 주요 시설
2. 근대 문물의 유입 경로와 상인·상품
 - 1) 국내외 간의 기선 정기항로
 - 2) 각국·각지 상인의 개항장 인천 진출
 - 3) 인천의 대외무역 구조와 주요 상품

15세기 이후 세계의 여러 문명권들은 바다를 통해 급작스럽게 상호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문명권은 구래로부터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에 입각한 조공·책봉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와의 교류도 이와 유사한 관계 속에서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돌연 19세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 일어난 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되었다.

외적으로 제국주의를 표방한 구미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 전쟁에 박차를 가하며 동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동아시아를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한 구미 열강은 최종 목적지인 중국을 향해 동·서 양 방향에서 급속하게 접근해온 것이다. 이들은 만국공법 관계라는 미명하에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무력시위와 전쟁 등을 일으키며 개국통상을 요구했고,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통상조약체

제를 받아들이며 내부 및 외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또, 내적으로는 수백 년 동안 존속되던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균열은 조공·책봉 관계의 중심인 종주국 중국[청조(淸朝)]이 흔들리면서 다 방면으로 전이되었다.

1. 동아시아 각지의 개항장 설정과 그 유형

1) 조계의 연원과 유형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조계제도는 동북아 3국 및 서구 국가들 모두에게 낯선 제도였다. 하지만 그 근간은 조공질서에 있었고, 오랜 시간동안 조계의 원시형태가 작동하고 있었다. 1835년 청조는 서북 변경의 조공국 중 하나인 코칸드 왕국에 변경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가지 양보를 해주었다. 합의조항 안에는 코칸드왕국이 신장(新疆) 카슈가르에 정치적 대표를 상주시킬 권리, 이들 대표가 외국상인에 대해 사법 및 치안권을 행사할 권리, 외국인이 반입한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할 권리 등을 공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난징조약 이전에 청조는 자신의 조공국에 대해서도 변경의 치안을 위해서라면 영토 내에 치외법권과 관세징수권을 인정하는 정도는 받아들였던 것이다.

1842년 「난징조약」 제2조 “지금 이후로 대항제는 영국인민이 권속을 데리고 대청국 연해의 廣州(1843), 福州(1844), 廈門(1844), 寧波(1843), 上海(1843) 등 다섯 항구에서 거주·통상 하는 것을 허락한다...”에 의해 외국인의 거주·통상권이 인정되었다. 1843년 10월 8일 「虎門塞追加條約」 제6·7조로 조계제도가 구체화되어 편의상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은 영사와 지방관리의 합의로 그 지역을 정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1843년 11월 8일 영국 영사 일행이 처음으로 상하이에 도착했다. 상하이 현성(縣城) 내에 영국영사관을 개설하고, 동월 17일 정식 개항을 공포했다. 그런데 현성내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했고, 언어풍속이 상이한 중국인과의 접거로 인해 빈번한 소요가 발생했다. 또,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점포를 열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성내의 중국인 거리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강화되었고, 청조의 입장에서

도 잡거로 인한 기존 사회질서의 혼란을 걱정해서 주민과의 격리를 바랬다.

이에 양측은 1845년 11월 29일 「上海租地章程」을 체결하여 현성 밖의 황푸강(黃浦江)가에 ‘외국인 거주구역’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이 장정은 어디까지나 영국인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프랑스 등의 반발을 샀고, 1854년 7월 5일에 가서 제2회 租地章程을 통해 영국의 배타적 관할을 방기하고 공동조계로 전환하였다. 상하이 공동조계는 선거를 통해 7명의 대표를 뽑아서 시참사회(市參事會)를 조직했다. 이곳을 통해 공동조계의 각종 도시행정(도로, 잔교, 가로등, 위생시설, 경찰서 등)이 자치적으로 행해졌다. 이외에도 미국의 조계가 있었으나 1863년 영국 조계와 합병하였고, 1844년에 설정된 프랑스 조계는 공동조계와 유사했으나 시참사회 구성원 15명 중 8명이 프랑스인이었다. 이후에도 제국주의 열강들은 무력 시위 및 전쟁 등을 통해 중국에 많은 조계지를 얻어냈다. 난징조약 이후부터 1945년까지 중국에 조계를 설정한 나라는 모두 9개국이었으며, 각지의 조계 총수는 28개소에 달하였다. 전관조계는 영국이 7개, 프랑스 4개, 일본 5개, 미국 2개, 독일 2개, 러시아 2개, 이탈리아·오스트리아·벨기에 각 1개, 공공조계가 2개, 그리고 연태에 ‘외국인 거류구’가 있었다.

일본은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통해 시모다(下田)·하코다테(函館)을 개항했으나 이곳은 보급기지[미국영사는 주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본격적인 개항은 1858년에 미국·네덜란드·영국·프랑스·러시아 등과 차례로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안세이(安政) 5개국 조약]. 이 조약에 의해 1859년 가나가와(神奈川)[요코하마]·나가사키·하코다테 등 3개항의 개항이 먼저 이루어졌고, 니가타(新潟)·효고(兵庫)[고베] 등이 차례로 개항하였으며, 에도(江戸)[도쿄]·오사카(大阪)도 이어서 개시(開市)하였다. 여기에 설정된 조계는 통상 ‘외국인거류지(外國人居留地)’라 불렀고, 각국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① 중국의 조계

- 상하이(上海) : 영국·프랑스 전관조계, 공공[공동]조계 → 조계가 팽창하여 거대 국제도시가 탄생
- 옌타이(煙台)[芝罘] : 외국인거류구(Foreign Quarter), 14개국의 영사관이 설립되었으나 외국인의 치외법권·행정권 등이 무효, 옌타이 산 거류구 지역은 인천의 응봉산 일대와 유사한 모습

② 일본의 거류지

- 시모다(下田) : 보급기지(영사만 주재)
- 요코하마(横浜) : 전통 포구에서 에도[도쿄]의 관문으로 부상, 지
정확적으로도 인천과 매우 흡사
- 도쿄(東京) : 개시장(開市場)[츠키지(築地) 거류지], 일본의 수도
에도 거류지와 잡거지가 설정되었으나 항구는 개항하지 않음
- 오사카(大阪) : 개시장[카와구치(川口) 거류지] → 개항장으로 변경,
거류지는 상업 중심지에서 선교의 중심지로 변모

2) 인천의 조계 설정과 주요 시설

① 일본(전관)조계

- 1883년 9월 30일 조인
「朝鮮國仁川口租界約書」=「朝鮮國仁川港ニ於テ居留地借入約書」
- 행정·사법권은 영사에 의해 수행, 택지의 競貸·지권의 발급은 조선정부

② 청국(전관)조계[仁川華商租界]

- 1884년 4월 2일 조인 「仁川口華商地界章程」
- 사법권은 영사, 행정권 및 택지 경매 등은 양국 상무관이 회동하
여 운영

③ 각국(공동)조계

- 1884년 10월 3일 조인 「AGREEMENT RESPECTING A GENERAL
SETTLEMENT AT CHEMULPO」=「仁川濟物浦 各國租界章程」
- 1888년 정식 출범, 1889년 12월 신동공사(紳董公司)가 조직되어
조계 운영

④ 주요 시설

- 인천항 감리서와 외국 공관
- 항만[잔교, 갑문식 도크], 세관, 경인철도
- 공원과 사교 클럽 : 서구식 공원인 만국공원, 제물포 구락부
- 교육 : 감리서 외국어학교 - 공립보통학교(창영), 소학교(아사히)

- 소학교), 화교학교(중산), 미션 학교(영화, 박문) 등
- 종교 : 동본원사, 성공회 내리교회, 답동성당 등
- 금융 및 상업 : 은행, 상업회의소, 미두취인소, 회사 및 양행 등
- 우편·전신 및 상하수도
- 위생 : 병원, 검역소
- 양관, 묘지, 유곽 등등.

2. 근대 문물의 유입 경로와 상인·상품

1) 국내외 간의 기선 정기항로

1876년 부산의 초량이 개항장으로 지정되자, 그 해 11월부터 미쓰비시(三菱) 회사는 일본정부 명령항로 중의 하나인 長崎-五島-對馬島-釜山の 우편선로를 다달이 정기 운항했다. 상품의 적하량이 점차 증가하여 화객(貨客)을 다 싣지 못할 정도가 되자 1880년 3월부터 항해 및 정박일수를 단축하여 1개월에 2~3회의 비율로 운항하고 발선지를 나가사키에서 고베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에는 일본정부의 요청과 보호에 의해 제일국립은행·오쿠라구미(大倉組)·미쓰비시 회사의 부산지점이 개설되어 일본인 조계를 중심으로 조선침략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 미쓰비시는 1880년 3월 기존의 나가사키-부산선을 원산까지 연장하여 개항(同年 5월)을 준비했고, 1881년 2월 神戸-釜山-元山-海蔘威 항로를 신설했다. 인천항로는 1881년 5월에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年2회로 배선되었다가, 인천 개항 직후인 1884년부터 월1회로 증편되었다.

1882년 영국, 미국, 청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에 의해 조선은 서구에도 개항을 하게 되고, 청국에 대해서는 전통적 관계를 근대적 통상조약체제로 전환한다. 1876년 이래로 조선의 대외무역(해운업 포함)은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지만, 1883년부터 다른 열강들이 조선으로 진출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 조선항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조선 항로에서 일본의 독점을 가장 먼저 위협한 것은 영국의 이화양행(怡和洋行, 자딘 메디슨 상회)이다. 1883년 8월부터 상하이-인천-부산-나가사키 간에 기선 남승호(南陞號)를 월 2회 운항하면서 무역품을 수송하

고 조선정부로부터 세곡수송 특권까지 얻었으나, 적자 등의 이유로 1885년 1월에 운항을 중단하게 된다. 이어서 청국의 윤선초상국이 1883년 11월부터 상하이-인천 간에 기선 부유호(富有號)를 월 1회 운항시키지만, 부유호가 청불전쟁에 징용되고 적자 등의 이유로 1884년 1월 이후로 운항이 중단되었다. 독일의 세창양행(世昌洋行)도 인천거류 화상 및 독일상인의 자금지원과 세곡수송 특권을 받아 1885년 3월부터 상하이-인천 간에 기선 회화선(希化船)을 운항하지만, 무역부진 등의 이유로 동년 9월에 운항을 중단했다.

청국 및 구미열강의 정기항로 유지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해운업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으나, 어느 정도 위협을 느낀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조선항로의 개설과 유지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자국 기선회사들의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회사들의 통합을 유도하여 거대 해운회사가 설립되었다. 새롭게 설립된 일본우선회사는 1885년 10월 인천지점을 설치하고 일본상인의 건의에 따라 기존의 조선항로를 재편했으며, 1886년 3월에는 長崎-仁川-煙臺(芝罘)-天津 간의 항로를 신설하는 등 조선항로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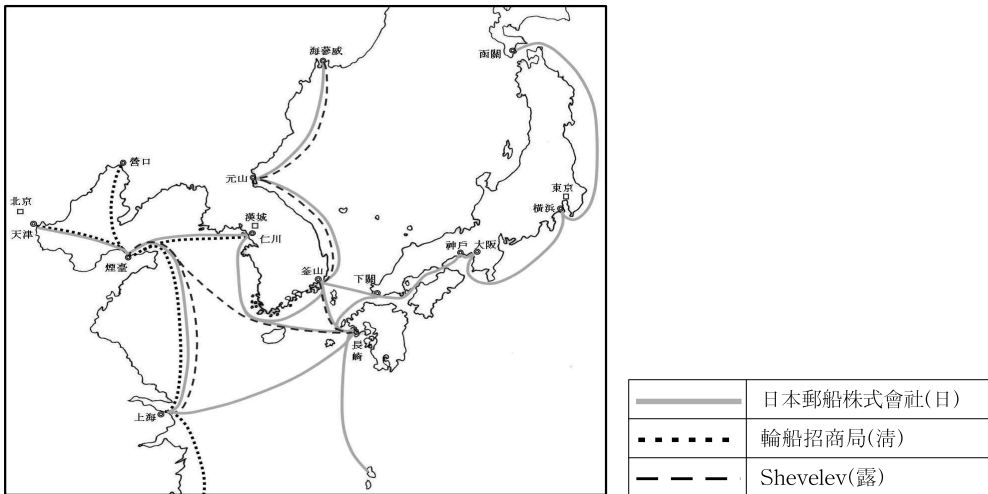
그러다가 얼마 후 조선에 대한 종주권 강화정책을 진행하며, 일본의 세력 확장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청국은 상하이-인천 항로를 재개설하게 된다. 이 항로는 인천에 진출해 있던 많은 화상(華商)들의 청원을 받은 원세개(위안스카이)가 한중 직접항로의 개설을 결정, 1888년 3월부터 윤선초상국의 광제호(廣濟號)가 20일에 1회씩 上海-煙臺-(歸路 營口 경유)-仁川 노선을 운항하였다.

청의 윤선초상국은 인천항로에서 운임을 일본우선회사보다 저렴하게 설정하는 것과 함께 청국인 荷主와 밀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 측을 견제하면서 정기항로를 운영하였다. 이에 일본우선회사는 1889년 임시선을 증편하여 煙臺-仁川 간의 운임을 초상국과 동액으로 설정하고, 집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 러시아의 기선회사가 조선정부에 정식으로 기선운항을 신청하여 부산 및 원산항로도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게 되자, 1889년 4월 일본우선회사는 上海-煙臺-仁川-釜山-元山-海蔘威 간의 항로를 신설하여 기선 비후환(肥候丸)으로 4주에 1회 정기운항 했다. 한편, 1892년부터 일본의 오사카상선회사가 고베와 부산 간에 월 3회의 정기운항을 시작했고, 1893년부터는 2주마다 1회 고베-시모노세키-부산-인천 항로에 기

선을 취향하기 시작하면서 조선항로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다.

개항장은 인적·물적 교류의 창구가 되었다. 이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침략을 시작하고, 개항장 간에 정기항로를 개설하면서 자국 세력의 확장을 기도한다. 기선을 운용하는 정기항로는 ‘신속성, 정기성, 안정성, 대량수송’ 등의 장점들이 부각되어 제국주의 열강들은 앞 다투어 기선 정기항로를 개설해 나갔고,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및 조선 진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자리했다.

<도표-1> 1888~93년 조선의 대외 정기항로



2) 각국·각지 상인의 개항장 인천 진출

위와 같이 한중일을 잇는 정기항로망은 조선의 인천항을 중심으로 보다 긴밀히 맺어지게 되었고, 기선회사들의 경쟁으로 운임비가 절감되고 점차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선을 이용한 개항장 간의 내·외국인 이동도 보다 활발해졌다.

1880년대 후반 이후 조선 정부는 해외를 왕래하는 조선인에 대한 관리 규정, 즉 오늘날의 여권 및 출입국 관리규정 같은 것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1888년 2월 인천항의 감리서에서 “본항에 와서 배를 타는 官員의 憑票 소지 여부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各營·各局에 관문을 보내어 某署의 關원이 某事로 外國 및 內地를 前往하는지 本衙門에 보고할 수 있

도록 해달라”는 문서를 통리아문으로 상송했다. 이에 정부는 삼항에 “日本輪便에 我國 紳商이 빙표를 휴대하지 않고 함부로 輪船에 올라 遊覽 혹은 通商을 청하며 외국을 왕래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들 중 다수가 定見이 없어 말썽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부득이 檢飭하니, 該港 경찰관이 왕래하는 我國 官商의 성명·거주 및 왕래 목적을 신고 받아 매달 보고”하라는 관문을 내렸다. 그래서 1888년 3월(음력)부터 조선의 각 개항장 경찰서에서 화객기선(貨客汽船)을 타고 왕래하는 조선인을 검칙하고, 그 결과를 개항장 감리서에서 중앙 정부에 매달 보고하게 되었다.

이를 기재한 자료인 『摘奸成冊』에 나타나는 각계각층의 조선인 중에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들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본거지는 대부분 전통적인 상업 중심지인 ‘한성, 동래(부산), 의주’ 등의 지역이다. 한편, 활동 범위는 ‘인천-부산’ 국내 개항장뿐만 아니라, 인천-청국(天津, 營口, 煙臺, 上海, 香港 등), 인천[대부분 부산 경유]-일본(長崎-下關-神戸-大阪-横浜) 등 동북아시아 각지의 개항장으로 정기항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① 개항장 객주 : 구문을 정부에 납부하고 개항장의 매매독점권을 장악.

② 인천항 신상(紳商) 회사 : 대한제국기 민족적 성격의 합자회사.

- 서상집[한국형 매판], 정치국[개항장 이주 상인]

③ 구미계 이화양행, 타운센드, 세창양행

④ 화교[화상(華商)], 동순태

3) 인천의 대외무역 구조와 주요 상품

개항장 인천은 경인지방을 직접적 배후지로 하고, 황해도·평안도·충청도·전라도 일부·강원도 일부를 유통권에 포섭하고 있었다. 또한, 청국상인의 진출이 두드러진 지역이어서 청국상인과 일본상인이 상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역이기도 했다. 서울의 ‘인후부’로 불린 인천은 서울과 같은 유통권을 대상으로 상권대립이 심각했다. 인천은 서울시장의 전통적 유통권을

그대로 포섭하고 있어 서울시장과 인천 간의 상품가격에 따라 상품이 이동하고 있었다. 특히, 대일수출의 대표적 상품이던 미곡의 인천항으로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풍작인 해에도 양질의 조선미를 수출하고 값싼 외국미가 수입되는 기아수출의 양상도 나타났다.

① ‘미면(米綿) 교환체제’ : 조선에서 생산된 농산물(미곡, 콩, 우피 등)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공산품(면제품 중심)의 수탈적 교환 방식.

일본의 산업혁명에 이바지.

② 1890년 전후 주요 수출입 상품

- 수입품 : 면직물(옥양목, 한랭사, 목면, 방적사 등), 동·아연·석탄, 성냥, 석유, 목재, 술, 소금, 담배 등.
- 수출품 : 쌀, 대두, 소맥, 대맥, 쇠가죽, 금, 인삼, 해산물 등.

③ 밀무역 : 홍삼, 해삼, 금 등.

개화기~일제강점기 인천의 산업과 경제

- 철도를 중심으로

견 수 찬

(인천광역시 중구청)

개화기~일제강점기 인천의 산업과 경제

- 철도를 중심으로 -

견수찬 (인천광역시 중구청)

◆ 목 차 ◆

1. 머리말
2. 인천항과 철도교통
3. 수인선 부설의 배경
4. 수인선의 부설
5. 수인선의 변천과 쇠퇴
6. 맺음말

1. 머리말

근대사회에서 철도는 과학기술의 총아이자 근대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구축되기 시작한 철도망은 그 구축의 배경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와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서구열강이 식민지에 구축한 철도망은 본래의 순수한 산업적·사회적 기능 외에 식민지 지배체제의 구축과 경제적 약탈이라는 또다른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가 지니는 필연적인 약탈적 속성이 철도망 구축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인철도에서 비롯된 한국의 근대 철도망 구축도 이러한 서구열강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철도 건설을 통해 서구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산업을 일으키고자 했던 대한

제국 정부의 의도가 이미 경인철도 부설권이 일본에 넘어가면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하였고, 청국 및 러시아와의 한반도 쟁탈전에서 승리한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군사적 필요에 의해 한반도의 철도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근대 인천의 발전상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인선과 수인선 등 근대 인천의 철도교통망도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군사적 필요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된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인천은 개항장이 형성된 인천항 일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근대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과 일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시의 기능과 모습이 변모하였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수인선의 건설배경과 변천상도 크게는 식민지 도시 인천을 경영했던 일본인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항만과 철도기능의 변천과 관련지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항장에서 식민지 외항에 이르기 까지 부침하는 근대 인천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인천항과 철도교통

1883년 개항 후 인천은 단숨에 조선 대내외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는 수도 관문항으로서의 역할과 중계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담당했기 때문으로, 인천항은 이러한 독점적 위치를 토대로 개항 직후 상당한 호경기를 구가하였다. 개항 초기 인천항은 목포에서 신의주에 이르기 까지 서해안 일대 주요 항구를 아우르며 항만을 통해 수입된 수입품을 분배하고, 각지의 생산물을 인천항으로 집하하여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조선 총 무역액의 40~50%를 담당하는 제일의 무역항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 무역액 가운데 인천항이 담당했던 비중은 다음의 【표】 1에 잘 나타난다.

【표】 1. 주요 무역항 무역액 순위와 인천항의 위치(1885~1932)⁷⁷⁾

	수 출			수 입			총 액			무역총액중 인천항비중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885	부산	인천	원산	인천	원산	부산	인천	부산	원산	54%
1889	부산	인천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1900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경인선개통
1901	부산	인천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1902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49%
1903	인천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1904	인천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진남포	
1906	부산	인천	진남포	인천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진남포	경부선개통 경의선개통
1907	인천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진남포	45%
1908	부산	인천	진남포	인천	부산	경성	인천	부산	진남포	
1909	부산	인천	군산	인천	부산	경성	인천	부산	경성	
1910	부산	인천	진남포	인천	부산	경성	인천	부산	경성	
1912	부산	인천	진남포	인천	부산	경성	부산	인천	경성	28%
1914	부산	군산	인천	부산	인천	경성	부산	인천	경성	호남선개통
1915	부산	인천	군산	부산	인천	경성	부산	인천	경성	
1916	부산	진남포	인천	인천	부산	경성	부산	인천	경성	18%
1917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인천	경성	부산	인천	경성	
1918	부산	진남포	경성	부산	경성	인천	부산	진남포	인천	인천항감문선 거준공
1919	부산	군산	인천	부산	인천	경성	부산	인천	경성	
1920	부산	인천	진남포	부산	인천	경성	부산	인천	경성	
1921	부산	인천	진남포	인천	부산	경성	부산	인천	경성	21%
1922	부산	인천	군산	인천	부산	경성	부산	인천	경성	
1923	부산	인천	군산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신의주	
1924	부산	인천	군산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군산	
1925	부산	인천	군산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신의주	
1926	부산	인천	군산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군산	18%
1928	부산	인천	진남포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진남포	18%
1929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진남포	17%
1930	부산	인천	진남포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진남포	18%
1931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진남포	17%
1932	부산	진남포	인천	부산	인천	신의주	부산	인천	진남포	16%

인천항은 개항 직후인 1885년 전국 총 무역액의 54%를 차지한 이래 1902년 49%, 1907년 45% 등 줄곧 40~50%대를 유지하며 1910년까지 조선제일의 무역항이라는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철도가 등장하고 후발 개항장들

77) 『仁川府史』, 인천부, 1933에서 인용

이 본격적으로 인천항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인천항의 독점적 지위는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1899년 경인철도가 처음 개통되었을 때만 해도 경인철도는 오히려 인천항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었다. 경인철도 개통 이전까지 서울과 인천간의 교통은 우마차로 경인도로를 이용하거나 인천~용산간에 취항하는 기선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경인철도의 완공으로 육로로 12시간 넘게 걸리던 서울~인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인천항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인천에서 유숙하는 인원이 줄어들어 여관업이 크게 타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물자의 운송이 원활해져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된 이후 그 폭이 크지는 않지만 수출입액의 증가세가 완연해 졌다.

【표】 2. 인천항 수출입 무역액 추이(1884~1939)⁷⁸⁾

연도	수 출	수 입	계	연도	수 출	수 입	계
1884	184,917	377,548	562,465	1912	3,787,824	18,488,575	22,276,398
1885	156,620	969,610	1,126,230	1913	5,818,133	17,589,203	23,407,336
1886	272,557	1,348,406	1,620,963	1914	5,255,952	14,217,121	19,473,073
1887	325,697	1,469,815	1,759,912	1915	8,131,133	12,833,422	20,964,555
1888	386,207	1,688,708	2,074,915	1916	7,138,966	17,394,041	24,533,007
1889	410,750	1,843,759	2,254,510	1917	9,868,824	21,293,536	31,162,360
1890	1,440,132	2,572,161	4,012,293	1918	15,654,549	29,083,259	44,737,808
1891	1,433,217	3,165,935	4,599,152	1919	26,375,456	64,612,597	90,988,053
1892	1,062,105	3,041,327	4,103,432	1920	24,596,016	51,253,966	75,822,982
1893	678,825	2,435,310	3,114,136	1921	42,413,219	52,836,427	95,249,691
1894	1,320,909	3,703,115	5,024,024	1922	43,261,345	58,404,260	101,665,605
1895	1,455,737	5,017,086	6,472,823	1923	39,728,419	53,562,289	93,290,708
1896	1,913,814	3,709,383	5,623,197	1924	60,152,086	66,095,719	126,247,805
1897	3,739,890	5,858,605	9,608,495	1925	63,562,566	66,459,271	130,021,837
1898	2,410,670	7,785,651	10,196,321	1926	59,843,790	68,043,080	127,886,870
1899	1,652,342	6,289,816	7,942,158	1927	57,111,117	74,930,846	132,041,963
1900	4,343,963	6,888,421	11,232,384	1928	55,839,066	84,337,362	140,176,422
1901	2,870,077	9,183,883	12,053,960	1929	47,476,098	83,290,435	130,766,533
1902	2,735,396	8,071,466	10,806,862	1930	42,258,676	70,039,531	112,298,207
1903	3,653,723	10,265,107	13,918,830	1931	38,524,133	51,627,625	90,151,758
1904	2,931,888	16,568,779	19,530,667	1932	44,195,577	59,662,712	103,858,289
1905	2,928,827	16,803,763	19,732,595	1933	43,066,552	75,572,558	118,639,110
1906	2,389,029	14,135,494	16,521,523	1934	60,218,754	100,121,465	160,340,219
1907	4,905,283	20,751,854	25,657,137	1935	66,326,962	137,775,896	204,102,858

78) 『仁川府史』(인천부, 1933) 와 『인천항변천사』(인천항운노동조합, 1995) 및 『仁川港』(인천상공회의소, 1931)을 토대로 작성.

1908	2,554,220	17,892,584	20,446,804	1936	72,754,220	158,960,305	231,660,525
1909	3,316,498	13,350,584	16,667,082	1937	92,606,943	187,372,003	279,978,946
1910	4,055,204	12,666,523	16,721,727	1938	129,860,789	214,740,541	344,601,330
1911	3,907,913	16,525,966	20,433,879	1939	-	-	367,417,000

그러나,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어 경인선과 연결되고, 1906년 경의선까지 개통되어 한반도를 종관하는 철도망의 기초가 구축되면서, 인천항의 독점적 지위는 크게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뒤늦게 개항한 목포, 진남포, 군산 등이 어느 정도 교역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때이기도 했는데,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됨으로써 부산의 입지가 매우 강화되었고 더불어 진남포, 군산, 신의주 등도 인천의 경쟁자로 떠올랐다. 때문에 인천은 1908년 이후 수출에서 부산에 뒤지게 되었으며, 수입과 교역총액에서도 1914년 이후 부산 다음으로 밀려나고, 진남포와 군산의 실적이 뛰어난 몇몇 해에는 3위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전국의 대외교역량에서 인천항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감소하여, 경부·경의선 개통 직후인 1907년 45%에 달하던 비중이 1912년에는 28%로, 1916년에는 18%로 급감하였다. 【표】 2에서는 대외교역이 어느정도 완만히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는 전체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와 경쟁 항만의 성장속도에 비하면 인천항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천항이 경부·경의선의 개통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게 된 것은 1918년에 갑문선거를 완공하게 되면서부터 이다. 【표】 2에 보이는 대로 갑문선거가 완공된 이듬해부터 인천항의 교역량이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1919년 급격히 늘어났던 교역량은 이후 한 두 해 동안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기도 하지만, 192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갑문선거의 확충으로 대형 선박이 항구에 직접 접안 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표】 3의 인천역 운송실적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인천역 운송실적의 변천(1909~1940)⁷⁹⁾

연도	여객인원		화물톤수		철도 운송 수입		
	승차	하차	발송	도착	여객	화물	총액
1909	111,884	116,785	79,733	28,031	64,376	198,478	262,854
1910	100,453	108,534	131,896	40,201	57,914	302,856	360,770
1911	110,760	117,883	167,088	33,595	59,362	365,836	425,198
1912	52,536	65,225	184,275	33,461	53,026	335,468	388,494
1913	49,775	60,809	140,885	39,785	49,704	292,896	342,600
1914	38,143	50,868	113,452	38,475	42,057	243,699	285,756
1915	84,171	122,054	106,143	53,260	55,832	263,660	319,492
1916	46,243	52,159	123,631	61,489	54,079	322,779	376,858
1918	75,786	95,030	190,509	78,520	94,200	623,850	718,050
1919	91,071	115,533	310,872	103,585	125,735	791,391	917,126
1920	103,328	156,706	187,702	144,065	164,422	533,399	697,821
1921	123,505	189,339	196,150	226,717	155,149	576,255	731,404
1922	177,751	258,045	245,054	197,930	179,446	661,844	841,290
1923	185,889	269,596	271,196	239,517	172,103	776,703	948,806
1925	187,220	266,921	251,693	283,963	148,786	731,455	880,241
1926	152,076	174,384	306,112	300,290	159,786	855,600	1,015,386
1927	157,531	173,335	358,331	323,204	162,894	1,051,103	1,213,997
1928	166,175	177,971	382,881	313,198	171,275	1,188,809	1,360,084
1929	185,513	205,329	404,527	292,347	171,276	1,186,563	1,357,839
1930	163,111	186,404	407,162	317,248	148,208	1,088,564	1,236,772
1931	135,323	157,390	425,473	300,540	104,232	1,096,699	1,200,931
1932	165,732	188,584	445,471	297,111	123,847	1,184,783	1,308,630
1933	144,571	146,734	507,693	334,639	131,772	1,317,418	1,449,190
1934	150,735	161,158	654,520	365,331	136,089	1,672,867	1,808,956
1935	193,789	196,818	774,164	357,301	135,163	1,939,872	2,075,035
1936	190,967	203,291	902,808	324,507	172,711	2,320,237	2,492,948
1937	190,944	205,062	820,618	536,351	174,624	2,333,511	2,508,135
1938	191,764	208,518	871,868	579,696	122,326	3,038,426	3,160,752
1939	231,307	230,548	981,731	520,142	191,659	3,463,441	3,655,100
1940	367,567	692,587	1,022,394	550,715	302,137	3,514,179	3,816,316

3. 수인선 부설의 배경

1920년대 중반 이래 일제는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여 식민지 수탈을 고도화하여 본토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인 철도망의 확충이 시급했다. 따라서 1927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국유철도12개년계획」을 확정하여 1927년부터 12년간 3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국유철도 5개선 860마일을 신설하고, 기왕에 부설되어있던 주요 사설철도 5개선 210마일을 매수하기로 하였

79)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해당 연도분을 토대로 작성.

다.⁸⁰⁾ 이러한 총독부의 정책은 일본인 자본가들의 투자욕구를 자극하여 제2의 사설철도 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미 1910년대 후반부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수여선 부설문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28년 8월 28일 동경에서 京東鐵道株式會社가 창립된 데 이어 1단계 수원~이천 구간 공사를 8개월 만에 마치고 1930년 11월 30일 개통하였다.⁸¹⁾ 2단계인 이천~여주 구간도 이듬해 12월 7일 완공되어 73.4km 전체구간이 완전 개통되었다. 수여선 부설은 경기도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米穀의 반출을 원활히 하고 日本人의 진출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동철도는 화물과 여객의 증가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누렸는데,⁸²⁾ 이렇게 수여선이 성공적으로 개통되면서 인천에서 수인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⁸³⁾

또한 192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인천항의 경기침체도 수인선 부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1918년 갑문선거 완공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인천항의 교역은 앞의 【표】 2와 【표】 3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1920년대 후반부터 정체되고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경부·경의선의 개통에 따라 부산항의 역할이 증대되고 군산, 목포, 신의주, 진남포 등 새로운 항만이 쌀을 중심으로 한 인천항의 물동량 상당부분을 잠식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철도 종관선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인천항의 경기가 위축되어 가던 시기에 그 돌파구로 대두되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수인선’이라는 새로운 철도망의 확충문제였다. 수인선 부설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仁川商業會議所였는

80)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147~155 ; 철도청, 『한국철도100년사』, p.459.

81) 『毎日申報』, 1930년 11월 6·25·28일 ; 『中外日報』, 1930년 9월 14일 ; 『朝鮮總督府官報』第1177號, 1930년 12월 4일.

82) 鐵道廳, 『韓國鐵道史』3, 1979, pp.547~549.

83) 수인선에 관한 대표적인 논저는 다음과 같다.

崔美香, 「水仁線 挾軌鐵道와 空間形成에 관한 考察」, 『綠友會報』, 1984.

인천문화원, 「國內唯一의 挾軌 名物 水仁線 鐵道」, 『인천문화』9, 1987.

李昌植, 「日帝下의 水驪·水仁線의 鐵道考」, 『畿甸文化』3, 畿甸郷土文化研究會, 1988.

尹玉琇, 「水仁線 鐵道の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地理教育論集』28, 1992.

甄洙燦, 「京東鐵道(水驪·水仁線)의 부설과 변천」, 『인하사학』 10, 2003.

데, 1926년 1월 25일 조선총독부에 다음과 같은 「仁川에서 水原을 거쳐 동해안 강원도 江陵에 이르는 횡단철도 부설 요망서」를 제출하였다.⁸⁴⁾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강원도 강릉을 통하는 횡단철도를 요망한다

- ① 조선의 중앙지점에 있어서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관통하는 지점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
- ② 영등포~수원간은 매년 홍수에 의한 철도의 피해가 많고 교통은 수상 불편함이 적지 않아서 지선을 설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 ③ 경부, 경의 본선은 단선이기 때문에 물자수송에 막대한 장애를 가지고 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극단적으로 원가를 폭등시키고 화차의 쟁분전을 연출시키는 등 전년의 실례가 많이 있다. 미곡생산증식 실현의 날에 있어서는 한층 더 수송상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철도 수송상의 결함의 하나로 용산중계에 원인이 있으며, 경부선 중 가장 미곡생산지로서 수송상 최고의 적정위치에 있는 수원에서 지선을 설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초미를 다투는 일이라고 인정한다.
- ④ 현재, 경부연선에서 인천에 도착하는 화물은 곡류를 주로 하여 12만 7천여톤에 이르고, 또한 동 지방을 향하여 발송시키는 화물은 모든 잡화류 등 19만톤에 이르고 이것들은 수원~인천간 직로지선이 설치되는 것에 의하여 화물수송의 곤란함과 혼잡함을 완화시켜야 한다.
- ⑤ 소금수급의 독립은 조선총독부의 열성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 전매국 주안출장소의 관리에 속하는 기성염전은 1,087정보에 달하여 장래 증설시킬 수 있는 소래면 예상지 500여 정보를 합하여 약 1,600정보에 달함에 있어서는 1억 3천만근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이것의 배급상 본선의 신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⑥ 소금의 수용은 경부선을 주로 하여 현재 부산 부근은 청도염사에 의하여 는 상황이 어도 주안소금은 완성은 당연히 관염의 공급

84) 仁川府, 『仁川府史』, 1933, pp.819~821.

지가 된다. 또한 동해안에 있는 어장의 대부분의 소금은 신속한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 이 또한 청도염으로 대신함에 관여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⑦ 강원도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업발달이 늦어지는 것도 본선 개통의 실현에 있어서는 곡류, 생우(生牛), 목재, 해산물 등 다수의 물자를 볼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⑧ 미곡증식계획에 기초하는 토지 개량지 면적을 봄에 있어 충남, 경기, 평안, 황해의 4도에 있어서 총 면적의 8할 3분에 달하고 이러한 지방의 생산품은 대부분 인천항으로 모이며 철도수송의 곤란함은 상상 이상이다.

「요망서」에서 仁川商議는 한반도 중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강원도 등 내륙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경부선 및 경인선의 수송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주안 등 서해안 관여의 내륙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천과 경부선 각지와의 발착화물을 영등포 또는 용산을 중계로 하여 우회할 수 밖에 없었던 불편이 없어져 경기도의 남동부, 강원도의 남부 및 충청북도의 북부 일대를 개발하고 인천의 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4. 수인선의 부설

수인선 부설을 위한 인천지역 상공인들의 움직임은 건의에 그치지 않고 더욱 구체화되어, 1926년 5월경에는 일본인 사업가가 “소래 남동 문학 해안을 종단하여 문학면 관교리를 經하여 인천에 이르는” 수인선의 노선계획을 정하고 주식회사설립을 추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⁸⁵⁾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획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인천과 수원지역의 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경동철도기성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⁸⁶⁾ 인천상업회의소는 1927년 1월에 재차 수인선 부설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하게 되는데,⁸⁷⁾ 이 때문인지 이해 5월경에는 일본 내

85) 『毎日申報』, 1926년 5월 25일.

86) 『毎日申報』, 1926년 10월 22일.

자산가의 후원으로 수인선 인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⁸⁸⁾ 이러한 인천과 수원의 여론은 수역선 부설을 추진중이던 경동철도사에도 자극이 되어 1928년에는 수역선을 인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⁸⁹⁾ 경동철도사는 당시의 경제 여건으로 수인선과 수역선을 동시에 부설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역선을 먼저 개통하고 그 영업추이에 따라 水仁線 부설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수역선 개통 후 경동철도사가 내륙의 자동차운수업체 인수에 매달리면서 수인선은 그 추진이 한동안 중지되었고, 그 사이 일본에서 또 다른 수인선 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다.⁹⁰⁾

일시 중지되었던 水仁線 부설 문제는 수역선이 완전 개통되고 경동철도사의 자동차운수업체 인수가 마무리되는 1932년경에 가서야 다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보조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동철도는 1933년 들어 인천지역 상공인들의 협력을 얻는데 주력하였다. 인천상업회의소에서도 교통부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하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⁹¹⁾ 때를 같이하여 1934년에 접어들어 수역선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인선 부설에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되었고,⁹²⁾ 수인선의 채산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따라서 경동철도에서도 부설계획을 구체화하여 철도국에 정식 부설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동철도사의 노선 연장계획은 수인선을 추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동철도를 강원 내륙지방까지 연장하여 명실상부한 동서횡단철도로 완성하려는 데까지 이르고 있었다. 1934년 가을에는 경동철도 경영진이 원주와 횡성을 방문하고 주식 모집에 관해 협의를 갖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하였다.⁹³⁾ 그러나, 홍호리까지 실측을 마쳤음에도 주식모집이 여

87) 『每日申報』, 1927년 1월 20일.

88) 「水仁鐵道 不遠問認可 -京阪資産家の 應援下」, 『東亞日報』, 1927년 5월 8일.

89) 「京東鐵道の 仁川延長出願」, 『中外日報』, 1928년 11월 19일.

90) 仁川府, 앞의 책, p.821.

91) 『每日申報』, 1933년 5월 10일.

92) 「京東鐵道 決算 總會는 十二日」, 『東亞日報』, 1934년 8월 5일.

93) 「京東鐵道の 延長 原州橫城을 貫通」, 『每日申報』, 1934년 9월 12일 ; 「原州與湖里까지 京東鐵

의치 않아 계획으로만 남게 되었다.

경동철도는 1935년 9월 23일 총독부로부터 수원~인천간 철도부설인가를 얻게 되었다.⁹⁴⁾ 이어 자금확보를 위해 주당 50원씩 40,000주의 공모를 통해 총 200만원의 증자를 결정하고 인천측에 100만원 상당의 주식 모집을 요청하였다. 또한 자금확보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인천을 방문해 주식모집 설명회를 갖는 한편, 철도국 공제조합으로부터 180만원을 차입하여 건설비용을 확보하기도 하였다.⁹⁵⁾ 그 결과, 1936년 5월 16일에는 종점 예정지인 인천 花町 매립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부설공사에 돌입하였다.⁹⁶⁾ 공사 과정에서는 토지 수용 가격 문제로 지주들과 분쟁이 계속되기도 하였고,⁹⁷⁾ 소래철교 공사와 관련해 인근 포구의 어민들과 분쟁을 빚기도 하였다.⁹⁸⁾ 이렇게 공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초 130만원으로 책정했던 공사비가 개통 당시에는 260여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⁹⁹⁾ 때문에 수인선의 경제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어 회사와 주주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¹⁰⁰⁾

당시 재원이 부족한 사설철도는 당국의 보조금과 주식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건설자금을 마련했는데, 수인선의 경제성이 의문시되면서 경동철도사와 주주간에 불입금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때문에 자금사정이

도를 延長, 『每日申報』, 1934년 12월 26일 ; 「京東鐵道を 延長하여 金化電鐵까지 接續, 『每日申報』, 1935년 2월 11일.

94) 「水原仁川間の 鐵道敷設을 認可, 『朝鮮中央日報』, 1935년 10월 3일 ; 「수원 인천간에 새 철도, 『신한민보』, 1935년 10월 31일.

95) 「水仁鐵道敷設에 株式募集依頼, 『每日申報』, 1935년 12월 12일 ; 「京東鐵道 二百萬圓 増資, 『東亞日報』, 1935년 12월 18일 ; 「百八十萬圓 借入, 『東亞日報』, 1935년 12월 18일.

96) 「貿易 二億圓 突破 記念 仁川 第二築港 起工式 경동철도기공식 등 거행, 『東亞日報』, 1936년 4월 25일 ; 「仁川에 大祝賀會 第二築港, 仁水鐵道起工式 等, 『東亞日報』, 1936년 5월 15일.

97) 이런 분규는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해 땅값이 폭등한 文鶴, 南洞 등에서 특히 격렬하였다(「京東鐵道 仁川水原間 用地買收에 難色, 『每日申報』, 1936년 7월 5일 ; 「京東鐵道 水原仁川間 敷設 用地買收에 非難, 『每日申報』, 1936년 7월 21일).

98) 「京東鐵橋 加設은 七百漁民 死活問題, 『東亞日報』, 1936년 6월 21일.

99) 『昭和12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39, pp.208 ~ 209.

100) 「京東鐵道 拂込公約 無視라고 분개, 『朝鮮商工新聞』, 1936년 11월 20일(水原市, 『水原市史』, p.1255에서 재인용)

계속 어려워져 수인선 부설 자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주식이 폭락하여¹⁰¹⁾ 수인선에 대한 회의론이 극에 달하였다.¹⁰²⁾

이러한 비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문제가 점차 진전을 이루면서 17개 역 내정지를 발표하면서 1937년 2월부터 수인선 부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¹⁰³⁾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인선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도 다시 높아져 개통을 고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소래철교 공사가 난항을 겪는 등 해안 간석지 노선 공사에 어려움이 많아 수 차례 연기된 끝에 7월 19일에서야 개통식을 갖고 완성을 보게 되었다.¹⁰⁴⁾ 그동안 수인선의 경제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던 언론에서도 개통에 이르러서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강원도 오지의 물자수송, 관염의 수송, 경성 물자의 반출, 송도유원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인천과 중부조선의 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¹⁰⁵⁾

수인선은 착공한지 1년 2개월만에 개통을 완료하고 1937년 8월 6일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¹⁰⁶⁾ 총 연장 52km의 협궤선인 수인선은 17개의 정차장과 임시정류장을 설치하고 수원-인천간을 1시간 40분에 연결하였는데, 총 17개소의 정차장 가운데 10개소는 정식 정차장으로 역사를 두고 역원이 배치되었지만, 7개소의 임시정류장은 역사와 역원이 없었다.

101) 「京東鐵道 水仁線, 經濟價值 疑問視」, 『朝鮮商工新聞』, 1936년 11월 26일(尹玉炅, 「水仁線 鐵道の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地理教育論集』28, 1992, p.40에서 재인용).

102) 『朝鮮商工新聞』, 1926년 2월 26일(尹玉炅, 앞의 글, p.40에서 재인용).

103) 「仁川 水原間新鐵道 驛十七個所內定」, 『每日申報』, 1937년 2월 23일.

104) 「仁川水原間の 鐵道 工事遲延을 未免」, 『每日申報』, 1937년 5월 9일 ; 「水原 仁川間 鐵道 七月一日부터 開通」, 『每日申報』, 1937년 6월 15일 ; 「水原 仁川間 鐵道 七月十九일에 開通」, 『每日申報』, 1937년 6월 24일 ; 「水原仁川間鐵道 十九일에 開通式」, 『每日申報』, 1937년 7월 13일 ; 「水原-仁川間 鐵道 今日부터 運輸開通」, 『東亞日報』, 1937년 8월 7일.

105) 「水仁鐵道 二十日開通」, 『東亞日報』, 1937년 7월 2일 ; 「水仁鐵道 開通祝賀」, 『東亞日報』, 1937년 7월 9일 ; 「京東鐵道の 水仁線 開通」, 『朝鮮商工新聞』, 1937년 8월 7일(윤옥경, 앞의 글에서 재인용).

106) 『朝鮮總督府官報』第3168號, 1937년 8월 6일 ; 「水原-仁川間鐵道 今日부터 運輸開通 - 西海岸 干潟地를 橫斷」, 『東亞日報』, 1937년 8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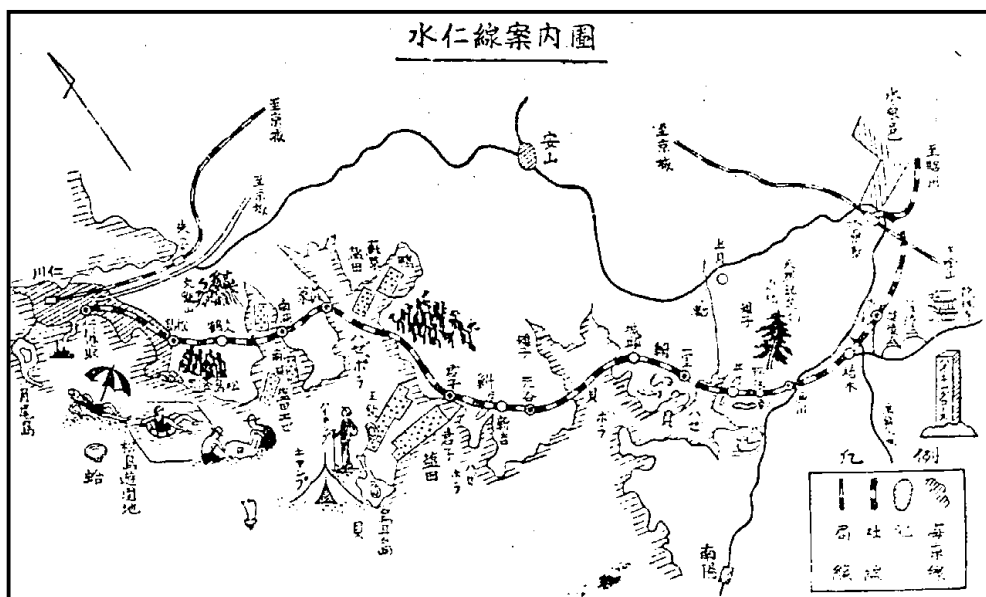


그림 86. 「수인선 안내도」 (『조선철도협회회지』 16, 1937에서 전재)

5. 수인선의 변천과 쇠퇴

수인선은 개통 후 수여선과 연계하여 중부내륙지방과 인천항간에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화물의 수송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하루 1~2편의 버스에 의존하던 때에 비해 개통 후 수원~인천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인선의 성공적인 개통에 힘입어 경동철도는 폭주하는 화물을 감당하기 위하여 창고시설과 인입선을 확충하고 역사를 증축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갔다.¹⁰⁷⁾ 특히 내륙의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곡류와 소금 등이 속속 집하되면서 인천의 경기는 다시금 호황을 구가하였다. 앞의 【표】 2에 나타나듯이 1936년 수출액 72,754,220원 수입액 158,960,305원에 그쳤던 인천항의 물동량은 수인선 개통후 크게 증가하여 1938년에는 수출액 129,860,789원 수입액 214,740,541원에 달할 정도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¹⁰⁸⁾ 때문에 개통 후 채 1년도 못되어 협궤를 광궤로 개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총독부 당국자들로부터 제기되

107) 水原市, 앞의 책, pp.1256~1257.

108) 『昭和12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42, pp.138~141.

기도 하였다.¹⁰⁹⁾ 또한 수인선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940년경에 이르면 노선의 광궤화 및 개량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¹¹⁰⁾ 인천부세진흥회는 수인선 광궤화와 노선 개량의 필요성을 지적하는데서 나아가 인천항역의 확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¹¹¹⁾ 이러한 움직임은 이듬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결실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를 통해 당시 인천지역 경제계가 수인선의 경제적 역할에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동철도 영업실적(1937~1942)¹¹²⁾

	수 입				지 출						수익금	비 고
	총 액	객차 수입	화차 수입	잡수입	총 액	보선비	기차비	운수비	총계비 및 관련비	기 타		
1937	400,888	139,974	219,151	41,763	324,446	63,837	142,716	80,916	27,666	9,311	76,442	
1938	665,971	218,019	392,665	55,287	634,617	131,011	283,546	118,675	101,041	344	31,354	
1939	612,159	294,548	276,374	41,237	600,721	128,090	258,900	111,226	102,385	120	11,438	
1940	686,720	367,488	275,494	43,738	692,915	120,625	344,200	123,524	102,611	1,955	-6,195	
1941	742,143	394,757	287,760	59,680	924,088	169,445	469,604	134,954	97,468	61,617	-181,945	
1942	427,987	211,303	161,386	55,298	386,026	47,686	195,428	67,863	75,049		41,961	조선철도 '경동선'

그러나, 개통 초기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누렸던 경동철도는 1940년부터 운송수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경동철도는 1942년 8월 조선철도주식회사에 매각되어¹¹³⁾ '경동선'

109) 『朝鮮商工新聞』, 1938년 4월 22일(수원시, 위의 책, p.1261에서 재인용).

110) 「水仁線廣軌化 改良을 陳情」, 『每日申報』, 1940년 4월 12일.

111) 「水仁線廣軌改替와 港驛改築新要望」, 『每日申報』, 1940년 10월 4일.

112) 표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해당년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

113) 『每日申報』, 1942년 7월 18일 ; 8월 5일

으로 개칭·운영되었다. 경동선은 1945년 해방이후 敵産으로 미군정에 접수되었다가 1946년 5월 17일부로 여타 사철과 함께 국철에 흡수되었다.¹¹⁴⁾ 수인선은 국철화 이후 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폐쇄했던 역을 부활시켜 계속 운영되었지만,¹¹⁵⁾ 도로교통의 발달에 따라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6. 맺음말

근대 인천의 철도교통은 개항장에서 식민지 외항으로 굴곡을 겪은 인천항의 변천과 궤를 같이하여 건설되고 운영되었다. 특히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본 수인선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부설과 군산, 목포 등의 부상으로 인천항의 독점체제가 붕괴된 이후 1920년대 후반부터 오랜 침체에 빠진 인천의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부설한 사설철도이다. 1921년 인천지역 일본인 사업가들의 단체인 ‘인천상업회의소’에서 처음으로 수인선과 한반도 횡단철도 건설을 주창한 것은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여 일본인 경제영역을 확충하고 미곡 등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여 인천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인선은 수여선을 부설한 ‘경동철도주식회사’에 인천지역 일본인들이 출자를 하는 형태로 구체화 되어 1937년 협궤 철도망으로 완공되었다. 수인선은 개통 후 수여선과 연계하여 중부내륙지방과 인천항간에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화물의 수송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수인선 개통 이후 수여선 연변의 미곡과 남동역 및 소래역 주변 염전의 소금 등이 속속 집하되면서 인천의 경기는 다시금 호황을 구가하였고, 인천항의 물동량도 크게 증가하여 노선의 광궤화 개량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0년 이후 일제의 전시경제체제와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해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114) 「法令 第75號 朝鮮鐵道の 統一」, 『美軍政法令總覽』, 韓國法制研究會, pp.199~200 ; 「운수부, 경남·경춘·조선철도 등 3개 사설철도의 접수식 거행」, 『서울신문』, 1946년 5월 3일 ; 「운수부총무과장, 3개의 사설철도회사 접수에 관해 기자회견」, 『東亞日報』, 1946년 5월 19일 ;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1948年版)』, 1948, pp. I -158~159 ; 鐵道廳, 『韓國鐵道史』2, pp.251~252.

115) 「水仁線 野牧驛 復活」, 『朝鮮日報』, 1949년 7월 18일.

일제강점기 인천의 도시 발전과정

- 1907년 인천 대화재에 대하여

추 교 찬

(인하대학교)

일제강점기 인천의 도시 발전과정

- 1907년 인천 대화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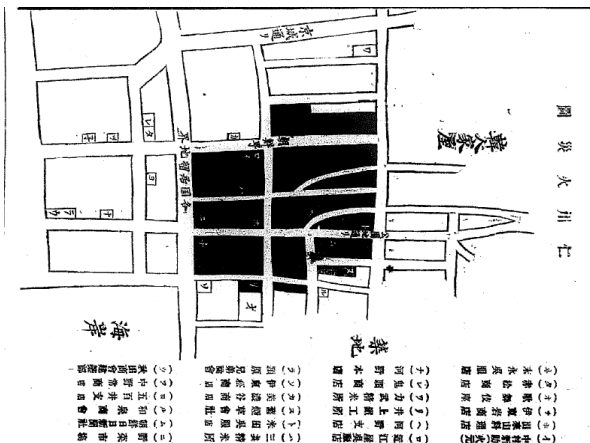
추교찬 (인하대학교)

■ 1907년 7번의 화재가 발생

■ 그 가운데 피해가 큰 화재

- 3월 5일 화재
- 7월 18일 화재
- 7월 31일 화재
- 10월 19일 화재
- 12월 16일 화재
- 12월 21일 화재

■ 1907년 3월 5일 화재



- 화재발생 지역

당시 조선정(朝鮮町) 1정목(현재 신포동 신포시장 일대)

- 화재 발생 시간 및 진화 : 새벽 4시 40분 무렵 ~ 9시 15분

- 화재 피해액

소실가옥 - 400여 호(한국인 · 중국인 · 일본인)

이재민 - 3,000여 명

손해액 - 200만원

- 주요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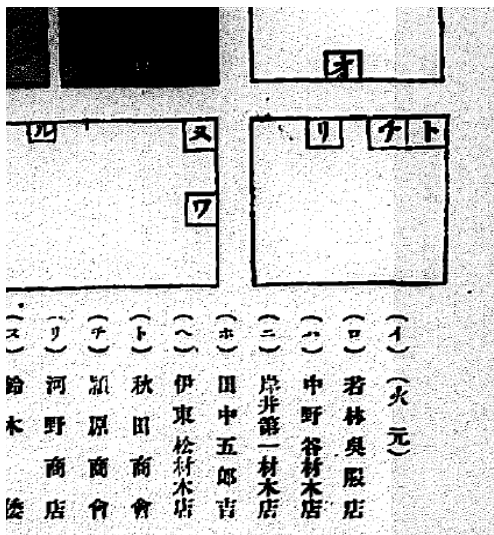
조선일일신문사(朝鮮日日新聞社), 택합명회사(宅合名會社),

중야곡상점(中野谷商店), 근강오복점(近江吳服店) 등

- 화재 원인

발화한 중촌신조(中村新助) 집 하녀 과실

■ 1907년 7월 18일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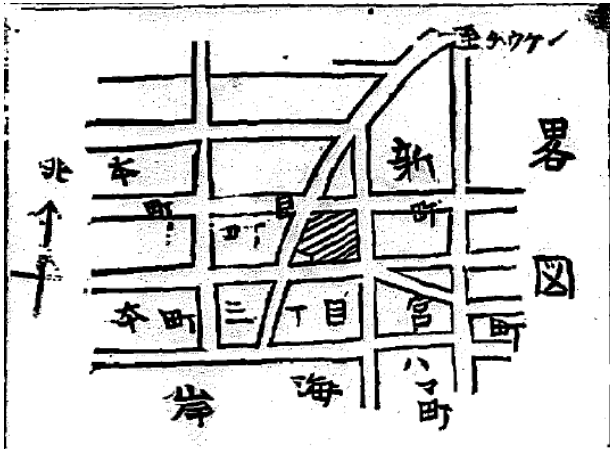


- 화재발생 지역

당시 본정(本町) 3정목 (현재 중구 중앙동4가 공영주차장 뒤쪽 제일 은행 앞)

- 화재 발생 시간 및 진화 : 오전 9시 30분 경 ~ 11시 30분
- 화재 피해액 : 소실가옥 50여 호, 피해액 20만원
- 주요 피해자 : 칼윌터, 중야곡수웅(中野谷秀雄) 등

■ 1907년 10월 19일



- 화재발생 지역
당시 본정(本町) 4정목 (현재 중구 중앙동 4가 염염집 아래 블록)
- 화재 발생 시간 : 오전 11시 20분경 시작 ~ 12시
- 화재 피해액 : 10만원
- 주요 피해자 : 천정병원(淺井病院) 등

■ 1907년 12월 16일 화재

- 화재발생 지역
당시 중정(仲町) 1정목(현재 중앙동 진흥각 제일은행 블록)
- 화재 발생 시간 및 진화 : 오후 7시 30분 경 ~
- 화재 피해액 : 15만원
- 주요 피해자 : 청한양행(淸韓洋行), 河野竹之助, 中野常次郎 등

■ 1907년 12월 21일 화재

- 화재발생 지역

당시 화방정(花房町) 2정목 (현재 북성동 차이나타운 풍미·공화춘 블록)

- 화재 발생 시간 및 진화 : 오후 3시 경 ~ 4시 30분

- 화재 피해액 : 창고 소실, 손해액 17,000~18,000엔

- 주요 피해자 : 木村清太郎 창고

■ 화재 이후의 대책

- 천황 및 통감, 민간의 피해금품 모집

- 일본거류민단 및 각국거류지회 경비로 소방 장비 구입

- 피해지역 도시 개조 및 도로 확장

- 건축 재료 강제

한국의 목공예

황 지 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목칠공예

황지현 (국립중앙박물관)

◆ 목 차 ◆

- I. 한국 목칠공예의 흐름
- II. 한국 목공예 이해의 기초
- III. 朝鮮時代 木家具
- IV. 韓國의 螺鈿漆器

I. 한국 목칠공예의 흐름

인류가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자연에서 가장 손쉽게 구하고 다룰 수 있는 재료는 나무였다. 나무는 사람의 손길을 거친 후에도 부드러운 촉감과 아름다운 나뭇결을 간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木工藝는 우리에게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잘 전해준다. 습기나 벌레의 해를 막고 장식으로도 이용된 漆工藝 역시 옷나무의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목공예 대부분은 그 바탕에 옷칠을 한 경우가 많아 목공예와 칠공예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목칠공예의 역사는 청동기시대부터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기원전 4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되는 牙山 南城里 遺蹟에서 출토된 칠조각(漆片)들은 이 시기 우리 나뭇대로의 木漆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목칠공예품 중 출토지가 확실하고 가장 오래된 것은 慶南 昌原 茶戶里 古墳群과 光州 新昌洞 유적지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기원전 1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이 곳 출토 木漆器와 그 제작도구의 수준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 목칠공예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3세기 경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삼국시대 목칠공예는 古墳壁畵, 역사서, 고분 출토품 등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平床과 음식상(食床), 백제 武寧王陵에서 나온 금속관을 덧붙인 옷칠한 나무 관(木棺)이나 금박·칠 그림(漆繪)으로 장식한 베개(頭枕)와 발받침(足座), 『三國史記』에 기록된 신라 목공木工 담당 관청과 고분 출토 漆器 등은 삼국시대 목칠공예품의 사용과 전문화된 제작기술에 대해 알려준다.

통일신라시대 목칠공예품으로는 경주 雁鴨池에서 출토된 나무 바탕에 칠을 한 木心漆器가 있다. 이것은 무덤의 겨문거리가 아닌 실제 생활용품으로서 당시 생활화된 목칠기의 사용과 제작기법의 발달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옷칠한 나무 容器에 銀板을 붙이고 다시 칠을 한 목심칠기는 나전칠기의 선행기법인 平脫기법이 이 시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관청의 물품을 관리하는 中尙署, 都校署에 목칠기를 만드는 여러 분야의 匠人이 소속되어 기술별로 분화된 작업을 담당하였다. 또, 『高麗史』, 『宣和奉仕高麗圖經』 등에 기록된 立式生活 가구와 儀式에 사용된 목칠기는 당시 다양한 목칠공예품의 제작과 사용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는 고려시대 목칠공예품은 대부분 나전칠기와 불교 관련 공예품이다.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교는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주어 남녀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한 집안에서도 남녀가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각각의 공간 특성에 맞는 목가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목가구는 좌식생활을 하는 韓屋에 맞게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았으며 일부 여성용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소하고 단순하게 제작되었다. 또 家廟制度의 실시로 조상에게 올리는 祭禮가 철저히 지켜졌는데 조상의 神主를 모시고祭를 지내는 祠堂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만들어져 집안 대대로 전해졌다. 목가구와 함께 나무 용기 표면에 칠, 자개, 얇게 펴서 채색한 소의 뿔인 華角으로 장식한 공예품도 활발히 제작되어 궁중이나 상류층 혹은 여성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II. 한국 목공예 이해의 기초

1. 나무의 종류

남북으로 국토가 긴 우리나라는 나무의 종류가 다양하다. 또,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의 영향으로 나이테가 선명하다. 나이테는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성장이 빨라 그 지름이 크고, 늦여름에서 가을에는 성장이 더뎠다 지름이 작아, 이것이 한 쌍이 되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나이테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무 종류에 따라 재질과 무늬결이 저마다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 제작하려는 물건 성격에 알맞은 목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목가구에 사용되는 나무는 힘을 받는 기둥재(骨材), 널판으로 사용하는 板材,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附材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기둥재는 곧고 단단한 나무의 곧은결(桎木)을 판재는 무늬가 뚜렷한 나무를 늘결(板木)로 마련하였고 부재는 소용돌이나 엇갈린 무늬를 이룬 뿌리 부근의 根材, 대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 소나무

우리나라 건축에서 가구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나무이다. 수축팽창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나뭇결이 부드럽고 시각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이므로 문방가구에 애용되었다. 가구의 기둥과 쇠목(두 기둥 사이에 가로 대는 나무), 동자(문판의 좌우, 상하에 위치한 널판을 나누고 힘을 보강하기 위한 나무) 등의 기둥재와 장과 농의 판재로도 사용되었다. 단단하고 습기에도 강해 찬장과 찬탁, 뒤주, 소반 등 부엌가구의 재료이기도 하였다.

○ 오동나무

오동나무의 섬유질은 습도 조절이 쉬워 종이, 옷 등 습기에 약한 물건을 보관하는데 적당한 재료이다. 또, 판재를 얇게 켜도 터지지 않고 가벼우며 광택이 없어 검소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사랑방용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단, 표면이 무르고 판재 색이 흰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무 표면을 인두로 지진 후 벗짚으로 문질러 단단한 무늬 결만 남기는 烙桐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수명이 길어 높고 굵게 자라는 나무이다. 또, 나뭇결이 아름답고 분명한 느낌을 주어 남성과 여성용품에 널리 사용된다. 반단이, 껌 등에는 두꺼운 판재로 사용되어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을 준다. 소용돌이 모양 무늬나 용목(龍木: 옹이나 밀동 근처의 옹이 뒤엎힌 형상의 무늬목)이 아름다워 장식재로 많이 사용되나 수축팽창의 폭이 크고 뒤틀리는 단점이 있다.

○ 떡감나무

단단한 감나무에 자연적인 검은 먹이 들어 있는 나무이다. 황갈색을 띠고 있는 바탕에 검은 색이 어우러져 추상적이면서도 水墨畫와 같은 느낌을 준다. 검소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랑방, 안방 모두 사용되었다.

○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넓은 판재를 얻을 수 있으며 얇게 켜도 터지거나 휘지 않는다. 또, 탄력이 있어 흠이 잘 생기지 않고 좀, 벌레의 해에 강하며 가벼워서 운반에도 편하므로 예로부터 소반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었다.

○ 배나무

배나무는 나뭇결이 곱고 탄력이 있으면서도 단단하다. 따라서 도장, 扇貂, 壯刀와 같은 물건을 조각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 또, 크기에 비해 큰 힘을 지탱할 수 있고 무늬결이 강하지 않아 탁자, 장과 농의 기둥과 쇠목(두 기둥 사이에 가로 대는 나무), 문변자(뒤틀림을 막기 위해 문판의 둘레에 대는 테두리) 등에 사용되었다.

○ 참죽나무

참죽나무는 나뭇결이 곱아 느티나무와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뒤틀림이 별로 없고 튼튼하며 큰 힘이 필요한 가구의 기둥재, 골재, 쇠목 등에 쓰

인다. 붉은 색을 띠고 있어 검은 오동나무 판재와 함께 사용하였다.

○ 피나무

부드러우면서도 넓고 두꺼운 재료를 구할 수 있어 속을 파내는 함지에 사용된다.

○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무늬결이 아름다워 장과 농의 앞 판재로 쓰인다.

2. 짜임과 이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목가구는 주로 온돌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온·습도의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 뒤틀림과 터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였다. 뚜렷한 온도의 차이로 아름다운 목리를 얻을 수 있지만 환경에 따라 수축팽창이 심하므로 넓은 판재는 휘거나 터지기 쉽다. 그러므로 짜임과 이음에 대한 구조적인 복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비교적 넓은 판재로 구성된 장과 농의 전면前面을 쇠목이나 동자 등의 골재로 분할하여 머름칸이나 쥐벽칸, 복판 등 좁은 면들로 재구성하였다. 무늬가 좋은 판재는 2~3mm 가량 되게 얇게 켜서 수축팽창이 별로 없는 오동나무나 소나무 판재에 겹을 엇갈려 붙인 후 골재에 끼웠는데 이 때 접착제나 금속 못 대신 홈에 끼우는 기법을 사용해 홈 안에서 수축팽창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넓은 판재를 사용하기 보다는 단단하고 가느다란 기둥재로 면을 분할하고 기둥재에 홈을 파고 판재를 끼워 넣어 환경 변화에 따라 목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보다 튼튼한 구조를 위하여 접착제나 나무못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였다. 이는 간결한 선과 명확한 면 분할이 특징인 조선 목가구 제작에 필수적인 방법으로 겹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까지 고려한 격조 높은 기법이었다.

1) 짜임

기둥재와 기둥재, 기둥재와 쇠목, 기둥재와 판재를 이어주는 방법이다. 겹으로 보이는 단면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 맞짜임

겉으로 보이는 단면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것. 속으로 축을 끼워 넣어 힘을 보강하였다.

○ 연귀짜임

단면을 서로 엇비껴 짜여진 부위가 45도로 만나는 짜임

○ 턱짜임

한 쪽의 단면을 다른 쪽에 새겨 물리는 방법

○ 사개짜임

단면이 마치 손가락을 맞물린 것처럼 짜는 방법

2) 이음

필요한 만큼의 목재가 없을 때 목재끼리 서로 이어주는 방법이다.

○ 쪽매이음

판재와 판재를 직접 이어주는 방법. 단면 모양, 이을 때의 처리 방법에 따라 빗쪽매이음, 반턱쪽매이음, 오늬쪽매이음, 제혀족매이음, 판혀쪽매이음 등이 있다.

○ 축이음

판재와 판재 사이에 축을 끼어 넣어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음을 보강해 주는 방법. 축 모양에 따라 나비장축이음, 원두축이음 등이 있다.

3. 꾸밈

1) 옷칠

옷나무에서 나오는 액을 칠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옷나무에 상처를 내면 액체가 나와 공기에 닿으면 암갈색이 된다. 이러한 生漆을 골고루 섞어가며 40℃까지 열을 가해 수분을 증발시키고 여과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없애 정제된 칠을 만든다. 우리가 보통 보는 검은 칠은 옷나무 액에 산화철을 넣어 검게 만든 것이고 붉은 칠은 정제된 옷나무 액에 수은 성분이 들어 있는 붉은 朱粉을 섞어 만든다. 붉은 칠과 검은 칠은 주로 궁중 용품에 이용되다.

2) 나전

소라, 전복, 진주조개의 속껍질을 잘게 썰어 만든 조각으로 자개 혹은 貝殼이라고도 한다. 진주 빛 광택이 나는 오색영롱한 빛을 띠면서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록빛깔을 띤 복잡한 색상의 전복껍질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나전을 목기의 표면에 붙여 장식하는 방법을 나전칠공예라고 한다.

3) 화각

물에 불린 어린 소의 뿔을 얇게 펴서 일정한 크기의 사각으로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것을 角地라고 하는데 그 위에 붉은 색, 노란 색, 초록색 등의 화려한 石彩로 그림을 그린 후 그림이 그려진 면을 물건 표면에 붙이는 것이다.

4) 대나무

- 낙죽법: 대나무를 뜨거운 인두로 지저 무늬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
- 양각법: 무늬를 선각하고 무늬 외의 바탕을 일정하게 긁어내고 검은 칠을 하여 무늬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
- 죽장: 나무로 된 물건 표면에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기하학적 무늬나 글자 무늬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

5) 낙동법

오동나무 판재의 표면을 뜨거운 인두로 지저서 태운 후 벚짚으로 문질러 단단한 무늬결만 남기고 연한 표면을 깎여 나가게 하는 방법.

6) 착색과 도장

자연 그대로의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때가 타고 표면이 약하여 흠이 나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면에 색을 입힌 후 기름이나 옷칠을 입히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착색은 감, 치자, 먹물을 이용하거나 생솔가지의 연기를 쏘이고 혹은 황토분이나 白土粉 혹은 산화철이 함유된 石間硃를 물에 타서 바르고 천으로 색의 농도를 조절하며 닦아낸다.

표면에 바르는 것으로는 호두, 잣, 동백, 피마자 등 식물성 기름을 사용

하는데 굵은 베로 표면을 문지르면 얇은 막이 형성되어 물건을 보호할 수 있고 윤기가 나게 된다. 또, 옷나무에서 채취하는 옷을 물게 하여 바르면 적당한 윤기와 함께 단단한 칠이 표면을 보호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4. 장식

장식은 물건의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고 목재와의 연결 부분, 모서리를 튼튼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나뭇결을 돋보이게 하는 금속 장식이다.

원래는 물건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힘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장식성과 화사함이 강조되는 여성용품에 장식용으로 장식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경상도 일원에서 크게 발달하였다. 재료로는 주로 무쇠와 주석 그리고 백동이 가구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선택되었다.

- 1) 경첩: 가구의 문과 몸체를 연결하여 문을 여닫는 기능
- 2) 들쇠: 가구를 들어 옮기거나 서랍, 문을 잡아당기는 기능
- 3) 고리: 문을 여닫을 때 잡아당기거나 다른 문에 걸쳐 자물쇠를 채우는 기능
- 4) 자물쇠: 여닫이문에 부착되거나 채워져서 열쇠로 열도록 하는 장치.
뽕침대, 고리, 앞바탕과 함께 구성

○ 불박이형 자물쇠

- 숨은 자물쇠: 자물통이 없고 자물쇠 장치가 감추어져 있거나 앞바탕위에 열쇠 구멍만 보이도록 한 것. 은혈자물쇠라고도 한다.
- 선자물쇠: 가늘고 긴 사각 기둥의 형태를 지닌 것. 쥐꼬리자물쇠라고도 한다.
- 두껍단이자물쇠: 자물통 속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아래 구멍에 열쇠를 밀어 넣어 열리도록 한 것. 북통자물쇠라고도 한다.
- 꺾쇠형 자물쇠: 철판과 앞면의 꺾인 부분에 ㄱ자형으로 금속판을 고정하고 원형 배꼽장식을 붙여 여닫게 한 것. 거북형 자물쇠라고도 한다.

○ 독립형 자물쇠: ㄷ자형 자물쇠, 물형 자물쇠

- 5) 앞바탕: 자물쇠, 들쇠, 고리 등의 받침으로 나무의 손상을 막고 장식 기능
- 6) 뺨침대: 위, 아래로 여닫는 문의 들쇠 역할, 자물통을 끼울 수 있는 역할, 문을 열어 젖혔을 때 뚜껑의 무게를 받쳐주는 역할
- 7) 광두정: 머리가 넓은 못으로 못자국이나 목재의 흠집을 감추는 역할
- 8) 감잡이: 모서리나 접합 부분을 양면에서 단단하게 감아 쥔 장식
- 9) 귀잡이: 두 목재가 이어지는 접합 부위에 직각으로 부착
- 10) 통귀삼: 3면이 모이는 귀통이 부분을 통째로 감싸주는 장식

III. 朝鮮時代 木家具

조선시대는 유교의 윤리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한 집안에서도 생활공간이 분리되었다. 따라서 사랑방, 안방, 부엌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목가구와 생활용품이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또,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한옥은 천장이 낮고 실내가 좁아 여기에 놓이는 목가구는 시각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고 간결하게 만들어졌다.

현재 전해지는 목가구는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들로 단단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4종의 곧은결을 기둥재로 이용하고 오동나무, 느티나무, 떡감나무 등의 늘결을 판재로 사용하여 자연스런 나뭇결의 재질을 살렸다. 또, 대나무 혹은 마디져 엇갈리거나 소용돌이무늬를 이룬 뿌리 부근의 목재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장식이 되도록 하였다.

1. 사랑방 가구

사랑방은 조선시대 家父長의 공간으로 학문을 닦는 서재 즉 文房이자 남자 손님에 대한 접대의 장소로 쓰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교류가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랑방은 주인의 안목과 격을 알리는 척도가 되어 士大夫들의 높은 안목과 세련된 취향에 맞도록 꾸며졌다. 사랑방의 주인인 사대부, 선비들은 비록 사회 지배층이기는 하였으나 淸

貧을 덕목으로 삼아 그들이 사용하는 가구나 생활용품도 간결하고 격조가 높은 것을 선택하였다. 재료로는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소박한 소나무와 오동나무가 주로 사용되었고 느티나무와 떡감나무의 나뭇결을 이용한 장식으로 自然美를 강조하였다. 특히 떡감나무의 검은 무늬는 마치 墨畫와 같아 선비들의 문방용품에 자주 애용되었다. 소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가구 중에는 인두로 지져 나뭇결을 드러내거나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표면에 붙여 장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보통은 들기름이나 호두 기름으로 표면을 문질러 목재가 트는 것을 방지했을 뿐이다.

○ 文匣

문갑은 서류를 보관하고 각종 문방용품을 진열하는 가구이다. 보통 뒷마당으로 통하는 창문 아래나 아랫목 옆 벽면에 놓았다. 높이가 낮아 벽면에 시원한 여백을 주었고 폭은 방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좁게 만들었다. 한 짝으로 된 單文匣과 두 개가 한 조를 이룬 쌍문갑이 있는데 단문갑은 보통 쌍문갑에 비해 높이가 비교적 높다. 소품을 넣기 위한 작은 서랍과 선반으로 이루어진 것과 서랍과 선반을 네 짝의 두껍단이 문으로 감춘 형태도 있다.

○ 四方卓子·卓子櫥

사방탁자는 사방이 트이고 각 층의 넓은 판재를 가는 기둥으로 연결한 가구로 책이나 玩賞品, 문방용품 등을 올려놓는데 사용되었다. 보통 3층이나 4층이 일반적이며 한 층이나 맨 아래 층에 문을 달아 장처럼 만들거나 서랍을 설치하여 보관의 기능을 높이기도 하였다.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으로 현대적 감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구로 평가받는다. 하단이나 중앙의 한두 층에 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측널과 뒷널이 막힌 형태는 탁자장이라고 한다.

○ 書案

서안은 글을 읽고 쓸 때 사용하는 책상의 일종이다 한옥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생활로 서안도 여기에 맞추어 책을 하나 정도 펼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에 높이도 낮았다. 재질이나 장식 등 주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것이 전해지지만 선비들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한 가구여서 단

순하면서도 격조가 높은 것들이 많다.

○ 經床

경상은 원래 사찰에서 불경을 읽을 때 사용한 책상의 일종으로 적어도 16세기 경에는 사랑방에서 서안으로도 사용되었다. 천판의 양끝은 말려 올라가 두루마리 귀를 가지고 있고 다리는 S자형의 虎足形 다리이며 다리에는 대나무 마디모양 혹은 당초무늬의 조각 장식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두루마리 귀는 두루마리나 접책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 硯床

연상은 벼루를 보관하고 종이, 먹, 붓 등의 文房四友와 연적 등의 소품을 한 곳에 모아두고 정리하는 문방가구로 서안 옆에 두었다. 연상은 벼루를 두는 뚜껑이 있는 상단과 소품을 놓은 트인 하단 그리고 그 중간의 서랍으로 구성되었다.

○ 紙筒

축으로 된 색간지(色簡紙:두껍고 질이 좋은 색 편지지)나 종이를 꽃아 보관하는 통

○ 考備

색간지나 두루마리 등을 옆으로 꽃아 보관하는 편지꽃이의 일종.

2. 안방가구

안방은 안주인이 자녀를 기르고 집안 살림을 이끌어 가는 공간으로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따라서 안방가구는 나뭇결이 아름다운 느티나무, 떡감나무, 물푸레나무가 주로 이용되었고 여성 취향에 맞게 나전이나 화각으로 장식되기도 하였다. 또, 사랑방가구와는 달리 꽃새와 같은 무늬, 富와 福, 長壽를 기원하는 十長生, 吉祥文 등으로 꾸며지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주석이나 白銅으로 만든 각종 금속 裝錫으로 부착하여 기능성과 함께 장식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 장과 농

장과 농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많은 의복과 버선, 옷감, 솜 등을 보관하기 위한 가구이다. 내부에 층이 있으나 측널이 분리되지 않고 한 판으로 되어 있으면 장, 각층이 분리되면 농으로 구분된다. 농은 한 짝씩 분리되어 움직이기 쉽도록 측널에 들쇠가 달려있다.

○ 의결이장

옷을 포개어 넣어 구김이 생기는 장과 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옷을 걸쳐 둘 수 있는 햇대를 내부에 설치한 옷장이다. 보통 2층으로 만들어져 위층에는 옷을 보관하고 아래층에는 冠帽나 帶 등 소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빗집

퇴발낭(머리를 빗을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는 종이), 빗, 거울, 빗치개, 빗술 등을 보관하는 함이다.

3. 부엌가구

조선시대 가옥에서 부엌은 방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해서 마당, 대청을 거쳐 방으로 운반하여야 했다. 따라서 부엌가구는 크게 부엌에서 사용된 종류와 음식을 나르고 밥상으로도 사용된 소반 종류로 나뉜다. 부엌에서 사용된 가구로는 찬장, 찬탁, 뒤주 등이 있다. 두꺼운 판재와 굵은 기둥으로 구성되어 단순하면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가옥 구조는 부엌과 방이 떨어져 있고 음식 그릇으로는 무거운 놋그릇이나 사기그릇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소반은 옮기기 편하고 그릇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면서도 판재를 얇게 썰 수 있는 나무가 사용되었다. 또, 한 사람이 상 하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크기가 작은 여러 개의 소반이 마련되어 소반의 숫자로 그 집안의 威勢와 생활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다. 다리 모양, 상판의 모양, 생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전한다.

○ 찬장과 찬탁

찬장은 그릇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가구로 그릇의 무게와 음식으로 인한 쥐, 해충의 피해를 고려하여 단단하면서도 해충에 강한 나무를 사용하였다. 찬탁은 식기를 얹어 놓는 가구로 유기나 자기와 같은 그릇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튼튼한 목재를 선택하였는데 중간층에 문을 달아 보관의 기능을 높인 종류도 있었다.

○ 뒤횈

곡물을 담아두는 가구로 크기가 다양하고 쌀과 잡곡을 구분해서 보관하였는데 보통 큰 것은 쌀을 작은 것은 잡곡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 소반의 종류

- 다리 모양에 따른 분류: 호족반, 구족반, 일주반 등
- 상판 모양에 따른 분류: 반월반, 사각반, 원반, 화형반 등
- 생산지에 따른 분류: 해주반, 통영반, 나주반, 강원반 등

4. 기타

○ 궤, 반닫이

나무로 짜서 옷, 제기, 책 등 다양한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다용도 가구이다. 나뭇결이 좋고 두꺼운 판재로 사개짜임을 하여 튼튼하게 만들고 무쇠로 된 큼직한 장식을 달아 단순하고 튼튼한 느낌을 준다. 반닫이는 앞판의 반 정도를 여닫이문으로 사용하여 천판 위에 이불이나 여러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 궤는 천판의 반 정도를 문으로 사용하여 윗닫이라고도 하였다. 반닫이에 비해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편이다.

○ 약장

한약재를 담아 두는 장으로 약재의 종류에 따라 많은 서랍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서랍에는 약재의 이름을 써 넣었고 하단에는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이나 서랍을 두어 극약이나 독약을 보관하였다.

IV. 韓國의 螺鈿漆器

1. 고대

한국 나전칠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직접적 기록이나 현존 유물은 없다. 그러나 古墳 出土 漆器나 관련 유물, 類似 裝飾技法의 存在는 통일신라시대 나전칠기 제작의 추정 근거가 된다.

가장 오래된 漆器 關聯 資料는 아산 남성리 출토 漆片이다. 이와 함께 樂浪 漆器나, 낙랑 칠기와는 다른 계통의 昌原 茶戶里 遺蹟 출토 칠기도 존재하고 있다. 百濟 武寧王陵 出土 頭枕과 足座, 新羅 天馬塚·皇南大塚 등에서 출토된 칠기는 三國時代 칠기 전통이 계속되었음을 알려준다.

기법상 나전칠기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평탈 기법이다. 특히 『三國史記』에 보이는 平脫器 使用 禁止 기록이나 雁鴨池 出土 平脫器는 통일신라시대 나전칠기 제작의 단서가 되고 있다.

2. 고려시대

현재 전해지는 한국 나전칠기는 고려(918-1392)의 작품부터이다. 고려 나전칠기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 아래 제작되어 더욱 우수한 품질을 이어갈 수 있었고 특히 왕실 전용물품을 제작하는 中尙署에는 螺鈿匠, 漆匠 등이 소속되었다. 1132년 高麗에 使臣으로 온 宋 徐兢의 『宣和奉仕高麗圖經』에 '細密하고 精巧하여 貴하다고 할만하다'라는 평가에서 나전 제작이 고려 전기에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또, 元宗 13년(1272) 元의 요구에 따라 大藏經을 넣어둘 함을 만들기 위해 鈿函造成都監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현존하는 나전경전함과 연결되는 기록으로 주목된다.

현재 전해지는 고려 나전은 세계적으로 20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고려 나전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자개와 함께 金屬線으로 唐草文의 줄기나 경계선을 만들고 적색, 황색 등으로 伏彩한 玳瑁를 같이 사용한 점이다. 이와 함께 경전함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문양인 국화문과 C形의 螺鈿片 여러 개가 합쳐 국화문을 감싸면서 문양을 구성하며

이러한 문양은 금속선인 줄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현존 고려 나전칠기는 대부분 불교용품, 여성용품이지만 기록상 나전 筆匣, 硯匣, 盆 등의 종류는 다양한 기종의 나전칠기가 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3. 조선시대

儒敎國家인 조선(1392-1910)이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 화려한 나전칠기는 이질적인 면모가 강했다. 그러나 조선 全時期를 통해 나전의 명맥이 끊어진 적은 없었다. 오히려 세련되고 정교한 고려 나전칠기와는 달리 조선 특유의 전통을 세워 발전해 나갔다.

조선은 국가 공업품 需要를 充當하기 위해 각 관청에 匠人을 예속시켜 서울의 京工匠에는 漆匠과 螺鈿匠이, 지방 官衙의 外工匠에는 漆匠이 所屬되어 나전칠기 생산을 담당하였다.

조선 나전칠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양 종류의 확대, 구도와 문양 배치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방법 등에서 조선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정착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또, 英祖, 正祖 이후 富의 축적과 신분질서의 변동을 바탕으로 나전칠기 사용 계층이 확대되고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선 나전칠기의 시기 구분은 대략 문양 종류와 표현 방법, 그리고 기법을 통하여 前期, 中期, 後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기는 15-1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고려 나전칠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계열과 꽃문양의 크기가 확대되고 문양의 배치가 자유로워지는 등 새로운 특징을 보이는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법적으로는 고려 나전의 전통을 계승하는 계열에서는 毛彫法이 나타나고 꽃의 크기가 커지는 계열에서는 打擦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기는 17-18세기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부터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정조 시기로 전기와는 분명히 다른 느낌의 작품이 나타난다. 즉, 四君子, 花鳥, 포도와 같은 문양 종류가 나전칠기에 응용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고려 나전칠기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제작된 나전칠기들도 나타난다. 그리고 前期에 새롭게 創案된 타찰법이 적극 활용되었다.

후기는 19-20세기 초이다. 이 시기는 나전칠기의 사용 계층이 늘어나면서 器種이 다양해지는 한편 문양의 종류나 표현도 전기나 중기와는 달리 대중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즉, 福을 기원하고 吉祥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文樣이 표현되거나 龜甲文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 山水文樣 등이 애호되었다. 특히 이 時期에는 타찰법, 꿰음질, 모조법 등 多樣的 技法들이 이용되었다. 이외에도 魚皮와 나전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器物 전체에 나전을 붙이는 방법도 말기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1994
 나선화, 『소반』, 대원사, 1989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982
 박영규, 『한국의 목공예』, 범우사, 1997
 박영규·김동우, 『목칠공예』, 솔출판사, 2005
 배만실, 『이조 목공가구의 미』, 보성문화사, 1978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이종석 외, 『목칠공예』, 중앙일보사, 1981
 최순우·박영규, 『한국의 목칠가구』, 경미출판사, 1982

<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문방제구』, 1992
 국립중앙박물관, 『김종학화백수집 조선조목공예』, 1989
 국립민속박물관, 『목가구』, 2006
 서울역사박물관, 『한국의 목가구』, 2002
 서울역사박물관, 『나무의 방』, 200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옛 가구의 아름다움』, 1996
 호암미술관, 『조선목가구대전』, 2002

고려초기 청자 및 녹청자

이 중 민
(충북대학교)

고려 초기 청자 및 녹청자

이종민 (충북대학교)

◆ 목 차 ◆

1. 남북국시대(통일신라)의 차문화와 중국도자
2. 차 소비지의 중심이동과 한국 청자의 출현
3. 국가운영체제의 확립과 청자중심 생산지의 이동
4. 품질의 다양화와 경서동계 조질청자의 생산

한반도에서 청자가 처음 제작되고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공예품으로 자리 잡은 계기는 차문화의 유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차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음용되었으며 남북국시대부터는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문화의 유행이 직접적인 청자제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아니러니하게도 혼란했던 9~10세기의 정세와 관련이 있으며 차도구를 중심으로 한 청자들이 처음 한반도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초기청자는 이러한 차도구가 중심이 된 초기의 청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위 ‘해무리굽완’이라 불리우는 다완과 관련 생산품들을 일컫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초기청자의 제작단계 이후, 청자는 여러 지방으로 확산되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렴한 생산비를 들인 청자류가 탄생하였는데 대충 성형하고 재성분이 많이 함유된 유약을 입힌 후 유색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대량생산했던 청자류가 바로 ‘녹청자’이다. 녹청자는 동시대에 제작된 청자류에 비해

품질이 매우 낮아 현재 조질청자라는 용어로 불리우며 인천 경서동 일대와 해남 진산리 일대의 가마터에서 생산된 예가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청자가 탄생하기까지의 시대적 여건과 청자가 만들어진 직후의 과정, 그리고 청자문화의 확산과정에서 품질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질청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남북국시대(통일신라)의 차문화와 중국도자

한반도에서 차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사료적인 근거는 善德女王(632~647)때이다. 그에 앞서 금관가야의 시조 金首露王의 부인 許皇后에 의해 인도로부터 차가 전래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사료는 없다. 본격적인 차의 성행시기는 興德王 3년(828) 大廉이 唐으로부터 차의 종자를 가져와 왕의 명으로 지리산에 심기 시작한 이후부터로 알려져 있으며 9세기에는 국내의 상류층사이에 차문화가 상당히 보급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차문화 유입이 국내 통일신라기의 차도구 형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상류층들의 고급기호를 만족시켜주는 문화적 요소들은 대부분 唐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와 관련한 도구 중국산 차도구들 역시 중국산 제품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통일신라시기에 제작되었던 많은 도기들중에서 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명은 당시의 상류계층이 살고 있었던 경주의 안압지 출토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일부 침탄된 넓은 바릿대(다완 추정)와 함께 茶俎로 알려진 경질도기가 출토되어 차문화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기명이 도기로 제작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 이외에 컵형태의 파수배나 녹유잔탁 등의 제작예가 사지나 건물지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 차, 술 등과 더불어 고급음료를 음용하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한 고급도기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통일신라시대에 차를 음용하는데 사용되었던 기명들은 무엇보다도 중국산 자기가 중심을 이루었다. 중국산 도자기는 당시에 중요한 수입품목의

하나였으며 집권층의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까지 통일신라시대에 수입된 중국도자는 심심치 않게 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출토예는 역시 王京이었던 金城(慶州)에서 보이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수입된 중국도자의 유형은 청자, 백자, 흑유자기, 삼채 등 중국에서 제작된 도자의 종류가 망라되어 있으며 도자의 원산지도 다양하다.

일제강점기때 경주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황유갈채첩화장식주자>는 長沙 銅官窯의 제품이며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시에 수습된 <청자완> 2점과 부여 부소산성 출토의 <청자완> 2점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중반 사이에 유행했던 중국 다완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이다.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월주요산 <청자화형완>과 함께 河北省 邢窯産 백자완 2점은 통일신라 말기에 급증했던 차문화의 유입과 음다풍습의 확산에 따라 수입된 도구임을 증명해준다.

장보고 유적으로 유명한 완도 장도에서는 1991~1997년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월주요계 청자완, 발, 호, 병, 주자, 향편 등과 함께 邢窯, 혹은 定窯系로 추정되는 백자완, 호, 제작지 미상인 갈유병편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통일신라말에 성립된 九山禪門의 하나였던 충남 보령 성주사지 출토품에는 중국 만당기의 월주요계 청자옥벽저완편, 정요계 백자옥벽저완편, 북송기의 요주요계 청자편과 정요계 백자접시편 등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9세기대에 수입된 중국산 도자의 예는 주로 다완이나 일부 주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발견지도 경주권일대와 각 지방의 사찰이나 건물지가 중심을 이룬다. 이와같은 사실은 통일신라 후대의 수입도자가 차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를 향유하는 계층은 상류의 집권층과 사찰에서 도를 행하는 스님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결국 이러한 음다풍습의 성행은 한반도에서 다완을 중심으로 한 청자의 제작을 개시하게 한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사진 1. 월주요산 완,
장사요산 물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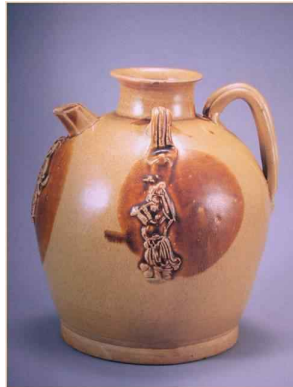


사진 2. 장사요산 주자



사진 3. 월주요산 완. 장도 출토

2. 차 소비지의 중심이동과 한국 청자의 출현

차의 유행과 수요는 9세기대의 남북국시대를 지나 10세기 초반의 후삼국, 곧이어 고려초로 지속되었다. 정치, 문화의 중심은 경주에서 개경으로 바뀌었으며 개성 주변의 권력층과 지방호족, 스님들이 여전히 차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10세기 초반의 후삼국시기는 치열한 영토권 확보전쟁으로 인해 차와 중국제 차도구의 유통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였으며 공급처 역할을 했던 중국의 경우도 五代十國이라는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차의 수요와 공급은 단절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추정된다. 이미 다례는 초기 고려정부에서 집행하는 각종 대소사와 외교사절의 접대 등에는 차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여기에서 차와 관련된 재료와 도구가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차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알고 있었던 초기 고려의 집권층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이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한 개성 주변에는 중국 남방의 대표적 청자가마인 越州窯와 같은 구조를 가진 가마들(塼築窯)이 건설되었으며 중국 차그릇 셀트와 똑같은 유형의 청자를 생산해 내기 시작하였다. 즉, 차문화의 확대와 필요한 차도구의 자체생산이 청자를 생산하게된 가장 큰 동기였으며 이는 중국인

도공들을 직접적으로 데려옴으로써 가능하였다.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도자생산은 지하굴형태의 소형가마에서 도기를 생산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지상에 건립된 40m 짜리 대형 전축요는 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가마였으며 이전의 단계와는 분명히 다른 생산시설물이었다. 10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청자를 생산한 지역은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일산시 원당, 양주 부곡리, 배천 원산리, 봉천 봉암리 등지였으며 고려정부가 주도하는 일정한 제도안에서 동일한 규격과 품목의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0세기 말경은 변화의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송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거란이 세운 요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장인의 주체도 중국인에서 고려인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다완을 모방한 형태는 변화되어 내저원각이 나타나고 굽이 좁아지는 변화를 보이며 그릇 종류도 다양화되었다. 또 여주 중암리, 서산 오사리, 진안 도통리, 대구 진인동, 칠곡 창평리 등지에서 전축요를 소규모화시켜 청자들을 생산하였다.



사진 4. 배천 원산리 요지

사진 5. 시흥 방산동 요지

사진 6. 시흥 방산동 출토 완류



사진 r. 시흥 방산동 출토 갑발류



사진 n. 시흥 방산동 출토 주자류

3. 국가운영체제의 확립과 청자중심 생산지의 이동

혼란했던 10세기의 고려정부는 4대 광종이후 호족들을 제어하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으며 6대 성종대부터 8대의 현종대에 이르는 10세기말~11세기초반 지방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제 한반도의 남단지역도 고려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11세기 초반에 이를 무렵 청자의 중심지는 한반도의 중서부지역에서 전남도서해안가가 중심이 되는 서남부지역으로 바뀌었다. 예로부터 강진을 위시한 서남부지역은 王建 가계에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이 일대는 전통적으로 도기요업이 성행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청자는 강진, 해남, 장흥, 고흥 등지의 해안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다양한 품질의 청자가 생산되면서 상당량은 서해안의 조운로를 따라 개성으로 흘러 들어갔다. 개성으로부터 먼 서남부지역으로 생산지가 이동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고려정부와 서남부일대의 세력간에 매우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공조체제가 가동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1세기의 청자중에는 고려의 식생활문화에 맞는 종류들이 생기고 형태도 일부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기종은 아직 차도구가 중심을 이루나 다른 생활용기들도 생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가마는 토축요로 불리우는 10여m 가량의 작은 소형가마에서 청자를 생산했으며 초벌기술을 새롭게 습득함에 따라 상품 청자는 비색에 가까운 유색을 보이기도 한다. 당시 청자생산의 중심은 강진으로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청자들이 생산되었으며 주변 지역의 요장에서 강진의 청자들을 모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11세기 이후 강진이 청자생산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는 적어도 고려 중기가 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사진 9. 강진 용운리
10-1호 요지



사진 10. 강진요 생산
청자완



사진 11. 강진 용운리
9호 출토 반구편병

4. 품질의 다양화와 경서동계 조질청자의 생산

11세기 후반경 청자의 품질은 더욱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초기 청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소위 ‘해무리굽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크기도 작아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완을 중심으로 한 초기청자의 제작과정은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특히 11세기 후반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요와의 관계를 적절히 청산하고 송과의 관계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한족의 본류문화가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약 80년간 거의 단절을 이루었던 송의 문화와 변화된 도자양식이 국내청자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 즈음인 듯하다. 청자의 형태는 변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종류의 기종이 만들어졌고 특히나 품질은 더더욱 다양화되어 최고급 청자류로부터 아주 저급하게 제작된 하품들도 생산되었다. 이때에 요업을 시작한 생산지들이 바로 인천 경서동과 해남 진산리 일대의 가마군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과 생산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간단한 성

형방식, 차별을 하지 않고 시유한 후 한 번에 구워내는 단벌번조방식, 가마구조, 태토와 유약의 조합 등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여 공급된 도자라기보다는 해당지역과 가까운 곳의 경제력이 빈약한 소비층을 위해 청자를 공급하던 곳이었다. 마침 시기적으로는 청자의 소비가 왕성해지고 소비도 일상생활뿐 아니라 무덤을 쓸 때에 청자를 중요한 부장품으로 인식하면서 상당량의 조질청자가 생산, 공급되었다.

인천 경서동의 청자는 품질면에서 수준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통의 청자가 없었다면 다양화된 청자의 소비욕구를 채워주지 못했었을 뿐 아니라, 청자의 소비층도 그만큼 한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인의 생활사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경서동의 조질청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사진 106. 해남 진산리 17호 요지



사진 105. 인천 경서동 요지



사진 107. 인천 경서동 출토 완



사진 108. 인천 경서동 출토 반구병



사진 109. 인천 경서동 출토 접시의 굽



사진 110. 안성 매산리 고분출토 일괄

토기의 이해

박진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토기와 이해

박진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1. 토기의 발생
2. 토기의 제작
3. 시대별 토기의 양상

1. 토기의 발생

빙하기가 끝나고 자연환경이 새롭게 바뀌면서 인류는 정착생활과 농경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식물성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기가 처음 제작되었다. 토기는 물에 개어 정선된 점토를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용기로, 이전 저장용 도구와는 다른 토기의 특성을 들자면 음식을 끓이거나 찌서 익혀먹을 수 있는 점과 식수의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식수와 식량의 저장과 운반범위를 넓히면서 인간 활동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다. 또한 토기는 식수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가능하였다. 토기의 제작방식, 성형방법, 장식 등은 토기를 제작하고 사용했던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사회를 복원하는데 단서를 준다.

2. 토기의 제작

(1) 점토

토기는 점토를 빚어 만드는 용기로, 점토는 1차 점토와 2차 점토로 구분된다. 1차 점토는 모암이 풍화된 것으로 흙의 입자가 거칠며 가소성이 부족하다. 1차 점토로 만들어진 토기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 등이 있다. 2차 점토는 모암으로부터 이동된 것으로 입자가 아주 작고 가소성이 풍부하며, 삼국시대의 토기 등이 2차 점토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점토는 토기를 굽는 가마 근처에서 채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채취된 흙은 잘게 부수고 불순물을 없애며, 첨가물을 섞어 토기를 성형하고 구울 시에 생기는 갈라짐과 뒤틀림 등을 방지한다. 첨가물에는 석영, 활석, 석면, 모래, 토기 가루, 조개껍질, 짚, 식물줄기, 등이 활용된다. 2차 점토인 고운 흙을 걸러내는 과정을 수비라 하는데 점토를 곱게 간 후 체에 걸러 불순물을 없애고 점토에 물을 부어 흙이 가라앉으면 물을 빼내는 것이다.

(2) 성형

토기의 전체적인 기형을 성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다.

- ① 손빚기는 점토를 손으로 주물러서 토기를 만드는 제작기법으로 토우나 소형 토기를 만들 때 사용된다.
- ② 테쌓기는 일정한 굵기의 점토 띠 고리를 만들어 한 단씩 쌓아 토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신석기시대 토기의 제작방법에서 확인된다.
- ③ 띠쌓기는 긴 점토 띠를 나선형으로 감아 올려 토기를 성형하는 기법으로 무문토기부터 사용된다.
- ④ 회전대 성형은 회전판에 점토 바닥과 띠를 붙이고 회전력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드는 기술로 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사용된다.
- ⑤ 물레 성형은 강한 회전에서 생기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토기의 형태를

뽑아내는 것이다. 비교적 발달된 기술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토기·옹기·도자기의 제작에 활용된 방법이다. 물레성형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토기의 크기가 크거나 귀, 꼭지, 띠, 손잡이, 다리 등이 붙어 있는 토기는 부분을 따로 만든 후에 서로 접합시켜 토기를 완성한다.

(3) 정면

토기의 성형이 끝나면 토기의 표면을 정리한다.

- ① 물손질은 손끝이나 가죽, 포등을 사용하여 토기의 표면을 다듬는 것으로 물손질과 회전물손질로 나누어진다. 나무판 등으로 된 정면도구를 대고 토기를 회전시키면 목리흔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② 문지르기(마연)는 도구로 토기의 표면을 문질러서 광택을 내거나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다. 토기 벽의 균열을 방지하고 수분이 토기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준다.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토기 등에서 나타난다.
- ③ 굽기는 조개껍질, 나무판 등을 토기표면에 대고 굽어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다. 점토대토기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④ 두드리기(타날)는 태토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고 기벽을 단단히 만들기 위해 두드림 판으로 표면을 때리는 것이다. 기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에 내박자를 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타날문토기가 있다.
- ⑤ 깎기는 표면을 칼이나 예새로 기벽의 일부를 깎아내는 방법이다.

(4) 소성

토기를 제작한 후 굽는 시설을 가마라고 하는데, 외부공기에 노출된 노천요와 공기가 차단되는 밀폐요로 나눌 수 있다. 노천요의 형태는 긴 도랑과 같이 생겼으며 온도는 600~800℃로, 공기에 노출되어 적갈색의 토기를 제작할 수 있다. 토기를 구울 때는 가마 바닥에 나무나 마른풀을 깔고 그 위에 토기를 놓은 후 다시 나무나 마른 풀을 덮고 그 위에 점토를 덮은 후 바닥에 깔 나무와 마른풀에 불을 지핀다.

처음에는 가마의 바닥이 평평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바닥이 경사지게 된다. 노천요는 신석기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 사용되었다.

밀폐요는 아궁이, 소성실, 굴뚝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바깥의 공기와 차단하는 구조로 평요와 등요 등이 있다. 제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성온도를 점점 높일 수 있게 된다. 밀폐요에서 제작한 토기들은 회청색 계열의 표면색조를 띄며 자연유리막이 형성되어 수분의 흡습성이 적어진다.

3. 시대별 토기의 양상

토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고 제작기술이 발달하게 되어 토기표면이 단단해지며, 기능에 따른 종류도 다양해진다. 선사시대의 토기들은 지역별 · 세력별로 다른 형태와 구성을 보이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고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광역적으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인다.

(1)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에는 빗살무늬토기가 사용되는데 지역에 따라 기형과 문양의 양상이 다양하다. 북부, 중서부, 남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의 형태가 각각 다르며,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에 중서부지역의 첨저형 빗살무늬토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분포하게 된다. 토기의 표면에는 새기개로 긁거나 토기의 표면을 누르는 문양, 점토띠를 붙인 문양 등이 있다.

(2) 무문토기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토기로 토기의 몸체에는 문양이 거의 없고 아가리 부분에 무늬가 있다. 아가리의 장식에 따라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외반구연토기, 점토대토기 등 다른 시기의 토기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홍도, 흑도, 채색토기 등이 있다.

(3) 경질무문토기 외

초기철기시대에는 기존의 무문토기가 경화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이 등장했다. 이는 요동지역의 전국계 타날문토기의 영향 하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후 한반도 서북부지역 낙랑의 영향을 받은 낙랑계 토기가 확인되기도 한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와질토기가 나타난다.

(4) 삼국시대 토기

철기시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는 국가가 형성되고 새로운 토기문화와 제작기술이 도입되었다. 이전에 비해 토기의 색조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흡수성이 적으며 태토가 곱고 단단해진 토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각 정치체와 지역에 따라 일정한 형식의 토기들이 형성되며, 고구려·백제·신라·가야토기라고 불리게 된다. 고구려 토기는 한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원통형의 납작바닥토기가 특징이고 백제토기는 둥근바닥의 항아리와 세발토기(三足器)가 대표적이다. 신라·가야토기는 굽다리접시와 높은 토기받침(器臺), 굽 있는 목긴항아리(長頸壺)가 특징적이며 토기들 중 특히 고온으로 구워져 석기(炒器)라고도 불린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 신라토기의 기형이나 문양에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찍은무늬(印花紋)이 유행하고 유약을 바른 토기가 사용된다.

1) 고구려

고구려 토기는 연질토기로 평저발(平底鉢), 양이호(兩耳壺), 단지 등이 대부분이다. 초기 3세기 이전에는 회흑색의 단지, 항아리, 잔이 사용되었으며 중기 4~5세기에는 회색, 황갈색의 줄무늬토기, 6세기 이후에는 더욱 다양해져 생활용구인 벼루, 베킶, 거울 등이 사용되었다. 사실 고구려 토기유물이 소량인 관계로 아직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백제

백제 토기는 흑회색 민무늬 경질토기 제작방법을 바탕으로 승석문과 갈

은 양식으로 사선문(斜線紋), 거치문(鋸齒文) 등의 문양을 보이고 있다. 기형은 원저호(圓低壺), 개배(蓋杯), 삼족기(三足器) 등이 있다. 또한 불교의 전파로 화장용(火葬用) 골호(骨壺)와 다양한 기대(器臺)를 의식용으로 사용하였다.

3) 신라-가야

신라토기에 뚜껑굽다리접시, 굽다리접시, 목긴항아리, 항아리, 손잡이잔 등의 종류가 있다는 점은 가야지역과 공통된다. 그러나 가야토기에는 뚜껑목긴항아리와 바리모양그릇받침이 많은 데 비해, 신라토기에는 굽다리 목긴항아리가 중요한 기종이다. 개별 기형(器形)의 수준에서 비교해 본다면 차이점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굽다리접시의 경우, 신라토기는 그릇뚜껑에 굽다리모양 꼭지가 부착되고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지는 데 비해 가야토기는 단추모양 꼭지가 달리고 애벌레무늬가 찍혀 있다. 굽다리의 형태에서도 신라토기가 직선적인 원통형의 굽다리를 이등분하여 아래위 엇갈리게 사다리꼴(梯形)의 큰 투창을 대각 하단까지 뚫는다면, 가야토기는 보통 곡선적인 나팔모양의 굽다리를 3단으로 구획하고 상·중 2단에만 세장방형(細長方形)의 좁은 투창을 상하 일직선으로 뚫는다. 물론 다른 기종에서도 이와 같은 대비는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기양식의 차이는 분명한 편이다.

고신라토기에서 통일신라토기로의 이행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신라기는 고신라 고유의 문화와 외래의 당나라 문물이 합쳐지면서 고유한 부분과 새로운 부분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토기만의 특징이 나타난다. 통일신라토기의 특징은 다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가진 뚜껑없는 굽다리접시(無蓋式高杯)의 등장, 인화문(印花文)토기의 성행, 그리고 유약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신라 후기토기에서 보였던 뚜껑받이가 있는 뚜껑굽다리접시는 아직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기 토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 예는 경주 충효동 돌방무덤(忠孝洞石室墳)에서 출토된 토기들이며, 그보다 조금 늦은 예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이다. 이 안압지는 674년에 완공되었으므로, 이 인공연못에서 발굴된 토기들의 상한연대는 바로 이 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안압지는 8-9세기에 걸쳐 실제 사용되었던 일상용토기의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주로 인화문이 날인된 주발형토기와 화병형의 토기가 많이 나왔고, 벼루나 장군, 약탕관모양의 그릇 등 다양한 모양의 토기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한편 울릉도 천부동(天府洞) 고분에서는 목이 긴 병과 몸의 한쪽이 납작해진 특이한 모양의 토기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 초인 9-10세기의 토기들로 여겨진다. 고신라토기는 4세기 무렵부터 통일이전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 성격을 여러 번 바꾸면서 후대에 이르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신라토기의 전통은 실제로는 통일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명맥을 잃고 있다. 그러나 그 전통은 통일신라기의 일상용토기를 통하여 고려시대로 넘어 갔고, 또 형태와 질은 바뀌었지만 조선시대의 옹기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토기장>

① 인화문토기대접

구연이 직립하였으며 반원형의 몸체에 밖으로 벌어지는굽이 붙어 있는 형태로 그릇의 내·외면에는 반원권문이 찍혀서 표현되고 있다.

② 인화문토기광구병

넓은 구연에 긴 목, 납작한 몸체의 기형으로 병의 외면에는 이중원권문, 점열문 등이 도장무늬처럼 찍혀서 표현되었고 문양이 바뀌는 경계에는 선문이 돌아가고 있다.

③ 유개고배

다리에는 엇갈려 2줄의 투창이 뚫어져 있고 뚜껑의 손잡이는 다리와 유사하다. 고배는 제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④ 유개고배

신라기의 고배에 비해 다리의 투창이 소형으로 되었으며 전체적인 크기도 작아진 모습으로 뚜껑에는 통일신라기 대표적인 문양인 인화문이 찍혀져 있다.

⑤ 파상문장경호

긴 목은 3등분되어 그 사이에 파상문이 시문되고 있고 그 밑으로 편구형의 몸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배와 함께 삼국시대 영남지역에서 출토 되는 대표적인 그릇의 종류이다.

⑥ 원저단경호

원형바닥을 가진 구형 호(壺)로, 어깨부분부터 승문과 횡침선이 촘촘히 시문되어 있으며 두 개의 이(耳)가 달려 있다.

(5) 고려시대

청자와 백자가 탄생되는 시기지만, 역시 토기가 더 널리 쓰였다. 이 토기의 형태가 청자의 형태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청자와 토기제작이 병행되었으리라 추측된다.

1) 고려도기

고려도기는 통일 신라토기의 연장선상에서 청자와 다른 계통으로 서민들의 용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도자문화가 청자에 맞춰짐으로써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고려초기(918~1100년)의 도기 가마터는 영암 구림리와 강진 용운리가 대표적이다. 통일신라 질그릇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경질의 회청색 질그릇과 연질의 회흑색 질그릇이 제작되었다. 돌대 장식이 있는 큰 질그릇 항아리들과 사각병, 광구병, 작은병, 대발 등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듯 만들어졌으며, 11세기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광구병과 항아리가 제작되었다. 기벽도 얇아지고 세련되어지며 접시, 완, 합 등은 청자로 제작되어 구분

중기(1100~1250년)의 질그릇들은 청자의 발달과 함께 더욱 세련되어지며 매병, 기름병, 주전자, 정병 등이 청자, 청동그릇과 같은 형태로 제작된다. 회청색의 경질도기가 주류를 이루며 약간의 연질도기도 만들어진다.

후기(1250~1392년)의 질그릇들은 기벽이 두꺼워지고 몸체에 타날기법의-dot자리무늬가 남아 있는 매병, 장군, 호, 술병등이 주류를 이룬다. 청자의 형태와 같은 주전자, 매병, 술병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이들 질그릇들

은 신분, 생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도기장>

① 토기소병

- 전체적인 크기와 입구가 작고 몸체는 둥글게 팽만한 형태의 이러한 소형 병들은 고려시대 기름병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인화문토기병

- 광구형 입, 긴목, 긴 타원형의 동체, 받침대가 달린 기형의 병으로 표면에는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통일신라기의 인화문토기병과 유사하다.

③ 토기편호

- 넓은 입구를 가진 장동형의 몸체의 양쪽 면을 눌러 편평하게 만든 호로, 표면에는 성형과정에서 생긴 문양과 유약이 남아 있다.

④ 토기호

- 구연에는 돌대가 돌아가고 있어 요철면을 이루며 어깨부분이 둥그렇게 팽창하였다가 다시 서서히 좁아져 저부에 닿는다. 표면에는 물레질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⑤ 파상문토기호

- 짧게 직립한 구연 밑으로 편구형의 몸체에 대가 달린 호(壺)로, 어깨 부분에는 두 줄의 파상문이 돌려지고 있다.

⑥ 토기호

- 편구형의 몸체에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몸체의 중앙부분에는 두 줄의 돌대가 돌아가고 있다.

⑦ 토기호

- 어깨부분이 둥그렇게 팽창하였다가 다시 서서히 좁아져 저부에 닿는 기형의 호(壺)로 어깨에는 4개의 이(耳)가 달려 있다.

⑧ 과형토기주전자

- 흑회색의 경질토기로 참외모양의 몸통과 뚜껑에는 8개의 골이 위, 아래로 이어져 있으며 뚜껑과 손잡이 앞에는 귀가 달려 끈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 기와막새

기와는 양질의 점토로 제작틀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을 만든 후 구워낸 건축부재이다. 지붕을 덮어 눈과 빗물의 침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건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부재이다.

한반도에 기와가 처음으로 유입하게 된 것은 중국의 한(漢)의 무제(武帝)가 위만조선을 기원전 108년에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기원전 2-1세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를 전후하여 한반도의 북부지방에 목조기와집의 건축술이 새로 등장하여 유입되었다고 생각된다. 원래 목조건축의 지붕에는 이엉이나 벗짚, 그리고 나무껍질과 같은 식물성 재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구성이 약하여 자주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방수효과나 강도가 높은 점토소성품으로서 기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기와는 그 동안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나누어져 각각 특색 있게 전개되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폭넓은 복합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사상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기와문화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기와는 지붕에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그 모양이나 명칭이 각각 다르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 편인데, 현 전시되어지고 있는 기와는 지붕의 추녀 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와인 막새로써, 수키와 끝에 원형의 드림새가 부착된 수막새와 암키와 끝에 장방형의 드림새를 부착한 암막새로 구분되고 있다. 막새는 암·수키와의 한쪽 끝에 각각 접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연화, 당초, 보상화, 귀면, 금수 등의 다양한 무늬가 드림새에 장

식되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채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고려시대를 지나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전통적인 기와의 형태는 점차 변형되고 제작수법도 퇴락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전통적인 기와 제작 술의 단절과 함께 우리의 고유기와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그 맥을 오늘에 잇지 못하게 되었다.

막새기와의 경우 드림새부분을 보면 삼국시대에는 연꽃무늬와 인동문 등이 모티브가 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용성과 관련된 범자문양이 유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용, 박쥐, 회문, 연화문, 초문 등 다양한 문양이 확인된다. 함께 전시되어 있는 중국기와에는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자와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와에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다.

<기와막새장>

① 연화문수막새

적색계열 수막새로 중앙에는 자방, 그 외부에는 4개의 연잎과 인동문을 배치하고 문양부의 테두리를 연주문으로 둘러쌌다. 자방과 연잎은 여러개의 선으로 표현되었다.

② 연화문수막새

적색계열 수막새로 중앙에는 자방, 그 외부에는 4개의 연잎과, 기하학적으로 변형된 꺾수문을 배치하고 문양부의 테두리를 도드라진 선문으로 둘러쌌다.

③ 연화문수막새

회색연질계로 연자가 표현된 큰 자방과 넓은 부채꼴 모양으로 부드럽게 표현된 8개의 연잎이 정형화된 형태로 배치되었다. 사이잎은 'T'자형으로 가늘지만 뚜렷하게 두었다.

④ 연화문수막새

주연부의 처리가 조약하며, 중앙에는 4과의 연자가 있는 자방이 있다. 8엽의 연잎사이로 3각형으로 돌출된 특유의 사이잎이 배치되었고 연잎의

끝은 각이 져 있다.

⑤ 연화문수막새

연잎이 내·외판 이중으로 중첩되었으며 모두 단엽의 모습으로 8엽·16 엽의 개수이다. 연잎의 형태는 유사하다.

⑥ 연화문수막새

통일신라기의 연화문은 연잎이 작아지고 개수가 많아지며 내·외 이중으로 중첩된다. 연잎이 작은 편으로 내판은 5엽, 외판에는 11엽이 자리 잡고 있다.

⑦ 연화문수막새

자방에는 1+8과의 연자가 놓여져 있으며 연잎은 중판구성으로 내판은 단판이고 외판은 2개의 연잎이 붙은 복판이다. 연잎과 사이잎의 배치가 정형화되어 있다.

⑧ 귀면문수막새

악귀의 침입을 방지하려는 벽사의 상징으로 귀면을 장식하였으며 수면(獸面)을 의장화하였다고 하나 일부에서는 보주를 물고 있는 용의 특징도 찾을 수 있다.

⑨ 당초문암막새

막새의 위·아래 부분에는 연주문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문양부에는 당초문이 둘러져 있다.

고려시대 청자

장 남 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시대 청자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 목 차 ◆

1. 청자의 기술적 의미
2. 중국의 청자 발달
3. 고려 청자백자의 시작
4. 비색청자의 완성과 발달
5. 여러가지 제작방법과 장식
6.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조형미의 변화
 - 상감청자

1. 청자의 기술적 의미

고려의 청자는 점토로 기물을 만들고 유약을 입혀 1,150℃ 내외의 고온에서 구워낸 자기이다. 이 때 태토와 유약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초에는 1차번조로 청자와 백자를 구웠으나 대략 11세기경부터는 700~800℃에서 구워낸 후 유약을 입히고 다시 굽는 2차 번조가 일반화되었다. 청자를 제작하려면 선결해야 할 기술적 요건이 있다. 우선 1,000℃ 이상의 고온을 낼 수 있는 가마시설과, 높은 온도에서 녹는 잿물 유약[灰釉] 기술이 그것이다. 또 푸른빛을 내려면 환원번조의 기술도 전제되어야 한다.

2. 중국의 청자 발달

중국은 여러차례 정치적 혼란과 안정을 거듭하지만 대외무역과 경제가 활성화되는 수(隋), 당(唐), 오대(五代)에 이르러 자기생산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수(隋, 581~618)대에는 양자강 이남은 물론 양자강 이북에도 자기가마들이 발달하였으며 위진시대의 뒤를 이어 청자발달이 계속된다. 태토 색이 밝아지고 유약의 점도와 광택이 개선되었다. 하북성 자현(河北省 磁縣)과 하남성 공현요(河南省 鞏縣窯)등지에서는 백자의 생산이 활발하여 북방의 도자기 산업에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백자 외에 청자도 함께 발견되어 수대에 이미 백자와 청자의 생산과 사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새로운 기형, 특히 계수형(鷄首形)의 구연부 형태를 띤 병과 장식을 부착한 기물들이 많아지며 인화(印花)·첨화(貼花)·획화(劃花)기법 등이 사용되었다. 문양 가운데는 연판문(蓮瓣文)이 증가하며 금속기를 모방한 복잡한 디자인도 유행하였다.

당(唐 : 618~907)대에는 국가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長安은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국제도시로서 번성하였는데 동전 주조를 위해 동기(銅器)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자기 사용이 증대된다. 특히 음다(飲茶) 풍습이 유행하여 제다(製茶)를 위한 다구(茶具)가 발달하며,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을 통해 당대 차의 종류와 다구로 사용되는 도자기들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청자는 태토와 유약의 접착이 좋고 색이 안정된 고급품을 생산하게 되며, 백도(百度)와 유약의 투명도가 높은 백자 생산이 가속화되었다. 상우, 영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월주요(越州窯), 온주의 영가 를 중심으로 구요(歐窯), 금화·무차 지방이 중심이었던 무주요(婺州窯)등지가 청자의 중심으로 그 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유사한 도자기들을 생산하였다.

이 때 남방의 절강성 월주(越州)지역과 북방 형주(邢州)의 청자와 백자는 당시 중국도자의 양대 맥을 형성하여 “남청북백(南青北白)”이라는 유행어를 낳았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되어 명성을 떨쳤다.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중엽까지는 청자와 백자 다완들 가운데는 굽의 접지면을 두텁게 깎는 이른바 “옥벽저(玉璧底)”가 유행한다. 9세기 이후 안록산의 난을 거치고 절도사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들이 자기 세력권내에 있는 지역의 특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으니 절강지역 차와 청자는 중요한 특산물이었다.

당~오대(五代, 907~960)에 이르는 시기는 당, 오대 10국, 후삼국, 고려, 거란이 동아시아에 공존하던 시기이다. 10세기 중국은 지방분권으로 절도사의 세력이 강화되어 경쟁적인 도자기 제작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위한 관요(官窯)적 성격의 가마 발달한다. 청자는 절강성 상우와 소흥(紹興)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월주요가 특히 유명하였는데 오월국(吳越國)의 전씨(錢氏)왕실 비호하에 비색(秘色)청자가 생산되었다.

3. 고려 청자·백자의 시작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黃海南道伯泉郡圓山里)를 비롯하여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京畿道始興市芳山洞),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龍仁郡以東面西里), 경기도 여주군 중암리(京畿道驪州郡仲岩里),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楊州郡長興面釜谷里)·원당면 원흥리 (元堂面元興里)·안양시 비산동 (安養市飛山洞), 충청남도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 (瑞山郡聖淵面梧沙里)·보령군 천북면 사호리 (保寧郡川北面沙湖里) 등지에는 현재도 대규모의 가마터들이 남아 있다. 물론 최근까지의 조사를 통해 보면 대구시 동구 진인동과 강원도의 강릉(江陵) 같은 한반도 동부지역에서도 고려시대 청자 요지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 고려초기에 청자를 제작했던 요장(窯場)들은 황해도와 경기도를 비롯 충청남도, 전라도로 이어지는 한반도 서남부에 집중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서해에 면(面)한 개경이 수도였다는 점과 도자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해상운송로가 중요하게 이용되었던 점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초기 청자의 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마축조 및 원료의 선택 등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기술의 국내 유입이다.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요지 발굴에서 퇴적층 조사 결과 청자·백자를 생산한 가마와 중

복되는 층위에서 이전에 축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기가마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청자가마와 도기가마 사이의 손상되지 않은 퇴적층 단면에서 시간적인 선후(先後)는 보이거나 휴지기 없이 작업이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청자의 발생 또는 도입과정에서는 기존의 도기와 다른 생산방식 및 기술이 급격히 이식(移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0여m 길이의 벽돌가마[塼築窯]와 가마재임에서 사용된 다양한 요도구 및 가마재임 방법, 제작된 자기들의 양식면에서 볼 때 한국의 청자 생산 과정에서는 중국의 월주요계 청자기술의 전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에서 발굴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에는 청자 뿐만아니라 백자도 함께 생산되어 우리나라에서 백자의 연원 역시 고려초로 올라간다.

한편, 최근까지도 한국의 초기청자 제작과 관련하여 장보고와의 연관설을 주장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역사적 사실의 정황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고려초 국가권력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제작지가 개경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점, 가마터에서 왕실의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물들이 발견되는 점 등에서 그렇다. 나아가 경기 북부지역에도 국가의 수공업품을 공급하던 자기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한국의 초기청자 제작시기 요업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4. 비색청자의 완성과 발달

고려의 청자는 국가적 안정을 바탕으로 중국 주도의 도자 산업사에서 갈수록 뚜렷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즉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청자 생산이 시작되는 10세기 이후부터 강진이 요업 중심지로 부각되는 11세기까지 청자 발전기에는 청자의 질과 형태, 그리고 문양이 안정된다. 그러나 거란의 침입으로 고려와 중국의 공식적인 국교 단절이 이어졌으므로 11세기 청자에는 외래적인 특성보다는 고려적인 특징이 강하다. 그러나 12세기경에 이르면 그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려의 특징이 드러난다. 즉 이미 생활용기로서 자리 잡은 청자는 오래 전

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도기류나 금속기의 형태적·기능적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응용하면서 도자만의 새로운 조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인종 원년(1123)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공의 수행 기록인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내용에서 “고려 사람들은 도기 가운데 푸른 빛을 띠는 것을 비색(翡色)이라 한다” 라고 하며 중국인의 눈으로 본 청자향로[陶爐], 청자향아리[陶樽]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인이 그들의 청자를 ‘비색(秘色)’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과 달리 고려인은 자신의 청자를 ‘비색(翡色)’이라 하여 중국의 그것과 구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고려인들이 청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중국과 구별되는 미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또 清代에 지어진 《경덕진도록(景德鎮圖錄)》에서도 고려시대 청자에 대해 중국의 이름난 가마인 월주요나 남송관요, 여요(汝窯) 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참외모양 그릇과 술잔, 사자모양의 향로 등은 중국과 자못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고려 청자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독자적인 생산체계와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정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종대(1122~1146)에는 안정된 대외관계를 바탕으로, 비록 내치의 혼란은 있었으나 문풍(文風)이 진작되고 불교 및 예술이 발달하였으니, 청자의 조형도 이와 분위기를 함께 하였다.

고려의 비색은 이처럼 12세기를 정점으로 중국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칭송을 받았다. 중국 남송의 태평노인이 지은 《수중금(袖中錦)》에는, “건주(建州)의 차(茶), 촉(蜀) 지방의 비단, 정요(定窯)백자, 절강의 차 …… 고려비색(高麗翡色) …… 모두 천하의 제일인데 다른 곳에서는 따라 하고자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 하여 천하의 명품들 가운데 고려청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백자의 경우 하북성 정요 제품을 제일로 여기면서도 청자에 관해서는 ‘고려비색’이 천하제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능가하는 독특한 세련미를 보인 고려청자의 완성도에 대한 감탄이며 고려비색이 주는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특히 이미 당~오대를 거치면서 질 좋은 청자를 보았던 중국인들이 송대에 이르러 이처럼 고려비색에 마

음을 빼앗긴 것을 더욱 그러하다.

인종 원년(1123)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공은 수행 기록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는 “고려 사람들은 도기 가운데 푸른 빛을 띠는 것을 비색(翡色)이라 한다” 라고 하며 중국인의 눈으로 본 청자향로[陶爐], 청자항아리[陶樽]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인이 그들의 청자를 ‘비색(秘色)’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과 달리 고려인은 자신의 청자를 ‘비색(翡色)’이라 하여 중국의 그것과 구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고려인들이 청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중국과 구별되는 미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또 청대(清代)에 지어진 《경덕진도록(景德鎮圖錄)》에서도 고려시대 청자에 대해 중국의 이름난 가마인 월주요나 남송관요, 여요(汝窯) 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참외모양 그릇과 술잔, 사자모양의 향로 등은 중국과 자못 다르다고 하였다. 이는 고려 청자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독자적인 생산체계와 기술을 이미 보유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고려도경》<도로(陶爐)>에서도 “산예출향(狻猊出香)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양련(仰蓮)이 있어서 그것을 받치고 있다. 여러 기물들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절(精切)하고 그 나머지는 월주(越州)의 고비색(古秘色)이나 여주(汝州)의 신요기(新窯器)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하여 당말 오대 월주요 비색청자나 당시 북방의 대표적인 여요(汝窯) 등지의 새로운 천청색(天青色) 청자류와 조형적으로 연관함을 피력하고 있다.

고려의 비색은 이처럼 12세기를 정점으로 중국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칭송을 받았다. 중국 남송시대 태평노인이 지었다고 전하는 《수중금(袖中錦)》에는, “건주(建州)의 차, 촉(蜀) 지방의 비단, 정요(定窯)백자, 절강의 차 …… 고려비색(高麗翡色) …… 모두 천하의 제일인데 다른 곳에서는 따라 하고자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 하여 천하의 명품들 가운데 고려청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백자의 경우 하북성 정요 제품을 제일로 여기면서도 청자에 관해서는 ‘고려비색’이 천하제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능가하는 독특한 세련미를 보인 고려청자의 완성도에 대한 감탄이며 고려비색이 주는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특히 이미 당~오대

를 거치면서 질 좋은 청자를 보았던 중국인들이 송대에 이르러 이처럼 고려비색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더욱 그러하다.

《백보총진집(百寶總珍集)》 권9의 <청기(靑器)>라는 대목에서도 중국의 여요((汝窯)자기 태토가 매끄럽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고려에서 새로 만들어 낸 것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최근 중국 절강의 항주(杭州) 같은 남송대 수도가 있었던 곳에서는 적지 않은 고려 청자가 건물터나 황궁터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음이 보고 되기도 한다. 대부분이 최상급의 고려비색 청자들이다. 중국으로부터 청자기술을 도입한 지 100여년 만에 중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이룬 것이다.

5. 여러가지 제작방법과 장식

청자는 형태와 제작 방법에서 도기나 금속기와는 다른 독자성을 갖는다. 즉 흙의 특성과 제작의 목적에 따라 도기와는 다른 다양한 제작방법이 시도되는데, 물레성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틀[型]을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문양을 눌러 찍거나, 또는 서로 형태가 다른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 접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청자는 표면장식에 따라 무문청자·음각(陰刻)청자·양각(陽刻)청자·철화(鐵畵)청자·진사(辰砂)청자·화금(畵金)청자·철채(鐵彩)청자 등으로 나눈다. 그 가운데 순청자는 무늬장식이 없는 순수한 청자이며, 음각청자는 순청자 위에 음각기법으로 꽃이나 기타식물 또는 장식 문양을 넣은 경우를 말한다. 양각청자는 무늬를 돌을 새김하여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고 철화청자는 유약을 입히기 전에 붓에 철분 안료를 묻혀 회화적 방법으로 무늬를 그린 것이다.

그밖에 그릇의 벽면을 뚫어 장식하는 투각(透刻), 백토(白土)를 바르는 퇴화(堆花), 다른 색의 흙을 섞어 만든 연리문(練理文)청자와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를 본떠 만든 상형(象形)청자 도판(陶板) 등이 있다. 한 마디로 고려의 장인들은 인간이 흙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방법들이 시도되고 다시 반복되며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6.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조형미의 변화 - 상감청자

‘상감’의 어원은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도자기를 비롯한 나무, 유리, 금속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안에 금·은·나전·흙·보석·자개 등을 넣어 채우는 장식기법을 총칭한다. 일본에서는 상안(象眼)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금속의 경우에는 착금(錯金), 도자의 경우에는 양감(鑲嵌) 또는 전채(填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상감기법은 그 역사가 오래되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이미 상아에 철제장식을 상감했으며, 초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미 조개를 이용하여 상감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청동기에 금·은을 선 또는 면으로 상감한 예나, 유리나 터키석을 금속장식구에 감입한 예가 적지않게 남아 있고, 한 대(漢代)에도 청동대구나 수레장식구 등에 정교한 상감을 사용한 바 있다. 이후 당대에 이르면 금속, 유리, 보석 등 여러재료를 활용한 상감기법이 특히 금속공예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금속공예에서 보석이나 다른 금속, 유리 등을 감입한 예가 있는데, 특히 升平 13年銘 백제 칠지도(七支刀)의 예로 보면 일찍부터 일부 고급 기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나전칠공이나 은입사 등에서도 그 재질과 명칭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방법을 응용하는 기법이 이미 공예 여러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은 알려져 있다.

고려도자 가운데 상감이 시문된 청자·백자는 이미 고려 당시부터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관심을 받아왔다. 상감청자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12세기 후반 이후 부터이지만 그 시작은 10세기 경 초기청자 제작기부터 엮음이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상감은 바탕이 되는 재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거나 또는 바탕과 색이 다른 물질을 집어 넣는[감입: 嵌入] 보편적 공예기법으로 동서양에서 모두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고려의 금속공예에서는 ‘입사(入絲)’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청자의 경우 몸체에 무늬 부분을 선 또는 면으로 파낸 후, 문양 부위나 또는 바탕에 백토(白土)나 자토(赭土)를 넣어 메우고 다듬어 유약을 입혀 굽게 되므로, 굽게 되면 문양은 백색 또는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청자의 푸른 바탕 위에서

강한 색채의 대비를 이루었다. 도자기에 상감 기법이 사용된 예로는 중국 당(唐)대 북방의 황보진요(黃堡鎮窯)에서 만들어진 흑유자기 가운데 일부 나타나고 최근 중국의 산서성(山西省) 혼원계장(渾源界莊) 요지에서는 12세기중엽 이후 금대(金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감청자류가 발굴되었으며, 하북성 자주요(磁州窯)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의 상감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들 가마에서는 색깔과 질이 나쁜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면을 감추기 위해 백토 분장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상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고려가 비색청자위에 상감하던 것과는 조형 의도면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고려 상감기법은 아마도 비색청자 기술이 절정에 달했던 12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가능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12세기말~13세기초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전성기를 누린다. 강진과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달한 상감청자는 문양에 메꾸어 넣은 흰색과 검은색의 흙이 옥(玉)빛의 푸른 바탕 위에 강한 색채의 대비를 이뤄 이체까지의 청자가 지녀온 단색 위주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장식적인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몽골[元] 침입 이후 13~14세기를 지나면서 약간의 고급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청자의 질은 퇴보한다. 이제 이전과 같은 투명한 비색의 좋은 질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른 이후 국력이 소모되면서 전과 같은 청자제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작상의 통제와 집중력이 약화되면서 청자의 문양은 긴장감을 잃게 되고 형태의 유려함과 제작의 공교(工巧)함, 뛰어난 유약, 번조기술 등이 해이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요장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장식적인 문양시문이 보편화되었다. 가마터 조사에서도 갑발을 사용하는 예가 줄어 들고 손쉬운 생산을 위한 저급한 번조기술이 일반화되었다. 결국 유색이 어둡고 잡물이 많으며 둔탁한 형태를 가지는 청자의 제작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격고요론(格古要論)』에서는 “고려자기 가운데 분청(粉靑)은 용천자기에 흰 꽃이 있는 것과 같은데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했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즉, 용천자기 처럼 푸른색 자기에 흰색의 문양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원(元)에 수출되었던 ‘고려자기’가 상감청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명대(明代) 동기창(董其昌)은 그의 《골동십삼설(骨董十三說)》에서 명대 이전 중국 5대 명요(名窯)를 거론하면서 시요(柴窯), 여요(汝窯), 관요(官窯), 가요(哥窯), 정요(定窯)와 함께 이들 가마보다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던 중국 및 외국의 가마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 때 대식국(大食國)의 가마와 더불어 우수한 것으로 ‘고려요(高麗窯)’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요’는 아마도 고려중기 중국에 알려진 비색 또는 상감청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상감은 도자 장식에 정착되는 고려중기 이후에는 동시대 기법들 가운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공정이 복잡했으므로 제작 단계부터 고급으로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자의 質을 보여주는 번조받침의 종류와 문양기법을 비교해보면, 상감기법을 사용한 도자는 가장 고급에 속하는 ‘규석받침’을 사용한 예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같은 가마내에서 서로 포개구운 것 가운데도 상감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번조받침이 받쳐진 예들이 확인되었다. 또 기종과 장식기법간에는 일정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음각, 양각 등의 문양들과 비교하면 상감기법을 사용한 자기류가 가마터는 물론 소비유적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상감은 고려 중기 이후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가장 고급에 속하는 문양기법으로 다루어졌으며, 강진지역 188개 청자가마의 출토품을 분석해보면 상감기법은 질적으로는 12세기중반 이후가 조형적으로는 정점에 달하지만, 양적으로는 계율리와 사당리를 중심으로, 또 부안에서는 유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13세기이후 14세기까지 제작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지방 수요의 청자가마에서는 상감자기의 제작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자는 더 이상 한정된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방 관청이나 일반에 이르기까지 생산이 확대되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의 가마에서 같은 유형의 청자를 만들어 내는 또 다른 공예의 면모로 탈바꿈한다. 또 새롭게 중국에서 유행하던 청화백자(靑畵白瓷)의 기형과 문양들이 도입되어 상감청자로 표현되기도 한다. 고려 말 청자의 쇠퇴와 가마터의 전국적 분산으로 고려 안정기와 같은 청자제작은 힘들어진다. 전국에서 발견되는 고려말 조선초의 가마들을 살펴보면 제작 기술면에서는 청자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으나 유색과 질에 있어

서는 고려와 구분된다. 우선 갑발을 사용하여 엄선해 구웠던 것과 비교하면 고려말 조선초에는 청자를 갑발에 넣어 구운예는 드물다. 문양도 매우 소략해지고 장식 기법도 거칠어진다. 고려 전성기 청자들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제작되었다면 고려말 조선초에는 과거의 집중적 대규모 생산체계에서 지방의 소규모 생산 체제로 바뀌면서 지방적 특색이 강한 청자들이 제작된다.

분청사기

안 성 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분청사기

안성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1. 분청사기의 개념
2. 분청사기의 분장기법과 문양
3. 분청사기의 전개과정
4. 분청사기 가마터 현황

분청사기(粉靑沙器)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는 14세기 중엽 상감청자에서 시작하여 16세기 전반에 백자에 의해 흡수, 소멸되는 일군의 도자기를 말한다. 기왕에는 청자, 백자와는 다른 특징과 내용을 담은 독자성을 가진 자기로 평가되어왔다. 이제 분청사기의 개념과 분장기법 및 문양으로 본 특징, 시기구분에 의한 변천과정, 그리고 실제 가마터에서의 현황 등을 살펴 분청사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분청사기의 개념

먼저 분청사기의 용어의 유래, 원료, 제작기법 등을 알아보겠다.

분청사기는 1930년대 고유섭(1905~1944) 선생이 그릇의 표면은 백토로 분장되었고 색은 회청이라는 의미에서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고 명명하는데 유래한다. 즉 회청색 태토에 백토를 분장하고 그 위에 투명한 유약을 씌워서 구워낸 도자기이다. 실제 분청사기라는 용어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일본학자 사이에서 미시마[三島]라고 불렀을 뿐이

다. 근래에는 분청자, 분청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학술 용어로는 분청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분청사기의 태토는 천연산의 이차점토로 특히 대체로 목절(木節)점토이다. 유약은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생유(生釉)로서 장식·송화·석회석·점토 등의 조합이며, 주성분은 장식이다.

2. 분청사기의 분장기법과 문양

분청사기의 특징은 분장기법과 문양에 있겠다. 첫째, 상감(象嵌)기법이다. 상감기법에는 선상감과 면상감이 있는데, 선상감은 원하는 무늬를 선각하고 여기에 백토나 자토(赭土)를 넣어 구우면 희고 검은 무늬가 선으로 나타난다. 면상감은 원하는 문양을 면으로 관 후 상감하므로 나타나는 효과는 마치 관화와 같이 보인다. 상감기법은 특히 12세기 고려청자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15세기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에까지 이어진다.

둘째, 인화(印花)기법이다. 인화란 꽃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지만 반드시 화문이 아니더라도 일단 도장으로 일정한 무늬를 찍은 후 백토로 메우고 그 위에 유약을 씌워 구워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화기법이 사용된 기물에는 관사명·생산지명·장인명 등이 압인 혹은 상감기법으로 새긴 것이 있어 공납관계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당시의 고급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사명에는 장흥고(長興庫, 1392-), 예빈시, (禮賓寺, 1392-1894), 사옹원(司饔院, 1398-), 사선서(司膳署, 1372-1466), 내섬시(內贍寺, 1403-1800), 내자시(內資寺, 1403-1882) 등과 임시관청으로 공안부(恭安府, 1400-1420), 덕녕부(德寧府, 1455-1457), 경승부(敬承府, 1402-1418), 인수부(仁壽府, 1400/1418-1455/1457-1556)가 있다. 이들 중 장흥고와 인수부는 지방이름과 같이 새겨지기도 하는데, 청도·연양·금산(현 김천)·군위·합천·선산·인동·경주의흥 등과 연양·군위·금산·선산 등 주로 경상도지역이 그것이다.

셋째, 박지(剝地)기법이다. 박지기법은 기면을 백토분장한 후 원하는 문양을 그리고, 문양배경을 이룬 백토는 긁어버림으로써 하얀 문양만이 남는다. 박지와 같은 기법은 면상감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에서부터 고려청자에서 사용한 면상감기법에서 유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 비하여 대량생산이 요구된 조선시대에 와서는 배경을 긁어냄으

로써 제작과정을 단순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인화기법과는 달리 거의 관사명이 나타난 예가 없어 당시 공납품 중에는 박지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조화(彫花)기법이다. 특히 조화기법과 박지기법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백토분장 위에 무늬를 그릴 때 일단 조화기법으로 선을 새긴 다음 일부분의 배경만을 긁어내면 박지와 조화기법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다. 박지와 조화기법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생산했던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철화(鐵畵)기법이다. 철화기법이란 백토분장 후에 철분이 많은 안료를 붓에다 묻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주로 공주 학봉리 계룡산이 그 중심 생산지이다. 그 때문에 계룡산 분청사기라는 별칭이 있다.

여섯째, 귀얄기법이다. 귀얄이란 풀비와 같은 도구에 백토를 묻혀 분장한다. 그릇 표면에 백토 귀얄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빠른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낸다. 귀얄분청사기는 분청사기가 백자로 이행해 갈 때 많이 만들어져서 백자와 함께 출토되는 예가 많다.

일곱째, 덩병기법이다. 백토물에 기물을 덩병 담가 백토를 씌우는 방법으로 담금(분장)기법이라고도 한다. 겉으로만 봐서는 연질백자와 잘 구별이 가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 분장기법은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는 태토의 잡물을 감추어 보다 고급화하려는 의도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분장기법이 백자와의 관계에서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분청사기의 전개과정

한편 분청사기의 변천은 합리적인 시기구분 위에서 그 전개과정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강경숙의 5단계에 걸친 시기 구분론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분청사기 편년은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까지의 태동기, 15세기 전반의 발생기, 15세기 전반에서 15세기 중후반까지의 발전기,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까지의 변화기, 16세기 초반에서 16세기 중반까지의 쇠퇴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각각의 시기 구분기준은 단순한 왕조교체나 왕위교체와는 관계없이 도자기와 관련한

문헌기록과 당시의 제작상황, 현존하는 분청사기 양식 등에 근거한 것이다.

태동기는 상감청자문양의 해체 변모, 매병의 곡선 변화, 암록색의 유색 등 도자양식의 변화와 고려 말 강진 자기소의 해체로 인한 가마터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시대상황에 기인한다. 즉 14세기 강진과 부안 등의 지역에서 청자를 제조하던 장인들이 왜구의 침입을 피해 전국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청자 가마터가 전국에 걸쳐 분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건국 후에도 계속되는데 자기 수요의 증가와 국가의 사기 사용 장려에 의해 전국의 가마터는 더욱 확산, 발전하게 되었다. 발생기는 14세기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을 지닌 상감기법의 연당초문이 지속되는 한편 성긴 인화문이 발생하여 정착한다. 또한 1417년 이후 관사명을 공납용 기물에 새기게 되고 집단연권문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문헌기록으로는 세종 초(1424~1432) 조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각 지방 토산조에 자기소와 도기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요업의 생산 상태가 전국적으로 자기소 139개, 도기소 185개가 있었으며 이들 가마에서 토산공물로 도자기를 중앙에 상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발전기에는 분청사기의 일곱 가지 기법이 모두 제작되고 박지·조화기법에서 분청사기의 특징이 발휘된다. 이때가 인화기법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으며 관사명과 함께 지방명을 새기기도 하였다. 변화기가 되면 발전기의 여운 위에서 지방색이 더욱 뚜렷해지고 귀얄과 덩병기법이 증가하면서 차츰 도자기 제작은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해 간다. 이 시기에 완성된 『경국대전』 공전(工典) 사용원조(司饗院條)에는 380명의 장인이 등재되어 당시 경기도 광주(光州)의 조선 관요[분원]의 성립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쇠퇴기에는 얇은 인화기법과 백토귀얄문만이 희미하게 남으면서 백자화가 더욱 진행된다.

4. 분청사기 가마터 현황

그런데 분청사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가마구조와 교란되지 않은 폐기물 퇴적층으로부터 수습된 도편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요지에 대한 발굴은 무척 중요하고 이러한 요지에서 파악되는 가마구조와 출토도편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지만 생각보다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대규모 학술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라고 하겠다. 간단히 지금까지

발굴된 분청사기 가마터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전라도지역에서 충효동·운대리·용산리·구성리 요지 등이 있으며, 충청도지역에서는 학봉리·송정리·용수리·평라리·구완동·사부리 요지 등이 있다. 그리고 경상도지역에는 다부동·고지평·두동리 요지 등이 있다.

이상의 분청사기 가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길이는 대략 20m가 조금 넘고 너비는 1.2~1.6m인데 15세기 전반 가마는 대체로 길이와 너비의 치수가 적은데 비해 15세기 후기로 갈수록 길어지고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모두 측면출입시설이 있어 보조불을 넣을 수 있었으나 번조실 안의 불창시설의 유무는 가마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마터 출토 도편의 양상은 15세기 전반에는 고려의 전통이 남아있는 상감기법과 성긴 인화문이 등장하며, 15세기 후반에는 귀얄·덤병이 늘면서 백자화하는 경향을 많이 띠고 한편으로는 백자를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15세기 후반의 경향은 16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16세기 전반 분청사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만다.

지금까지 분청사기의 개념 및 특징, 변천과정, 가마구조 등을 살펴보았다. 분청사기는 이제껏 15세기 세종 치세 연간에 민족문화가 완성된 시대적 배경 아래 중국 도자와 달리 독자적으로 발달한, 어떤 한국미술품보다 한국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또한 일본의 다기나 도자기 발달에 공헌하고 사랑받은 문화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청사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객관적인 것이며 실증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이제 차츰 접할 수 있게 된 이 당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나 타이 도자기에 나타난 문양이나 기법에는 우리가 분청사기 특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시 당대 중국 민요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적 도자제작의 범주에 분청사기도 포함된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분청사기의 편년과 시기별 기법의 성쇠과정 또한 앞으로 가마터의 발굴이 더욱 진행된다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 이것은 어쩌면 단순히 시대구분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적 특색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시대 백자

방 병 선
(고려대학교)

조선시대 백자

방병선 (고려대학교)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선 왕실이 택한 그릇
 - 1. 고려백자에서 조선백자로
 - 2. 문헌을 통해 본 조선백자의 탄생
- III. 조선이 만든 그릇 - 분원의 설치와 운영
 - 1. 조선전기
 - 2. 조선후기

I. 머리말

조선은 고려와 다른 정치, 경제 체제 뿐 아니라 독특한 사상과 문화를 지닌 국가였다. 개국 이래 지배계층들은 불교보다는 성리학을 주도 이념으로 삼았고, 지방분권적인 다양성보다는 중앙집권적인 통일성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고려 말기 사회의 향락과 부패를 목격하면서 보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지배계층의 모습을 이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조선 백자의 이해는 곧 이를 향유하고 제작하던 사람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백자를 둘러싼 역사와 조형의 변천을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 감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II. 조선 왕실이 택한 그릇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그릇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일단 고려청자에 뿌리를 둔 분청사기가 관공서와 왕실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여러 제례와 실생활에 필요한 그릇들을 고려와는 다른 것을 사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화려한 장식과 색상을 자랑하는 청자보다는 사대부들의 검소함을 드러낼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 조선의 문물제도에 영향을 미쳤던 명이 경덕진(景德鎮)에 어기창(御器廠)을 설치하고 황실 전용의 백자를 생산한 것은 세계 도자의 흐름이 청자에서 백자로, 조각칼에 의한 장식보다는 붓을 사용하는 회화적인 세계로의 전이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 고려백자에서 조선백자로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제작되었다. 고려시대가 청자 전성시대이긴 해도 초기 가마터인 요지인 용인을 비롯해서 부안이나 강진 등에서도 백자는 꾸준히 만들어졌다. 아무 문양이 없는 소문백자에서 음각, 상형백자를 비롯해서 상감청자 전성기에는 상감백자도 제작되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 이후에는 상감백자가 사라지고 소문백자만이 일부 제작되었는데 가마터에서 출토된 파편들의 수량만을 대략 보아도 청자의 1%도 채 안 되는 소량에 불과하다.

조선이 개국 직후에 사용했던 그릇들은 주로 분청사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태조 이후 당분간은 분청사기가 대전(大殿)을 비롯한 각 관서에서 공사용(公私用)의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 7년(1407) 성석린(成石璘)의 상소에 사치와 향락을 사대부와 왕실의 표본이라 생각지 않았던 조선 사대부답게 금은기(金銀器) 대신 사기와 칠기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건국 초 나라의 기틀을 올곧게 다져가기 위한 사대부의 표본을 그릇에서부터 찾으려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의 사료에도 금은기 대신 사기나 목기, 칠기를 사용해야한다는 건의가 왕왕

보이며 사기 사용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런 건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명나라가 조선에 요구했던 과도한 금은 상납과 제작비용의 차이 등 정치, 경제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문헌을 통해 본 조선백자의 탄생

조선시대 그릇이 조선다워진 데에는 무엇보다 세종대왕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세종은 부왕인 태종의 강력한 왕권구축에 힘입어 명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보다 조선의 풍토와 조선 사람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릇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초부터 명으로부터 많은 백자나 청화백자가 유입되었지만 조선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어기로 삼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자료가 필요했을 것이다. 즉 전국적인 도자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결과제로 떠올랐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이 오늘날 전해오고 있음은 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도자기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안에서 자기소(磁器所)와 도기소(陶器所)로 구분한 후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었다. 우선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자기소 14곳, 도기소 20곳이며, 충청도가 자기소 23곳, 도기소 38곳, 경상도가 자기소가 37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도기소가 34곳에 이른다. 전라도는 자기소 31곳에 도기소는 가장 많은 39곳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상품 자기소다. 상품 자기소는 경기도 광주가 1곳, 경상도 고령 1곳, 상주 2곳으로 전국에 걸쳐 4곳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백자는 물론이고 견치한 분청사기도 채집되고 있어서 당시 상품은 백자와 정제가 잘된 분청사기를 총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일단 사옹원 분원의 후보지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사옹원 본원에서 가깝고 우수한 백토가 산출되며 수운(水運)이 편리한 곳은 경기도 광주다. 이곳은 훗날 분원(分院)의 딸감처로 지정되어 매 10년에 한 번 씩 분

원 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위와 같은 전국적인 자기와 도기 생산 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세종은 왕실 그릇으로 백자를 선택하였고 품격에 맞는 고질의 정체가 잘 된 백자 생산을 요구했던 것이다. 후대 기록인 성현(成僎)(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세종 연간에 어기로 백자를 전용(專用)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¹⁾ 또한 세종이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하면서 어기(御器)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 인가에는 그간 조선 조정에 유입된 중국 백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명 사신에 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琉球)와 일본을 통한 중국자기의 조선전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결국 세종 연간은 조선백자의 기틀이 마련된 중요한 시기였다. 여기에는 세종 임금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과 영민함, 백성에 대한 사랑과 신료들에 대한 믿음이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Ⅲ. 조선이 만든 그릇 - 분원의 설치와 운영

1. 조선 전기

조선전기 수공업은 국가에서 직접 생산, 유통, 판매를 책임지는 관영수공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자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제작과 판매를 관장하는 그야말로 철저한 관영수공업체제 하에서 생산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국영 도자기 공장은 바로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이다.

사옹원은 고려시대는 사옹방(司饔房)이란 명칭으로 불렸는데 임금의 식사와 그에 필요한 그릇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한편 고려시대 사옹방은 별도의 관영 도자기 공장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단지 각 도에서 생산되는 자기에 대해 그것이 자기소의 생산품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관리를 통해 감독한 것은 분명하다.

조선이 세종과 세조를 거쳐 점차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체제의 정비

1) 成僎, 『慵齋叢話』 卷 10(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2, pp.655-666).

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관영수공업체제의 확립도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자기 생산은 앞에서 살펴본 전국의 자기소, 그 중에서도 백자는 상품 자기소인 경기도 광주를 비롯해서 경상도 상주와 고령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세종실록』에는 세종 7년(1425)에 명 황제 홍희제(洪熙帝)가 조선에 백자 조공을 요구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당시 백자의 품질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듯 하다.

세종 연간 전국의 자기소 파악이 완료되자 이제는 국영 자기 공장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시되었을 것이다. 경기도 광주와 경상도 상주, 고령이 가장 우수한 자기를 생산하던 곳이었지만 연료와 원료의 수급, 제작 기술의 역량, 서울과의 운송의 편리함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 광주에 국영자기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들 지역 중 백자 제작이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아쉽게도 이를 확정시킬 수 있는 단서는 없다. 단지 몇 가지 상황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세조실록』을 보면 세조 13년(1467)에 사옹방이 사옹원으로 개칭되고 정식으로 녹관(祿官)을 임명했다. 고려시대의 관사(官司)를 단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관리를 임명했다는 것이 특이하다. 즉 사옹원의 기존 관리 이외에 새로이 다른 임무를 띤 관리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마도 분원의 감독, 관리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원의 설치 장소는 수목이 무성하고 수운이 편리해서 분원에 소용되는 나무를 공급해 주는 땔감처로 지정된 광주 6면과 양근 1면 혹은 양근 3면 안이 분명하다. 이는 중국이 명·청대에 걸쳐 경덕진 주산(珠山) 일대에 반경 750m 정도의 면적에 어기창을 고정시킨 것과는 달리 분원이 차지하는 공간과 규모는 엄청난 것이다.

분원이 속해 있는 사옹원을 운영하는 도제조(都提調)와 제조(提調), 제거(提舉) 등의 중요 직책을 조정 대신과 종친들이 도맡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종친들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고 책임자인 도제조는 영의정이 겸임하였으나 왕자와 대군도 그 역을 맡을 수 있었다. 다음 직급인 제조는 4인인데 문관이 겸임하고 나머지 3인은 종친이었다.

여기에 부제조 5인은 도승지가 겸임하고 역시 나머지는 종친이 맡도록 되어 있으니 이는 누가 봐도 사옹원 경영에 종친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한 체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관영수공업 체제 아래서 생산된 분원백자는 당연히 왕실의 미적 취향이 반영될 뿐 아니라 경제적 이권의 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사옹원 도제조와 제조를 왕실 측근 중의 측근들이 차지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환관이나 내무부 관료가 책임을 도맡았던 중국 경덕진 어기창과도 구별되는 것으로 조선 왕실이 어기번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었는가를 알게 해 주는 것이다. 한편 분원의 실무 책임자로 볼 수 있는 분원 낭청인 봉사(奉事), 즉 번조관(燔造官)은 종 8품의 품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은 장인에 대해 알아보자. 분원 장인들은 『경국대전』 「공전」 사옹원조에 의하면 38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분원 안의 장인과 분원 밖에서 장포(匠布)만을 바치는 외방(外方)장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2. 조선 후기

다른 수공업들이 대부분 양란을 전후로 관영 수공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민영화의 길에 들어선 것과 달리, 분원은 어기번조(御器燔造)라는 임무 때문인지 외형적으로는 관영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신분제의 변화에 따라 장인의 모집은 부역제(賦役制)에서 사실상의 전속 고용제(雇用制)로 바뀌게 되었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특히 숙종(1674~1720) 들어 강화되어 이러한 노력들이 영조와 정조 연간 우수한 백자를 생산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연료 문제는 광주와 양근의 분원 땔감처에 화전민이 들어서면서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땔감을 사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관요를 십 년에 한 번 씩 이전하면서 소용되는 막대한 물력(物力)을 절감하기 위해 숙종 들어 땔감과 원료 운송에 편리한 한강의 지류인 우천강변(牛川江邊)으로 분원을 고정하는 분원고정론이 대두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대동법의 실시에 따른 상품경제의 영향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중국·일본과의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의 창출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수요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청화백자의 생산 증가, 상품으로서 자기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사번(私燔)의 성행과 지방요의 활발한 활동 등이 뒤따르게 되었다.

19세기 들어 조선백자는 장식화 경향의 심화와 상품가치의 제고, 수요층의 취향 변화에 따라 전 시대에 보여주던 문인 취향의 고아한 품격과 격식보다는 중국자기를 모방한 장식성이 강한 자기로 변모되었다. 분원운영은 중간사취의 만연으로 혼탁해졌으며 정부 재정의 고갈로 분원 재정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선된 원료와 기술로 최상품을 제작하기보다는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한 대량의 자기 제조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 문헌상으로는 전 시대와 거의 유사한 원료를 사용한 듯 하지만 분원리에서 수습되는 도편들은 정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듯 강도와 백색도에서 전 시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청화의 색상도 달라서 당시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들어오던 청화안료는 그다지 고급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분원운영의 어려움은 결국 고종 연간 들어 분원 운영이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막강한 후원세력과 수요층을 상실한 채 조선 백자는 일본 자기에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참고문헌

-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87.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윤용이,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불상의 이해

신 은 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불상의 이해

신은영 (검단선사박물관)

◆ 목 차 ◆

- I . 불상의 기원
- II . 불상의 형식
- III . 불상의 종류
- IV . 불상의 재료와 제작방법

I . 불상의 기원

불상(佛像)은 불교의 교리와 신앙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종교적 예배 대상이다. 기원전 7세기경 인도에서 태어나 불교의 진리를 깨닫고 전과한 석가모니를 조형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부처상에서 출발하였고,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대상이 되는 불타 뿐만 아니라 보살, 천부, 나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불상을 만드는 주요목적은 부처 전생(前生)의 선업(善業)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교화해설에 있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자비나 공(空), 해탈(解脫) 혹은 열반(涅槃)과 같은 추상적인 교리상의 개념을 불신(佛身)을 통하여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불상 표현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종교상의 규범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 교리의 내용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상의 도상적(圖像的) 특징이 된다.

무불상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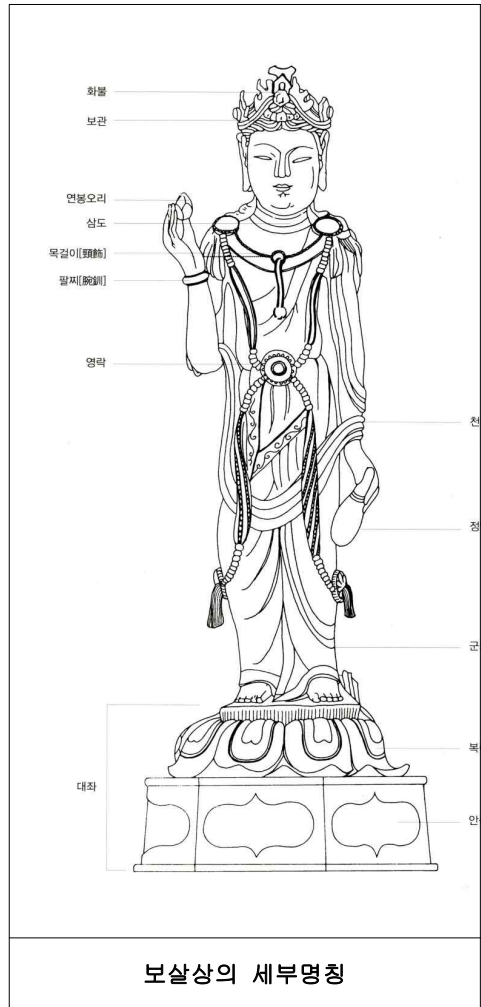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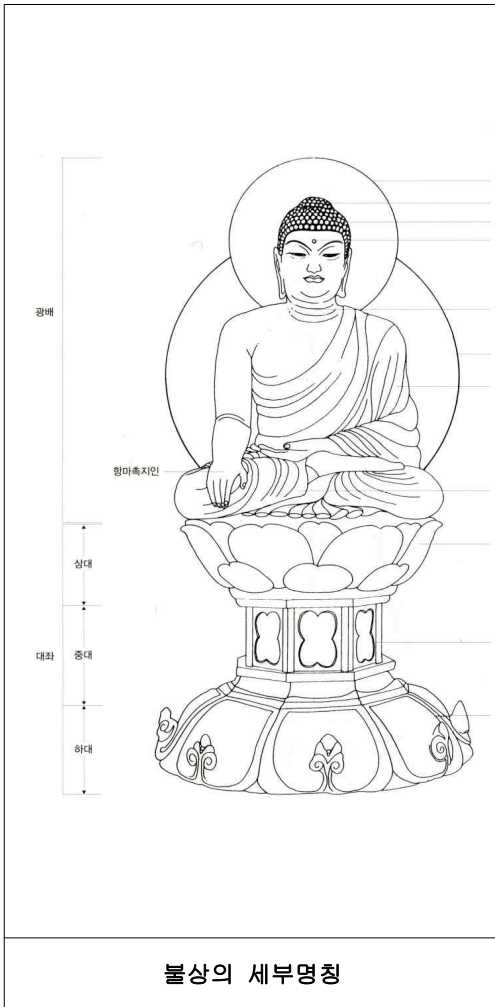
불상은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500여년이 지난 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을 불상이 없는 시대라 하여 무불상(無佛像)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 불교미술에서는 부처를 보리수나 빈 대좌, 부처의 발자국(佛足跡), 부처가 설한 진리를 상징하는 수레바퀴(法輪), 불탑 등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 아마도 부처를 인간적인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불상의 탄생

무불상 시대가 지나고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인도 쿠산 왕조의 가니슈카왕 때인 서기 2세기 초로 추정된다. 이 무렵 간다라와 마투라 지방에서 거의 동시에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학계에서는 두 곳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불상을 제작하였는가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현재는, 서구적인 얼굴에 두꺼운 법의의 옷주름을 특색으로 하는 간다라 불상과 몸에 착 달라붙은 법의에 인도인의 얼굴을 한 중북부 마투라 불상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거의 동시기에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동시설로 가닥이 잡혀진 상태이며,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Ⅱ. 불상의 형식

부처가 갖추어야 할 신체상의 특징으로는 대상(大相) 32가지와 소상(小相) 80가지(32吉相 80種好)가 있는데, 이 상호는 부처의 형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인도를 비롯하여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불상이 그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것은 이러한 도상 규범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 불신(佛身)

- 1) 육계(肉髻) : 부처의 머리 위에 혹처럼 살이나 뼈가 솟아난 것으로, 지혜를 상징한다.
- 2) 나발(螺髮) : 오른쪽으로 말린 꼬불꼬불한 나선형 모양의 머리카락
- 3) 소발(素髮) : 민머리로 별다른 장식이 없는 머리 형태
- 4) 백호(白毫) : 부처의 눈썹 사이에 난 희고 부드러운 털
- 5) 삼도(三道) : 불상의 목에 가로로 새긴 세 개의 주름

- 6) 보관(寶冠) : 보석으로 장식하여 불상의 머리 위에 얹는 관을 말한다. 고대 인도 귀인들의 머리장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상을 장엄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보살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예들 들어, 관음보살은 보관에 아미타화불, 대세지보살은 수병, 미륵보살은 탑이 새겨져 있다.
- 7) 화불(化佛) :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는 부처. 응신불(應身佛) 또는 변화불(變化佛)이라고도 한다. 불,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으로 작은 여래형으로 표현 된다. 보통 관음보살과 대일여래는 보관에 화불이 표현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광배에 작은 화불을 하는 경우도 있다.
- 8) 영락(瓔珞) : 금, 은, 수정, 진주 등 보배구슬을 꿰어서 만든 것으로, 보살의 목이나 가슴 등에 늘어뜨리는 장신구의 하나
- 9) 법의(法衣) : 부처가 입는 출가의(出家衣)를 통칭하는 말로, 불상의 옷차림은 입는 방법에 따라 통견과 우견편단으로 나누어진다. 통견(通肩)은 양 어깨를 모두 가리는 방식이고, 우견편단(右肩偏袒)은 오른쪽 어깨는 노출시킨 채 왼쪽 어깨에만 가사를 걸쳐 입는 방식이다.

2. 광배(光背)

불, 보살의 머리나 몸체에서 발하는 빛을 조형화한 것으로, 원래 석가모니불에만 나타나는 특징이었지만 점차 여러 보살과 신들에게도 사용되었다. 불꽃무늬(火焰文)와 화불 및 여러 가지 식물무늬로 장식되며, 두광(頭光)과 신광(身光),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하는 거신광(舉身光)으로 나눌 수 있다.

3. 대좌(臺座)

불, 보살 또는 천인, 승려 등이 앉거나 서는 자리. 그 형태는 불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화좌(蓮華座)를 비롯하여 사자좌(獅子

子座), 상현좌(裳懸座), 암좌(岩座), 운좌(雲座), 조수좌(鳥獸座), 생령좌(生靈座)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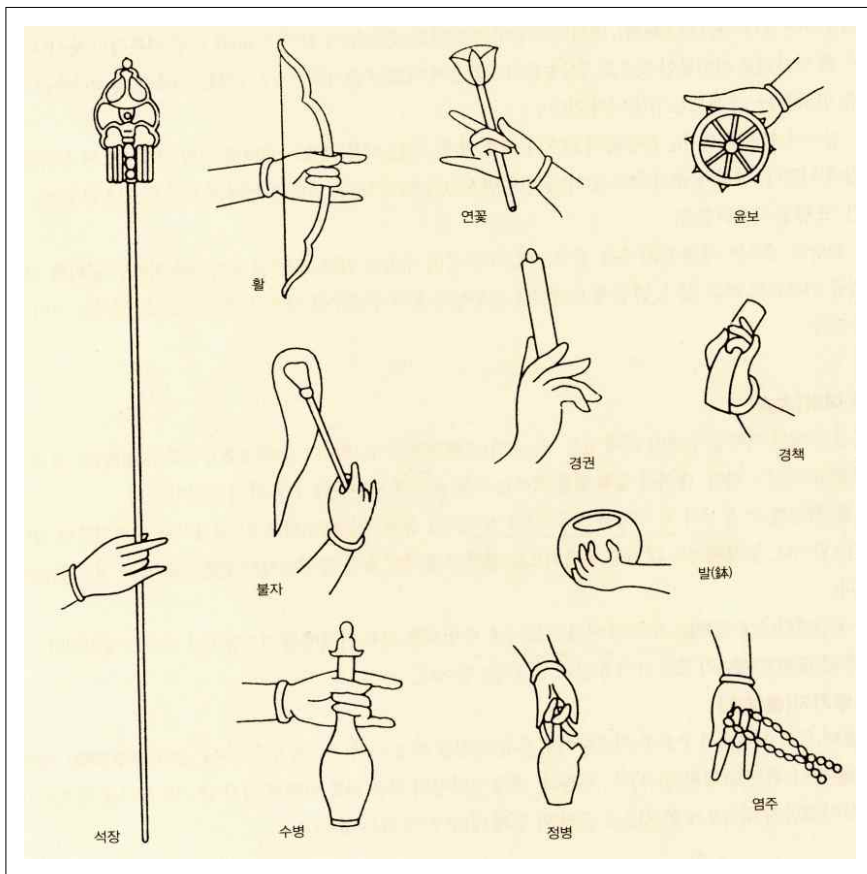
4. 수인과 지물

1) 수인(手印) : 불·보살의 공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손 모양. 수인은 교리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상의 성격과 존명(尊名)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선정인(禪定印) : 부처가 선정에 든 것을 상징
- * 시무외인(施無畏印) :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위안을 준다는 의미
- * 여원인(與願印) :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의미
- *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 부처가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
- * 지권인(智拳印) : 이치(理)와 지혜(智),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은 본래 하나라는 의미
- * 전법륜인(轉法輪印) :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뜻으로, 석가모니가 불교의 진리를 전도할 때의 수인
- * 합장인(合掌印) : 보통 예배를 드리거나 제자와 문답할 때 취하는 수인
- *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 : 선정인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아미타불의 수인



- 2) 지물(持物) : 불상의 손에 쥐고 있는 물건. 수인(手印)에 상대되는 말로 계인(契印)이라고도 한다. 불, 보살의 본원(本願)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물에 의해서 불상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래 중에서는 약사불이 약함(藥盒)을 들고 있는 것 외에는 지물을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보살의 경우, 관음보살은 정병(수병)이나 연꽃, 지장보살은 석장(錫杖)이나 윤보(輪寶), 범천은 불자(佛子), 제석천은 금강저(金剛杵), 다문천은 보탑(寶塔) 등을 들고 있다. 이밖에도 법구(法具), 무기, 보주, 악기, 경책(警策), 경권(經卷), 염주 등 지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Ⅲ. 불상의 종류

- * 불 :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불, 미륵불
- * 보살 :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일광·월광보살
- * 명왕 : 공작명왕, 오대명왕
- * 천부 : 사천왕, 금강역사,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륵빈가
- * 나한 : 십대제자, 유마거사

1. 불(佛, 佛陀, 如來)

명 칭	성 격	수 인	협시보살	불 전
석가모니불상 (釋迦牟尼佛像)	불교의 창시자로서 역사적인 부처이다. 석가는 종족의 이름이고, 모니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석가족의 성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무와·여원인 선정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문수·보현 보살 관음·미륵 보살	대 응 전 대웅보전
아미타불상 (阿彌陀佛像)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부처로, 무량수불(無量壽佛) 또는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한다.	아미타구품인 전법륜인(설법인)	관음·대세 지보살 관음·지장 보살	무량수전 아미타전 극락전
비로자나불상 (毘盧遮那佛像)	비로자나는 산스크리트어 'Vairocana'를 음역한 것으로, 태양의 빛처럼 불교의 진리가 우주 가득히 비춘다는 뜻이다. 《화엄경》의 주존불로서 부처의 광명이 모든 곳에 두루 비치며 그 불신에는 모든 세계를 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권인	문수·보현 보살 *삼신불 (三身佛)	대적광전 대광명전 비로전
약사불상 (藥師佛像)	동방 유리광세계에 살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의왕(醫王)의 역할을 하는 부처이다.	손에 약합	일광·월광 보살	약사전

미륵불상 (彌勒佛像)	미륵은 도솔천에서 보살로 있으면서 56억 7천만년 뒤 불법이 쇠퇴할 때 이 세상에 아래로 태어나서 못다 구제한 중생을 구제해준다고 한다. 석가여래의 뒤를 이어 이미 부처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미래의 부처인 셈이다. 때문에 미륵은 현재의 모습인 보살상으로도, 미래의 모습인 여래상으로도 표현된다.	사무와·여원인 용화수인	청광·신광 보살	미륵전 용화전
----------------	--	-----------------	-------------	------------

2. 보살(菩薩)

명 칭	종 류	성 격	도 상	협 시	불 전
관음보살 (觀音菩薩)	일 반 관 음	大慈大悲의 보살, 중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해준다고 한다. 이 보살은 관음신앙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관음으로 나타난다.	· 보관에 化佛 · 손에 연화, 寶瓶, 寶珠	아미타불 석가불	원통전 관음전
	십일면 관음		· 11개의 佛顏		
	불공견삭관음		· 손에 견삭		
	천 수 관 음		· 천개의 손		
	여의륜 관음		· 6臂		
	마 두 관 음		· 머리 위에 馬頭		
	준 제 관 음		· 3目 19臂像		
	수 월 관 음		· 半跏坐		
	양 류 관 음		· 선재동자		
	백 의 관 음		· 버드나무가지 · 백의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광명과 지혜의 보살, 모든 중생의 미혹함을 없애주는 힘을 가졌다.	· 보관 or 손에 보병	아미타불	-
문수보살(文殊菩薩)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 석존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보살로, 보	· 사자를 탄 모습	석가불 비로자나불	문수전

	현보살과 짝을 이루어 석가모니불의 협시보살로 삼존형식을 이룬다.			
보현보살(普賢菩薩)	자비의 실천을 상징, 모든 부처의 理法을 실천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맡고 있다.	· 코끼리를 탄 모습	석가불 비로자나불	보현전
미륵보살(彌勒菩薩)	석가모니불이 입멸한 뒤 56억 7천만 년 후에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다.	· 반가사유형 · 일반보살형 · 용화수인	석가불	미륵전 용화전
지장보살(地藏菩薩)	六道의 중생 구제,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육도를 윤회하면서 고통 받는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제해 준다는 보살이다.	· 두건 · 손에 석장 or 보주	아미타불	명부전 지장전
일광·월광보살(日光·月光菩薩)	현실의 고통을 없애주고, 약사불을 협시하면서 그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마 or 보관에 해, 달	약사불	-

IV. 불상의 재료와 제작방법

1. 석불(石佛)

돌로 만든 불상. 불상 제작 초기부터 만들어졌던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불상 형태이다. 보통 광배, 대좌 등과 함께 입체적으로 조각하지만, 머리나 손을 부분적으로 따로 조각해서 끼워 넣는 경우도 있다. 석재는 매우 다양하여 나라마다 각각 다르다. 인도는 붉은색을 띠는 사암제 불상이, 중국은 흰대리석 불상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2. 목조불(木造佛)

나무로 만든 불상. 원래 향나무로 만든 것으로 인도 우전왕이 최초로 만든 불상도 여기에 속한다. 목조불상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재료의 취약성 때문에 남아 있는 예는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나무를 사용했으며, 고려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는 유품은 거의 없으나 조선시대에 오면 불상이나 불감, 목각탱(木刻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3. 금불(金佛)

금으로 주조한 불상. 32길상 80종호에 부처는 금빛이 나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불상제작 초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료가 비싸고 귀해서 별로 유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금상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경주 황복사 3층 석탑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금제불좌상과 금제불입상 등이 남아있다.

4. 금동불(金銅佛)

동이나 청동으로 만든 불상에 금을 입힌 것. 금이 귀했기 때문에, 부식

을 방지하고 황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금동불이 크게 유행하였다. 중국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남북조시대부터 많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용의 작은 호신불(護身佛)에서부터 거대한 상에 이르기까지 많이 제작되었다.

금동불은 주로 납형(蠟型)으로 주조되었다. 제작방법은 우선 철심(鐵心)에 내구성이 강한 점토나 석고로 원형(內型:안틀)을 만들고, 그 위에 밀랍을 입힌 후 다시 점토나 석고로 주형(鑄型:바깥틀)을 만든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밀랍이 녹아내리므로 그 부분에 못쇠물을 부어넣어서 불상을 만든다. 이러한 주조법은 정밀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데 적합하다.

5. 철불(鐵佛)

철로 주조한 불상.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말에서 고려시대에 걸쳐서 유행하였다. 대표적 예로,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좌상,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좌상, 광주 철불좌상 등이 있다.

6. 소조불(塑造佛)

점토로 만든 불상. 니상(泥像) 또는 소상(塑像)이라고도 한다.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점토로 불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재료가 풍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은 별로 없다. 기록상으로는 신라시대에 양지가 만든 영묘사 장륙상 등이 있으며, 유품으로는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불, 부석사 소조 불좌상, 성주사지 출토 소조불 등이 유명하다.

제작방법은 우선 몸체에서 목 부분까지 골격이 되는 심목(心木)을 세우고 손가락 등은 철사로 따로 심지를 만든다. 그 위에 삼베와 같은 천이나 짚이 섞인 진흙을 이중, 삼중으로 붙여서 완전한 형태로 만든 다음 회칠을 한 후 도금한 것이다.

7. 건칠불(乾漆佛)

나무로 간단한 골격을 만들고 종이나 천 같은 것으로 불상을 만든 후, 옷칠을 하고 다시 도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불상에 비해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예로, 조선시대의 기림사 건칠 보살좌상과 불회사 건칠 삼존불좌상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우방 외, 『불교조각』 I, 솔, 2005.
_____, 『불교조각』 II, 솔, 2005.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97.
이숙희 외,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2007.
진홍섭, 『불상』, 대원사, 2006.

조선시대 회화사 (초기~후기)

김 현 권

(문화재청)

조선시대 회화사 (초기 ~ 후기)

김현권 (문화재청)

◆ 목 차 ◆

I. 산수화

1. 개념
2. 한국의 산수화 발생
3. 조선초기, 물아일체(物我一體)
4. 조선중기, 와유(臥遊)
5. 조선후기, 방고(傲古)
6. 조선후기, 진경(眞景)
7. 조선후기, 심회(心會)
8. 조선말기, 신의(信義)
9. 조선말기, 은거(隱居)
10. 조선말기, 시서화일치(詩書畫一致)

II. 풍속화

1. 풍속화의 개념
2. 조선시대 풍속화의 발생
3. 풍속화의 두 부류
4. 풍속화속 시화일치(詩畫一致)
5. 해학과 풍자

I. 산수화

1. 개념

동아시아에서 산수화는 자연을 표현하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인간의 의식에 의해 해석된 자연을 표현하는 회화이다. 자연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간의 많은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중심의 동양에서 자연은 인간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곳이며 안식처이자 귀의처로 인식되었고, 음미의 대상이었다. 반면 서양의 경우는 위협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동

며 살아가는 곳이며 안식처이자 귀의처로 인식되었고, 음미의 대상이었다. 반면 서양의 경우는 위험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동양의 자연관은 대략 5~6세기경부터 산수화가 출현하게끔 하였다. 이는 서양에서 순수하게 자연을 묘사한 풍경화가 17세기의 렘브란트 같은 화가에 의해 본격적으로 그려졌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100여년이나 앞서고 있다.

2. 한국의 산수화 발생

현존하는 산수화의 역사는 고구려까지 올라간다. 고구려는 북방계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산수화 역시 그러한 영향 하에 제작되었음을 무용총의 <수렵도>에서 살필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노영의 <지장보살현신도>같은 불교회화 속에서 산수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상으로 이녕의 <예성강도> 등이 전한다. 고려시대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규보(李奎報)와 이인로(李仁老) 등의 선비화가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소식에 의해 시작된 문인화론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문인화가의 출현으로 산수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문인화는 외형만을 추구하여 어떠한 대상을 사실에 가깝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담긴 의미, 또 그것을 보고 느낀 감정을 나타내야 한다. 즉 회화라는 예술품에 작가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인화 중에는 산수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산수화에 옛 선인들은 어떤 뜻을 담아내고자 했는가? 많은 주제가 있으나, 물아일체(物我一體), 와유(臥遊), 방고(傲古), 진경(意景), 심회(心會), 신의(信義), 은거(隱居), 시서화일치(詩書畫一致)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3. 조선초기, 물아일체(物我一體) : 강희안(姜希顔) <고사관수 高士觀水>

깊은 숲속 개울가 너럭바위에 한 선비가 턱을 괴고 엎드려 있다. 큼직한 잎이 달린 넝쿨이 물가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아 그곳은 울창한 나무숲에 가려 햇살이 들기 힘든 깊은 산속 냇가로 보인다. 이마가 홀렁 벗어지고 양 끝이 슬쩍 처진 눈썹과 눈, 그리고 넉넉한 크기의 코를 가진 선비는

세상만사를 제법 겪고 이제는 주위의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법한 너그러운 노인의 모습이다. 또한 옷차림새로 보아 꽤 덕망이 높은 선비로 보인다. 그 선비는 조금 불편할 듯해 보이는 너럭바위에 자신의 몸을 맡겼는데, 마치 바위의 모양에 몸을 맞춘 듯하다. 그렇지만 이 선비가 어찌나 편안해 하는지를 표정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그야말로 선비가 바위이고 바위가 선비인 셈이다.

그는 물을 바라보며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어느새 낮잠에 들고 말았다. 선비는 즐거운 꿈이라도 꾸는 듯,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림 속 선비의 모습은 마치 장자(莊子)가 나비 꿈(호접몽胡蝶夢)을 꾸는 모습처럼 보인다. 장자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며 자연을 만끽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다 문득 깨어보니 “내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 내가 된 것일까.”라고 하였다. 비몽사몽 중에 있는 우스꽝스러운 장자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사실 물아일체物我一體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있다. 이 사상을 풀이 하면 “내 자신과 바깥세상의 구별은 헛된 것일 뿐 본래는 하나”라는 뜻이다. 산수화는 이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예술이기도 하다. 그림 속 선비는 바위와 하나가 되었기에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작가 강희안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 은거하고픈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속 선비는 바로 강희안이다.

강희안은 세종대왕 때 벼슬을 하였던 선비로, 그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으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해설하였던 집현전 학자였다. 한편 그는 단종 때 집현전 직제학에 올랐으며, 세조 때에는 중추원 부사까지 지내는 등, 줄곧 벼슬을 하였다. 이러한 관리 생활 속에서도 그는 자연과 함께 하며 하나가 되고픈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4. 조선중기, 와유(臥遊) : 이경윤(李慶胤) <관폭 觀瀑>

목으로 묶게 칠한 천막 같은 곳에서 흰색의 두 줄이 표현되어 있다. 그 천막은 절벽이고 하얀 줄기는 폭포이다. 화면위의 오른쪽 모서리에 조그맣게 열린 하늘 아래에서 폭포의 물이 쏟아진다. 이 정도 높이이라면 굉장히 큰 규모로, 그림과 같은 폭포를 실제로 보면 두렵거나 놀랄 법한

데, 이 선비의 모습에서는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태연하기만 하다. 우렁찬 폭포 소리를 듣는 것일까? 우레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 치곤 얼굴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 그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선비에게 있어서 자연은 가장 편안한 곳으로 보인다.

그림 속 선비는 이 놀라운 광경을 감상하지 않고 왜 눈을 감고 있는가. 동양의 산수화는 독특한 목적 때문에 그려지기도 한다. 선비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돌아온 뒤에 그 광경을 회상하며 그림을 그렸다. 옛 선비들은 그 그림을 두고두고 보거나 남에게 보여 주어 자신의 경험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 선비들은 그때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혹 늙고 병들어 유람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때 자연 속에서 노닐었던 기분을 다시금 느낀다. 혹은 남의 그림을 보고 그림 속 자연을 떠올리며 그 자연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옛날 사진을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런 경우를 옛 선비들은 와유 즉 “누워서 유람을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누워서 자연을 볼 수는 없으니 이 말은 그곳에 가지 않고서도 가장 편안한 자세인 누워 있는 것처럼 강과 산을 상상하며 즐긴다는 의미이다. 즉 자연과 자신이 하나 되는 몰아일체를 그림을 보면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경윤은 이런 종류의 그림을 자주 그렸다. 사실 그는 왕족 출신이다. 남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왜 그렸을까. 이경윤의 생애 중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었다. 나라가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였고, 민심은 흉흉하였다. 다행히 두 전란이 끝났지만 그는 50살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다. 이경윤은 이제 좀 조용한 세상에서 와유를 하며 살고 싶었을 것이다.

5. 조선후기, 방고(傲古) : 심사정(沈師正), <방운림필의 仿雲林筆意>

그림 한가운데에는 풀로 엮은 초라하고 조그마한 정자가 놓여 있으며 정자 뒤에는 대밭이 그려져 있다. 정자가 있는 언덕 바로 뒤에는 너른 강이 펼쳐져 있고 강 너머에는 산들이 보인다. 정말로 한적한 강촌의 풍경이다.

이러한 그림의 분위기는 늦가을의 강촌을 생각나게 한다. 대나무들은 바

람에 이러 저리 흔들리고 있으며 정자 앞의 가지만 양상하게 남은 두 나무는 그림 속 날씨가 겨울의 문턱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날씨는 스산한 분위기를 돌아 준다. 차가운 바람에 낙엽마저 떨어져 버린 늦가을의 강촌에는 생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 소나무마저 애써 날씨와는 상관없어 보이려 하지만 웬지 힘들어 보인다.

강촌의 모습을 정말로 쓸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시장처럼 제아무리 변화한 곳이라도 사람이 없는 곳은 적막하게 느껴질 뿐이다. 만일 이 그림에 배 한척과 어부가 있거나 정자 부근에 경치를 바라보는 선비가 그렸더라면 이렇게까지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심사정은 쓸쓸함을 나타내고자 산과 강, 나무와 정자의 표현을 비롯하여 색을 쓰지 않고 까칠한 붓으로만 강촌을 그렸다. 왜 심사정은 어떤 생각으로 볼수록 적막하고 깔끔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 답은 그림에 쓰여 진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운림(雲林)의 그림 뜻을 본받다. 현재(玄齋, 심사정)” 운림은 예찬의 호로, 그는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한 시절인 원나라 때 화가였다. 그는 몽고족이 자신의 나라를 지배한 것 때문에 과거에 나서지도 않고 은거하며 살았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너무나 곧은 선비였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은 쓸쓸하고 스산하다. 더구나 그의 성격은 너무나 깔끔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려 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군더더기가 있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일부러 이리저리 먹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른바 문인화의 중요 기법인 “먹 아끼기를 금같이 하라 惜墨如金”를 보인 것이다.

심사정은 그의 그림을 본받아 그러서 예찬의 선비 정신을 따르고자 한 것이다. 산수화에서는 이를 倣古라는 표현을 쓴다. 단순히 옛 그림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옛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선비 정신을 본받아 그린다는 의미이다.

6. 조선후기, 진경(眞景) : 정선鄭敼, <인왕제색 仁王霽色>

하얀 안개가 휘 감고 있는 산허리 위에는 암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기와집이 보이고 있다. 이 그림은 어느 산의 중턱 부근을 그린 것으로, 바로 서울 청와대 뒤편에 보이는 인왕산이다.

한번 광화문에 가서 직접 인왕산을 보면 그리 특이한 산이라는 생각이 들

지 않는다. 다만 산위에 보이는 화강암 덩어리가 눈에 들어 올 뿐이다. 조선시대에 그려진바 없는 인왕산을 정선이 굳이 그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가 살았던 곳이며 그가 어울렸던 문인들의 동네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에는 그의 스승인 김창흡과 벗 이병연이 살았던 곳이다.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림하면 겸재 정선이요 시하면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이다”라고 하였다. 이 두 문인은 당시 중국 청의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노론(老論)의 수장 김창흡의 제자였다. 그러니 이들은 조선의 산천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을 가졌으며, 그러기에 정선은 진경산수로, 이병연은 진경시로 당시 문화예술계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는 인왕산을 그리면서 스승과 벗을 생각하였을 것이며, 그러기에 실제보다 훨씬 웅장하고 기세 넘치게 그려 내었다. 그는 조선의 산천을 그리며 그 속에 문인의 이상을 담고자 하였던 것이다.

7. 조선후기, 심회(心會) : 이인상(李麟祥) <구룡연 九龍淵>

구룡폭포는 조선에서 그림의 소재로 곧잘 이용되었다. 조선의 풍속화가로 유명했던 김홍도 역시 많은 산수화를 남겼다. 그의 그림을 보면 한눈에 “아 정말로 구룡폭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이진 바위로 이루어진 절벽을 사실처럼 그렸고, 물줄기의 흐름도 실제와 유사하게 굴곡지어 흐르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정말로 구룡폭포가 눈앞에 보이는 기분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인상의 구룡폭포는 어떤가? 김홍도처럼 생생하지도 않고 정선처럼 기세가 느껴지지도 않는다. 단지 아련한 기억속의 오래된 폭포이다. 그렇지만 김홍도 그림과는 달리 투명한 유리처럼 깨끗하기만 하다. 그림의 아래 한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1737년 가을에 나는 임안세 어른을 모시고 구룡폭포를 구경했었습니다. 15년이 지나 이 그림을 그려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런데 몽당붓에 먹을 묻혀, 뺨대를 그렸으나 살집은 그리지 않았고 색은 칠하지 않은 것은 감히 거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한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구경했던 구룡연을 그리려고 하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기억을 되살려 그 경치를 끝이끝대로 그리려 했다면 그는 이러한 훌륭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인상은 더 이상 눈에 비친 경치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구룡연에 대한 인상과 감회를 더듬어 그리고자 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이인상의 집안은 조선시대 명문 중 명문이었으나 이인상의 증조할아버지가 서출이었기에 궁궐내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지방관직을 하였다. 그는 가난했기에 생계를 위해 낮은 벼슬이라도 아쉬웠을 텐데, 나중에는 이마저도 귀찮은 듯 사양하였다. 정말로 최소한의 끼니만 거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이인상의 삶은 이 그림과 닮았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빼대만 그리고 살집을 그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살집이라는 것은 바로 먹과 색을 일컫는 말이며 빼대는 형태를 이르는 것이다. 먹과 색을 쓰면 그림이 고와지고 풍부해진다.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청빈한 삶을 택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기에 거부하였다.

사실 선비 그림의 이론 중에서는 바위의 표현 등에 붓질을 많이 한 그림은 속되다고 좋아 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리고 색도 연하게 칠하지 화려하게 하지 않았다. 만일 붓질과 색이 너무 심하면 그림이 화려해져서 청렴하고 검소한 선비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다만 필요한 곳에만 하였다. 그러나 이인상은 이조차 거부하였다. 그는 필요한 곳도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자신의 삶과 같은 그림을 원했던 것이다.

이인상의 이 그림은 기나긴 세월을 그린 것이며, 자신의 청빈한 삶속에서 이룩한 문인화에 대한 생각을 담아냈다. 그러니 이 그림은 마음으로 빚어낸 그림이다. 이인상은 이를 심회(心會)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문인화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지정한 용어이다.

8. 조선말기, 신의(信義) : 김정희(金正喜), <세한도 歲寒圖>

선비들 사이의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는 선비 그림에 자주 그려지는 주제

이다. 우리는 김정희의 <세한도>의 그림과 편지 속에서 선비 정신을 흠뻑 느낄 수 있다. 이 그림에는 김정희 자신과 제자 이상적이 그려져 있다. 어떤 모습일까.

김정희는 유배라는 벌 중에도 유배지의 집 주위를 가시나무로 둘러 울타리 밖을 못나오게 하는 엄한 벌을 받았다. 그야말로 울타리는 감옥의 철창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 안은 모든 자유가 빼앗긴 감옥이었다. 그림 속 집은 참담한 상황에 있는 김정희 자신을 비유하듯이 한껏 움츠린 집으로 표현되었다.

반면 그림 속 왼편에는 늙름한 잣나무가 있고, 오른편에는 건장한 소나무와 모진 세월을 견뎌온 오래된 소나무가 서있다. 모두들 늘 푸른 나무들이다. 이들은 무엇을 상징할까. 김정희의 편지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라고 하였네.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것이어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이나,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한결 같이 푸르네. 지금 자네와 나의 관계는 이전이라고 더한 것도 아니요 이후라고 줄어든 것도 아니네. 아! 쓸쓸한 이 마음이며. 완당 노인이 쓰다.

김정희는 이 나무들의 모습이 제자 이상적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스승이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이상적은 변함없이 제자로서 정성을 다해 스승을 모셨다. 그런 제자를 보면서

<세한도>를 그릴 때 자신을 가두었던 쇠창살 같은 가시나무를 걷어버렸다. 대신에 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처럼 추운 겨울이 와도 항상 푸르른 잣나무와 소나무를 표현하였다. 더군다나 집을 지키듯 앞뒤로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은 어려움에 처한 스승을 보호하려는 제자의 모습 같다.

이상적은 편지와 그림을 받고 앞에 두고 옆드려 절을 하며 보았다. 그리고 스승의 처지에 너무나 슬퍼 눈물이 흐르는 것조차 몰랐으며, 또 제자의 도리를 당연히 했건만 이를 그렇게 칭찬해주시는 스승의 모습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복하였다. 이 그림은 선비의 신의를 표현한 문인화 중의 문인화이다.

9. 조선말기, 은거(隱居) : 김수철(金秀哲) <매화서옥도 梅花書屋圖>

해가 저 온통 어두운 저녁 시간에 집 주위와 산과 산 사이에는 밤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땅과 산과 하늘이 언뜻 분간이 안된다. 산 사이를 감도는 안개는 꿈속 같은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짙은 밤안개 사이로 바위와 산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런 분위기를 돋아 준다.

아래쪽 바위 주변에 가지처럼 뻗은 나무에는 하얀 점이 찍혀 있다. 눈인가? 그 점은 나무에 찍혀 있으니 무슨 꽃 같다. 그 나무에 잎이 없다. 잎이 없고 꽃이 피는 계절은 늦겨울이나 초봄이다. 그때 피는 꽃 중 선비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것은 매화이다. 이 하얀 꽃은 백매화이다. 매화는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기에 옛날부터 거친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비에 비유된다. 특히 흰 매화꽃이 피는 매화는 선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다.

옛날 중국 송에는 임포(林逋 967~1028)라는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면서 세속의 영리를 버리고 고적한 가운데 유유자적하며 사는 시인이었다. 그는 시로써 이름이 나는 것을 싫어하였고 후세에 전하여 질 것이 두려워 시를 읊되 기록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는 매화를 부인으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 은둔하였다. 그래서 이 후 한국과 중국에서는 매화하면 임포를 연상하곤 하며, 매화서옥도를 그리곤 하였다.

김수철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자신도 이런 곳에서 은거하면서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문인들은 임금의 명을 받고 관직에 임하면서도 언젠가는 고향이나 한적한 산에 들어가 은거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비들의 영원한 바람이었다.

10. 조선말기, 시서화일치(詩書畫一致) : 김정희(金正喜), <불이선란 不二禪蘭>

예로부터 난을 그릴 때 지켜야 하는 몇 가지 법칙이 있다. 난을 그릴 때는 잎이 서로 만나하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마치 봉황의 눈과 비슷해서 봉안鳳眼이라고 한다. 그리고 잎의 중간은 보통 두툼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사마귀 배 같다고 해서 당두螳肚라고 한다. 또한 잎 끝이 점점 얇아져서 뾰족하게 되는데, 마치 쥐의 꼬리 같다고 해서 서미鼠

尾라고 한다. 난초 그림들은 모두 이 법칙을 꼭 지키고 있지만 심지어 이 그림보다 20년 전에 그린 <산위의 난초 꽃 山上蘭花>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불이선인 난>만은 그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다. 봉안은 조금씩 분명하지는 않으며, 당두 같은 모양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잎의 끝이 서미 모양처럼 차츰 얇아진 모습이 아니라, 제각각이다. 특히 이 세가지 법칙을 그림에 나타내려면 붓의 이면 저면을 번갈아 사용하는 삼전법 三轉法으로 그려야 한다. 이법은 김정희 스스로가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누누이 강조했던 것으로, <산위의 난초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불이선인 난>은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먹의 색깔에서도 기존의 난초 그림은 법을 따르지 않았다. 난은 진한 먹으로 그려야 만이 윤기가 흐르는 잎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흐린 먹만을 사용하여 썩썩 그려나갔다. 이러니 그 난초는 마치 마른 잡초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지요.

김정희는 <불이선인 난>에서 여러면서 단정한 난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강한 기운과 함께 허허로움을 보여주려고 했다. 잎은 대부분 중간이 마치 부러질 듯 한두 번 꺾이면서 세차게 뻗어 나갔다. 그 모습에서 곧곧한 문인정신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중간의 몇몇 잎은 흐름물 흐름물 거리면서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 잎들은 그림에서 풍기는 강한 느낌을 조금 수그러들게 한다. 아마도 세상에 대한 정도 미움도 사라진 초탈한 선비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정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난초를 그렸을까. 아마도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무엇인가를 난초에 담으려고 했던 것 같다. 우리는 그림 속에 빼곡히 써져 있는 글을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다.

<불이선인 난>과 비슷한 난초 그림은 세상 어느 곳,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바로 난초 주위에 있는 글씨들이다.

초서와 예서, 기이한 글씨의 법으로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를 알아보며, 어찌 이를 좋아할 수 있으랴.

김정희는 그림 속 아래의 왼편에 글을 썼다. 글씨 쓰는 법으로 난초를 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난의 모습이 마치 글씨의 획과 같은 것이었다.

설렁거리며 화면을 파고드는 몇몇 난 잎을 보니 마치 부드럽고 생동감 넘치는 초서의 획이 생각난다. 예서의 획과 같은 잎은 더욱 많다. 대부분의 잎이 중간쯤에서 한두 번 꺾이는 모양은 마치 예서 획의 같고리나 빠침을 생각나게 한다. 그 모습은 글씨 중에서 야也의 아래 획 빠침과 유사하다. 그러나 잎이 턱하고 끊어지듯 꺾이며 순식간에 뺏어나가는 기세는 김정희 글씨만의 특징으로, 달達의 책받침 획이나 난蘭의 오른쪽 획이 꺾이는 모양과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을 기이한 글씨의 법으로도 그렸다고 한 것으로, 난초가 글씨이고 글씨가 난초인 것이다.

김정희가 이렇게 글씨 쓰듯이 난초를 그린 이유는 글씨와 그림의 원리가 같다(書畫同元)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자가 애초에 새 발자국과 거북 잔등의 문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또한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은 서양처럼 그림 그리는 붓이나 글씨 쓰는 붓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붓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므로 붓을 사용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더구나 난초 잎은 글씨의 획처럼 길기 때문에 글씨 쓰는 법으로 그릴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옛 선비들은 이런 그림을 보고 글씨와 그림이 일치되었다고(書畫一致) 말하였다.

이로써 이 그림이 세상 속 난초가 아닌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김정희는 “세상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며, 또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하긴 뜻 깊은 이론이 그림 속에 스며있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으며 잡초 같은 난초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불이선란>은 정성을 들여 잘 그리려고 애쓴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김정희는 손길 가는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난초를 그렸다. 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70세경(1855년경)이었다. 그때는 8년 동안의 제주 유배를 겪고 나서 얼마 뒤에 있었던 함경도 북청 유배에서 풀려난 뒤였다. 슬퍼서 울다가 지치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픔이 조금은 잊어지는 것처럼, 이제 김정희는 너무나 슬퍼서 슬픔조차 잊어버렸다.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애착도 미움도 사라진 뒤였다. 그저 남은 생애를 조용히 보내고 싶었을 따름이다. 이렇듯 마음을 비우고 그렸기에 다시는 그릴 수 없는 작품이 나온 것이다. 김정희는 화면 아래 왼편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

쑥대머리 달준이를 위해서 설렁설렁 그렸으니, 이번 뿐 다시는 이렇

게 그럴 수 없구나.

김정희가 이 그림을 주려고 했던 사람은 지체 높은 선비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다. 다름 아닌 옆에 시중을 들던 쭉대머리 시동 달준이다. 그러니 애써 공들여 그럴 필요가 없었고 더더욱 마음을 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김정희는 이 그림을 불교 이야기와 비유하였다. 이때 김정희는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종교를 찾듯이.

난초 그림을 그리지 않은지 20년 만에 우연히 본성의 참 모습을 그려 냈네.
문 닫고 찾으며 또 찾은 곳 이것이 유마維摩의 불이선不二禪이네.

김정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 한수를 지어 난초 그림에 썼다. 선비들은 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옆에 더하곤 하였다. 왜냐하면 선비들은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곤 했기 때문이다. <불이선란>을 보면 그림이기도 하지만 글씨이기도 하다. 물론 그림이 갖는 뜻과 글의 뜻도 같다. 이를 일컬어 시와 그림이 일치(시화일치詩畵一致)되었다고 하였다.

시를 보면 김정희가 20년 만에 난초를 그렸지만 그림 그리는 법을 잊어버리기는커녕 난의 참 모습을 그렸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 난초 그림을 유마거사의 불이선(不二禪)이라고 하였다.

유마거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진실히 따랐던 사람이다. 그는 여러 보살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인 둘이 아닌 법(불이법不二法 김정희는 불이선不二禪이라고 함)에 대해 물으니 보살들은 제각각 설명하였다. 그 후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되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글과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으며, 할 수도 없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말문이 탁 막히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와 조금은 비슷하다. 선禪 혹은 법法이란 깨달음으로, 말과 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지이다. 그 순간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칙조차 사라지는 것이다. 김정희는

난초그림이 불이선이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난초를 그리는 법칙조차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봉안이니 삼전법이니 하는 법으로 그리지 않는 것이다. <불이선란>은 세상 밖의 난초로, 평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정신을 수련함으로써 이룩된 뒤에야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불이선란>은 시와 글씨와 그림, 그리고 불교의 선이 하나로 일치된 그림이다.

옛날부터 선비들이 글씨와 그림이 같다니, 시와 글씨와 그림이 일치되는 것을 말해왔지만 그림과 글씨와 시를 선禪 즉 깨달음과 일치(시서화선일치)시키지는 않았다. 오직 김정희만이 이룩한 경지로, 이 그림은 시서화선일치가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가 문학, 서예, 그림, 불교학, 경학 등 모든 분야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김정희는 시의 끝에 이렇게 썼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억지로 요구하며 구실을 삼는다면 또한 마땅히 유마거사의 침묵으로 사양하리라”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김정희에게 이 난초 그림이 왜 불이선이냐고 물었을 것이지만 그는 아무말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알아 본 사람이 있었다. 쑥대머리 달준이에게 주려고 그린 <불이선란>을 본 제자 오규일은 최고 경지의 문인화 임을 알아채고 스승을 졸라서 가져가버렸다. 달준이는 영문을 몰라 쑥대머리만 긁적였을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허허 웃고 말았던 추사 김정희는 다음해 유마거사가 침묵한 것처럼 세상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II. 풍속화

1. 풍속화의 개념

풍속화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습속이나 여러 일들을 묘사한 그림으로, 20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풍속화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림의 용도나 제작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일상생활이나 습속이 표현된 그림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기록화나 감계화, 종교미술까

지 포함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생활상 및 습속의 표현과 아울러, 그림의 용도 역시 별도의 목적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감상용 회화를 지칭하는 경우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에 유행한 풍속화를 의미하는 경우로, 조선시대의 속화(俗畵)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2. 조선시대 풍속화의 발생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에는 고려 말의 전통을 이어 받아 감계적 목적을 가진 <무일도>, <빈풍도>, <경직도> 등의 그림이 제작되었다. 이 그림들은 이후 풍속화의 발달에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되어, 조선후기 김두량의 <사계산수>와 같은 그림을 탄생케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궁중행사 장면을 그린 궁중기록화를 비롯해 70세 이상의 문인관료 출신들이 모임을 갖은 후 이를 기념하고자 모임 장면을 그린 기로회도 등이 제작되었다.

이상의 그림들은 당시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어서 풍속화에 속할 수도 있으나 감계화나 기록화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의도되지 않은 일상적인 행동이나 습속을 그린 풍속화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풍속화의 등장은 실학의 발달과 구비 및 패관 문학의 유행, 그리고 중세 동아시아의 미술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 풍속화는 윤두서나 조영석같은 문인화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곧 김홍도와 신윤복같은 화원화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풍속화는 진경산수화와 더불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화목으로 자리 잡아 유행하게 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 남종문인화의 유행으로 인해 쇠퇴하였다. 조선후기 풍속화는 소재와 주제의 독특함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당시의 생활사나 복식사, 문화사를 연구하는데 일차적이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3. 풍속화의 두 부류

조선후기 풍속화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우선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부류와 감정 표현이 주가 된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부

류의 그림을 주로 그린 화가는 조영석을 비롯하여 윤두서를 꼽을 수 있다. 조영석이나 윤두서의 그림은 당시 농가의 정취를 담아내기 보다는 비교적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관람자가 장면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 관람자가 사실의 획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풍속화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두서의 <목기깎기>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그림은 나무 그릇을 깎는 장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단지 그 모습을 담았다기 보다는 목기가 어떻게 선차(旋車)에 의해 깎여지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차에 걸린 줄을 장인의 양발에 걸은 다음 발을 움직여 선차가 돌아가고 선차 끝에 달린 나무는 다른 장인이 쥐고 있는 긴 끝에 의해 목기의 형태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그림 역시 정확하게 장면을 묘사하는데 충실하였으며 감정의 이입은 없는 상태이다. 장인들의 모습에는 목기를 깎는 고된 모습이라든지 혹은 오고가는 잡담으로 인한 정겨움 등이 표현되지 않았다. 인물의 표정은 무표정하기만 하다. 즉, 이 그림은 목기 공방에서 일어난 정경을 그렸다고 보다는 어떻게 목기가 만들어지는가에 치중한 그림이다.

조영석 역시 윤두서와 유사한 작품을 남겼다. 그의 <선반작업>에서 선반을 돌리는 원리와 그 선반에 의해 기물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된다. 그의 <새참>은 그림의 소재로 볼 때, 인물들 간의 왁자지껄한 잡담이 있어야 하나, 그림 속 인물은 조용하기만하다. 다만 어린아이에 먹을 것을 주는 어른의 입가에 약간의 미소가 있어서 앞서 소개한 그림과는 달리, 인물의 감정이 감지된다.

풍속화에서 인물의 감정 표현 부각은 김홍도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홍도의 <새참>을 보면, 조영석과 같은 소재를 그린 것이지만 농사일을 쉬고 새참을 먹는 순간의 정겨움을 그대로 담아내었다. 등장인물의 함박 웃는 표정을 보면 새참의 즐거움이 느껴진다. 이처럼 김홍도의 풍속화는 사실에 바탕을 두면서도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김홍도의 대표작으로는 <타작>을 꼽을 수 있다. 추수 장면을 표현한 이 그림은 상단의 우측에 있는 갯 쓴 양반과 나머지 일꾼 무리로 구분된다. 이 양반은 땅의 주인인 듯 하고 일꾼들은 소작농으로 보인다. 인물의 구성으로 볼 때, 이 그림은 조선시대 농가의 계층적인 현실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그림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 질 수 있었음에도, 직관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등장인물들의 경쾌한 몸놀림과 표정 때문이다. 땅 주인인 양반은 입는 옷이나 긴 담뱃대로 보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우뚱하게 쓴 갓이나 한쪽다리를 접어 올리고 벼단을 패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학덕이 꽤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앞쪽에 그려져 있는 막걸리 단지의 크기로 보아 술기운이 꽤 올랐을 것 같다. 혼자 취해버렸으니 일꾼들이 심통이 날만도 한데, 가운데 벼짚을 들고 있는 더벅머리 총각을 제외하곤 입가에 한껏 웃음을 머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의 분위기는 인물의 구성 등으로 볼 때 화기에애할 수 없으나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표정에 의해 추수가 갖는 흥겨운 분위기 일색으로 바뀌었다.

4. 풍속화속 시화일치(詩畵一致)

김홍도는 조선후기의 문인서화가인 강세황과 교유한 인물로, 여느 풍속 화가와와는 달리 문인 취향을 지녔던 직업화가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 대부분이 서민을 소재로 한 풍속화를 그렸음에도 종종 아주 문인화적인 주제를 담은 그림을 남기기도 하였다.

김홍도의 <마상청앵>은 이른 봄날 말을 타고 가던 선비가 막 잎이 돌아난 나무위에 피꼬리 한 쌍이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낮이 나간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선비는 이내 시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시를 김홍도는 이렇게 적고 있다.

어여쁜 여인이 꽃 아래에서 천 가지 가락으로 생황을 부나.
운치 있는 선비가 술잔 앞에 밀감 한 쌍을 올려놓았나.
어지럽다 저 황금빛 베틀 북이 수양버들 물가를 오고 가더니,
안개와 비를 이끌어다 봄 강에 고운 깃을 찢구나.

이 시에서 첫 구절은 피꼬리의 모습과 소리를 여인과 생황소리에 비유하였고 둘째 구절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한 쌍의 피꼬리가 마치 술잔 앞에 있는 밀감에 비유하였는데, 색깔 때문이다. 피꼬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베틀의 북이 이리저리 오가는 모습에 견주었으며 그 베틀이 움직여

옷감이 찢여지는 모습을 물가를 날아다니는 고운 새의 모습에 비유하였다. 즉, 이 그림은 선비와 봄날 호숫가의 정경을 소재로 한 풍속화이지만 그 내용은 문인들이 추구하였던 시화일치를 실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5. 해학과 풍자

풍속화에서 가장 즐겨 그려진 소재는 서민들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이러한 부류의 그림은 단옷날의 개울가 풍경을 비롯해, 씨름 장면, 서당의 모습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림들이 보여주는 정취는 대체로 비슷하다. 즉 그림의 소재가 되는 풍경은 다양하지만 풍정 속에는 해학미를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홍도를 들 수 있다.

김홍도의 <서당>은 어느 마을의 서당에 일어날 법한 정경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한 아이가 훈장 앞에서 울고 있고 주위에는 회초리와 책이 하나 뒹굴고 있다. 분명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여 훈장 앞으로 불려 나왔고, 훈장은 화김에 자신의 책상위에 있는 책을 던지고 회초리를 던 듯하다. 훈장의 얼굴을 보니, 그리 학식과 인덕이 높아보이지는 않은 것 같다. 아이는 울고 있고 훈장은 난감해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에서는 대립과 온정이 교차한다. 반면 주위 대다수 아이들의 모습에는 웃음이 넘쳐난다. 그 아이가 혼난 모습에 재미있어 하는 것이다. 단지 장가든 듯각이 학생만이 엄한 얼굴을 하며 울음을 그치라고 하였으며, 앞쪽 두 번째는 우는 학생의 친구인지 형인지 화난 얼굴을 하고 있다. 아마도 웃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화가 난 모양이다. 주위 인물들이 보여준 표정에는 해학 속 긴장이 곁들어 있는 것이다.

해학미과 더불어 풍속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풍자미이다. 김홍도가 해학의 풍속화를 그린 화가라면 신윤복은 풍자의 풍속화를 그린 화가이다. 물론 신윤복의 그림에는 해학미가 보이기도 하지만 풍자는 그의 풍속화가 갖는 중요한 미적 가치이다. 특히 그는 고상한 양반들의 이면을 들추어내는 그림을 주로 그렸다. 신윤복의 <연소답청>은 세 명의 양반과 기녀가 쌍을 이루어 나들이를 가는 중이다. 절벽에 진달래가 피어 있어 그림 속 장면의 때가 봄임을 알 수 있다. 아직 앳된 양반들은 기녀들의 환심을 사려고 여러 행동을 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타는 말을 기녀들에게 양보했다. 맨 앞의 양반은 아예 말구종을 자처했다. 자신의 갓은 맨

뒤에 따라오는 말구종에게 건네고 자신은 병거지를 쓰고 있다. 뒤 따르는 양반은 기생의 담뱃대에 불을 붙여 건네고 있고, 이에 기생은 쑥스러운지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그림 아래쪽의 양반은 오는 중에 기생과 말다툼을 하였는지 표정이 밝지 못하다. 사실 이러한 양반의 행태는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양반의 이면을 그린 것이다.

<연당야유> 역시 풍자적인 그림이다. 갓 끝으로 보아 당상관 이상 양반들이 집안 뜰에서 의녀를 비롯한 기녀들을 불러 놓고 연회를 열었는데, 집 주인은 남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생을 희롱하고 있다. 이를 쳐다보는 손님 양반은 여간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처럼 신윤복은 허세부리는 양반들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그렸던 것이다. 신윤복의 그림은 당시 세간에서 돌려보았을 것인데, 풍자적인 묘사로 인해 후련한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조선말기 회화사

윤 현 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선말기 회화사

윤현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1. 머리말
2. 조선후기 회화 전통의 위축
3. 남종화의 유행
4. 이색화풍의 대두
5. 허련·장승업 두 계보의 확립
6. 맺음말

1. 머리말

회화사에 있어서 조선말기는 1850년부터 1910년까지(안휘준)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남종화가 중흥했던 조선후기 회화와 구별되는 특색을 지닌다. 특히 조선말기는 역사적 부침이 심했던 시기로, 대외적으로는 구미 열강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에서 각축을 벌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대원군의 쇄국정책, 개화파의 등장과 패퇴라는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았던 시기였다.

아울러 이 시기의 화단에서는 중인계층의 활약이 두드러져 사대부 또는 화원이 이끌었던 조선후기 이전의 화단과는 다른 상황을 보인다. 석파 이하응(石坡 李晙應, 1820~1898),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운미 민영익(芸楣 閔泳翊, 1860~1914) 등의 왕공사대부 출신의 화가들 외에, 우봉 조희룡(又峰 趙熙龍, 1789~1866), 고람 전기(古藍 田琦, 1825~1854),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8~1893), 오원 장승업(吾園 張承業, 1843~1897) 등의 중인출신 화가들이 크게 활약하였다. 17세기 이래 시작되었던 중인시사(日涉園詩社·稷下詩社·碧梧社·七松亭詩社·六橋詩社)가 활발히 결성되었으며, 중인들의 전기(壺山外史·里鄉見聞錄·熙朝佚史·槿域書畫徵)가 중인출신들에 의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회화는 김정희, 허련과 장승업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전대인 조선후기에 비하면 학계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조선후기의 진경산수화나 풍속화가 위축되고, 남종화가 지나치게 사의적이고 획일적인 경향으로 치우쳤던 것은 사실이나, 북산 김수철(北山 金秀哲)이나 석창 홍세습(石窓 洪世燾, 1832~1884)의 이색적인 화풍, 이하응이나 몽인 정학교(夢人 丁學教, 1832~1914) 등에 의해 이끌어진 1인 1기의 경향은 이 시기의 중요한 회화적 업적이다.

2. 조선후기 회화 전통의 위축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겸재 정선일파의 진경산수화나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등이 구축했던 풍속화의 전통이 이 시기에는 순조롭게 계승되지 못하였다. 혜산 유숙(蕙山 劉淑, 1827~1873)의 <세검정도(洗劍亭圖)>, 유숙 전칭의 <대쾌도(大快圖)>, 시산 유운홍(詩山 劉運弘, 1797~1859)의 <기녀도(妓女圖)>, 임당 백은배(琳塘 白殷培, 1820~?)의 <기려강안도(騎驢江岸圖)>, 기산 김준근(箕山 金俊根)의 <풍속화첩(風俗畫帖)> 등은 조선후기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진경산수화나 풍속화는 조선 후기에 비해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진경산수화나 풍속화가 저변화되어 민화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려진 점은 주목 할 만 하다.

이러한 경향은 남종화의 경우에도 간취되는데, 조선후기에 남종화는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2~1791), 능호관 이인상(凌壺館 李麟祥, 1710~1760) 등의 문인화가들에 의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말기의 남종화는 학식이 부족한 중인화가들에 의해 유행하면서, 획일적인 남종화풍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양화법의 경우도 유사한데, 서양화풍은 이미 조선후기에도 수용 되어 남리 김두량(南里 金斗樑, 1696~1763)의 <묵구도(墨狗圖)>, <목우도(牧

牛圖)>, 강세황의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 현은 김덕성(玄隱 金德成, 1729~1797)의 <뇌공도(雷公圖)>, 조정 박제가(楚亭 朴齊家, 1750~1805)의 <연자초령의모도(延子髫齡依母圖)>, 이형록(李亨祿, 1808~?)의 <책가도(冊架圖)> 등 일부 작품들에 나타났다. 이는 음영법이나 원근법 등을 일부 수용한 소극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말기의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1850~1941)의 초상화들에 와서는 안면이나 의습의 표현에 있어서 서양화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화법적인 측면을 중요시한 나머지, 내면세계까지 기운생동하게 표현하던 이전의 격조 높은 초상화에 비해 격이 하락하게 된다.

3. 남종화의 유행

조선말기의 화단에서 가장 유행한 것은 남종화이다. 남종화는 조선후기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말기의 남종화는 조선후기의 전통을 계승했다기보다는 청대의 남종화를 위주로 하고, 명대와 원대의 남종화풍을 쫓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희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희는 청대의 대표적인 문인서화가들이었던 옹방강(翁方綱) 부자, 완원(阮元), 주학년(朱鶴年)과 교우하고, 그들을 통하여 중국의 문물과 서화를 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화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희는 금석학이나 고증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청대의 학자들을 통해 쌓으면서 당시의 화단을 지배하였다. 김정희가 당시의 대표적인 화가들의 서화관에 영향을 미쳤음은 「예림갑을록(藝林甲乙錄)」에 실린 그의 평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예림갑을록」의 행방은 현재 알 수 없으나, 오세창의 『근역서화징』과 고유섭의 『한국화론집성』에 의하면 「예림갑을록」은 전기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묵진(墨陣)” 8인과 “회첩(繪疊)” 8인의 작품들에 대한 김정희의 평을 실었던 것이다. 또 김정희의 평가는 6월 24일, 28일, 29일, 7월 7일과 9일, 14일 등 총 6차례(회화 세차례, 서예 세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여기서 “묵진” 8인은 미파 김계술(渼坡 金繼述), 송남 이형태(松南 李亨泰), 우범 유상(雨帆 柳湘), 소정 한응기(小貞 韓應耆), 고람 전기, 이산 이계옥(耳山 李繼沃), 학석 유재소(鶴石 劉在韶), 우당 윤

광석(藕堂 尹光錫)이며, “회첩” 8인은 김수철, 희원 이한철(希園 李漢喆), 허련, 전기, 하석 박인석(霞石 朴寅碩), 유숙, 자산 조중묵(蕉山 趙重默), 유재소였다.

이 중 3차례에 걸쳐 김정희의 평이 이루어졌던 회화들은 주로 스산한 가을 정취를 묘사한 남종화풍의 그림들인데, 이 중 1차례 평가받은 그림이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에 8폭의 병풍으로 표구되어 있다. 병풍에 있는 그림은 김수철의 <매우행인도(梅雨行人圖)>, 이한철의 <죽계선은도(竹溪僊隱圖)>, 허련의 <추강만축도(秋江晚矚圖)>, 전기의 <추산심처도(秋山深處圖)>, 박인석의 <고촌모애도(孤村暮靄圖)>, 유숙의 <소림청장도(疎林晴嶂圖)>, 조중묵의 <추림독조도(秋林獨釣圖)>, 유재소의 <추수계정도(秋水溪亭圖)>인데, 이들에 대한 김정희의 평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 원인풍치(元人風致)가 있다, 원인의 심윤지기(深潤之氣)가 없다느니 하여 원말사대가의 화풍을 모범으로 삼고 있었다.
- 동인(東人)의 습기(習氣)를 범했다는 구절로 보아, 조선말기 이전의 우리나라 화풍이 참고할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 요즘의 화법은 모두 태창(太倉) 일파로부터 기수(起手)하였든가, 석도(石壽)나 운남전(惲南田) 등 제가(諸家)와 같음이 없다든가 하는 평으로 미루어, 청대의 사왕오운(四王吳惲)의 정통과 화풍과 석도와 같은 개성과 화가들의 화풍이 원말사대가의 화풍과 함께 폭넓게 참고되고 있었다.
- 갈필(渴筆), 홍염(烘染) 등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여 조선말기 회화의 필묵법 및 채색법의 문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김수철의 작품에 대하여 술이지법(率易之法: 간략하게 그리는 화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당시 김정희가 김수철의 간결한 화풍을 특이하게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희가 당시 화단에 미친 영향은 “회첩” 8인에만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영향은 당시의 왕실, 사대부, 중인출신의 여기화가들, 화원들 등 각계의 화가들에게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회화사에서는 이들을 “김정희파”라고 칭하기도 한다. 김정희는 “김정희파”의 화가들에게 그가 가진 영향력을 토대로, 당시 화단을 사의를 중시하는 남종화로 경도되게 하였

다. 남종화란 손재주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며, 서권기와 문자향을 발할 수 있는 학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학문이 부족한 중인출신의 화가들은 김정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김정희의 모화사상(慕華思想)은 당시의 화단을 중국 지향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귄만한 친구가 없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하응이나 허련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화가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흔하지 않다. 이러한 김정희의 영향력은 조선말기 이전의 진경산수화나 풍속화와 같은 화풍의 발전을 저해하고, 당시 화단을 남종화로 일원화하게 하였다는 결과를 낳았다.

4. 이색화풍의 대두

조선말기의 화단에서 주목되는 것은 현대적 감각의 이색적인 화풍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색화풍은 김수철과 학산 김창수(鶴山 金昌秀)의 “술이지법”과 홍세섭의 참신한 구도의 화풍으로 구분된다. 김수철은 「예림갑을록」의 “회첩”에 올라와있는 것으로 보아, 중인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김창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김수철은 산수도와 화훼도를 주로 그렸는데, 간략한 구도, 단순한 형태, 산뜻한 색채, 호초점(胡椒點)의 사용, 직선적이며 뚜렷한 구름법의 주산(主山) 묘사가 특징적이다. 김수철의 이러한 화풍은 조선후기의 학산 윤제홍(鶴山 尹濟弘, 1764~?)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윤제홍 <송하관수도(松下觀水圖)>의 춤추듯 가냘픈 소나무들의 형태, 생략적으로 표현된 인물, 담청을 위주로 한 설채법, 또렷한 구름법, 호초점의 사용 등이 김수철의 화풍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지우재 정수영(之又齋 鄭隧榮, 1743~1831)의 일부 산수도에서도 호초점의 사용, 뚜렷한 구름법, 담청의 설채법 등에서도 김수철 화풍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김수철의 화풍과는 다른 성격의 이색화풍을 보이는 화가는 홍세섭이다. 홍세섭은 수목의 영모화를 주로 그렸다. 그는 전형적인 사대부 문인화가였는데, 조선말기 화단의 어느 계파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홍세섭의 대표작인<유압도(游鴨圖)>를 살펴보면 오리들을 조감(鳥瞰)한 구도로 그려 넣었고, 농묵과 담묵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묘사한 물결, 여기저기 찍은

크고 작은 목점, 오리를 관찰력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 등은 대부분 중국의 명·청대 화보를 토대로 한 화풍을 따랐던 이전의 화조화에 비해 파격적으로 보인다. 홍세섭 회화의 파격미는 설산(雪山) 아래 가마우지를 담은 <야압도(野鴨圖)>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야압도>는 <유압도> 만큼이나 배경의 대담한 생략과 자유분방한 붓질을 보여주는데, 추상화된 원경의 설산과 농묵의 필선으로 추상적으로 처리한 산봉우리, 원경 산 아래의 파도 표현, 가마우지의 사실적 표현 등은 홍세섭의 독창성을 잘 보여주는 명작이다.

김수철이나 홍세섭과 같은 전통 화목에서 이색적 화풍을 보였던 화가들 외에 조선말기에는 한 가지 주제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들이 등장하였다. 이하응, 노천 방운명(老泉 方允明, 1827~1880), 소호 김응원(小湖 金應元, 1855~1921), 민영익 등은 묵란을 그렸고, 정학교의 괴석, 이교익(李敎翼, 1807~?), 일호 남계우(一濠 南啓宇, 1811~1890), 고진승(高鎭升)의 나비, 석연 이공우(石蓮 李公愚, 1805~)의 매화, 최석환(浪谷 崔奭煥, 1808~)의 포도, 박기준(朴基駿)의 부채, 양기훈(楊基薰, 1843~)의 기러기, 채용신의 초상화 등은 한 가지 화목을 전문적으로 그렸던 화가들로, 조선말기 화단의 색다른 조류를 보여준다.

5. 허련·장승업 두 계보의 확립

조선말기의 화단에서 허련과 장승업은 각기 계보를 형성하여 현대의 화단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허련은 진도 출신으로 초의선사(草衣禪師)의 제자였다가 초의선사의 소개로 김정희에게 그림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 그가 쓴 『소치실록(小癡實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정희는 허련을 “사람됨이 심히 좋고, 화법은 우리나라 사람의 누습(陋習)을 깨뜨려 없앴으며, 압록강 이동에는 이와 같은 작품이 없소.”라고 신관호(申觀浩)에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 김정희가 허련을 각별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허련은 원말사대가 중에서 황공망(黃公望)과 예찬(倪瓚)의 화풍을 특히 많이 참고하였다. 이러한 점은 김정희가 황공망을 염두에 두고 지어준 소치(小癡, 황공망의 호는 大癡)라는 호와 운림산방(雲林山房, 예찬의 호는 雲

林)이라는 그의 당호(堂號)에서도 확인된다.

허련은 산수, 인물, 소나무, 대나무, 매화, 모란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헌종 앞에서 그려 바친 「산수화첩(山水畵帖)」을 비롯한 수많은 산수화를 남겼다. 그의 산수화는 거친 갈필, 푸르스름한 담청을 즐겨 쓴 설채법, 예찬이나 황공망계의 변형된 구도를 바탕으로 그의 독자적인 화풍을 보인다. 그는 그의 그림들에 추사체로 시문을 적는 일이 많아 시서화 삼절이라는 문인화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련은 모란꽃을 많이 그려 “許모란”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모란 병풍이나 화첩을 요구하는 가정이 많았다. 이의 수급을 위해 민화에서도 모란꽃 그림은 다수 제작되었는데, 허련이 모란꽃을 많이 그렸다는 것은, 이러한 당대의 요구에 부응했음을 의미한다.

허련의 화풍은 그의 아들 미산 허형(米山 許滢, 1862~1938), 손자 남농 허건(南農 許楗, 1908~1987), 허련의 방계(傍系)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1977)과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다. 또한 그들의 화풍이 이어져 현대의 호남화단을 이루고 있다.

허련과 마찬가지로 장승업과 그의 후계자들도 현대화단에까지 그 맥을 잇고 있다. 장승업의 생애에 관해서는 장지연(張志淵)의 『일사유사(逸士遺事)』에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는 삼원인(三元人)으로 선대는 무반이었고, 오원(吾園)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 조실부모했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떠돌다가 서울 수표교에 있는 역관 이응헌(李應憲)의 집에서 기식하며 그 집에 소장되어 있던 원명(元明) 이래의 명인들의 서화를 접하고 눈이 트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술과 여자를 몹시 좋아했고,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의 화명(畵名)은 궁중에까지 알려져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민영환(閔泳煥)과 가까이 지내기도 하였다. 장승업은 조선초기의 안견, 조선후기의 김홍도와 함께 조선왕조 시대의 3대가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장승업은 산수, 인물, 영모, 화훼, 기명절지 등 다양한 소재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다. 산수도에서는 원말사대가의 화풍, 미법산수 화풍 등 남종 화법을 수용하여 우수한 작품들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인 삼성미술관 리움의 <방황자구산수도(倣黃子久山水圖)>는 세련된 기량을 보여주며, 간송미술관 소장의 <산수도>는 과장되고 기이한 형태를 보여주는 일격의 화풍

을 보여준다. 그는 산수화에서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화폭에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이는 중국 청대 회화의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허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푸르스름한 담청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것도 당시의 안료와 유행했던 색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장승업의 인물화는 도석인물(道釋人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인물들은 모두 중국인의 모습이며, 의습이 기이하고, 과장된 얼굴표현은 심전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이나 소림 조석진(趙錫晉, 1853~1920)을 통해 현대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장승업의 중국적 취향은 영모와 화훼, 기명절 지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장승업은 뛰어난 기량을 지녀 여러 걸작을 남겼으나, 중국적인 취향을 조선말기 이래의 화단에 심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화단이 토속적인 미를 발전시키는데 지장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승업의 화풍은 안중식과 조석진에게 계승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제자인 심산 노수현(心汕 盧壽鉉, 1891~1978), 청전 이상범(靑田 李象範, 1897~1972), 소정 변관식(小亭 卞慣植, 1899~1976) 등의 현대 화가들에게 이어졌다. 안중식의 <풍림정거도(楓林停車圖)>를 보면 반복적이고 과장된 산의 모습, 스산한 느낌의 담청의 사용, 문기 없는 분위기에서 장승업 화풍의 계승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조석진도 장승업의 영향을 받아 형태의 반복, 담청의 애용을 드러내지만 그의 <수포고촌도(水抱孤村圖)>를 보면, 보다 투박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다. 안중식과 조석진의 화풍은 노수현, 이상범, 변관식 등에게 이어졌으나, 이들은 초기에만 스승의 화풍을 따랐을 뿐 각기 독자적 화풍을 이루면서 장승업의 화풍으로부터 점차 탈피하게 되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말기 화단의 제경향을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며 살펴보았다. 조선말기의 화단은 조선후기 한국적 화풍으로 자리매김한 풍속화나 진경산수화의 위축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말기 화단에서 중인화가들의 대거 등장이나, 새로운 감각의 이색화풍의 등장, 그리고 1인 1기의 경향은 이 시기의 중요한 업적이기도 하다. 이 시기 화단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남종화의 유행이며, 조선말기 이전

에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남종화가 시대상의 변화로 중인층에 의해 폭넓게 향유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 조선말기의 화단이 남종화의 획일적 경향을 보이며, 동시에 풍속화나 진경산수화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새로운 문화향유층이 등장했다는 것은 화단이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후예가 우리나라 근대화단의 중추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더욱 중요시되며, 앞으로 학계에서 조선말기 화단에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이동주,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1996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홍선표, 『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삼성미술관 Leeum 전시도록, 『조선말기 회화전』, 2006

한국 근대 회화사

이 현 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국 근대 회화사

이현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 I. 한국회화의 근대로의 이행
- II. 근대 전통화단
- III. 근대 서양화단

I. 한국회화의 근대로의 이행

1. 근대의 시작과 근대성

미술사에 있어서 근대란 그 이전의 미술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현대 미술의 성격이 비롯되는 구체적 계기 및 발단지점이다. 한국미술사에 있어서 근대의 기점 문제는 여러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구분을 하기는 어렵다. 한국미술사의 시대구분은 거의 왕조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술분야에서의 근대의 시점은 조선후기(영·정조) ~ 1930년대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본 교육에서는 조선말기 서화가 장승업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미술을 근대회화의 시작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렇다면 ‘근대성(Modernity)’이란 무엇일까? 근대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그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개념이다. 보편적으로 근대성은 고대, 중세, 근대에서와 같이 역사적이지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서양에서의 근대성은 전통사회에 대한 부정과 함께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를 통해 획득한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예찬하는 것에서부터 그 개념이 탄생하였

다. 동양의 경우 근대성은 종종 ‘서구화’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당시의 서양의 시각이 전이되어 진보의 의미가 서구화로 인식되고 이를 근대성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문화의 유입과 함께 기존의 사고와 생활방식이 변화하면서 현실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서구적 가치관이 동양의 가치관을 대체하게 되었다.

2. 미술계에 있어서의 근대적 변화

1) 새로운 미술제도의 실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미술계에는 근대미술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여러 변화들이 나타난다. 근대화화가 그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내·외적인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그중 하나가 새로운 미술제도의 실시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교육제도가 변화되어 1906년에는 도화시간이 학교교육의 필수가 되었고 교과서에 삽화가 수록되어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근대적 미술단체의 설립도 이루어져 1918년 서화협회가 결성되어 회원들의 그룹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특히 근대 미술계에 있어 중요한 사건은 조선미술전람회의 시작이다.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된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선전으로 약칭)는 20~40년대 근대화단의 양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총독부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진 일종의 공모전 형태를 띤 것으로, 심사위원과 수상제도가 있었다(그러나 이것은 식민정책의 일환인 일종의 문화정책이었다). 선전은 해를 더할수록 점차 위상이 강해져서 그 영향으로 동양화에서 서양화로 그 비중이 높아져 1회때 3명이었던 서양화 입선이 1932년에는 86명이 되었으며, 미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서화일치사상에서 미술을 세분화, 전문화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어 갔다. 처음에는 동양/서양·조각/서·사군자 로 나누어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문인화와 서예는 제외되고 일본화를 배운 세력과 한국내에서 전통 회화를 배운 세력들 간의 다툼으로 점차 전통화가 미술의 영역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다. 산수화는 점차 풍경화의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돈을 주고 미술을 사는 풍조가 생기면서 상품화되기 시작한다.

2) 서양미술의 2차파급

서양미술의 1차 파급은 이미 조선후기부터 청나라로부터 도입되었으나 19세기 말이 되면 서양화가의 내한으로 보다 본격적인 서양미술의 2차 파급이 이루어진다. 특히 주목할 만한 외국인은 1899년 한국에 온 네덜란드인 휴버트 보스이다. 그는 사실적인 서양화법으로 고종황제의 초상 및 고관들의 초상을 많이 그렸고, 서울을 그린 풍경 등이 전하고 있다.

3) 새로운 표상방식과 장르의 대두

조선후기 실학자들을 통해 들어온 카메라 옵스큐라와 19세기 말 사진술의 전래는 전통미술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림으로 그려지던 초상화는 사진과 초상기술을 결합시켜 더욱 사실적인 제작을 할 수 있었고, 황철, 지석영, 김규진 등은 실제로 사진관을 운영하며 사진을 찍었다. 사진과 함께 근대기의 새로운 장르는 만화와 삽화의 전래이다. 출판물(특히 신문)에 그려진 삽화는 근대기의 시각문화를 반영한 것이었고 당시 우리에게는 낯설었던 시사만화가 등장하였다.

4) 자연관의 변화

자연과 하나되는 전통사회의 자연관은 고금을 통하여 동양 전통사회의 미술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은 이전의 거대하고 신비한 개념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화가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화면에 거대한 자연을 모두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표현하는 것이 선호되었고, 관념속에 존재하는 자연이 아닌 현실속의 자연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을 표현한 농촌풍경화가 제작되고, 식민지의 암울한 상황속에서 한국적인 산천을 그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II. 근대 전통화단

1. 19세기말 ~ 1910년대 : 조선말기 회화의 지속

장승업의 뒤를 잇는 심전 안중식(安中植, 1861~1919)과 소림 조석진(趙錫晉, 1853~1920)은 조선말기에서 근대로 이어주는 가교자 역할을 한다. 그들은 직업화가로서 전통적인 화격을 보여주었으며, 근대 한국화의 실질적인 전환기에 기여한 공헌은 지대하여 1920년대 화단의 양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주로 그린 소재들은 중국의 고사, 전통적인 관념산수, 신선도, 화조영모 등 보수적인 성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 이들은 근대기의 개막으로서 보다는 전통시대의 종장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두 화가의 화풍적 연원은 오원 장승업에서 찾고 있지만 중국에서 발행된 화보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때로 안중식이 조석진보다 근대적인 작가로 부각되는데, 이는 조석진이 꾸준히 전통화풍을 구사한 것과는 달리 안중식은 1915년 <백악춘효>, <영광풍경> 등과 같은 사실적인 실경화풍을 구사하여 근대적인 사실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은 화가로서의 작품 활동외에도 후진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1911년 최초의 근대적 미술학교인 서화미술회에 안중식과 조석진이 중심적인 교사로서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1920년대에 활동한 이용우, 오일영, 김관호, 박승무, 이상범, 노수현등이 이들에게 사사받아 이들의 회화는 안중식과 조석진의 영향이 농후하다. 또한 최초의 유화가로 알려진 고희동 역시 일본유학전 안중식과 조석진에게 전통화법을 배웠으며 1920년대에는 서양화에서 전통화로 전향하게 된다.

한편 1910년대 활약한 또다른 대표적인 전통화가는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을 들 수 있다. 그는 중국에서 그림을 배워 중국풍으로 묵매와 묵죽을 많이 그렸으며 창덕궁 벽화로도 유명하다. 개화문명을 받아들여 1903년 천영당 사진관을 운영하여 한국미술사에 있어 사진기술의 도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가이다. 또한 그는 1915년 서화연구회를 조직하여 문인화를 지도한다.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은 근대기 주목할만한 초상화가이다. 무관관직 재직시 태조어진을 포함한 7조의 어진모사 및 고종어진 제작도감의 주

관화사를 맡으며 활동하다가 상업화가로 전향한 후 사진술과 서양화기법을 수용하여 극도로 사실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인물화를 그렸다.

2. 1920년대 이후 : 전통화단 계보의 형성

1919년 안중식이, 1920년 조석진이 타개함으로써 1920년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1920년대 화단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수묵화 정신으로 체험적이고 실증적인 시각의 산수와 향토풍경을 그리는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적인 선묘와 채색으로 젊은 여인상을 비롯하여 사실적 표현으로 화조, 동물들을 소재로 한 계열이었다. 전자는 동연사를 중심으로 한 화가들이 중심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개척자는 김은호이다.

1) 수묵 사경산수계열

1920년대 이후 수묵을 위주로 사경산수의 한계보를 형성하게 된 결정적 출발은 동연사(同研社)의 조직이다. 동연사는 1923년 이상범, 변관식, 이용우, 노수현이 중국화풍의 탈피와 일본화풍의 배격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향토적인 사실주의와 현실적 자연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동서양 미술의 융합을 통해 산수화 개혁에 앞장선 동연사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는 서양화와 식민지 상황에서 편승하여 들어온 새로운 일본화의 현실적인 소재와 사실적인 기법의 자극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안중식과 조석진으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한국화가 주류를 이루던 1910년대의 화단에서의 변화와 자의식, 시대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 1897~1972)

동연사의 네 화가 중 우선 이상범은 초기에는 스승 안중식의 영향을 받아 남북종(南北宗) 절충화풍을 보였으나 점차 독자적 세계를 개척, 향토색 짙은 작품들을 그려냈다. 그러나 동연사 조직후 전통적인 남종화 정신을 계승하는 수묵위주의 산수풍경을 그렸지만 현실적 시각으로 관념적인 산수풍경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시골풍경과 현실적 생활감정을 표현하였다.

(2) 소정(小亭) 변관식(卞寬植, 1899~1976)

동연사 작가 중 가장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는 작가는 변관식이다. 당시 이상범이 선전에서 인기를 얻자 선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이상범과는 차별된 화풍으로 기행에 기초한 실경산수를 그린다. 특히 다양한 산세의 금강산 그림을 많이 제작하였다. 다각적인 방향에서의시점을 구사하여 입체과풍의 구조적 해석을 보였으며 이상범과는 달리 적묵법(積墨法)을 주로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3) 묵로(墨鷺) 이용우(李用雨, 1904~1952)

조석진과 안중식으로부터 전통화법을 배운 이용우는 당시 전통화단에는 파격적인 제목의 그림을 그린 화가로도 유명하다. 1930년대에는 한적한 산경을 환상적인 형태로 그렸으나 1940년대 들어서는 향토적인 정경에 눈을 돌려 경쾌한 필치를 구사하였다.

(4) 심산(心汕) 노수현(盧壽鉉, 1899~1978)

노수현의 화풍은 전통 관념산수화의 이상주의적 맥을 계승하여 동연사 작가들 중 가장 보수성이 강한 편이다. 동양화 연구는 물론 서양화도 연구해야 한다는 동연사의 취지와는 달리 노수현의 그림에는 서양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2) 채색 인물·화조계열

근대 일본화의 사실적인 인물화 및 화조화의 신감각에 토대를 둔 채색 인물·화조계열의 선구는 인천출신의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1892~1979)이다. 그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작품들은 스냅사진과 같은 인상을 주며 이러한 경향에 대해 근대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섬세한 필선과 맑고 우아한 색채의 사실적 표현은 당시의 도회감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은호 인물화에는 계량한복을 입고 구두신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가볍고 부유하는 듯한 당시 우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은호가 주로 그린 미인도와 화조도의 세필채색화에는 일본화의 영향이 짙어 친일화풍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김은호의 화풍은 이영일(李英逸, 1904~1984), 운보 김기창(金基昶, 1913~2001),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1912~2005) 등으로 이어진다.

그 밖에 1920년대 이후 전통화단에 있어서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1891~1977)은 예외적으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관념적인 산수를 보여준다. 그는 동경에 수년간 머무르면서 일본화법이 아닌 중국의 남종화법을 배웠고 한국에 돌아와 광주에 정착하여 고법의 고전적인 중국화법으로 산수화품을 심화시키면서 문하생을 길러 호남화파를 형성하였다. 온화한 성품에 고전화론을 충실히 따르고 시서화일체의 문인화로서의 화품을 보여줘 전통 계승의 마지막 남종화의 대가로 불리운다.

III. 근대 서양화단

1. 서양화의 시작과 아카데미즘의 정착

근대 서양화단에 있어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아카데미즘은 오랜기간동안 지속된 주요 흐름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高羲東, 1886~1965)을 비롯하여 서양화 정착기인 1915~20년 사이 서양화를 배운 작가들은 대부분 일본유학을 통해 서양화를 배우고 한국에 돌아왔고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당시 동경미술학교에 팽배한 일본 서양화과 교수들의 일본식 아카데미즘이 국내에도 그대로 전이되었다. 또한 작가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당시의 선전은 일본의 문전을 모방한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심사위원 역시 동경미술학교 출신이 많아 일본 아카데미즘 양식의 회화가 곧 선전 입선과 동일시되었다. 이 시기 회화들은 화사한 외광적 묘사로 한가로운 인물을 그린 작품들이 많았고, 역사·사회적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대신 단순한 자연미의 재현으로서 향토적 소재주의를 고취시키는 풍경, 인물, 정물에 그치도록 유도되었다. 그 결과 민족적 감성은 무력화되고 저항이나 사회의식은 담을 수 없었다.

고희동은 최초의 서양화가로서 동경미술학교에 국비장학생으로 유학하며 서양화를 접하게 된다. 그의 자화상은 아직 서양화 기법은 미숙하지만 선례로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고희동에 이어 서양화를 그린 김관호(金觀鎬, 1890~1959)는 우리나라 최초의 누드화를 그린 작가이다. 그의 <석모>는 일본 문전에서 특선한 작품으로, 전체적인 구도와 표현에 있어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인 샤반느의 작

품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일본작가들이 샤반느를 좋아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는 일본 외광파의 영향이 잘 보이는데 인물을 야외에 위치시키고 화면에 흐르는 미묘한 빛의 효과는 인상파적 요소를 보여준다.

일본 외광파는 일종의 일본식 인상주의로 동경미술학교의 영향력 있는 교수인 구로다 세이키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동경미술학교 교수에서 서양화를 가르쳤던 프랑스인 라파엘 코랑의 화풍을 받아들여 일본식 인상주의인 외광파 양식을 유행시켰다. 감각적, 장식적으로 밝은 불빛과 화려한 자연, 투명한 살빛, 감각적인 여인들이 그려졌으며 이는 인상파의 아카데미화를 보여준다. 외광파의 추종자들이 동경미술학교의 교수였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화를 접한 초기 한국 서양화는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교수들의 화풍인 외광파의 영향을 짙게 보여준다.

나혜석(羅蕙錫, 1896~1949)은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동경여자전문대학 유학 후 1918년에 귀국하였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지만 그림에서는 페미니즘적 요소를 찾을 수 없으며, 그녀의 <자화상>은 세심하지 않고 다소 남성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서양화 도입단계에 정착된 아카데미즘 양식은 이후 이종우, 김종태, 김인승, 도상봉, 이쾌대 등의 작품에서도 그 영향이 지속됨을 볼 수 있다.

2. 향토주의 미술운동의 전개

향토예술(heimatkunst)은 독일어에서 온 것으로 1906년 일본 문단에서 쓰여지기 시작했으며 다시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일본에서의 향토예술논의는 중농주의에 기반을 둔 반도회주의적 문학으로 1906년부터 1924년까지 주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조선 향토주의색은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아카데미즘이 되었고 이것은 일종의 일본의 이국취향이었다. 회화에서의 향토주의는 조선적인 색채를 통해 향토색을 표현하는 흐름과 조선적인 전설이나 풍속으로 향토를 표현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향토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는 이인성과 오지호 등이다. 이인성은 붉은 조선 땅의 표현, 조선의 유적 및 조선인의 표현 등을 통해 향토주의를 보여주었고, 오지호는 우리미술과 일본미술의 차이를 자연기후, 풍토성의 차이로 파악하고 조선적인 색채(원색)가 있다

고 보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연은 청명하여 색채의 선명도와 그 명량함을 중시해야하는 반면 일본은 습한 지역과 명확치 않은 사계절 구름이 많아 색채가 불투명하고 어둡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향토주의는 그림의 내용, 주제를 통해서가 아닌 색채, 즉 미의 형식만 강조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또 다른 한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선미술열등론, 민족정체론 등 식민사관이 팽배했던 당시 상황하에서 우리미술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조선적 인상주의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3. 기타 서양화단의 새로운 시도

1920년대부터 서양화단에는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아카데미즘이나 향토주의 미술과는 다른 서양화들이 제작되었다. 그중 가장 이른 시기의 주목할만한 화가는 주경(朱慶, 1905~1979)이다. 1920년대 다른 화가들이 아카데미즘과 인상파류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을 때 그는 고전파, 야수파, 입체파, 추상미술을 시도했다. 그의 작품 ‘파란’은 유기적 구성과 역동적 표현, 적·청·황색이 어우러진 색 표현, 무수한 곡선과 직선의 사용 등에서 세기 초의 미래파, 표현파가 갖는 비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로트렉이라 불리우는 구본웅(具本雄, 1906~1953)은 시인 이상의 친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유학을 통해 다양한 화풍을 접했던 구본웅은 일본에서 전위적 전람회에 출품한적이 있었고 귀국후에도 야수파, 표현주의 화풍을 구사하였다.

한국 초기 추상미술 또는 모더니즘을 이야기 할때 자주 비교되는 작가가 김환기(金煥基, 1913~1974)와 유영국(劉永國, 1916~2002)이다. 비슷한 연배의 두 작가 모두 일본유학을 통해 추상미술을 접하였다. 유영국은 귀국 후 서울대, 홍익대 교수로 활동하며 국전 심사위원장 등 요직을 역임한 반면 김환기는 광복 후 프랑스로 떠나 작가로서 일생을 보냈다. 김환기가 추상미술을 하면서도 조선적, 향토적 정체성을 찾는 작업들을 보여준 반면 유영국은 향토성을 거부하고 순수미술을 추구하였다. 특히 김환기의 <론도>는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일찍이 추상미술을 시도하여 근대서양화단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된다.

금속 공예

김 윤 정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금속공예

김윤정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목 차 ◆

1. 금속공예의 재료
2. 장신구
3. 불교 공예

1. 금속공예의 재료

금속은 단단하다는 특성 때문에 인류의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열을 가하면 가공이 쉽고, 가공 후에는 광택이 나는 특성이 있어 장신구를 제작하는 주재료로도 사용되어 왔다.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금속은 구리와 주석 합금인 청동이다. 그리고 철제 무기의 등장과 함께 청동은 점차 장신구와 그릇 등의 생활용품들로 제작되게 되었다. 금과 은은 광택이 아름답고 다른 금속에 비해 얇게 펴지고[展性], 잘 늘어나는 성질[延性] 덕분에 장신구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 이상의 금, 은, 구리, 주석, 철은 오금(五金)이라 하여 전통 금속공예의 주된 재료가 되었다.

금은 오금 중 으뜸으로 치는 금속이다. 금은 고대 국가의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재료여서 신분을 상징하는 여러 화려한 장신구들은 대개 금으로 제작되었다. 금속들 중 전연성(展延成)이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너무 물러서 다른 금속과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은도 무른편이어서 구리를 약간 섞기도 하는데, 이를 정은(正銀)이라고 한다. 은은 조선시대 장

신구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

구리[銅]는 주로 다른 금속물을 첨가하여 합금을 만들어 사용한다. 첨가물은 주로 주석이 되는데, 여기에 납, 아연, 금, 은 등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합금은 같은 물질을 첨가하더라도 비율에 따라 다른 색과 성질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기물들은 구리, 주석, 아연의 합금이다. 구리와 주석보다 용융점이 낮은 아연을 합금하는 기술로 인해 좀더 탄성력이 있어 쉽게 깨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고, 이는 구리와 주석만을 합금하여 만든 중국의 청동제품들과 구분되는 뛰어난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동이 많이 생산되어서 청동기 시대 이후에도 식기, 장신구, 불교공예품 등 많은 부분에서 구리합금 제품이 사용되었다. 청동은 구리에 6~25%의 주석을 넣어 녹여낸 것으로 주석 이외에 납 3~13%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리에 주석을 많이 배합할수록 은백색의 빛을 띠고, 반사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청동거울을 만들 때에는 주석 함량을 높게 하기도 한다. 백동(白銅)은 구리와 주석 함량이 반정도가 되는데, 이처럼 주석 성분이 많아지면 흰색을 띠어서 근세까지는 백동이라고 불렀다. 요즘에는 구리에 니켈을 배합한 합금을 백동으로 부른다. 유기(鍮器)는 구리 합금으로 만든 기물을 말한다. 따라서 구리와 주석 합금인 청동, 구리와 아연 합금인 황동, 구리와 니켈 합금인 백동 등이 그 재료가 된다. 아연과 니켈은 인체에 해로워 황동과 백동은 식기보다는 쏯대, 화로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검은 빛을 내는 오동(烏銅)은 구리에 금을 섞은 합금이다. 합금한 금속은 본래 붉은 빛을 내지만 기물이 완성된 후 마무리단계에서 인뇨(人尿)에 담가두면 검은 빛으로 변하며, 이를 오동이라고 부른다. 주로 흰색을 띠는 백동과 함께 대비되어 장식되도록 가공한다.

2. 장신구

장신구는 몸을 치장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작되었다.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많은 양의 화려한 금은제 장신구들이 출토되었는데,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그 종류와 형태, 매장 수량 등을 달리하였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금속공예와 보석 가공 기술이 한층 다양하게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화려한 장신구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또한 고려는 송원과의 교류로 인해 중국적인 색채를 띤 장신구들도 많아지고 더욱 다양화되었다. 고려의 발달된 장신구들은 조선초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성리학이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전시대의 화려한 장신구들이 보다 간소화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1) 비녀

비녀는 쪽을 지어 풀어지지 않도록 쪽머리에 가로질러 꽂는 장신구의 일종이다. 이는 머리를 수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면서 장식의 역할도 겸하였다. 비녀에는 잠(簪)과 차(釵) 두 종류가 있는데 잠은 원봉형(圓棒形)의 길쭉한 몸체에 비녀머리가 있는 것이고, 차는 긴 집게처럼 생긴 두 가닥 몸체 윗부분에 장식이 달린 것이다. 차는 고려시대까지 사용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잠이 널리 사용된 듯하다. 이는 조선시대의 머리스타일이 비녀가 필수적인 얹은머리와 쪽진 머리가 기본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쪽진 머리가 유행하면서 비녀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비녀의 재료를 보면 금, 은, 구리, 백동, 놋, 비취, 산호, 나무, 뽕, 뼈가 있다. 상류사회 양반 부인들은 옥, 은, 은칠보(銀七寶), 도금제(鍍金製) 비녀를 사용하였다. 순금 비녀의 사용은 왕족에 한했던 것이지만 상류층 부인 중 일부가 사용하기도 하였고, 기생에게도 금비녀 장식을 허용하였다.

비녀머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용, 봉황을 비롯하여 원앙, 물고기의 머리, 목련, 석류, 호도, 매화와 대나무 잎, 대마디, 말뚝, 국화, 연꽃, 송이버섯, 완두 등이 있다.

2) 장도

칼은 크게 검과 도로 나뉘는데 날이 양쪽으로 선 것을 검(劍), 한쪽에만 날이 있으면 도(刀)라고 부른다. 장도(粧刀)는 글자 그대로 몸을 치장하

는 칼이다. 고대 고분 출토품에 등장하는 과대장식 중에 그 모습이 등장해서 이른 시기에 장도와 같은 작은 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도는 생활 속의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종이를 자르거나 나무를 다듬고 과일을 깎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이후부터는 손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보다 장식성이 강조되어 절개를 상징하는 여인들의 노리개 장식 일부가 되면서 정교하고 화려한 장도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장도는 칼집을 갖춘 작은 칼로서, 노리개에 찬 것을 패도(佩刀)라 하고, 주머니 속에 지닌 것을 낭도(囊刀)라고 하였다. 장도의 종류는 칼자루와 칼집의 재료에 따라서 은장도(銀粧刀), 목장도(木粧刀), 옥장도(玉粧刀), 각장도(角粧刀), 죽장도(竹粧刀) 등으로 나뉘고, 장도에는 충절과 절개를 상징하는 문양을 주로 새겼다.

일반 장도뿐만 아니라 장도에 젓가락을 덧붙인 첨자도(簪子刀)가 유행하였는데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당쟁이 심했던 조선후기에는 사대부들이 음식에 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3) 노리개

노리개의 유래는 고려시대의 여인들이 허리띠에 찻던 금향낭(金香囊), 금방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신라의 허리띠에 달았던 장식품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노리개는 주체와 띠돈, 매듭, 술, 끈목 등으로 구성된다. 명칭은 묶인 노리개의 수에 따라 단작노리개, 삼작노리개로 부른다. 드문 예로 다섯 개의 노리개가 묶인 오작노리개도 있는데 이는 의식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주체의 형태는 동자를 비롯한 인물류, 박쥐, 나비, 원앙, 매미 등의 동물류, 가지, 포도, 고추, 호도 등의 식물류, 종, 장고, 방울, 버선 등의 기물류가 있는데 대체로 장수(長壽), 부귀다남(富貴多男), 제액(除厄), 부부 화합 등을 의미하는 것들이다. 수술은 쌍봉술과 낙지발술, 딸기술 등을 사용했는데, 주체 아래에 늘어뜨려 장식성을 더했다. 노리개는 계절과 옷의 색깔에 따라 혹은 의식의 경중을 가려서 찻으며 친가와 시가에서 예물로 받기도 하고 이것을 대대로 차녀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3. 불교 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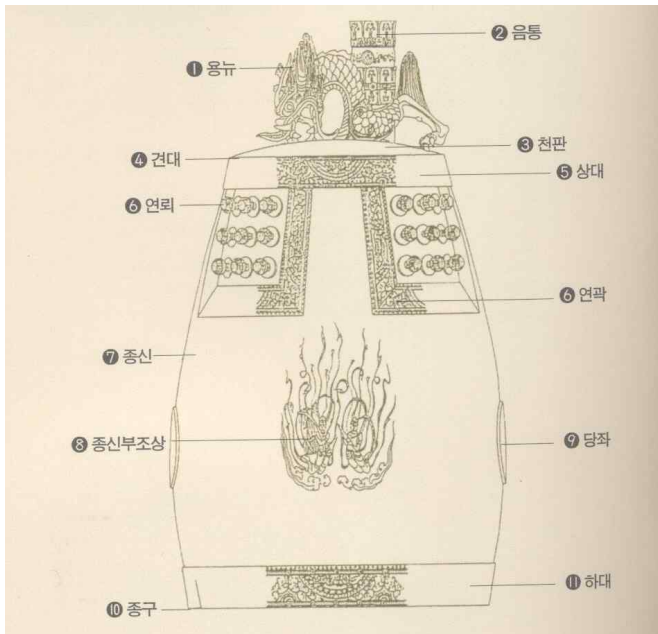
고대에는 주로 왕과 귀족들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한 무덤 부장용 공예품들이 많이 제작되었으나 불교가 유입되고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불교 관련 공예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불교 공예는 삼국시대 고분 금속공예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 발달된 제작 기술을 토대로 최고 기술이 집약되어 제작되었으며, 당시 최고 수준의 공예품이었다. 불교 공예품은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범음구, 공양구, 장엄구, 의식구, 승려의 지물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범음구는 부처의 말씀인 범음(梵音)을 냄으로써 대중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범종과 금고, 경자 등이 이에 속한다. 공양을 올릴 때 사용하는 공양구는 정병, 향로, 꽃병, 발우 등을 들 수 있다. 장엄(莊嚴)이란 아름답게 꾸며 장식함으로써 그 의미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는 의미로 장엄구(莊嚴具)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기물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리의 의미와 존엄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화려한 용기들은 사리 장엄구라고 하며, 사찰을 꾸미기 위한 단집이나, 기와 전돌 등도 사찰 장엄을 위한 장엄구로 볼 수 있다. 의식구는 불교의식 때 사용되는 도구들로 금강저나 금강령 등이 이에 속한다.

1) 범종(梵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공예 중 하나는 범종이다. 범종은 아침저녁의 예불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한다. 이렇게 범종을 울림으로써 범음(梵音)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처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어 신앙심이 고취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받는 중생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불교 이론은 철저한 수행을 강조한 소승불교와는 달리 대승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범종의 제작 역시 중국, 한국, 일본 등 대승불교권 국가들에서 제작되었다.

(1) 범종의 구조적 특징

범종의 몸체를 종신(鐘身)이라고 하는데, 종신의 외형은 윗부분이 좁고 배 부분이 볼록하다가 종의 다시 종구 쪽으로 가면서 점차 오프라들어 마



〈삽도〉 범종의 구조와 명칭

출전 : 최응천·김연수, 『금속공예』 (술, 2003)

치 항아리를 얹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종신의 가장 윗부분은 종각에 매달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고리가 있다. 이 손잡이는 주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 용뉴(龍紐)라고도 불린다. 용뉴의 목 뒷부분에는 우

리나라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긴 원통형의 음관(音管)이 달려 있는데, 이는 용통(甬筒), 음통(音筒)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용통은

속이 비어 있고 아래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이는 종을 칠 때, 격렬한 진동을 신속히 없애주는 동시에 소리의 일부를 공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른 음향은 오래 보존하고 불필요한 고주파는 신속히 제거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몇몇 예들은 음관의 바닥면에 구멍 없이 형태만 제작된 경우도 보이고 있어 음향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지속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리가 부착된 종신의 상부는 천판이라고 한다. 천판(天板)과 종신이 이어진 모서리부분은 연판문대가 돌아가며 시문되기도 했는데, 이를 견대(肩帶)라고 부른다. 연판문대가 솟아오르게 장식된 견대는 입상화문대라고 하며, 고려 후기 종의 특징이다. 종신 위아래는 문양대로 장식되어 있는데, 윗부분의 문양대를 상대(上帶), 아랫부분을 하대(下帶)라고 하며, 주로 연당초문(蓮唐草文)이나 보상화문(寶相華文)으로 장식된다. 그리고 조선으로 가면 범자(梵字) 장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대 아래로는 사각형의 연화장식의 문양대[蓮廓]가 4곳에 마련되어 있고, 연곽 안에는 9개씩의 연봉오리[蓮蕾] 장식이 튀어 나와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종의 특징으로 조선시

대까지 등장한다.

범종을 울리기 위해 종신을 때리는 도구를 당(撞)이라고 한다. 당으로 치는 종신의 부분은 당좌(撞座)라 하며, 연화형으로 장식하여 2곳에 마련한다. 당좌 사이에는 주악천인상(奏樂天人像), 공양자상(供養子像)으로 장식하거나 위패(位牌)모양을 두고 안에 명문(銘文)을 새겨 넣기도 한다.

(2) 시대별 범종의 특징

범종은 불교 전래 시기인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범종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소장된 범종이다. 이 유물은 용뉴와 음관, 상대와 하대, 연곽과 도드라진 연뢰 등 통일신라 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또 다른 예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덕대왕 신종이다.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이 부왕인 성덕왕을 위해 제작하던 것을 해공왕대에 이르러서야 완성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종신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본 상원사 종에서와 마찬가지로 용뉴와 음관, 상대와 하대, 연곽 등 통일신라 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이고 있으나 상원사 종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연곽 안의 연뢰는 돌출된 형태가 아니라 연꽃이 납작하게 표현되었다는 점, 종구(鐘口)가 능화(菱花)형의 곡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의 범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된다. 국내에 남아 있는 가장 이른시기의 고려 범종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통화 28년천홍사명종이다. 이 범종에는 이전과 다른 고려 범종의 새로운 특징이 보여 주목된다. 우선 용뉴와 음관이 지속적으로 표현은 되지만 이전의 예들이 용의 머리가 천판에 붙어 있던 것과 달리 고려시대가 되면 용의 머리가 천판에서 떨어져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종신의 당좌사이에 위패형으로 만든 명문곽 안에 명문을 새긴 점은 새로운 고려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용뉴와 음관, 연곽과 연뢰, 당좌, 공양자상의 모습 등은 통일신라의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고려 중기로 가면 전기에 나타났던 새로운 요소들이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녕 4년명종은 건대에 입상화문대가 표현되기 시작하며, 용뉴의 머리가 천판에서 완전히 떨어져 정면을 바라

보는 등 고려적인 특징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신에는 불좌상과 위패형의 명문곽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고려적인 요소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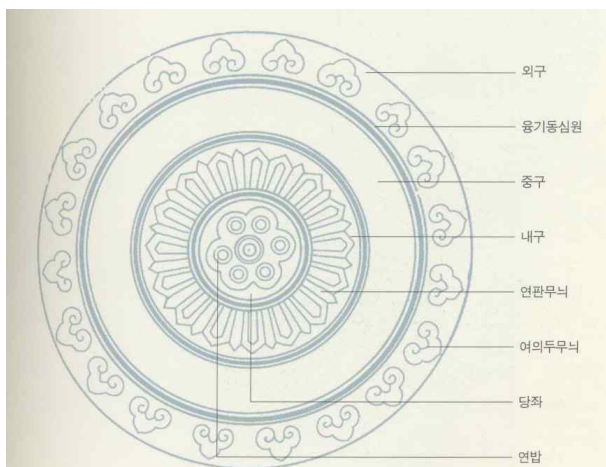
고려 후기는 상하대와 연곽에 돌아가는 연당초무늬, 연뢰와 당좌 주위의 연꽃잎 등이 중기의 범종들에서 보이는 것 보다 좀더 도식화된 경향을 보인다. 중기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입상화문대는 더욱 유행하며, 종신에는 불보살상들 사이로 육자진언(六字眞言)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3세기 종의 특징을 이룬다. 고려 말 원 간섭기가 되면서 중국 종의 영향이 보이기도 한다. 현재 개성 남대문루에 남아 있는 연복사 종은 원나라의 종장이 만들어 연복사에 걸었던 종으로 우리나라에 중국 종이 직접적으로 유입되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조선 범종은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이어져온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따른 전통형 범종 양식에 고려 말에 들어온 중국 범종의 양식이 반영된 모습이 혼재되어 전개된다. 강화도 고려궁지에 보관되어 있는 범종은 연곽과 연뢰, 연당초무늬로 장식된 상대와 하대 등에서 전통형 범종의 모습을 보이지만, 음관이 생략된 채 쌍룡으로 표현된 용뉴와 종신 중앙에 가로 방향의 도드라진 선을 두른 모습은 중국 종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전통형과 중국 종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 경기도 양주의 봉선사 종 역시 전통형 양식과 고려 범종 양식이 같이 보인다. 특히 종신에 보이는 보살상의 모습은 조선시대 불화에서의 보살상의 모습으로 시대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금고

금고(金鼓)는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을 때 사용한다. 범종 보다는 단순화된 용도로 사용하는 범음구이다. 금고의 형태는 주로 뒷면을 넓게 뚫어 공명구(共鳴具)를 이루게 한 것이 많은데, 고려시대에는 공명구가 좁아지거나 앞뒷면 모두가 막혀 있고, 측면에 공명구가 있는 형식이 보이기도 한다. 고면(鼓面)에는 당좌에 두세 줄의 동심원 돌을 띠를 둘러 구획해 놓는다.

가장 이른시기의 유물은 통일신라의 함통6년명(865) 금고로 통일신라의 유일한 예이기도 하다. 이 유물은 고면에 별 다른 무늬 없이 돌을 띠로만



<삽도> 금고의 구조와 명칭

출전 : 최응천·김연수, 『금속공예』 (솔, 2003)

구획 해 놓았는데, 고려시대로 가면 당좌에는 주로 연꽃잎을 배치하고 바깥쪽의 공간에는 운문(雲文)이나 여의두문(如意頭文)과 같은 무늬를 배치하기도 한다. 고려 후기로 갈수록 고면 전체에 빠짐없이 여러 무늬가 배치되며, 점차 도식화 경향을 보인다. 조선에 가서는 당좌구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고, 범자(梵字) 무늬가 새롭게 등장한다.

2011년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자료집

발행일 : 2011. 2.

발행인 : 서 관 석

발행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청량로 160번길 26

Tel. 032) 440-6733

Fax. 032) 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인 쇄 : 정우인쇄